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4 (Korean ECEC Panel Study)

배운진·이재희·양미선·조경진·이혜민·강민권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4 (Korean ECEC Panel Study)

## 저 자

배윤진, 이재희, 양미선, 조경진, 이혜민, 강민권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배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양 미 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조 경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혜 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강 민 권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연구협력진 임 병 찬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4-2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4  
(Korean ECEC Panel Study)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02) 2269-991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105-0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리말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한국 영유아의 삶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발달과 양육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2021년도 연구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도에 출생한 아동의 태아기부터 신생아기를 거쳐 영아기의 발달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즉, 본 연구는 아동의 가정 내 양육 환경, 부모의 내·외재적 요인, 교육·보육 기관에서의 경험, 그리고 정책 등의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생애 초기 성장·발달에 관한 횡단적·종단적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어떻게 성장·발달하는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육아정책 환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단순히 정책 연구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학문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교육·보육 환경의 변화와 이를 반영한 정책들이 미치는 영향과 부모들의 인식 및 요구를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면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임부시기부터 올해 3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조사에 참여해주신 패널가구의 부모님과 어린이집 담임교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조사 변인 구성,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실시와 결과 작성, 표본 가중치 산출 등에 자문해주시고,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2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

<b>요약</b>	<b>1</b>
<b>I. 서론</b>	<b>1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5
4. 연구설계 및 범위	18
<b>II. 3차년도(2024년) 사업</b>	<b>25</b>
1. 3차년도 조사절차 및 방법	27
2. 3차년도 조사내용	32
3. 제2회 학술대회 개최	39
4. 데이터 관리 및 패널 유지·관리	42
<b>III. 2차년도(2023년) 조사 결과</b>	<b>45</b>
1. 조사 개요	47
2. 아동 특성	56
3. 가정의 양육 환경	102
4. 교육·보육 환경	157
5. 지역사회 및 정책 환경	184
6. 소결 및 시사점	217
<b>IV. 2차년도(2023년) 심층조사 결과</b>	<b>225</b>
1. 심층조사 참가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227
2. 1세 영아의 생활시간	229
3. 1세 영아의 언어 발달	241
4. 부모-자녀 상호작용	244

---

---

<b>V. 향후 추진 방안 및 제언</b>	<b>249</b>
1. 향후 추진 방안 .....	251
2. 연구 제언 .....	255
<b>참고문헌</b> .....	<b>259</b>
<b>Abstract</b> .....	<b>261</b>
<b>부록</b> .....	<b>265</b>
부록 1. 패널 추가 표본추출 방안 .....	267
부록 2. 타 패널 조사 표본유지율 현황 .....	270
부록 3.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어머니 대상 조사 .....	274
부록 4.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아버지 대상 조사 .....	296
부록 5.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주양육자 대상 조사 .....	316
부록 6. 2차년도 심층조사 설문지: 주양육자 대상 조사 .....	342
부록 7.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어린이집 담임교사 대상 조사 .....	349
부록 8. 부록 표 .....	361

---



## 표 목차

〈표 Ⅰ-3-1〉 전문가 자문회의 및 동료멘토링 개요 .....	17
〈표 Ⅰ-4-1〉 기초조사 참여자 .....	20
〈표 Ⅰ-4-2〉 생후 1개월 및 1차년도 조사 참여자 .....	21
〈표 Ⅰ-4-3〉 2차년도 조사 참여자(1) .....	21
〈표 Ⅰ-4-4〉 2차년도 조사 참여자(2) .....	22
〈표 Ⅰ-4-5〉 추가 표집을 위한 기관 모집 개요 .....	23
〈표 Ⅰ-4-6〉 추가 표집을 위한 부모 조사 개요 .....	23
〈표 Ⅱ-1-1〉 가상 표본 현황(현재기준) .....	29
〈표 Ⅱ-1-2〉 가상 표본 현황(감소율 3% 기준) .....	30
〈표 Ⅱ-1-3〉 가구 유형별 표본 현황 .....	31
〈표 Ⅱ-2-1〉 3차년도 조사 영역: 아동 특성 .....	32
〈표 Ⅱ-2-2〉 3차년도 조사 영역: 부모 특성 .....	34
〈표 Ⅱ-2-3〉 3차년도 조사 영역: 가구 특성 .....	35
〈표 Ⅱ-2-4〉 3차년도 조사 영역: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 .....	37
〈표 Ⅱ-2-5〉 3차년도 조사 영역: 지역사회 특성 .....	38
〈표 Ⅱ-2-6〉 3차년도 조사 영역: 정책 특성 .....	38
〈표 Ⅱ-3-1〉 학술대회 일정표 .....	40
〈표 Ⅲ-1-1〉 1, 2차년도 조사 영역 및 변인 .....	48
〈표 Ⅲ-1-2〉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4
〈표 Ⅲ-1-3〉 가구 특성 .....	55
〈표 Ⅲ-1-4〉 패널아동 특성 .....	55
〈표 Ⅲ-1-5〉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6
〈표 Ⅲ-2-1〉 수면 특성 .....	57
〈표 Ⅲ-2-2〉 수면시간: 밤잠 시간 .....	58
〈표 Ⅲ-2-3〉 수면시간: 밤잠 중 깨는 횟수 .....	58
〈표 Ⅲ-2-4〉 수면시간: 낮잠 횟수 .....	59
〈표 Ⅲ-2-5〉 배변/씻기 특성 .....	60
〈표 Ⅲ-2-6〉 식생활 특성 .....	61
〈표 Ⅲ-2-7〉 이유식 시작 시기 .....	62
〈표 Ⅲ-2-8〉 일반식 시작 시기 .....	62

---

〈표 Ⅲ-2-9〉 식습관 .....	63
〈표 Ⅲ-2-10〉 평소 잇솔질 하는 시기(중복응답) .....	63
〈표 Ⅲ-2-11〉 디지털미디어 이용 여부 및 이용 시작 평균 월령 .....	64
〈표 Ⅲ-2-12〉 디지털미디어 이용 여부: 동영상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 .....	65
〈표 Ⅲ-2-13〉 디지털미디어 이용 시작 개월: 동영상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 .....	66
〈표 Ⅲ-2-14〉 디지털미디어 이용 일수 및 시간: 동영상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 .....	67
〈표 Ⅲ-2-15〉 디지털미디어 이용 주사용 디바이스: 동영상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중복응답) .....	67
〈표 Ⅲ-2-16〉 디지털미디어 이용 주사용 이유: 동영상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중복응답) .....	68
〈표 Ⅲ-2-17〉 디지털미디어 이용 여부: 게임, 놀이 .....	68
〈표 Ⅲ-2-18〉 디지털미디어 이용 시작 개월: 게임, 놀이(애니메이션, 유튜브) ..	69
〈표 Ⅲ-2-19〉 디지털미디어 이용 일수: 게임, 놀이 .....	70
〈표 Ⅲ-2-20〉 디지털미디어 이용 주사용 디바이스: 게임, 놀이(중복응답) .....	71
〈표 Ⅲ-2-21〉 디지털미디어 이용 주사용 이유: 게임, 놀이(중복응답) .....	71
〈표 Ⅲ-2-22〉 디지털미디어 이용 여부: 교육용 앱 활용 .....	71
〈표 Ⅲ-2-23〉 디지털미디어 이용 시작 개월: 교육용 앱 활용 .....	72
〈표 Ⅲ-2-24〉 디지털미디어 이용 일수: 교육용 앱 활용 .....	73
〈표 Ⅲ-2-25〉 디지털미디어 이용 주사용 디바이스: 교육용 앱 활용(중복응답) ..	74
〈표 Ⅲ-2-26〉 미디어 이용 주사용 이유: 교육용 앱 활용(중복응답) .....	74
〈표 Ⅲ-2-27〉 디지털미디어 이용 규칙 여부 .....	74
〈표 Ⅲ-2-28〉 디지털미디어 이용 규칙 잘 지켜지는지 여부 .....	75
〈표 Ⅲ-2-29〉 평소 아동 건강 .....	76
〈표 Ⅲ-2-30〉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 .....	77
〈표 Ⅲ-2-31〉 질환 진단 여부 .....	78
〈표 Ⅲ-2-32〉 장애 종류 및 정도 .....	79
〈표 Ⅲ-2-33〉 예방접종 .....	80
〈표 Ⅲ-2-34〉 아동 체중 .....	82
〈표 Ⅲ-2-35〉 아동 신장 .....	82
〈표 Ⅲ-2-36〉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에 따른 저신장 비율 .....	83
〈표 Ⅲ-2-3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에 따른 저체중 및 과체중 비율 .....	84
〈표 Ⅲ-2-38〉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에 따른 비만 비율 .....	85
〈표 Ⅲ-2-39〉 대근육운동 영역: 16~17개월 아동 .....	86

---

---

〈표 Ⅲ-2-40〉 대근육운동 영역: 18~19개월 아동 .....	87
〈표 Ⅲ-2-41〉 대근육운동 영역: 20~21개월 아동 .....	87
〈표 Ⅲ-2-42〉 대근육운동 영역: 22~23개월 아동 .....	88
〈표 Ⅲ-2-43〉 소근육운동 영역: 16~17개월 아동 .....	88
〈표 Ⅲ-2-44〉 소근육운동 영역: 18~19개월 아동 .....	89
〈표 Ⅲ-2-45〉 소근육운동 영역: 20~21개월 아동 .....	89
〈표 Ⅲ-2-46〉 소근육운동 영역: 22~23개월 아동 .....	89
〈표 Ⅲ-2-47〉 인지 영역: 16~17개월 아동 .....	90
〈표 Ⅲ-2-48〉 인지 영역: 18~19개월 아동 .....	90
〈표 Ⅲ-2-49〉 인지 영역: 20~21개월 아동 .....	91
〈표 Ⅲ-2-50〉 인지 영역: 22~23개월 아동 .....	91
〈표 Ⅲ-2-51〉 언어 영역: 16~17개월 아동 .....	92
〈표 Ⅲ-2-52〉 언어 영역: 18~19개월 아동 .....	92
〈표 Ⅲ-2-53〉 언어 영역: 20~21개월 아동 .....	93
〈표 Ⅲ-2-54〉 언어 영역: 22~23개월 아동 .....	93
〈표 Ⅲ-2-55〉 사회성 영역: 16~17개월 아동 .....	94
〈표 Ⅲ-2-56〉 사회성 영역: 18~19개월 아동 .....	94
〈표 Ⅲ-2-57〉 사회성 영역: 20~21개월 아동 .....	95
〈표 Ⅲ-2-58〉 사회성 영역: 22~23개월 아동 .....	95
〈표 Ⅲ-2-59〉 자조 영역: 18~19개월 아동 .....	96
〈표 Ⅲ-2-60〉 자조 영역: 20~21개월 아동 .....	96
〈표 Ⅲ-2-61〉 자조 영역: 22~23개월 아동 .....	97
〈표 Ⅲ-2-62〉 추가질문 결과 .....	100
〈표 Ⅲ-2-63〉 CBCL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	100
〈표 Ⅲ-2-64〉 영아 문제행동 .....	101
〈표 Ⅲ-2-65〉 내재화 문제행동 .....	101
〈표 Ⅲ-2-66〉 외현화 문제행동 .....	102
〈표 Ⅲ-3-1〉 부모 장애 여부 .....	103
〈표 Ⅲ-3-2〉 부모 장애 종류 .....	104
〈표 Ⅲ-3-3〉 부모 흡연 여부 .....	105
〈표 Ⅲ-3-4〉 최근 7일 내 간접흡연 여부 .....	105
〈표 Ⅲ-3-5〉 음주 습관 .....	106
〈표 Ⅲ-3-6〉 음주 습관: (음주하는 경우) 음주량 .....	107

---

---

〈표 Ⅲ-3-7〉 부모 만성질환 여부	107
〈표 Ⅲ-3-8〉 질병 가족력: 아버지	108
〈표 Ⅲ-3-9〉 임신 중 예방접종 여부: 어머니	109
〈표 Ⅲ-3-10〉 임신 중 접종 종류	109
〈표 Ⅲ-3-11〉 스마트폰 과의존: 아버지	110
〈표 Ⅲ-3-12〉 스마트폰 과의존: 어머니	111
〈표 Ⅲ-3-13〉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영역: 아버지	112
〈표 Ⅲ-3-14〉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영역: 어머니	113
〈표 Ⅲ-3-15〉 부모 그릿	115
〈표 Ⅲ-3-16〉 부모 자아존중감	117
〈표 Ⅲ-3-17〉 부모 일상 스트레스	118
〈표 Ⅲ-3-18〉 부모 우울: 아버지	120
〈표 Ⅲ-3-19〉 부모 우울: 어머니	121
〈표 Ⅲ-3-20〉 결혼 만족도	122
〈표 Ⅲ-3-21〉 부부 갈등	123
〈표 Ⅲ-3-22〉 아동의 주양육자	124
〈표 Ⅲ-3-23〉 (부모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 특성	124
〈표 Ⅲ-3-24〉 시간대별 주양육자	125
〈표 Ⅲ-3-25〉 보육·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발생 여부 및 월 평균 비용	126
〈표 Ⅲ-3-26〉 부모 양육행동	127
〈표 Ⅲ-3-27〉 부모 양육 스트레스	128
〈표 Ⅲ-3-28〉 부모 양육효능감: 아버지	129
〈표 Ⅲ-3-29〉 부모 양육효능감: 어머니	130
〈표 Ⅲ-3-30〉 양육 부담: 아버지	131
〈표 Ⅲ-3-31〉 양육 부담: 어머니	132
〈표 Ⅲ-3-32〉 어머니: 아버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 아버지 조사	133
〈표 Ⅲ-3-33〉 어머니: 아버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 어머니 조사	134
〈표 Ⅲ-3-34〉 사회적 지원 인원 유무	135
〈표 Ⅲ-3-35〉 사회적 지원 정도	135
〈표 Ⅲ-3-36〉 모유수유 여부 및 개월별 수유방법	136
〈표 Ⅲ-3-37〉 부모 취업 상태	138
〈표 Ⅲ-3-38〉 아버지·어머니의 출퇴근 소요시간	140
〈표 Ⅲ-3-39〉 아버지의 재택근무 일수: 최근 3개월	140

---



---

〈표 Ⅲ-3-40〉 어머니의 재택근무 일수: 최근 3개월 .....	141
〈표 Ⅲ-3-41〉 아버지의 월 평균 근로소득 .....	142
〈표 Ⅲ-3-42〉 어머니의 월 평균 근로소득 .....	143
〈표 Ⅲ-3-43〉 가구원 수(명) .....	144
〈표 Ⅲ-3-44〉 가구 형태 .....	144
〈표 Ⅲ-3-45〉 부모 동거 여부 .....	145
〈표 Ⅲ-3-46〉 부모 비동거 사유 .....	145
〈표 Ⅲ-3-47〉 다문화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및 귀화 여부 .....	145
〈표 Ⅲ-3-48〉 다문화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배우자에게 사용하는 언어 .....	146
〈표 Ⅲ-3-49〉 다문화 부모의 언어 구사 수준 .....	147
〈표 Ⅲ-3-50〉 의사소통 어려움 .....	148
〈표 Ⅲ-3-51〉 문화적응 .....	148
〈표 Ⅲ-3-52〉 가족의 문화수용성 .....	148
〈표 Ⅲ-3-53〉 가구 부채액 .....	149
〈표 Ⅲ-3-54〉 가구 부채 월 상환액 .....	150
〈표 Ⅲ-3-55〉 월 평균 가구지출: 항목별 .....	151
〈표 Ⅲ-3-5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여부 .....	151
〈표 Ⅲ-3-57〉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152
〈표 Ⅲ-3-58〉 현거주지 거주 이유 .....	155
〈표 Ⅲ-3-59〉 주거 면적(m <sup>2</sup> ) .....	156
〈표 Ⅲ-3-60〉 주거지 방 개수 .....	156
〈표 Ⅲ-3-61〉 아동 개인 방 여부 .....	156
〈표 Ⅲ-3-62〉 반려동물 여부 .....	156
〈표 Ⅲ-4-1〉 어린이집 재원 여부 .....	157
〈표 Ⅲ-4-2〉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 .....	158
〈표 Ⅲ-4-3〉 어린이집 돌봄/연장보육 이용 여부 .....	160
〈표 Ⅲ-4-4〉 부모-어린이집 담임교사 간 소통 정도 .....	160
〈표 Ⅲ-4-5〉 어린이집 행사 참여 정도: 부모 응답 .....	161
〈표 Ⅲ-4-6〉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	162
〈표 Ⅲ-4-7〉 반일제 이상 사교육 기관 이용 여부 .....	164
〈표 Ⅲ-4-8〉 반일제 이상 사교육 기관 이용 일수 .....	164
〈표 Ⅲ-4-9〉 반일제 이상 사교육 기관 이용 시간 .....	164
〈표 Ⅲ-4-10〉 반일제 이상 사교육 기관 이용 비용 .....	165

---

---

〈표 Ⅲ-4-11〉 기타 사교육 이용 여부(중복응답) .....	165
〈표 Ⅲ-4-12〉 기타 사교육 이용 일수 .....	166
〈표 Ⅲ-4-13〉 기타 사교육 이용 시간 .....	166
〈표 Ⅲ-4-14〉 기타 사교육 기관 이용 비용 .....	166
〈표 Ⅲ-4-15〉 기타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목적: 1순위 .....	166
〈표 Ⅲ-4-16〉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목적: 1+2순위 .....	167
〈표 Ⅲ-4-17〉 어린이집 특성 .....	169
〈표 Ⅲ-4-18〉 소속 어린이집 원장 리더십 .....	170
〈표 Ⅲ-4-19〉 반 형태 .....	170
〈표 Ⅲ-4-20〉 반 구성: 영아 수 .....	171
〈표 Ⅲ-4-21〉 교사 배치 .....	171
〈표 Ⅲ-4-22〉 현재 반 내 특수요구 및 취약계층 영유아 현황: 장애 및 발달지연 영아 .....	171
〈표 Ⅲ-4-23〉 현재 반 내 특수요구 및 취약계층 영유아 현황: 다문화 가정의 영아 .....	172
〈표 Ⅲ-4-24〉 현재 반 내 특수요구 및 취약계층 영유아 현황: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영아 .....	172
〈표 Ⅲ-4-25〉 교사 경력 .....	172
〈표 Ⅲ-4-26〉 교사 자격(중복응답) .....	173
〈표 Ⅲ-4-27〉 교사 전공 .....	173
〈표 Ⅲ-4-28〉 교사 근무시간 .....	174
〈표 Ⅲ-4-29〉 교사 소진 .....	174
〈표 Ⅲ-4-30〉 교사 자기효능감 .....	175
〈표 Ⅲ-4-31〉 교사 직무만족도 .....	177
〈표 Ⅲ-4-32〉 영유아 디지털미디어 사용 빈도 .....	179
〈표 Ⅲ-4-33〉 부모와 아이에 관한 내용으로 소통하는 정도 .....	180
〈표 Ⅲ-4-34〉 패널아동 부모가 기관에서의 아이 생활에 가지는 관심 정도 .....	181
〈표 Ⅲ-4-35〉 부모의 어린이집 행사 참여도: 교사 응답 .....	181
〈표 Ⅲ-4-36〉 패널아동 낮잠 여부 및 낮잠 시간 .....	182
〈표 Ⅲ-4-37〉 아동 기관적응 .....	183
〈표 Ⅲ-5-1〉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1) .....	185
〈표 Ⅲ-5-2〉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2) .....	186
〈표 Ⅲ-5-3〉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 .....	186

---

---

〈표 Ⅲ-5-4〉 아동 관련 기관/시설 충분성(1) .....	187
〈표 Ⅲ-5-5〉 아동 관련 기관/시설 충분성(2) .....	188
〈표 Ⅲ-5-6〉 육아지원정책 방향 .....	190
〈표 Ⅲ-5-7〉 육아지원제도 이용/인지 여부, 만족도, 중요도: 현금 .....	191
〈표 Ⅲ-5-8〉 육아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현금 .....	192
〈표 Ⅲ-5-9〉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금(1) .....	193
〈표 Ⅲ-5-10〉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금(2) .....	194
〈표 Ⅲ-5-11〉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금(3) .....	195
〈표 Ⅲ-5-12〉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금(4) .....	195
〈표 Ⅲ-5-13〉 육아지원제도 이용/인지 여부, 만족도, 중요도: 현물/바우처 ..	197
〈표 Ⅲ-5-14〉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 이용 만족도 .....	198
〈표 Ⅲ-5-15〉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물/바우처(1) .....	199
〈표 Ⅲ-5-16〉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물/바우처(2) .....	200
〈표 Ⅲ-5-17〉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물/바우처(3) .....	201
〈표 Ⅲ-5-18〉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물/바우처(4) .....	202
〈표 Ⅲ-5-19〉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물/바우처(5) .....	203
〈표 Ⅲ-5-20〉 육아지원제도 이용/인지 여부, 만족도, 중요도: 시간 .....	204
〈표 Ⅲ-5-21〉 (응답자가 취업 상태인 경우) 육아지원제도 이용/인지 여부: 시간	205
〈표 Ⅲ-5-22〉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육아휴직 .....	206
〈표 Ⅲ-5-23〉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7
〈표 Ⅲ-5-24〉 육아지원제도(시간) 중요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시간 외 근로 금지/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	209
〈표 Ⅲ-5-25〉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가족돌봄휴가 .....	211
〈표 Ⅲ-5-26〉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시차출퇴근제 .....	212
〈표 Ⅲ-5-27〉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선택근무제 .....	213
〈표 Ⅲ-5-28〉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재택근무제 .....	214
〈표 Ⅲ-5-29〉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원격근무제 .....	215
〈표 Ⅳ-1-1〉 심층조사 참여 아동 특성 .....	228
〈표 Ⅳ-1-2〉 심층조사 참여 부모 특성 .....	228
〈표 Ⅳ-1-3〉 심층조사 참여 가구 특성 .....	229
〈표 Ⅳ-2-1〉 생활시간 행동영역 분류 .....	230
〈표 Ⅳ-2-2〉 아동의 생활시간 .....	230

---

---

〈표 IV-2-3〉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개인유지 .....	231
〈표 IV-2-4〉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학습 .....	231
〈표 IV-2-5〉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대리양육이용 .....	232
〈표 IV-2-6〉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가정관리 돕기 .....	232
〈표 IV-2-7〉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교제 및 여가활동 .....	233
〈표 IV-2-8〉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이동하기 .....	233
〈표 IV-2-9〉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	234
〈표 IV-2-10〉 생활시간 행동영역별 동반자 .....	234
〈표 IV-2-11〉 생활시간 행동영역별 동반자: 주중 .....	235
〈표 IV-2-12〉 생활시간 행동영역별 동반자: 주말 .....	235
〈표 IV-3-1〉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표현날말(16~23개월) .....	241
〈표 IV-3-2〉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이해날말(16~17개월) .....	242
〈표 IV-3-3〉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제스처(16~17개월) .....	243
〈표 IV-3-4〉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문법(18~23개월) .....	244
〈표 IV-4-1〉 부모-자녀 상호작용 하위영역 .....	245
〈표 IV-4-2〉 부모 상호작용행동 영역(IFS-P) .....	245
〈표 IV-4-3〉 아동 상호작용행동 영역(IFS-C) .....	246

---



## 그림 목차

[그림 Ⅰ-4-1] 표본설계 단계 .....	18
[그림 Ⅰ-4-2] 2021~2023년도 조사 개요 .....	19
[그림 Ⅰ-4-3] 2021~2023년도 조사 참여자 현황 .....	22
[그림 Ⅱ-1-1] 3차년도 조사절차 .....	27
[그림 Ⅱ-1-2] 3차년도 조사 체계도 .....	28
[그림 Ⅱ-3-1]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공모 포스터 .....	40
[그림 Ⅱ-4-1] 데이터 설명회 포스터 및 발표 예시 .....	43
[그림 Ⅱ-4-2] 생일축하카드 이미지 .....	44
[그림 Ⅲ-1-1] 2차년도 조사절차 .....	47
[그림 Ⅲ-2-1] 디지털미디어 이용 여부 및 이용 시작 평균 월령 .....	64
[그림 Ⅲ-2-2] 질환별 의료기관·응급실 방문 비율 .....	77
[그림 Ⅲ-2-3] 질환별 진단 비율 .....	78
[그림 Ⅲ-2-4]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여부: 1~4차 검진 .....	81
[그림 Ⅲ-2-5]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 여부 .....	81
[그림 Ⅲ-2-6] K-DST 검사 결과 .....	97
[그림 Ⅲ-3-1] 부모 스마트폰 과의존 .....	114
[그림 Ⅲ-3-2] 부모 우울 .....	119
[그림 Ⅲ-3-3] 시간대별 주양육자 .....	125
[그림 Ⅲ-3-4] 보육·육아지원서비스 월 평균 비용 .....	126
[그림 Ⅲ-3-5] 부모 양육행동 .....	128
[그림 Ⅲ-3-6] 부모 양육 부담 .....	131
[그림 Ⅲ-3-7] 어머니: 아버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 .....	134
[그림 Ⅲ-3-8] 개월별 수유 방법 .....	137
[그림 Ⅲ-3-9] 아버지·어머니의 직업 분류 .....	138
[그림 Ⅲ-3-10] 아버지·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	139
[그림 Ⅲ-3-11] 아버지·어머니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 .....	139
[그림 Ⅲ-3-12] 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	144
[그림 Ⅲ-3-13] 월 평균 가구소득 .....	149
[그림 Ⅲ-3-14] 월 평균 가구지출 .....	151
[그림 Ⅲ-3-1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153

---

[그림 Ⅲ-3-16] 거주지역 유형 .....	153
[그림 Ⅲ-3-17] 주거 유형 .....	154
[그림 Ⅲ-3-18] 주택 점유형태 .....	154
[그림 Ⅲ-4-1]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월령) .....	159
[그림 Ⅲ-4-2]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	163
[그림 Ⅲ-4-3]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목적: 1+2순위 .....	168
[그림 Ⅲ-4-4] 기관적용 프로그램 실시 정도 .....	178
[그림 Ⅲ-4-5] 보육실 환경 .....	179
[그림 Ⅲ-4-6] 아동 기관적용 .....	184
[그림 Ⅲ-5-1]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	184
[그림 Ⅲ-5-2] 아동 관련 기관/시설 충분성 .....	187
[그림 Ⅲ-5-3]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	189
[그림 Ⅲ-5-4] 육아지원제도(현금, 현물/바우처, 시간) 만족도 및 중요도 .....	216
[그림 Ⅳ-1-1] 시간대별 주중 기관이용 비율 .....	237
[그림 Ⅳ-1-2] 시간대별 미디어이용 비율 .....	238
[그림 Ⅳ-1-3] 시간대별 실내놀이 비율 .....	239
[그림 Ⅳ-1-4] 시간대별 실외놀이 비율 .....	240
[그림 Ⅴ-1-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추진 방향 .....	252

---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인간의 생애 초기 성장·발달과 이를 둘러싼 환경 체계 즉, 부모를 포함한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 기관에서의 교육·보육 환경, 지역사회 및 정책 환경 등의 자료를 종단적으로 수집하여 축적하는 목적을 지님.
  - 본 연구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영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의 평가와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음.
- 2024년도에는 3차년도 조사를 수행하며, 2차년도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기초조사(2021-2022년도) 및 1차년도 조사(2022년도) 데이터를 공개하게 됨.
  - 기초조사 및 1차 조사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국내·외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서 역할을 함.
  -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2차년도 자료 분석
  - 3차년도 조사 실시
  -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원
  - 패널가구 관리 및 홍보
  - 향후 추진 방안 도출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조사 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 학술대회 및 데이터 설명회 개최

## 다. 연구범위

- 올해 3차년도 조사부터는 본조사에 해당하는 1, 2차년도 조사에 한 번 이상 참여한 표본을 조사 대상(유효표본)으로 정함.
  - 조사 대상(유효표본)은 2,840명 아동에 해당함.
  - 표본이탈율을 고려하여 436명을 추가 표집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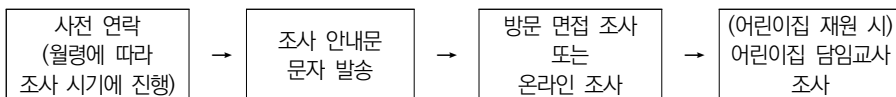
## 2. 3차년도(2024년) 사업

### 가. 3차년도 조사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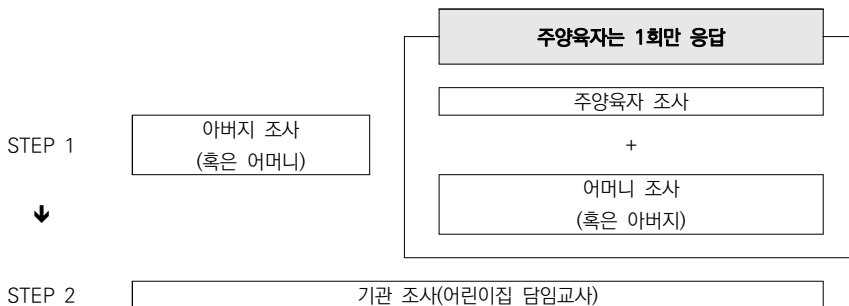
#### 1) 설문조사 절차 및 방법

- 올해 3차년도 조사는 유효표본 2,840명과 추가표본 436명을 대상으로 함.
- 조사의 절차 및 조사 체계는 [그림 1], [그림 2]와 같음.

[그림 1] 3차년도 조사절차



[그림 2] 3차년도 조사 체계도





## 2) 추가 표집 방안

- 본 패널 연구가 지속되는 2030년에 전체 표본의 65%가 남을 수 있도록 올해 436명을 추가로 조사하기로 함.
  - 전국 어린이집 명단을 표집틀로 활용하여 기관 협조를 구한 후 영유아 가구를 모집하고자 함.

## 나. 3차년도 조사내용

- 3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동 특성, 가정의 양육환경(부모 및 가구 특성), 교육·보육 환경(보육기관 및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및 정책 환경을 조사함.

[그림 3] 3차년도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아동 특성	일상생활, 건강, 신체 발달, 인지 및 언어 발달, 사회정서 발달
부모 특성	부부 및 가족관계 특성, 부모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 양육, 양육지원, 부모건강
가구 특성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물리적 환경 특성
교육·보육서비스 특성	학급(반) 특성, 교사 특성, 기관 특성과 운영의 질, 교육·보육과정, 부모참여 기관 외 사교육 특성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방향, 현금 지원, 현물/바우처 지원,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평가

## 다. 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영유아 교육·보육과 관련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패널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 2024년 8월 30일(금)에 개최하였으며, 총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라. 데이터 관리 및 패널 유지·관리

- 기초조사 데이터, 생후 1개월 및 1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공개하였음.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을 알리고 올해부터 첫 공개하는 데이터를 소개하고자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종단 조사를 위한 패널 유지·관리 활동으로 조사별 사례비 지급, 기념일 선물과 경품 추첨 행사를 제공하고 있음.

### 3. 2차년도(2023년) 조사 결과

#### 가. 아동 특성

##### 1) 일상생활

- 아동의 평균 밤잠 시간은 13.59시간이었으며, 85.2%의 아동이 하루 중 1회 낮잠을 잔다고 응답하였음.
- 디지털미디어 이용 시작 월령은 평균 12~14개월 사이였는데, 시작시기가 가장 이른 경우는 0개월로 나타나, 태어나자마자 디지털미디어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아동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에 대한 규칙이 있는 가구는 42.6%이며, 그들 중 규칙을 지킨다는 응답은 약 74.0%이었음.

##### 2) 아동 건강

- 이 시기 아동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가장 많이 하며, 그다음 사유는 소화계통 질환이었음.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필수예방접종인 경우 90% 이상이 접종을 하였으며, 영유아건강검진은 1, 2차는 80% 이상, 3차는 90% 이상 수검하였음.

##### 3) 발달 특성

- 아동의 평균 체중은 11.50kg, 평균 신장은 82.83cm이었음.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sup>1)</sup>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패널아동의 평균 체중은 평균 범위이거나 좀 더 높은 수치로, 신장은 평균 범위의 수치로 해석할 수 있음.

---

1)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소아청소년 성장도표, [https://knhanes.kdca.go.kr/knhanes/grtcht/dwnld/dtDtl.do?pg=1&st=&sb=1&menuId=20011002&dataNo=7\(2024. 10. 16. 인출\).](https://knhanes.kdca.go.kr/knhanes/grtcht/dwnld/dtDtl.do?pg=1&st=&sb=1&menuId=20011002&dataNo=7(2024. 10. 16. 인출).)

## 나. 가정의 양육 환경

### 1) 부모 건강

-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의 경우 대다수가 일반 사용자군에 속했지만,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도 약 10% 내외로 나타났음.
  -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미디어의 바람직한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캠페인이 필요함.

### 2) 심리적 및 관계적 특성

- 부모의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부모의 자아존중감, 그것과 같은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었음.
- 부모의 우울 수준은 주의가 필요하며, 양육 중인 부모를 위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부모가 일상생활에서의 우울감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겠음.
- 부모의 결혼 만족도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연령과 가구 소득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했음.

### 3) 양육 특성

- 아동의 주양육자는 주로 어머니로 보고되었음.
  -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9~16시까지 이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하원은 16~17시 경에 이루어져서 이 시간 즈음에는 조부모, 혈연/비혈연 육아 인력의 비율도 다소 높아지며, 저녁시간에는 아버지의 양육 비율이 높아짐.
- 양육 부담은 영아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신체적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부담 정도도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음.

### 4) 부모 근로 특성

- 아버지의 96.9%, 어머니의 50.9%가 취업 중이었음.
  -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평균 근로시간이 더 길고, 근로소득도 높았음.

## 5) 가구 특성

- 다문화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문화 어머니의 경우 의사소통 및 문화 수용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나 문화적응에 있어서는 한국 및 모국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편이었음.
- 패널가구의 현 거주지의 선택 이유에 대해서 아동의 출생순위,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다. 보육·교육 환경

### 1) 기관 이용 현황

- 어린이집에 다니는 패널아동은 61.2%이며, 시간제 보육은 37.7%가 이용하고 있어서 높은 어린이집 이용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사교육 기관 중 반일제 이상 기관은 0.9%의 아동이 이용하였으며, 비용은 월 평균 21만 1천원을 지불하고 있었음. 그 외 문화센터는 11.7%, 학습지와 개인교습은 각각 1.2%가 이용하고 있었음.

### 2) 어린이집 환경

- 패널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은 2.32대 1로 보고 되었음.
  - 재원 중인 패널아동의 79.6%는 어린이집에서 단일 연령반에 재원 중이며, 나머지는 혼합 연령반에 속하였음.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주중 근무시간은 평균 8.34시간이며, 주말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4.31일이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6.45시간이었음.
  - 보육교사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보육교사가 정서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정신건강 관리 지원, 수행하는 업무를 인정하는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임을 알 수 있었음.
- 보육현장에서 디지털미디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20.0%이었으며, 이용 빈도는 주당 평균 1.99회, 이용 시간은 회당 11.76분이었음.

### 3) 기관에서의 아동 생활

- 영아의 기관적응 정도는 4.20점(5점 척도)로 보고되었음.

#### 라.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 부모가 원하는 육아지원정책 방향은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기관에서의 육아지원기능 강화’ 순이었음.
- 현금 및 현물/바우처 지원제도 인식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인지비율이 높았음.
- 현금 지원 정책의 중요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출산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부모급여’였음.
- 현물/바우처 관련 육아지원제도 중 보육료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유아학비 등에 4.5점(5점 척도) 이상으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음.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율(90% 이상)에 비해 다른 시간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제도 이용률은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더 높았음.
  - 이용 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도는 아버지는 ‘시차출퇴근제’, 어머니는 ‘원격 근무제’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육아휴직’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음.

## 4. 2차년도(2023년) 심층조사 결과

### 가. 1세 영아의 생활시간

#### 1) 영역별 생활시간 사용

- 개인유지 영역에서는 수면, 개인관리, 식사 및 간식의 행위비율이 90% 이상이었으며, 학습영역에서는 학과 학습 외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주중과 주말

각각 59.7%, 59.2%이었음.

- 기관이용 시간은 평균 6시간 28분으로, 시간제 보육 이용 시간과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까지 이용 시간의 평균으로 여겨짐.
- 가정관리 돕기에 참여하는 영아는 주중에는 1.3%, 주말에는 4.8% 정도였음.
- 교제 및 여가 활동 중에서 실외놀이에 주중 44.6%, 주말 61.7%의 영아가 참여하고, 실내놀이에 주중 82.4%, 주말 92.4%의 영아가 참여하고 있었음.
  - 미디어 이용 비율은 주중 44.6%, 주말 63.7%이었으며, 행위 평균은 주중 56분, 주말 1시간 5분으로 주말에 다소 증가하였음.

## 2) 특성별 생활시간 사용

-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학습, 대리양육이용, 이동하기 등에서 남아보다 여아의 행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하는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으며, 이는 가정관리 행동을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기 때문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음.

## 나. 1세 영아의 언어 발달

- 표현날말 즉 어휘를 표현하는 능력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는 7.8%,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5.6%이었음.
-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아는 12.1%,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영아는 8.3%이었음.
  - 여아의 표현/이해능력 발달이 남아보다 다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다. 부모-자녀 상호작용

- 부모가 평가한 자신의 상호작용은 51.00점(총 84점 기준)이었으며, 아동의 상호작용행동 점수는 58.57점(총 100점 기준)으로 평가되었음.
  - 추후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5. 향후 추진 방안 및 제언

### 가. 향후 추진 방안

#### 1) 향후 조사 계획

- 조사내용에서 변화를 최소화하여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함.
  -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령기를 거치므로 그에 알맞은 조사내용을 반영함.
  - 부모 특성에서는 변인의 중요도나 활용성, 조사 참여율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인을 조사에서 제외하거나 매년 조사가 아닌 주기별 조사로 변경한 바 있음. 이 외에는 변화 없이 지속적인 조사가 수행됨.
  - 내년도(2025년) 4차년도 조사 시에는 올해까지의 조사내용을 유지하면서 보육연령 3세가 되는 2026년도 조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유보통합 등의 정책변화에 따른 조사대상이나 내용의 변화를 주의해야 함.
- 심층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부가조사나 면담조사를 통해 본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특정 시기에 다룰 수 있음.

#### 2) 패널 관리 계획

- 패널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전접촉 시에도 유선전화보다는 문자를 보내어서 웹상에서 간단히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이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인포그래픽과 카드뉴스 발간을 통해 패널 연구의 결과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패널 연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더불어 패널가구에게 육아정보나 정책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함.

- 생일문자처럼 패널아동의 부모를 격려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라포를 형성해나가는 방법이 필요함.
- 패널가구와 조사 참여 기관에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음.
- 자녀양육에 대한 주요 주제로 부모교육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나. 연구 제언

- K-DST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
- 패널아동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
- 부모와 자녀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
- 부모의 우울에 대한 연구
- 저소득 가구와 다문화 가구에 대한 연구
- 이탈집단 특성 분석 연구



# I

---

## 서론

---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연구설계 및 범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인간의 생애 초기 성장·발달과 이를 둘러싼 환경 체계 즉, 부모를 포함한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 기관에서의 교육·보육 환경, 지역사회 및 정책 환경 등의 자료를 종단적으로 수집하여 축적하는 목적을 지닌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영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의 평가와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2021년도 연구에서는 표본 설계와 더불어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임부 모집을 통해 기초조사 I 과 II를 실시하였으며(이정림 외, 2021), 2022년도 연구에서는 생후 1개월 조사와 1차 본조사(이하, 1차년도 조사)를 수행하였고(이정림 외, 2022), 2023년도 연구에서는 2차 본조사(이하, 2차년도 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배운진 외, 2023). 이 과정을 통해 태아기(임신기)부터 영아기를 포함하는 총 3개년의 자료가 구축되었다.

올해는 2022년에 출생한 패널아동이 2세가 되며,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3차 본조사(이하, 3차년도 조사)를 수행하는 해이다. 작년 2023년도에는 1차년도(2022년도) 조사 결과와 2008년 출생아 패널인 한국아동패널 초기 조사 결과 간의 비교를 통해 현시대 영아 가구 특성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배운진 외, 2023: 165-169). 즉, 부모의 연령과 학력, 어머니 취업 비율, 현재 자녀의 수(패널아동의 출생순위)나 이상 자녀 수에 대한 부모의 인식 등에서 한국아동패널아동의 부모와 본 패널아동의 부모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와는 다른 특성의 부모가 과거와는 다른 육아 정책 환경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부모의 자녀(패널아동)는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패널가구가 경험하는 정책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대두, 저출생과

어머니 취업 비율 증가 등의 이유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들과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육아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본 패널 연구의 대상 아동이 출생한 2022년부터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이 실시되어 그 혜택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이나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면 정책적으로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더불어 올해는 패널아동의 보육연령이 1세가 되어 다수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sup>2)</sup> 따라서 작년부터 시작한 기관 조사가 올해는 좀 더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패널아동이 경험하는 기관의 교육·보육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목적은 3차년도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기초조사 및 1, 2차조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더하여 태아기부터 영아기까지의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첫째, 기초조사 및 1차 조사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국내·외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둘째,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2. 연구내용

### 가. 2차년도(2023년) 조사 자료 분석

2023년도에 실시한 2차년도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나. 3차년도(2024년) 사업

#### 1) 3차년도 조사 실시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3차년도 조사를 실시한다. 패널아동의 발달 특성, 가정의 양육환경(부모 및 가구 특성), 교육·보육 환경(보육기관 및 육아지원서

---

2) 보육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1세(2021년생) 재원아동 수는 237,848명, 2021년생 총 인구수는 253,595명임(보건복지부, 2023. 12: 105, 282). 따라서 보육연령 1세의 어린이집 재원율은 93.8%로 추산됨.

비스 특성), 지역사회 및 정책 환경을 조사한다.

## 2)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원

첫째, 기초조사 I, II(2021~2022년도 실시), 생후 1개월 조사(2022년도 실시) 및 1차년도(2022년도 실시) 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개방하였다(2024년도 9월). 이를 위해 데이터를 검토하였으며, 질 문지, 사용자 지침서, 코딩북, 도구프로파일을 준비하였다.

둘째, 제2회 학술대회와 데이터 설명회를 통해 패널 연구를 알리고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였다. 앞서 말한 올해 개방 예정 데이터를 학술대회 발표자에게 선공개하여 학술 활동을 지원하였다.

## 3) 패널가구 관리 및 홍보

패널 조사의 유지를 위해 조사 대상인 패널가구를 관리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생일선물 발송, 경품 행사, 아동발달검사 결과 공유 등을 통해 패널가구를 관리한다. 또한 패널가구나 연구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웹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

## 다. 향후 추진 방안 도출

3차년도 조사 수행을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이나 조사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또한 중단데이터가 마련되었으므로 본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주제에 대해 제안하였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 연구

조사 연구의 설문지 개발을 위해 2세 아동의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기관 특성,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과 관련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 나. 조사 연구<sup>3)</sup>

### 1) 설문조사<sup>4)</sup>

주양육자 대상 가구 방문 면접/온라인 조사, 부모 대상 온라인 조사, 패널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의 교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주양육자 조사의 경우 가구 방문 면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 방문 면접 조사의 경우,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패널아동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태블릿 기반 면접 조사(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실시한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전화나 문자로 조사에 대해 안내 후 링크를 보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부모 대상 조사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조사 링크를 보내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패널아동인 경우, 주양육자 조사 시 어린이집 정보를 얻은 뒤 해당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2) 패널가구 추가 표집<sup>5)</sup>

본조사 대상자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패널가구를 추가 표집한다. 2022년 출생 아동의 어린이집 재원율이 90%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전국 어린이집을 통해 패널 조사에 참여할 436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

## 다. 전문가 자문회의

첫째, 조사내용의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동료멘토링을 실시하여 조사변인과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동발달검사도구의 사용과 검사 결과의 분석을 위해 전문가 1인을 연구협력진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패널 구축 시의 표본설계와 현 유효표본을 검토하고 추가 표집 방안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하였다.

---

3) 상세한 내용은 2장 1~2절에서 제시함.

4)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음(KICCEIRB-2024-제03호).

5) 상세한 내용은 2장 1절 및 부록에서 제시함.

셋째, 학술대회 발표 주제에 대해 유관 학회의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넷째, 착수보고회를 통해 수렴한 정부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 문항을 보완하였으며, 최종보고회에서는 주요 연구결과 및 추후 조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 및 동료멘토링 개요

차수	일자	대상	주요 내용
<b>전문가 자문회의</b>			
1차	2. 16.	학계전문가 1인 (통계)	- 표본 유지율 및 유효표본 검토 - 추가 표집 방안 논의
2차	4. 1.	학계전문가 2인 (아동가족)	- 2024년도 조사항목 검토 - 측정도구 검토
3차	4. 5.~4. 9.	학계전문가 2인 (아동가족)	- 2024년도 조사항목 검토
4차	4. 16.	학계전문가 2인 (아동가족, 유아교육)	- 2024년도 조사항목 검토
5차	6. 11.	학계전문가 1인 (통계)	- 추가 표집 방안 검토 - 추가 표집 실행안 논의
6차	6. 14.	학계전문가 2인 (아동가족, 유아교육)	- 학술대회 발표 주제 논의
7차	9. 25.	학계전문가 1인 (아동가족)	- 생활시간조사 결과 분석 방법 논의
8차	12. 9.~12. 13.	학계전문가 2인 (소아청소년과)	- 발달검사 결과 분석 내용 논의
<b>동료 멘토링</b>			
1차	5. 7.	원내 전문가 2인	- 2024년도 조사항목 검토

## 라. 학술대회 및 데이터 설명회 개최<sup>6)</sup>

첫째, 학술대회에서는 강연을 통해 아동 연구에 대한 관점이나 아동의 발달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 발표를 통해 다학제간 학술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술대회는 8월 30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둘째, 데이터 설명회 개최를 통해 본 연구를 소개하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여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sup>7)</sup>

6) 상세한 내용은 2장 3절에서 제시함.

7) 2024년 4월 12일 실시,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였으며 녹화본 공개 중임.

## 4. 연구설계 및 범위

본 연구의 수행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본 패널 연구 시작 당시의 표본설계와 이전년도 조사에서의 참여자 현황을 제시하였다.

### 가. 표본설계 개요

2021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를 설계하면서 표본설계는 [그림 1-4-1]과 같이 계획 및 실행되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의 산부인과를 추출한 후 해당 병원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산부인과에 방문한 임부를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임부 3,372명을 표집하였다.

[그림 1-4-1] 표본설계 단계

단계	주요 내용
↓	
최신 인구 총조사를 활용한 모집단 파악	통계청에서 2021년에 공표한 2019년도 출생·사망 통계 자료 활용 - 2019년 기준 출생아는 총 302,676명이었음. - 다문화 가구 출생아 수는 전체의 5.9%, 차상위 이하 가구는 전체의 1.7%이었음.
↓	
추출단위 및 표본추출 틀 확정	추출단위: 산부인과 병원 표본추출 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산부인과 요양기관 명부 - 분만 건수가 있는 의료기관 531개(전국 17개 시도 → 6개 권역)
↓	
표본 크기 설정	목표 표집 표본크기: 3,300~3,500명 - 다문화 및 저소득층 가구는 권역별 비례배분법 적용(각각 400가구)
↓	
층화 및 추출	층화 2단계 집락추출법 적용 - 1단계: 의료기관 추출(계통추출법 적용) - 2단계: 표본 의료기관에서 표본 신생아 선정
↓	
가중치 산출 및 모수 추정법 마련	층화, 다단계 표본추출, 불균등 확률추출 등이 사용된 복합표본설계 →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통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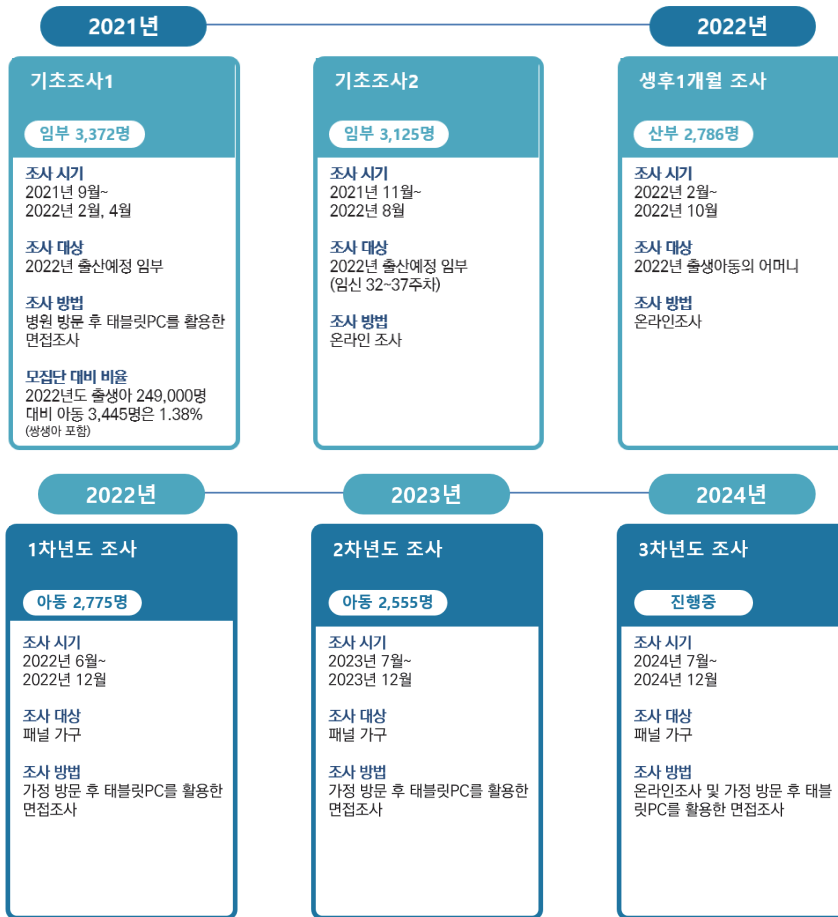
자료: 배윤진 외(2023).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육아정책연구소. p. 19.



## 나. 2021~2023년도 조사 개요

2021~2023년도에 실시한 기초조사 및 1차~2차년도 조사의 개요는 [그림 I-4-2]와 같다.

[그림 I-4-2] 2021~2023년도 조사 개요



### 1) 기초조사 참여자<sup>8)</sup>

임부 모집 당시에 전체 임부 대상으로 기초조사 I 이 실시되었으며, 임신 후반부

8) 배운진 외(2023).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육아정책연구소. p. 20.

(32~37주차)에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기초조사 II가 수행되었다. 기초조사 I에 참여한 임부의 수는 모집 인원과 동일한 3,372명이며, 다문화 가구는 94명, 저소득 가구는 72명이었다. 기초조사 II에 참여한 임부의 수는 3,125명으로 표집한 전체 임부 기준 92.7%이었으며, 다문화 가구 77명(94명 중 81.9%), 저소득 가구 67명(72명 중 93.1%)을 포함하였다.

〈표 I-4-1〉 기초조사 참여자

단위: 명(%)

권역	기초조사 I 참여자			기초조사 II 참여자		
	전체 가구	다문화 가구	저소득 가구	전체 가구	다문화 가구	저소득 가구
서울	517( 15.3)	21(4.1)	11(2.1)	497(96.1)	20( 95.2)	11(100.0)
경기/인천	1,034( 30.7)	28(2.7)	19(1.8)	977(94.5)	21( 75.0)	19(100.0)
대전/세종/충청/강원	365( 10.8)	9(2.5)	3(0.8)	328(89.9)	5( 55.6)	3(100.0)
대구/경북	409( 12.1)	5(1.2)	20(4.9)	379(92.7)	5(100.0)	18( 90.0)
부산/울산/경남	572( 17.0)	18(3.1)	12(2.1)	502(87.8)	13( 72.2)	9( 75.0)
광주/전라/제주	475( 14.1)	13(2.7)	7(1.5)	442(93.1)	13(100.0)	7(100.0)
합계	3,372(100.0)	94(2.8)	72(2.1)	3,125(92.7)	77( 81.9)	67( 93.1)

주: 2023년 12월 1일 기준임.

## 2) 생후 1개월 및 1차년도 조사 참여자<sup>9)</sup>

1차년도 조사 이전에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생후 1개월 된 시점에서 어머니 우울을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기초조사 I 과 II를 모두 응답한 3,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중에서 2,786명(89.2%)이 응답하였다.

전체 모집 임부 3,372명을 대상으로 출생 이후 4개월 시점에 수행된 1차년도 조사를 통해 쌍생아 73가구가 최종 표집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집계된 3,372가구에 쌍생아 수를 반영하면 3,445명의 아동이 조사 대상이었다. 생후 1개월 조사까지는 어머니(임산부)가 조사 대상이었으므로 어머니 수 즉, 가구 수를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본조사에 해당하는 1차년도 조사부터는 아동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 수를 산출하여 주양육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쌍생아 가구의 경우 아동 특성과 개별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문항은 아동마다 응답을 하게 된다.

전체 패널아동 3,445명 중 1차년도 주양육자 조사에 참여한 수는 2,775명

9) 배운진 외(2023).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육아정책연구소. pp. 20-21.

(80.6%)이었다. 1차년도 주양육자, 어머니 및 아버지 조사로 구성되었으며, 어머니 2,516명(74.6%), 아버지 1,653명(49.0%)이 각각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I-4-2〉 생후 1개월 및 1차년도 조사 참여자

단위: 명(%)

권역	생후 1개월 조사 참여자			1차년도 조사 참여자		
	전체	다문화	저소득	주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서울	387(93.5)	17( 94.4)	8( 88.9)	364(82.2)	330(76.7)	171(39.8)
경기/인천	938(89.2)	21( 95.5)	19( 90.5)	927(82.1)	784(70.4)	406(36.5)
대전/세종/충청/강원	312(91.2)	6(100.0)	3(100.0)	281(73.4)	244(64.2)	117(30.8)
대구/경북	345(92.7)	5(100.0)	13( 76.5)	317(76.0)	319(79.2)	185(45.9)
부산/울산/경남	431(85.9)	11( 84.6)	7( 77.8)	479(82.2)	480(84.2)	455(79.8)
광주/전라/제주	373(84.2)	10( 76.9)	8(100.0)	407(83.1)	359(75.4)	319(67.0)
합계	2,786(89.2)	70( 90.9)	58( 86.6)	2,775(80.6)	2,516(74.6)	1,653(49.0)

주: 1) 2023년 12월 1일 기준임.

2) 1차년도 조사에서 주양육자 조사는 쌍태아 포함 출생아 수(3,445명)를 분모로 활용하여 참여율을 산출하였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조사는 전체 가구 수(3,372가구)를 분모로 활용하여 참여율을 산출함.

### 3) 2차년도 조사 참여자

2023년도에 실시한 2차년도 조사에서는 2021~2022년도에 모집되었던 임부 기준 3,372가구에서 쌍생아(73가구)를 반영한 아동 수인 3,445명을 조사 목표로 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아동 수(주양육자 조사)는 2,555명이었으며, 어머니 조사에는 2,042명, 아버지 조사에는 1,473명이 응답하였다. 기관조사에서는 총 309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차년도 조사 참여 아동 2,555명은 전체 표집 아동 3,445명 대비 74.2%에 해당하며, 전년도인 1차년도 조사 참여 아동 2,775명 기준으로는 92.1%이다.

〈표 I-4-3〉 2차년도 조사 참여자(1)

단위: 명(%)

권역	조사 참여자			기관조사 참여자	
	주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어린이집 재원	기관조사 참여
서울	316(75.4)	230(56.7)	139(34.2)	199	43(21.6)
경기/인천	869(75.4)	625(55.0)	358(31.5)	560	69(12.3)
대전/세종/충청/강원	245(62.2)	234(59.8)	147(37.6)	120	26(21.7)
대구/경북	297(70.9)	259(64.0)	190(46.9)	195	51(26.2)

권역	조사 참여자			기관조사 참여자	
	주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어린이집 재원	기관조사 참여
부산/울산/경남	472(81.9)	406(72.1)	390(69.3)	256	48(18.8)
광주/전라/제주	356(73.6)	288(61.3)	249(53.0)	250	72(28.8)
합계	2,555(74.2)	2,042(60.6)	1,473(43.7)	1,580	309(19.6)

주: 1)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기준임.

2) 주양육자 조사는 쌍생아 수(73명)를 반영한 아동 수(3,445명)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산출하였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조사는 전체 가구 수(3,372가구)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산출함.

3) 기관조사 참여 비율은 어린이집 등원 아동 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표 I-4-4〉 2차년도 조사 참여자(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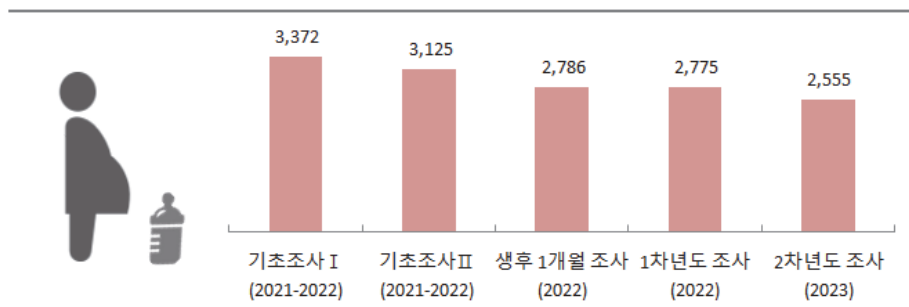
권역	가구유형별 조사 참여자		
	일반	다문화	저소득
서울	297(75.2)	13( 76.5)	7(87.5)
경기/인천	827(75.1)	27( 81.8)	17(81.0)
대전/세종/충청/강원	236(61.9)	8( 72.7)	2(66.7)
대구/경북	281(71.1)	6(100.0)	11(57.9)
부산/울산/경남	448(81.6)	18(100.0)	8(72.7)
광주/전라/제주	336(72.9)	13(100.0)	8(72.7)
합계	2,425(73.9)	85(86.7)	53(72.6)

주: 1)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기준임.

2) 가구유형별 조사 참여자는 주양육자 조사 기준임.

〈그림 I-4-3〉 2021-2023년도 조사 참여자 현황

단위: 가구, 명



주: 1) 2023년 12월 1일 기준임.

2) 기초조사 I, II 및 생후 1개월 조사는 어머니(가구) 수, 1, 2차년도 조사는 아동 수임.

자료: '배운진 외(2023).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육아정책연구소. p. 21'의 그림을 수정함.

### 다. 3차년도(2024년) 조사 대상의 범위

본 패널 조사를 위해 2021년도 기초조사 I에서부터 2023년도 2차년도 조사까지 총 5회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중 본조사인 1, 2차년도 조사에 한 번 이상 참여한 표본을 유효표본으로 정하고 3차년도 조사를 이어가고자 한다.

즉, 기초조사 I에서 총 3,372명의 임부가 모집되어 본조사 1, 2차년도에는 그 가구의 3,44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차년도부터는 본조사에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아동의 가구는 제외하고 2,840명의 아동을 유효한 표본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추가 표집하는 436명을 신규 조사 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진행한다. 추가 표집에 관한 개요는 <표 I-4-5>, <표 I-4-6>과 같다.

<표 I-4-5> 추가 표집을 위한 기관 모집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22년생 아동이 재원 중인 기관
표집틀	전국 어린이집 리스트 (2만 7천여 개소, 24년 8월 기준)
표본 설계	권역별/도시 규모별 조사 대상 연령 아동 수에 따른 비례배분
조사 규모	436개소 (1개소당 아동 1명 기준)
조사 방법	전화조사(CATI)

<표 I-4-6> 추가 표집을 위한 부모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 대상	2022년생 아동 부모: 기관 모집을 통해 협조를 얻은 어린이집 내 1세반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부모	다문화/저소득 가구 우선 모집
조사 규모	436명	
조사 방법	웹 조사(CAWI): 안내문을 통해 조사 참여 희망자가 자발적으로 조사 링크에 접속해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	



# II

## 3차년도(2024년) 사업

- 01 3차년도 조사절차 및 방법
- 02 3차년도 조사내용
- 03 제2회 학술대회 개최
- 04 데이터 관리 및 패널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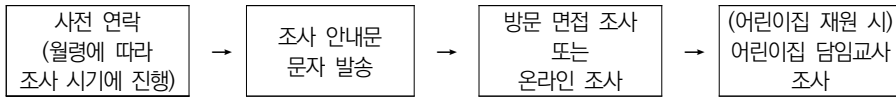
## II. 3차년도(2024년) 사업

### 1. 3차년도 조사절차 및 방법

#### 가. 설문조사 절차 및 방법

3차년도 조사는 유효표본 2,84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다.<sup>10)</sup> 조사절차는 [그림 II-1-1]과 같이 이루어졌다.

[그림 II-1-1] 3차년도 조사절차



#### 1) 사전 접촉

조사를 시작하기 전 6월부터 유선연락을 통해 사전 접촉하여 부모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조사를 안내하였다. 이 때 부모 중 누가 주양육자 조사에 응답할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이는 추후 주양육자 조사 링크와 어머니 또는 아버지 조사 링크를 대상자에게 함께 발송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양육자 조사를 방문 면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 중 어떤 형태로 응답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였다.

사전 접촉 시 조사를 소개하는 리플렛과 감사 편지 등을 담은 조사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여 조사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 담임교사 조사에 대해서도 안내함으로써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였다.

#### 2) 주양육자 조사

본 연구에서 주양육자는 낮 시간 동안 아동을 주로 돌보거나 양육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부와 모 중에서 한 명이 주양육자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10) 조사 결과는 2025년 보고서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주양육자 조사는 사전 유선연락 시 부모가 희망한 방법대로 실시하였다. 방문 면접 조사를 희망한 가구에는 조사원이 연락을 취하여 조사 일정을 정한 뒤 방문하여 태블릿 기반 면접조사(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조사를 희망한 가구의 부모에게는 온라인 조사 링크를 발송하였다. 단, 다문화 가구의 경우 각자의 언어에 맞는 설문지 번역본이 필요하고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이 아닌 방문 면접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온라인 조사를 희망하였으나 조사가 미루어지는 등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독려 전화와 더불어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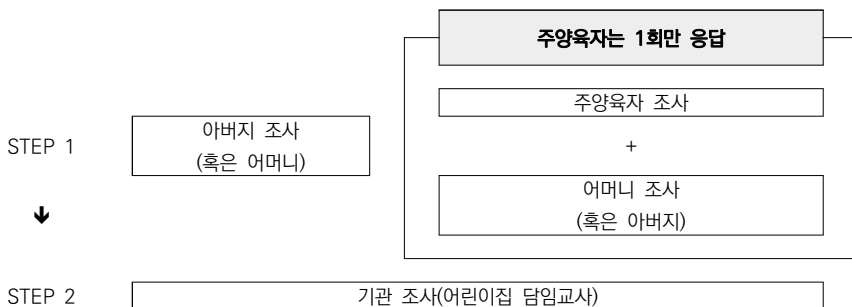
### 3) 부모 조사

주양육자인 부모에게는 주양육자 조사 후에 해당 부모 조사를 이어가도록 하였으며, 주양육자가 아닌 부모에게는 해당하는 조사 링크를 발송하여 온라인으로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전년도까지는 주양육자 조사와 부모 조사를 별개로 구성하여서 주양육자의 경우 두 번 조사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함께 진행함으로써 조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4) 기관 조사

주양육자 조사를 통해 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의 정보를 확인하고 어린이집 조사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어 해당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한 뒤 담임교사에게 온라인 조사 링크를 발송하였다.

[그림 II-1-2] 3차년도 조사 체계도



## 나. 추가 표집 방안

### 1) 추가 표집의 필요성 및 규모 추정

앞서 I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주양육자 조사 참여율은 전체 표본 3,445명 기준 74.2%이었다. 현재까지의 유지율과 2030년까지 본 패널 연구를 지속한다면 조사 참여자의 유지율이 어느 정도일지를 예측해보고 추가 표집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임부 모집 시기인 기초조사 I에서부터 2023년도 조사까지의 평균 표본 감소율은 6.06%이며, 이를 향후 매년 적용하면 2030년에는 1,125명의 표본이 유지된다(표 II-1-1 참조). 1,125명은 전체 표본의 33.37%에 해당하여 아주 낮은 수준이며, 통상적으로 표본 유지율이 전체 표본의 65% 정도일 때 추가 표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사만 지속하기보다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겠다.

〈표 II-1-1〉 가상 표본 현황(현재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	유지율	감소율
기초조사 I	3,372	100.00	-
기초조사 II	3,125	92.67	-7.33
생후 1개월	2,786	82.62	-10.05
제1차년도 조사(2022)	2,775	82.30	-0.33
제2차년도 조사(2023)	2,555	75.77	-6.52
제3차년도 조사(2024)	2,351	69.71	-6.06
제4차년도 조사(2025)	2,147	63.66	-6.06
제5차년도 조사(2026)	1,942	57.60	-6.06
제6차년도 조사(2027)	1,738	51.54	-6.06
제7차년도 조사(2028)	1,534	45.48	-6.06
제8차년도 조사(2029)	1,330	39.43	-6.06
제9차년도 조사(2030)	1,125	33.37	-6.06

주: 2차년도 조사 이후 유지율은 2차년도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평균 6.06% 감소율을 반영한 결과임.

하지만 본 패널의 조사 초기에 표본 유지율이 다소 낮았던 이유는 산부인과에서 임부를 접촉하여 모집한 후 가구방문조사로 전환하여 실시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신생아 가구를 방문해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아동패널을 비롯한 타 패널 조사의 표본 유지율을 검토해본 결과(부록 2 참조) 조사 초기에 비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율은 낮아지고 평균 3~4% 정도의

감소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평균 감소율인 6.06%를 매년 적용하기 보다는 향후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3% 정도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면서 다시 표본 현황을 산출해보았다. 그 결과 <표 II-1-2>에서와 같이 매년 평균 3%씩 감소하는 경우 2030년에는 1,847명이 최종 표본으로 남는다.

2030년에 최소 전체 표본의 65%인 2,192명이 남을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345명이 부족하다. 추가한 표집에서도 이탈은 일어날 것이므로 이들 역시 3%의 감소율을 적용하였을 때, 2024년도 올해에 436명이 추가로 조사에 참여한다면 최종적으로 65% 정도는 표본이 유지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표 II-1-2> 가상 표본 현황(감소율 3% 기준)

단위: 가구, %

구분	평균 3% 감소		
	전체	예상 추가표본	예상 전체표본
기초조사 I	3,372		
기초조사 II	3,125		
생후 1개월	2,786		
제1차년도 조사(2022)	2,775		
제2차년도 조사(2023)	2,555		
제3차년도 조사(2024)	2,454	<b>436</b>	2,890
제4차년도 조사(2025)	2,353	419	2,772
제5차년도 조사(2026)	2,252	402	2,654
제6차년도 조사(2027)	2,150	386	2,536
제7차년도 조사(2028)	2,049	371	2,420
제8차년도 조사(2029)	1,948	356	2,304
제9차년도 조사(2030)	1,847	345	2,192

주: 전체표본 수는 전체표본인 3,372명 대비 3% 감소한 값을 산출한 결과이며, 추가표본의 수는 전년도 대비 산출한 결과임(2,192명을 유지하기 위해 2030년에 필요한 345명을 기준으로 역산함).

한편, 본 패널 연구는 표본 설계 시 다문화 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과대표집(각각 400가구 씩)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표집 단계에서는 다문화 가구는 94가구, 저소득 가구는 72가구만이 포함되었다. 또한 <표 II-1-3>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 다문화 가구의 표본 감소율은 2.7%, 저소득 가구의 표본 감소율은 6.6%이었다. 다문화 가구의 표본 유지율이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전체 100가구가 되지 않는 수이며, 본 패널의 표본 설계 시 한국아동패널과는 차별적으로 다문화 가구와 저소득 가구 조사를 의미 있게 수행하고자 하였던 의도를 고려한다면 추가 표집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II-1-3〉 가구 유형별 표본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일반 가구			다문화 가구			저소득 가구		
	전체	유지율	감소율	전체	유지율	감소율	전체	유지율	감소율
기초조사 I	3,214	100.00	-	94	100.00	-	72	100.00	-
기초조사 II	2,988	92.97	-7.03	77	81.91	-18.09	67	93.06	-6.94
생후 1개월	2,665	82.92	-10.05	70	74.47	-7.45	58	80.56	-12.50
제1차년도 조사	2,590	80.58	-2.33	79	84.04	9.57	57	79.17	-1.39
제2차년도 조사	2,423	75.39	-5.20	84	89.36	5.32	53	73.61	-5.56
평균 감소율			-6.20			-2.70			-6.60

## 2) 추가 표집 설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모집단은 2022년도 출생아 249,000명이다. 2021년 본 패널 연구의 설계 당시에는 출생아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태내기 환경을 조사하려는 본조사의 목적 또한 고려하여 산부인과를 통해 표본을 추출한 바 있다. 즉, 당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산부인과 요양기관 명부(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모색되어 산부인과 요양기관 중 분만건수가 있는 의료기관 명부를 추출틀로 사용하였다(이정림 외, 2021: 115-117).

하지만 2024년도 현재에는 어린이집 재원율<sup>11)</sup>을 고려하였을 때, 어린이집을 표집틀로 선정하는 것이 2022년생 영유아 가구에게 접촉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표집 시에는 전국 어린이집 명단을 표집틀로 활용하여 기관 협조를 구한 후 영유아 가구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통한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을 경우 조사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패널을 통한 모집으로 보완하되 조사 권역별로 표집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어린이집을 통한 표집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명단 중 지역별로 무작위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협조를 구하여 조사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하였다. 이때 어린이집의 보육연령 1세반의 유무, 지역의 다문화 가구 분포 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표본추출 방안은 부록 1에 담았다.

11)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보건복지부, 2023. 12.), 1세 아동의 재원 비율은 93.8%이었음.

## 2. 3차년도 조사내용

### 가. 아동 특성

아동 특성으로는 <표 II-2-1>에서와 같이 1, 2차년도에 조사한 변인을 이어가면서 데이터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수면 및 일상생활 특성 문항(Gerald, 2007)은 패널아동의 연령에 맞게 2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기질 특성도 해당 월령에 알맞은 검사 도구(ECBQ: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임지영 외, 2017; Putnam, Gartstein, Rothbart, 2006)를 사용하였다.

추가된 문항은 ‘앉아있는 시간’, ‘미디어 이용 상호작용’ 및 ‘자폐스펙트럼장애’이다. 앉아있는 시간은 추후 아동의 건강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문항은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청, 2023: 12)를 참고하였다. 작년부터 디지털미디어 이용에 관한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디지털미디어 이용 시 성인과의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해부터는 해당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를 지속하고자 한다.

2세 아동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한 도구로는 1차년도 조사부터 사용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Korean Infants & Developmental Children Screening Test) 뿐만 아니라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선별하는 검사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M-CHAT-R(Modified Checklist for Autism in Toddlers-Revised)<sup>12)</sup>을 사용하였다. M-CHAT-R은 여러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K-DST가 선별검사이므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발달의 측면을 평가해볼 수 있으므로 조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표 II-2-1> 3차년도 조사 영역: 아동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		
일상 생활 특성	수면	수면시간(기상 및 취침 시간)		주양육자
		낮잠 횟수		주양육자
		밤중 깨는 횟수		주양육자

12) M-CHAT-R. <https://www.mchatscreen.com/> (2024. 4. 22. 인출).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			
	일상 활동	수면 특성(Developmental Profile)		주양육자	
		배변/씻기 특성(Developmental Profile)		주양육자	
		식생활 특성(Developmental Profile)		주양육자	
		식습관		주양육자	
			앉아있는 시간	주양육자	
	디지털 미디어	미디어 이용(노출) 시작 시기		주양육자	
		미디어 이용일/이용시간		주양육자	
		미디어 이용 이유/상황		주양육자	
		주 사용 기기		주양육자	
		미디어 이용 규칙		주양육자	
		미디어 이용 상호작용		주양육자	
	아동 건강	건강	평소 건강상태		주양육자
			구강 보건		주양육자
		검진 및 예방접종	예방접종 여부		주양육자
건강검진 수검 여부			주양육자		
구강검진 수검 여부			주양육자		
질병 및 치료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		주양육자	
		질환 진단 여부		주양육자	
장애		장애판정 여부		주양육자	
	장애 정도 및 유형		주양육자		
신체 발달	신체 특성	체중		주양육자	
		신장		주양육자	
	운동능력	대근육 운동(K-DST)		주양육자	
소근육 운동(K-DST)		주양육자			
인지 및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인지(K-DST)		주양육자	
		자조(K-DST)		주양육자	
	언어 발달	언어(K-DST)		주양육자	
사회 정서 발달	정서	기질(ECBQ)		주양육자	
	사회성	사회성(K-DST)		주양육자	
		자폐스펙트럼장애(M-CHAT-R)		주양육자	
	적응	영아 기관적응		교사	

## 나. 부모 특성

부모 특성은 개인 및 부부 특성, 부모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 양육, 양육지원, 부모의 건강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올해부터는 아동 연령 2세부터 측정 가능한 ‘부모-자녀 관계(애착, 훈육, 관여, 양육효능감, 좌절감 등)’ 도구를 추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대부분 변인이 지난 조사에 이어 연속성을 가지고 조사되지만, 조사의 목적, 변인의 중요도나 활용성, 조사 참여율 제고 등을 고려하여 그릿(거의 변하지 않는 개인의 성격 특성)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변인은 영아기에 조사되었으므로 올해 조사에서는 제외하였지만, 유아기 및 초등학령기에 다시 조사할 것이다. 올해 조사에서 추가되는 변인으로는 ‘가족 관계 만족도’, ‘삶의 만족도’, (취업자 대상) ‘일-가정 갈등’ 변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와 가족의 여러 측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2-2〉 3차년도 조사 영역: 부모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			
개인 특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생년월일)		부, 모	
		최종학력		부, 모	
		혼인상태		부, 모	
	근로 특성	취업/학업상태		부, 모	
		직종		부, 모	
		종사상 지위		부, 모	
		근로시간		부, 모	
		재택근무(+유연근무) 일수		부, 모	
		일-가정 갈등		부, 모	
		다문화 가족 특성	귀화여부		부, 모
	언어 구사 수준		부, 모		
	의사소통 어려움		부, 모		
	가정 내 사용 언어(배우자, 자녀)		부, 모		
	문화적응		부, 모		
	가족의 문화수용성		부, 모		
	심리· 정서적 특성	심리적 상태	자아존중감		부, 모
			우울		부, 모
			평소 스트레스		부, 모
			삶의 만족도		부, 모
가족생활		가족관계 만족도		부, 모	
양육	주양육자	시간대별 주양육자		주양육자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		
특성	양육 부담	양육/가사 부담		부, 모
	양육 특성	양육행동		부, 모
		양육 스트레스		부, 모
		부모-자녀 관계(아차, 훈육, 권여, 양육효능감, 좌절감 등)		부, 모
		양육 부담		주양육자
	후속 출산	후속 출산 여부		주양육자
수유	수유방법, 모유수유 중단시기 및 이유		어머니	
	이유식/일반식 시작 시기		주양육자	
양육 지원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 인원 사회적 지원 정도		주양육자
부모 건강	부모 건강	장애여부		부, 모
		장애 유형 및 정도		부, 모
		흡연 여부 및 습관		부, 모
		간접 흡연		부, 모
		음주 여부 및 습관		부, 모
		만성질환		부, 모
		체중, 신장		부, 모
	생활습관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부, 모

### 다. 가구 특성

가구 특성은 가구 특성은 1, 2차년도에 조사한 변인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조사하였다. 주거 환경의 경우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변동될 수 없으므로 이사여부를 확인 후 이전 조사에서의 응답값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조사의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의 안정성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II-2-3〉 3차년도 조사 영역: 가구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		
인구학적 특성	가구원	가구원 수		주양육자
		가구 구성 형태		주양육자
		부모-아동 동거 여부/비동거 이유		주양육자
		이사여부		주양육자
	주양육자 (부모 이외인)	주양육자-아동 관계		주양육자
		성별		주양육자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		
경제적 특성	경우)	연령		주양육자
		최종학력		주양육자
	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주양육자
		근로(사업)소득		부, 모
	지출	월 평균 가구지출		주양육자
		식비, 주거비, 의료비		주양육자
		자녀 교육·보육비		주양육자
	부채	부채 여부 및 부채액		주양육자
		부채 월 상환액		주양육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주양육자
차상위계층 여부			주양육자	
주관적 인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양육자	
물리적 환경 특성	주거환경	주택 점유형태		주양육자
		주거 유형		주양육자
		주거 공간		주양육자
		주거 면적		주양육자
		주거지 방 개수		주양육자
		현거주지 거주 이유		주양육자
		주거지역 특성		주양육자
	생활환경	반려동물 소유 여부		주양육자

## 라.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은 작년에 비해 올해 두 번째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패널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를 통해 기관의 현황이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조사하였다. 작년에도 이어 모든 변인을 조사하되, 영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경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사-아동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당 변인을 추가하였다.<sup>13)</sup>

13) 한국아동패널 > 도구프로파일 > 4차 [교육 및 돌봄(영유아)] 아동과의 상호작용,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39&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authKey=&search\\_type=title&search\\_text=&rowCount=10&viewPage=11\(2024. 4. 22. 인출\)](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39&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authKey=&search_type=title&search_text=&rowCount=10&viewPage=11(2024. 4. 22. 인출))

〈표 II-2-4〉 3차년도 조사 영역: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경험	이용 현황	이용 여부, 기관 이용 시작 시기		주양육자
		연장보육/돌봄 이용 여부		주양육자
	만족도	기관 이용 만족도		주양육자
교사 특성	교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교사	교사
		연령	교사	교사
		학력/전공	교사	교사
		경력	교사	교사
		현기관 근무기간	교사	교사
	교사 자격/최초자격	교사	교사	
	교사의 심리적 특성	소진	교사	교사
자기효능감		교사	교사	
직무만족도		교사	교사	
		교사-아동 상호작용	교사	
기관의 특성	기본 현황	기관 소재지	주양육자	주양육자
		유형, 연령별 학급(반) 현황, 영유아 수(연령별/학급(반)별), 교직원 현황, 운영시간(일일, 연중), 기관의 영유아 구성, 평가(인증)등급, 시설 현황 등	정보공시	정보공시
	기관 운영	기관장의 리더십 기관적응 프로그램 유무	교사	교사
학급(반) 특성	학급(반) 구성	반(학급) 연령 구성	교사	교사
		교사-영유아 비율	교사	교사
		특별한 요구를 지닌 영유아 수	교사	교사
	물리적 환경	교실환경	교사	교사
교육·보육 과정	디지털 미디어 사용	디지털미디어 사용 빈도	교사	교사
		디지털미디어 사용 시간	교사	교사
	바깥놀이	바깥놀이 빈도 바깥놀이 시간	교사	교사
부모참여	기관-가정 소통	기관-부모 소통 정도	주양육자, 교사	주양육자, 교사
	부모참여	기관 생활 관심도	교사	교사
		기관 행사 참여도	주양육자, 교사	주양육자, 교사
		기관 행사 인지도	주양육자	주양육자
기관 외 사교육	이용 현황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주양육자	주양육자
		사교육 스트레스 부모	주양육자	주양육자
		기타 사교육 이용 여부	주양육자	주양육자
		기타 사교육 종류	주양육자	주양육자
		기타 사교육 이용 목적(이유)	주양육자	주양육자
		이용 횟수/시간/비용(반일제 이상 기관/기타 사교육)	주양육자	주양육자

### 마. 지역 특성

지역사회 특성으로는 가구 소재지, 거주기간과 같은 일반적 특성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1차년도 조사부터 이어진 변인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표 II-2-5〉 3차년도 조사 영역: 지역사회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		
일반적 특성	가구 소재지	시·도		-
		도시규모		주양육자
	거주기간	현거주지 전입 시기		주양육자
지역사회 환경	지역사회 양육 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주양육자
		지역사회 양육 환경 만족도		주양육자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기관 충분성		주양육자

### 바. 정책 특성

정책 특성은 1차년도부터 향후 조사를 종료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변인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작년 조사 변인을 그대로 이어갔다. 다만, 정부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 상 의무사항인 임신부 시간외 근로금지, 야간 및 휴일 근로금지 제도에 대한 의견은 조사하지 않기로 하였다.

〈표 II-2-6〉 3차년도 조사 영역: 정책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		
육아지원 정책평가	방향성	육아지원정책 방향 우선순위		부, 모
		현금 지원 (인지여부,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아동수당	
	양육수당		주양육자, 부, 모	
	출산급여		주양육자, 부, 모	
	배우자 출산급여		주양육자, 부, 모	
	자녀장려세제		주양육자, 부, 모	
	부모급여		주양육자, 부, 모	
	공공요금 할인		주양육자, 부, 모	
	현물/바우처 지원 (인지여부,		첫만남 이용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주양육자, 부, 모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주양육자, 부, 모
		아이돌봄지원사업		주양육자, 부, 모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주양육자, 부, 모
		보육료		주양육자, 부, 모
		유아학비		주양육자, 부, 모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주양육자, 부, 모
		방과후 과정		주양육자, 부, 모
		다함께 돌봄/늘봄학교		주양육자, 부, 모
	시간 지원 (인지여부,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어머니 육아휴직		부, 모
		아버지 육아휴직		부, 모
		어머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 모
		아버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 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부, 모
		가족돌봄휴가		부, 모
		시차출퇴근제		부, 모
		선택근무제		부, 모
재택근무제		부, 모		
원격근무제		부, 모		

### 3. 제2회 학술대회 개최

패널 연구에서의 학술대회 개최의 목적은 영유아 교육·보육과 관련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정식 개방 전 학술대회용으로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 패널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24년 3월 중순 일반부문과 학생부문에 나누어 연구계획서 공모를 시작하였으며(그림 II-3-1 참조), 2024년 4월 22일(월)까지 연구계획서 공모 접수를 마감하였다.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총 24편으로, 일반부분 9편, 학생부분 15편이다.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내부 연구진의 심사를 거쳤으며, 연구계획서 제출자에게는 심사평가의견과 함께 데이터 및 일련의 자료들을 송부하였다. 2024년 7월 15일(월)까지 최종 원고 접수를 마감하고 이후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2024년 7월 31일(수)에 학술대회 발표 논문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위 절차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 논문은 총 17편이었으며, 제2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학술대회에서 구두(10편) 혹은 포스터(7편)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2024년 8월 30일(금)에 개최된 학술대회 일정표는 <표 II-3-1>과 같다.

[그림 II-3-1]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공모 포스터



주: (좌) 학술대회 연구논문 공모 포스터, (우) 학술대회 포스터

<표 II-3-1> 학술대회 일정표

시간	내용
10:00 ~ 10:30	• 등록
<b>1부: 개회식 및 강연</b>	
10:30 ~ 10:40	• <b>개회사</b> -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
10:30 ~ 10:40	• <b>축사</b> - 가정과삶의질학회 권혜진 학회장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 -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전명옥 센터장 -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10:40 ~ 10:50	• <b>대학원생 논문 시상</b>
10:50 ~ 11:00	• <b>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소개</b>
11:00 ~ 12:00	• <b>기조강연: 아이들에게 전해줄 행복 지혜</b>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
12:00 ~ 13:20	• <b>점심식사 및 휴식</b>
13:20 ~ 13:50	• <b>주제강연: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자료를 이용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의 협력 연구</b>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발달이사/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임병천 교수

2부: 논문 발표		
시 간	세션 1: 부모의 삶의 질과 정책지원 (가정과삶의질학회)	세션 2: 후속출산계획
14:00 ~ 14:50	<p>좌장: 권혜진(나사렛대학교 아동심리교육학과 교수, 가정과삶의질학회 회장)</p> <p>발표 1: 출산 전후 산모의 우울 변화궤적 유형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육아지원정책의 조절효과</p> <p>연구자: 천연미(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p> <p>토론자: 김유미(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p> <p>발표 2: 잠재계층모형(LCA)을 활용한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의 유형 분류: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차이</p> <p>연구자: 정혜린(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 장경환(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문민권(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p> <p>토론자: 서영민(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p>	<p>좌장: 황혜신(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한국아동학회 회장)</p> <p>발표 1: 머신러닝을 활용한 후속출산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 구축 및 네트워크 분석</p> <p>연구자: 엄연웅(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p> <p>토론자: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p> <p>발표 2: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양육 참여가 어머니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p> <p>연구자: 라지영(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 허가영(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p> <p>토론자: 박윤현(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p>
시 간	세션 3: 영아부모의 양육특성	세션 4: 부모의 우울
15:00 ~ 16:20	<p>좌장: 이지민(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p> <p>발표 1: 기계학습을 통한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수 탐색</p> <p>연구자: 권순보(한국교원대학교 시간강사)</p> <p>토론자: 김은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부연구위원)</p> <p>발표 2: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초산모의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 분류 및 예측 요인 탐색</p> <p>연구자: 김민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p> <p>토론자: 기쁘다(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p> <p>발표 3: 어머니 산전-후 우울이 아버지 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부부동반 자녀 양육교육으로 조절된 아버지 산후 우울의 매개효과</p> <p>연구자: 김다영(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p> <p>토론자: 노보람(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p>	<p>좌장: 이정림(前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p> <p>발표 1: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임신부의 우울 증상 변화 유형 및 양육 특성 분석</p> <p>연구자: 임정하(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최은경(고려대학교 생활과학과 아동학 전공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전공 박사수료)</p> <p>토론자: 김중임(한국모자보건학회 이사장)</p> <p>발표 2: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초산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그것과 양육 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p> <p>연구자: 권유정(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p> <p>토론자: 김경은(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p> <p>발표 3: 밀레니얼 세대 어머니의 출산 전후 우울궤적과 예측 요인 탐색</p> <p>연구자: 정부민(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 김미애(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p> <p>토론자: 안숙희(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p>



## 4. 데이터 관리 및 패널 유지·관리

### 가. 기초조사 및 1차년도 조사 데이터 관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는 제2회 학술대회 개최 직후(2024년 9월) 데이터 검증을 통해 기초조사 데이터와 생후 1개월 및 1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한 데이터는 출생 전 임부를 대상으로 조사된 기초조사 I, II와 출산 1개월 시점에서 조사된 생후 1개월 조사 그리고 향후 2030년까지 매년 추적·조사될 본조사 중 1차년도 조사 데이터이다.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 선택권을 높이고 편리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의 데이터는 조사 시기에 따라 분리된 개별 파일과 통합 파일도 함께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1차년도 조사의 경우 설문 대상에 따라 주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조사로 나뉘지게 된다. 이렇게 조사 대상별 조사된 데이터는 각각의 개별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결합한 통합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함께 제공하였다.

### 나. 데이터 설명회 개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을 알리고 올해부터 첫 공개하는 데이터를 소개하고자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아동패널과 공동으로 2024년 4월 12일(금)에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패널 조사와 데이터 등 자료 구성에 대한 소개와 함께 데이터 활용 실례를 다룬 특별강연을 준비하여서 패널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림 II-4-1] 데이터 설명회 포스터 및 발표 예시



주: (좌) 데이터 설명회 포스터, (우) 데이터 설명회 자료 중 일부

## 다. 패널 유지 관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에서는 중단 조사를 이어가기 위한 패널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다음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 1) 각 조사별 사례비 지급

어머니, 아버지, 주양육자 조사에 참여한 경우 참여 사례비를 상품권으로 제공한다. 다문화와 저소득 가구의 경우 패널 장기유지와 취약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가구에 비해 사례비 수준을 다소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가구에 한하여 연말에 추첨할 경품 응모권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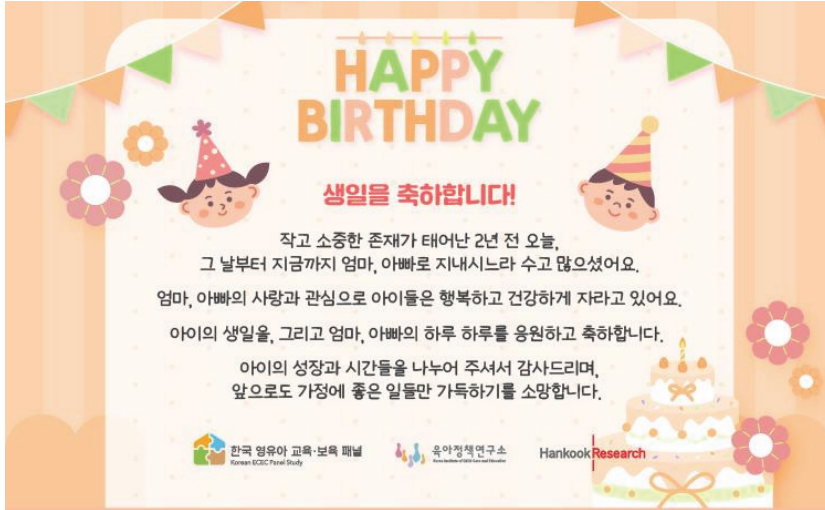
기관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답례로 제공한다.

### 2) 기념일 선물 및 경품 추첨 행사 제공

첫째, 조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생일 선물을 제공한다. 1차 조사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선물을 발송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패널아동의 첫 돌을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과 카드를 발송한 바 있다. 올해는 생일 당일에 생일축하카드와 부모를 위한 음료쿠폰을 문자로 발송하였다.

[그림 II-4-2] 생일축하카드 이미지



둘째, 조사를 모두 완료한 후인 2025년 1월 중에 경품 추첨 행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완료한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한다(당첨자 301명 예정). 당첨자 명단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조사 지연을 방지하고 조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동의 생일별 조기 참여자 추가 경품 이벤트를 계획하였다. 조기 참여자 대상 이벤트는 매월 말에 선정하고 있으며, 주양육자 조사와 부모 조사를 모두 완료한 가구를 위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당첨자 규모는 아동의 생일별 10% 내외 인원이다.

셋째, 다문화 및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 소정의 명절선물을 제공하였다.

# III

## 2차년도(2023년) 조사 결과

- 01 조사 개요
- 02 아동 특성
- 03 가정의 양육 환경
- 04 교육·보육 환경
- 05 지역사회 및 정책 환경
- 06 소결 및 시사점



### Ⅲ. 2차년도(2023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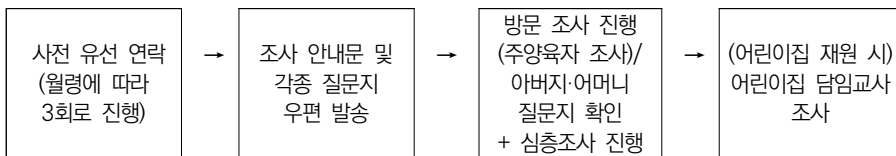
#### 1. 조사 개요

##### 가. 조사 절차 및 내용

2차년도 조사는 패널아동 3,445명의 가구를 표본으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다. 주양육자 조사는 가구방문을 통해, 부모조사는 우편물 혹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패널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 담임교사 대상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절차는 [그림 Ⅲ-1-1]과 같다.

1세(월령 약 16~23개월)가 된 패널아동 3,445명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55명의 주양육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어머니 조사에는 2,042명, 아버지 조사에는 1,473명, 기관(어린이집 담임교사) 조사에는 309명이 참여하였다.<sup>14)</sup>

[그림 Ⅲ-1-1] 2차년도 조사절차



주: 가구 방문 전 어머니/아버지 질문지, K-DST, 심층조사지를 우편으로 발송함.  
자료: 배운진 외(2023).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육아정책연구소. p. 25.

2차년도 조사내용을 1차년도 조사내용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Ⅲ-1-1>과 같다. 조사 영역은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교육·보육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14) 2차년도 조사 참여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I장에서 제시하였음.

〈표 III-1-1〉 1, 2차년도 조사 영역 및 변인

분야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변인명(측정도구)	1차	2차
아동 특성	일상생활 특성	수면	수면 환경	○	-
			수면 특성	○	○
			수면 시간(기상 및 취침 시간, 낮잠)	○	○
			밤중 깨는 횟수	-	○
		일상생활	배변/씻기 특성	○	○
			식생활 특성	-	○
			이유식/일반식 시작 시기	-	○
			식습관	-	○
		미디어	생활시간(심층조사)	-	○
			미디어 이용 시작 시기	-	○
			미디어 이용일/시간	-	○
			주 사용 기기	-	○
		미디어 이용 이유/상황	-	○	
		미디어 이용 규칙	-	○	
		신생아 건강	신생아 검사 및 결과 이상 유무	○	-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치료 여부	○	-
	건강 일반	평소 건강상태	○	○	
		구강보건	-	○	
	아동건강 특성	질병 및 치료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	○	○
			질환 진단 여부	○	○
		예방접종 및 검진	예방접종 여부	○	○
			건강검진 수검 여부	○	○
	장애	구강검진 수검 여부	-	○	
		장애 판정 여부	○	○	
		장애 정도 및 유형	○	○	
		신체 발달	신체 특성	두위	○
	체중			○	○
	신장			○	○
	운동능력		대근육 운동(K-DST)	○	○
		소근육 운동(K-DST)	○	○	
	인지 및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인지(K-DST)	○	○
			적응/자조(K-DST)	-	○
		언어 발달	언어(K-DST)	○	○
			의사소통발달(K M-B CDI, 심층조사)	-	○
	사회정서 발달	정서	기질(IBQ-R VSF)	○	-
		사회성	사회성(K-DST)	○	○
문제행동(K-CBCL 1.5-5)			-	○	
적응		영아 기관적응	-	□	

분야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변인명(측정도구)	1차	2차	
부모 특성	개인 특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생년월일)	●	●	
			최종학력	●	●	
			혼인상태	●	●	
			종교	●	-	
		근로 특성	취업/학업 상태	●	●	
			직종	●	●	
			종사상 지위	●	●	
			근로시간	●	●	
		다문화 가족 특성	재택근무 일수	●	●	
			출신국	●	●	
			귀화 여부	●	●	
			한국 거주 기간	●	●	
	심리 ·정서적 특성	심리적 특성	언어 구사 수준	●	●	
			가정 내 언어사용	-	●	
		성격	의사소통 어려움	-	●	
			문화적응	-	●	
		부부관계	가족의 문화수용성	-	●	
			자아존중감	●	●	
		양육 특성	주양육자	우울[K-EPDS(1차)/PHQ-9(2차)]	●	●
				평소 스트레스	-	●
	양육분담		성격	●	●	
			그릿	●	●	
	양육 특성		양육행동	결혼 만족도	●	●
				부부 갈등	●	●
		양육 특성	시간대별 주양육자	○	○	
			양육/가사 분담	○	●	
			아버지의 양육 참여	◐	-	
			양육 스트레스	●	●	
	양육 환경	양육효능감	-	●		
		자녀 가치	●	-		
후속출산 계획	양육 신념	양육 부담	-	●		
		상호작용행동(IBS, 심층조사)	-	○		
	모유수유 및 피부 접촉	가정환경의 질(K-IT+HOME)	○	-		
		이상 자녀 수	◐	-		
후속출산 계획	후속 출산 계획 여부 및 자녀 수	●	-			
	후속 출산 미계획 사유	◐	-			
모유수유 및 피부 접촉	후속 출산 계획의 주결정자	●	-			
	모유수유 계획, 모유수유 준비 내용	◐	-			
후속출산 계획	현재 모유수유여부, 개월별 수유 방법	◐	◐			



			구분	응답자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측정도구)	1차	2차		
	양육 지원		모유수유 중단 시기, 모유수유 중단 이유	●	●		
			출산 직후 모자 피부 접촉 여부	●	-		
			출산 후 첫 모유수유 시점	●	-		
			출산 후 24시간 이내 모유수유 미수행 사유	●	-		
		산후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		
			산후도우미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		
			산후조리원 모자 동실 이용 여부	●	-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	●	-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 인원	○	○		
			사회적 지원 정도	○	○		
		부모건강	임신-출산	분만 형태	●	-	
				출산 직전 임부 몸무게	●	-	
	임신 기간 신체적-정서적 활동			●	-		
	부모건강		만성질환	-	●		
			장애 여부	●	●		
			흡연 여부 및 습관	●	●		
			임신 중 흡연 여부	●	-		
			간접흡연	●	●		
			음주 여부 및 습관	●	●		
			임신 중 음주 여부	●	-		
	가족력		-	●(15)			
	생활습관		임신 중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 여부	-	●		
		임신 중 코로나19, 독감 등 백신 접종 여부	-	●			
	가구 특성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스마트폰 과의존	●	●	
가구원 수				○	○		
가구 구성원 형태				○	○		
부모-아동 동거 여부				○	○		
비동거 이유				○	○		
이사여부		-	○				
경제적 특성		주양육자 (부모 이외인 경우)	주양육자-아동 관계	월 평균 가구소득	○	○	
				근로(사업)소득	●	●	
				월 평균 가구지출	○	○	
				식비, 주거비, 의료비	○	○	
		소득	지출	부채 여부 및 부채액	자녀 교육·보육비	○	○
					부채 월 상환액	○	○
	부채 월 상환액				○	○	



분야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변인명(측정도구)	1차	2차	
교육 보육 서비스 특성	영유아 교육 보육 기관 경험	소득수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	○	
			차상위계층 여부	○	○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	
	물리적 환경 특성	주거환경	주택 점유형태	○	○	
			주거 유형	○	○	
			주거지역 특성	○	○	
			주거 공간	○	○	
			주거 면적	○	○	
			주거지 방 개수	○	○	
			현거주지 거주 이유	○	○	
	생활환경	반려동물 여부	○	○		
	교육 보육 서비스 특성	영유아 교육 보육 기관 경험	이용 현황	이용 여부, 기관 이용 시작 시기	-	○
				연장보육/돌봄 이용 여부	-	○
만족도			기관 이용 만족도	-	○	
교사 특성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	□	
			연령	-	□	
			현기관 근무기간	-	□	
			경력	-	□	
			교사 현자격/최초자격	-	□	
			학력	-	□	
			전공	-	□	
교사의 심리적 특성		소진	-	□		
		자기효능감	-	□		
		직무만족도	-	□		
기관의 특성	기본 현황	시·도, 도시규모	-	○		
		유형, 연령별 학급(반) 현황, 영유아 수(연령 별/학급(반)별), 교직원 현황, 운영시간(일 일, 연중), 기관의 영유아 구성, 평가(인증) 등급, 시설 현황 등	-	정보 공시		
	기관의 운영 및 질	기관장의 리더십	-	□		
		기관적응 프로그램 유무	-	□		
학급(반) 특성	학급(반) 구성	반(학급) 연령 구성	-	□		
		교사-영유아 비율	-	□		
	물리적 환경	특별한 요구를 지닌 영유아 수	-	□		
교육·보육 과정	영유아의 디지털미디어 사용	교실 환경	-	□		
		영유아 디지털미디어 사용 빈도	-	□		
	바깥놀이	영유아 디지털미디어 사용 시간	-	□		
		바깥놀이 빈도	-	□		



분야	구분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측정도구)	1차	2차	
	부모참여	기관-가정 소통	바깥놀이 시간	-	<input type="checkbox"/>	
			기관-부모 소통 정도	-	○/□	
		부모참여정도	기관 생활 관심도	-	<input type="checkbox"/>	
			기관 행사 참여도	-	○/□	
			기관 행사 인지도	-	○	
			기관 외 사교육	이용 현황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
	기타 사교육 이용 여부	-	○			
	기타 사교육 이용 목적(이유)	-	○			
	이용 횟수(반일제 이상 기관/기타 사교육)	-	○			
	이용 시간(반일제 이상 기관/기타 사교육)	-	○			
			이용 비용(반일제 이상 기관/기타 사교육)	-	○	
	지역 특성	일반적 특성	가구 소재지	시·도	○	○
				도시규모	○	○
		지역사회 환경	거주기간	주양육자의 현거주지 전입 시기	○	-
				지역사회 양육 환경에 대한 인식	○	○
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기관			지역사회 양육 환경 만족도	○	○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기관 충분성	○	○	
정책 특성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방향	방향성	육아지원정책 방향 우선순위	●	●	
		필요성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지원정책 필요도 평가	●	-	
	육아지원정 책평가	현금 지원 (인지여부,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아동수당	○	○/●	
			영아수당	○	-/●	
			양육수당	○	○/●	
			출산급여	○	-/●	
			배우자 출산급여	○	-/●	
			근로장려세제	○	-/●	
			자녀장려세제	○	○/●	
			부모급여	-	○/●	
		공공요금 할인	-	○/●		
		현물/바우처 지원 (인지여부,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첫만남 이용권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	
			아이돌봄지원사업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	
			보육료	-	○/●	
			유아학비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			

구분				응답자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측정도구)	1차	2차
			방과후 과정	-	○/●
			다함께 돌봄/늘봄학교	-	○/●
		시간 지원 (인지여부,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어머니 육아휴직	●	●
			아버지 육아휴직	●	●
			어머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아버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시간외 근로금지	●	●
			야간 및 휴일 근로제한	●	●
			가족돌봄휴가	●	●
			시차출퇴근제	●	●
			선택근무제	●	●
			재택근무제	●	●
			원격근무제	●	●

주: ○ 주양육자, ● 아버지 어머니 모두, ● 아버지, ● 어머니, □ 어린이집 담임교사  
 자료: 배운진 외(2023).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육아정책연구소. pp. 32-33, 36-37, 38-42.

### 나. 조사 참여자 특성

2차년도 어머니, 아버지 및 어린이집 담임교사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패널가구 특성, 패널아동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41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6.73세이었다. 어머니의 52.3%는 취업 중(휴직자 포함)으로 1차년도 조사 결과인 50.9%에 비해 1.4%p 증가하였으나(배운진 외, 2023: 56) 출산 전의 취업 비율인 56.4%(이정림 외, 2022: 79)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휴직자는 전체의 10.7%로 나타나 패널아동이 1세이었던 1차년도(휴직자 37.9%)에 비해 복직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 중 19.8%가 지난 1년간<sup>16)</sup>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특성은 <표 III-1-2>와 같다.

15) 부모건강 중 가족력의 경우, 어머니 가족력은 2021년에 수행된 임부 대상 기초조사 II를 통해 수집되어(이정림 외, 2022: 76, 95-96), 2차년도 본조사에서는 아버지 가족력만 조사하였음.

16) 아버지의 경우, 현재 휴직 여부가 아닌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휴직 여부를 조사함.

〈표 III-1-2〉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2042)	전체	100.0 (1473)
어머니 연령		아버지 연령	
25세 미만	1.3 ( 27)	25세 미만	0.5 ( 8)
25~30세 미만	9.3 ( 189)	25~30세 미만	4.6 ( 68)
30~35세 미만	41.7 ( 852)	30~35세 미만	26.8 ( 394)
35~40세 미만	36.4 ( 744)	35~40세 미만	43.8 ( 645)
40세 이상	11.3 ( 230)	40세 이상	23.8 ( 350)
		무응답	0.5 ( 8)
평균(표준편차)	34.41세(4.17)	평균(표준편차)	36.73세(4.84)
어머니 최종학력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9 ( 305)	고졸 이하	18.6 ( 274)
전문대(기능대학)	18.5 ( 377)	전문대(기능대학)	16.0 ( 236)
대학교	57.1 (1165)	대학교	56.8 ( 837)
대학교 이상	9.6 ( 195)	대학교 이상	8.6 ( 126)
어머니 취업 여부		아버지 취업 여부	
취업 중	52.3 (1067)	취업 중	97.0 (1429)
출산 후 복지 및 취업	41.6 ( 849)	육아휴직 이용	19.8 ( 283)
휴직 중(육아휴직+기타휴직)	10.7 ( 218)		
학업 중	1.0 ( 21)	학업 중	0.1 ( 2)
미취업/미취학	46.7 ( 954)	미취업/미취학	2.9 ( 42)
어머니 근로소득		아버지 근로소득	
없음	47.6 ( 975)	없음	3.0 ( 44)
100만원 이하	5.1 ( 104)	100만원 이하	0.3 ( 5)
101~300만원	34.1 ( 696)	101~300만원	31.5 ( 464)
301~500만원	10.9 ( 222)	301~500만원	51.3 ( 756)
501~700만원	1.1 ( 22)	501~700만원	9.0 ( 133)
701~900만원	0.4 ( 8)	701~900만원	2.1 ( 31)
901만원 이상	0.7 ( 15)	901만원 이상	2.7 ( 40)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어머니/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 가구 중에서 저소득 가구는 53가구(2.1%), 다문화 가구는 85가구(3.3%)이었다. 맞벌이인 경우는 51.6%이었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50.4%가 301~500만원, 21.0%가 501~700만원에 해당하였다.

〈표 III-1-3〉 가구 특성

단위: %(가구)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2555)	전체	100.0(2555)
부모 결혼상태*		부모 결혼기간**	
유배우	98.9(2021)	1년 이하	0.0( 0)
별거	0.2( 4)	2~3년	21.8( 442)
이혼	0.7( 15)	4~5년	33.4( 677)
사별	0.1( 1)	6년 초과	44.3( 897)
미혼	0.1( 1)	모름/무응답	0.5( 9)
저소득층 여부		지역 규모	
저소득층 아님	97.0(2502)	대도시(광역시/동)	38.2( 976)
저소득층임	2.1( 53)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7.5(1213)
다문화 가구 여부		읍·면	14.3( 366)
다문화 가구 아님	96.7(2470)	가구소득	
다문화 가구임	3.3( 85)	300만원 이하	16.6( 424)
맞벌이 여부***		301~500만원	50.4(1288)
맞벌이	51.6( 741)	501~700만원	21.0( 537)
맞벌이 아님	48.4( 694)	701만원 이상	12.0( 30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어머니/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어머니 조사에 응답한 2,042명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3) \*\*유배우와 별거에 응답한 2,025명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4)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35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2023년도 조사 시점에 아동의 월령은 16~23개월에 분포하고 있으며, 18~19개월 아동이 34.0%, 20~21개월 아동이 27.0% 등이었다. 남아는 50.2%, 여아는 49.8%이었으며,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가 61.3%로 가장 많았고, 둘째는 31.4%, 셋째 이상은 7.3%이었다.

〈표 III-1-4〉 패널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2555)	아동 성별	
아동 월령		남	50.2(1283)
16~17개월	20.3( 519)	여	49.8(1272)
18~19개월	34.0( 869)	출생순위	
20~21개월	27.0( 690)	첫째	61.3(1567)
22~23개월	18.7( 477)	둘째	31.4( 801)
		셋째 이상	7.3( 187)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패널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조사에서 나타난 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자 교사였으며, 40세 이상이 약 73% 이상이었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43.7%, 대학교 졸업이 29.8% 등이었다.

〈표 III-1-5〉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309)	전체	
성별		교사 학력	
남자	0.6( 2)	고졸 이하	11.3( 35)
여자	99.4(307)	전문대(3년제 이하) 재학	7.4( 23)
연령		전문대(3년제 이하) 졸업	43.7(135)
30세 미만	11.0( 34)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	1.3( 4)
30세~40세 미만	14.9( 46)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29.8( 92)
40세~50세 미만	46.0(142)	대학원 재학	1.3( 4)
50세 이상	27.8( 86)	대학원 졸	5.2( 16)
무응답	0.3( 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2. 아동 특성<sup>17)</sup>

2절에서는 아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일상생활(수면 특성, 기본생활, 미디어 생활), 아동 건강(건강 상태, 장애,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발달 특성(신체 발달, K-DST 검사 결과, CBCL 검사 결과)으로 나누어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 가. 일상생활

#### 1) 수면 특성

아동의 수면 특성으로 수면 특성(습관) 및 수면시간을 알아보았다.

먼저, 수면 특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밤새 10~12시간 잔다’ 4.00점, ‘잠잘 때 자주 인형, 책, 애착 담요를 달라고 한다’ 2.97점, ‘낮잠을 자지 않은 날은 저녁을 먹다가 잠이 들기도 한다’ 2.80점, ‘가끔은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 2.61점으로 동의 정도를 보고하였다. 이는 1세 영아에게 나타나는 수면 특성이 보

17) 2~5절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통 이상의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월령,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낮잠을 자지 않은 날은 저녁을 먹다가 잠이 들기도 한다’, ‘가끔은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 ‘잠잘 때 자주 인형, 책, 애착 담요를 달라고 한다’의 경우 월령이 높을수록 그러하다는 동의 정도가 높았다. ‘잠잘 때 자주 인형, 책, 애착 담요를 달라고 한다’에 대해 여아가 남아보다, 출생순위가 첫째나 둘째가 셋째 이상인 경우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표 III-2-1〉 수면 특성

단위: 점(명)

구분	밤새 10~12시간 잔다		낮잠을 자지 않은 날은 저녁을 먹다가 잠이 들기도 한다		가끔은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		잠잘 때 자주 인형, 책, 애착 담요를 달라고 한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00	0.87	2.80	1.14	2.61	0.98	2.97	1.29	(2555)
아동 월령									
16~17개월	4.04	0.93	2.77 <sup>a</sup>	1.24	2.44 <sup>a</sup>	1.00	2.74 <sup>a</sup>	1.38	( 514)
18~19개월	4.05	0.91	2.70 <sup>ab</sup>	1.16	2.55 <sup>ab</sup>	1.00	2.93 <sup>ab</sup>	1.36	( 870)
20~21개월	3.97	0.84	2.85 <sup>ab</sup>	1.10	2.70 <sup>bc</sup>	0.98	3.08 <sup>b</sup>	1.25	( 685)
22~23개월	3.93	0.78	2.93 <sup>b</sup>	1.01	2.76 <sup>c</sup>	0.90	3.13 <sup>b</sup>	1.09	( 486)
F	2.47		4.85 <sup>**</sup>		12.07 <sup>***</sup>		9.68 <sup>***</sup>		
아동 성별									
남	3.98	0.90	2.81	1.14	2.59	0.97	2.91	1.31	(1313)
여	4.02	0.85	2.79	1.14	2.62	1.00	3.03	1.28	(1242)
t	-1.07		0.41		-0.77		-2.30 <sup>*</sup>		
출생순위									
첫째	4.00	0.86	2.73 <sup>a</sup>	1.16	2.66 <sup>a</sup>	0.97	3.04 <sup>b</sup>	1.29	(1577)
둘째	4.00	0.90	2.87 <sup>ab</sup>	1.10	2.52 <sup>a</sup>	1.00	2.90 <sup>b</sup>	1.29	( 793)
셋째 이상	4.02	0.83	3.02 <sup>b</sup>	1.03	2.54 <sup>a</sup>	0.99	2.66 <sup>a</sup>	1.29	( 185)
F	0.03		7.79 <sup>***</sup>		5.67 <sup>**</sup>		8.91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항상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아동의 밤잠 시간은 평균 13.59시간이었으며, 밤잠 시간이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인 경우 52.7%, 14시간 이상인 경우 44.5% 등으로 나타났다. 밤잠 중 깨는 횟수는 평균 1.11회이었으며, 깨지 않고 자는 아동은 26.2%이었다. 월령에 따른 수면시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2〉 수면시간: 밤잠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계(수)	밤잠시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0	2.8	52.7	44.5	100.0(2555)	13.59	0.85
아동 월령							
16~17개월	-	3.3	55.4	41.3	100.0( 514)	13.56	0.88
18~19개월	-	2.2	54.9	42.9	100.0( 870)	13.60	0.81
20~21개월	0.1	2.4	51.4	46.1	100.0( 685)	13.59	0.86
22~23개월	-	3.8	47.9	48.3	100.0( 486)	13.62	0.86
$\chi^2(d.f)/F$			n.a.				0.4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표 III-2-3〉 수면시간: 낮잠 중 깨는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깨지 않음	2회 미만	2회 이상 5회 미만	5회 이상 7회 미만	7회 이상 9회 미만	9회 이상	계(수)	깨는 횟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6.2	47.4	25.2	0.8	0.2	0.2	100.0(2555)	1.11	1.03
아동 월령									
16~17개월	25.7	44.3	28.7	0.8	0.2	0.3	100.0( 514)	1.17	1.11
18~19개월	28.5	45.3	25.1	0.5	0.4	0.3	100.0( 870)	1.10	1.08
20~21개월	26.5	47.7	23.9	1.7	0.1	0.1	100.0( 685)	1.11	1.03
22~23개월	22.2	54.2	23.3	-	0.3	-	100.0( 486)	1.07	0.84
$\chi^2(d.f)/F$				n.a.					0.88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아동의 낮잠 횟수를 조사한 결과, 85.2%의 아동이 하루 중 1회 낮잠을 잔다고 응답하여 50.6%의 아동이 하루 중 3회의 낮잠을 잔다고 응답한 1차년도 조사 결과(배운진 외, 2023: 60)에 비해 연령이 증가하면서 낮잠 횟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4〉 수면시간: 낮잠 횟수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평소 낮잠을 자긴 하지만, 30분보다 짧게 잔다	계(수)
전체	85.2	13.2	0.7	0.2	0.2	0.5	100.0(2555)
아동 월령							
16~17개월	81.4	17.7	0.9	-	-	-	100.0( 514)
18~19개월	84.4	13.8	0.7	0.1	0.3	0.7	100.0( 870)
20~21개월	88.4	10.1	0.4	0.4	0.2	0.4	100.0( 685)
22~23개월	86.2	11.7	0.7	0.5	0.3	0.6	100.0( 486)
$\chi^2(df)$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2) 기본생활

아동의 배변/씻기 활동에 관한 특성을 조사한 결과, ‘옷 입힐 때 팔을 끼우거나 양말을 신길 때 발을 드는 등 옷 입힐 때 도움을 준다’ 4.19점, ‘비누나 수건을 가지고 놀면서 혼자 씻어보려고 한다’ 3.65점, ‘완벽하지는 않지만 혼자 옷을 입고 벗으려 한다’ 3.60점, ‘기저귀나 바지에 대소변을 보면 어른들에게 알려준다’ 3.46점,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는 못하나 괄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3.24점으로 동의 정도를 보고하였다.

대체적으로 월령이 증가할수록, 남아보다는 여아가, 그리고 출생순위가 둘째인 경우 스스로 해보려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배변훈련을 위한 준비도 되어 가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옷 입힐 때 팔을 끼우거나 양말을 신길 때 발을 드는 등 옷 입힐 때 도움을 준다’ 항목에서는 월령이 낮거나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 동의 정도가 높는데, 이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혼자 옷을 입고 벗으려 한다’는 항목과 연결 지어서 월령이 높을수록 양육자가 옷을 입힐 때 도움을 주는 정도에서 지나서 스스로 하려는 행동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III-2-5〉 배변/씻기 특성

단위: 점(명)

구분	비누나 수건을 가지고 놀면서 혼자 씻어보려고 한다		옷 입힐 때 팔을 끼우거나 양말을 신길 때 발을 드는 등 옷 입힐 때 도움을 준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혼자 옷을 입고 벗으려 한다		기저귀나 바지에 대소변을 보면 어른들에게 알려준다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는 못하나 괄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5	0.98	4.19	0.77	3.60	0.97	3.46	1.06	3.24	0.93	(2555)
아동 월령											
16~17개월	3.41 <sup>a</sup>	1.11	4.20 <sup>ab</sup>	0.85	3.25 <sup>a</sup>	1.10	3.09 <sup>a</sup>	1.18	2.98 <sup>a</sup>	1.03	( 514)
18~19개월	3.60 <sup>b</sup>	1.03	4.30 <sup>b</sup>	0.73	3.60 <sup>b</sup>	1.01	3.37 <sup>b</sup>	1.13	3.14 <sup>b</sup>	0.98	( 870)
20~21개월	3.75 <sup>bc</sup>	0.90	4.08 <sup>a</sup>	0.75	3.71 <sup>bc</sup>	0.87	3.62 <sup>c</sup>	0.95	3.36 <sup>c</sup>	0.84	( 685)
22~23개월	3.87 <sup>c</sup>	0.78	4.12 <sup>a</sup>	0.74	3.84 <sup>c</sup>	0.78	3.77 <sup>c</sup>	0.78	3.54 <sup>d</sup>	0.72	( 486)
<i>F</i>	22.24 <sup>***</sup>		11.84 <sup>***</sup>		36.47 <sup>***</sup>		44.27 <sup>***</sup>		39.14 <sup>***</sup>		
아동 성별											
남	3.53	1.02	4.13	0.77	3.43	0.99	3.37	1.07	3.20	0.94	(1313)
여	3.78	0.92	4.25	0.77	3.79	0.92	3.55	1.04	3.29	0.92	(1242)
<i>t</i>	-6.34 <sup>***</sup>		-3.97 <sup>***</sup>		-9.47 <sup>***</sup>		-4.50 <sup>***</sup>		-2.48 <sup>*</sup>		
출생순위											
첫째	3.61 <sup>a</sup>	1.02	4.21 <sup>b</sup>	0.76	3.57 <sup>a</sup>	0.97	3.38 <sup>a</sup>	1.08	3.19 <sup>a</sup>	0.94	(1577)
둘째	3.75 <sup>a</sup>	0.91	4.18 <sup>ab</sup>	0.79	3.69 <sup>a</sup>	0.96	3.59 <sup>b</sup>	1.01	3.33 <sup>a</sup>	0.94	( 793)
셋째 이상	3.60 <sup>a</sup>	0.99	4.05 <sup>a</sup>	0.77	3.56 <sup>a</sup>	1.06	3.53 <sup>ab</sup>	1.10	3.33 <sup>a</sup>	0.82	( 185)
<i>F</i>	5.81 <sup>**</sup>		3.68 <sup>*</sup>		4.18 <sup>*</sup>		10.78 <sup>***</sup>		6.67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항상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아동의 식생활 특성을 조사한 결과, ‘배가 고프거나 좋아하는 것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한다’ 3.95점, ‘컵을 잘 사용한다’ 3.94점, ‘예전보다 식욕이 줄었지만 점심은 대체로 잘 먹는다’ 3.82점,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혼자 음식을 먹는다’ 3.72점, ‘가끔 음식을 입에 물고 있거나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 한다’ 3.41점으로 나타났다. 숟가락이나 컵 사용, 혼자 음식을 먹는 행동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가, 그리고 출생순위 첫째보다는 둘째 이상인 아동이 더 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 III-2-6〉 식생활 특성

단위: 점(명)

구분	예전보다 식욕이 줄었지만 점심은 대체로 잘 먹는다		가끔 음식을 입에 물고 있거나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 한다		배가 고프거나 좋아하는 것을 먹을 때는 손가락을 웬만큼 사용한다		컵을 잘 사용한다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혼자 음식을 먹는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2	0.86	3.41	0.96	3.95	0.81	3.94	0.89	3.72	0.84	(2555)
아동 월령											
16~17개월	3.79	0.92	3.33 <sup>a</sup>	1.00	3.81 <sup>a</sup>	0.89	3.81 <sup>a</sup>	1.01	3.50 <sup>a</sup>	0.94	( 514)
18~19개월	3.83	0.88	3.38 <sup>ab</sup>	1.04	3.95 <sup>b</sup>	0.87	3.95 <sup>ab</sup>	0.90	3.76 <sup>b</sup>	0.87	( 870)
20~21개월	3.83	0.82	3.51 <sup>ab</sup>	0.90	4.01 <sup>b</sup>	0.74	3.98 <sup>b</sup>	0.85	3.78 <sup>b</sup>	0.78	( 685)
22~23개월	3.83	0.80	3.41 <sup>b</sup>	0.87	4.01 <sup>b</sup>	0.68	4.03 <sup>b</sup>	0.76	3.79 <sup>b</sup>	0.70	( 486)
F		0.32		3.96 <sup>**</sup>		7.56 <sup>***</sup>		5.74 <sup>***</sup>		15.12 <sup>***</sup>	
아동 성별											
남	3.83	0.83	3.40	0.96	3.88	0.83	3.91	0.91	3.65	0.86	(1313)
여	3.82	0.88	3.43	0.97	4.02	0.78	3.98	0.87	3.79	0.81	(1242)
t		0.35		-0.89		-4.44 <sup>***</sup>		-2.08 <sup>*</sup>		-4.31 <sup>***</sup>	
출생순위											
첫째	3.82	0.83	3.47 <sup>b</sup>	0.94	3.90 <sup>a</sup>	0.83	3.90 <sup>a</sup>	0.90	3.68 <sup>a</sup>	0.85	(1577)
둘째	3.83	0.90	3.32 <sup>ab</sup>	0.99	4.04 <sup>b</sup>	0.75	4.00 <sup>a</sup>	0.88	3.78 <sup>a</sup>	0.81	( 793)
셋째 이상	3.84	0.87	3.27 <sup>a</sup>	1.00	3.92 <sup>ab</sup>	0.89	4.01 <sup>a</sup>	0.86	3.77 <sup>a</sup>	0.80	( 185)
F		0.03		8.56 <sup>***</sup>		8.09 <sup>***</sup>		3.88 <sup>*</sup>		4.41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항상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이유식 시작 시기는 평균 아동 월령 6.06개월이었으며, 생후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에 시작한 경우가 69.5%, 생후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22.7%로, 생후 4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대부분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이유식 시작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생후4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3개월 이상	계(수)	시작 시기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2.7	69.5	4.4	3.0	0.4	100.0 (2555)	6.06	1.23
출생순위								
첫째	21.1	70.7	4.9	2.9	0.4	100.0 (1577)	6.07	1.19
둘째	24.4	68.8	2.6	3.7	0.5	100.0 ( 793)	6.06	1.31
셋째 이상	29.1	62.6	6.9	1.4	-	100.0 ( 185)	5.95	1.13
$\chi^2(df)/F$			n.a.					0.7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일반식(유아식) 시작 시기는 아동 월령 평균 12.33개월이었으며, 생후 10개월 이상 13개월 미만에 시작한 경우가 63.7%, 13개월 이상인 경우가 34.1%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식 시작 시기의 경우 이유식과는 달리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아주 적은 차이이기도 하나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즉, 첫째보다는 둘째나 셋째 이상일수록 좀 더 일찍 일반식을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8〉 일반식 시작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10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13개월 이상	아직 시작하지 않음	계(수)	시작 시기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2	1.2	63.7	34.1	0.8	100.0 (2555)	12.33	1.34
출생순위								
첫째	0.0	1.0	62.0	36.3	0.7	100.0 (1577)	12.39 <sup>a</sup>	1.29
둘째	0.4	1.8	66.0	30.9	0.8	100.0 ( 793)	12.24 <sup>a</sup>	1.47
셋째 이상	0.7	-	69.2	28.9	1.2	100.0 ( 185)	12.22 <sup>a</sup>	1.19
$\chi^2(df)/F$			n.a.					4.27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3)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5$ .

아동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식사시간은 규칙적이다’ 4.06점, ‘아이의 식사량은 일정하다’ 3.82점, ‘아이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3.64점,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혼자 음식을 먹는다’ 3.27점, ‘아이의 식사속도는 빠른 편이

다' 3.11점이었다. 아동의 월령이 높을수록, 남아보다는 여아가, 그리고 출생순위가 둘째인 경우 음식을 혼자 먹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출생순위가 둘째인 경우 첫째나 셋째 이상인 아동에 비해 식사속도는 빠른 편으로 보고하였다.

〈표 III-2-9〉 식습관

단위: 점(명)

구분	아이의 식사시간은 규칙적이다		아이의 식사량은 일정하다		아이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아이의 식사속도는 빠른 편이다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혼자 음식을 먹는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06	0.64	3.82	0.76	3.64	0.93	3.11	0.83	3.27	0.94	(2555)
아동 월령											
16~17개월	4.07	0.70	3.85	0.75	3.73	0.91	3.12	0.86	2.97 <sup>a</sup>	1.03	( 514)
18~19개월	4.08	0.68	3.82	0.78	3.62	0.98	3.12	0.86	3.26 <sup>b</sup>	0.99	( 870)
20~21개월	4.05	0.58	3.79	0.77	3.62	0.92	3.11	0.83	3.35 <sup>bc</sup>	0.86	( 685)
22~23개월	4.04	0.58	3.83	0.71	3.62	0.86	3.06	0.75	3.47 <sup>c</sup>	0.76	( 486)
F		0.63		0.59		2.09		0.64		27.65 <sup>***</sup>	
아동 성별											
남	4.07	0.61	3.83	0.72	3.66	0.92	3.11	0.83	3.18	0.95	(1313)
여	4.05	0.68	3.80	0.80	3.63	0.94	3.09	0.84	3.36	0.92	(1242)
t		0.69		0.97		0.72		0.61		-4.94 <sup>***</sup>	
출생순위											
첫째	4.07	0.64	3.83	0.77	3.62	0.94	3.05 <sup>a</sup>	0.85	3.21 <sup>a</sup>	0.95	(1577)
둘째	4.06	0.63	3.83	0.74	3.71	0.91	3.21 <sup>b</sup>	0.79	3.36 <sup>a</sup>	0.91	( 793)
셋째 이상	3.98	0.65	3.71	0.75	3.60	0.91	3.11 <sup>ab</sup>	0.81	3.30 <sup>a</sup>	0.93	( 185)
F		1.64		2.00		2.75		10.00 <sup>***</sup>		7.18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항상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다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

아동의 평소 잇솔질 하는 시기는 아침식사 직후 62.8%, 점심식사 직후 63.1%로 가장 많았다. 저녁식사 직후에는 37.1%만 잇솔질을 한다고 하였으나 대신 70.3%가 잠자기 전에 잇솔질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10〉 평소 잇솔질 하는 시기(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아침식사 전	아침식사 직후	점심식사 전	점심식사 직후	저녁식사 전	저녁식사 직후	간식 후	잠자기 전	(수)
전체	7.8	62.8	1.0	63.1	1.4	37.1	7.9	70.3	(255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3) 디지털미디어 생활

아동의 디지털미디어 생활에 관하여는 동영상 시청, 게임이나 놀이, 교육앱 활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III-2-11〉 디지털미디어 이용 여부 및 이용 시작 평균 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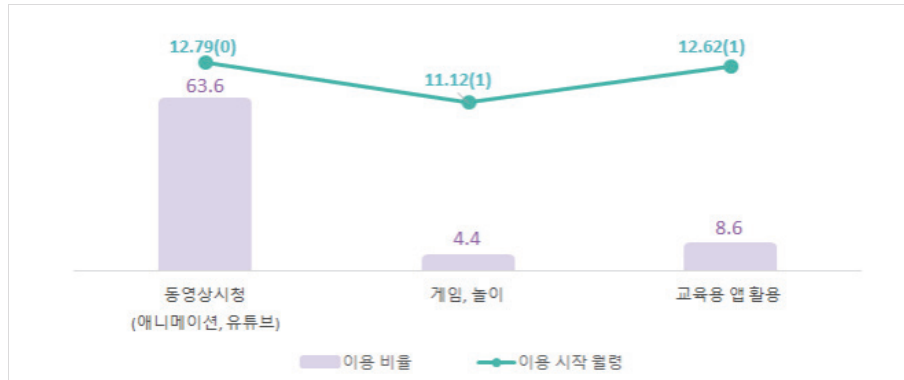
단위: %, 개월(명)

구분	이용 비율	이용 시작 월령	(수)
1) 동영상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	63.6	12.79	(2555)
2) 게임, 놀이	4.4	11.12	(2555)
3) 교육용 앱 활용	8.6	12.62	(2555)
4) 기타	0.7	13.92	(255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2-1〕 디지털미디어 이용 여부 및 이용 시작 평균 월령

단위: %, 개월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먼저 동영상 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 중 63.6%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아동 월령별로 살펴보면 16~17개월 57.2%, 18~19개월 64.9%, 20~21개월 65.0%, 22~23개월 66.0%로 월령이 증가할수록 시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로 살펴보면, 여아가 65.6%, 남아가 61.7%로 남아보다 여아가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출생순위별로 살펴보면, 첫째는 61.0%, 둘째 68.8%, 셋째 이상 63.2%로 둘째가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

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12〉 디지털미디어 이용 여부: 동영상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

단위: %(명)

구분	이용	이용하지 않음	계(수)
전체	63.6	36.4	100.0(2555)
아동 월령			
16~17개월	57.2	42.8	100.0( 514)
18~19개월	64.9	35.1	100.0( 870)
20~21개월	65.0	35.0	100.0( 685)
22~23개월	66.0	34.0	100.0( 486)
$\chi^2(df)$	11.53(3)**		
아동 성별			
남	61.7	38.3	100.0(1313)
여	65.6	34.4	100.0(1242)
$\chi^2(df)$	4.04(1)*		
출생순위			
첫째	61.0	39.0	100.0(1577)
둘째	68.8	31.2	100.0( 793)
셋째 이상	63.2	36.8	100.0( 185)
$\chi^2(df)$	13.82(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8.5	31.5	100.0( 423)
301~500만원	63.2	36.8	100.0(1296)
501~700만원	62.2	37.8	100.0( 534)
701만원 이상	60.7	39.3	100.0( 301)
$\chi^2(df)$	6.23(3)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아동의 동영상 시청 시작 월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솟값은 0개월이었으며 평균은 12.79개월이었다. 가장 비율이 높았던 월령은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으로 42.9%였다. 성별에 따른 미디어 이용 시작 월령은 차이가 없었다. 출생순위별로 살펴보면, 첫째가 평균 13.00개월, 둘째가 평균 12.51개월, 셋째 이상이 12.30개월로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미디어 이용 시작이 상대적으로 일르게 나타났다.

〈표 III-2-13〉 디지털미디어 이용 시작 개월: 동영상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

단위: %(명), 개월

구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계(수)	시작 개월	
	3개월 미만	이상 6개월 미만	이상 9개월 미만	이상 12개월 미만	이상 15개월 미만	이상 18개월 미만	이상 21개월	이상		평균	최솟값
전체	0.5	1.8	8.4	13.8	42.9	23.5	8.9	0.3	100.0(1625)	12.79	0.00
아동 성별											
남	0.4	1.9	8.7	13.7	42.1	24.2	8.8	0.2	100.0(810)	12.79	0.00
여	0.6	1.8	8.0	13.8	43.6	22.9	8.9	0.4	100.0(815)	12.78	0.00
$\chi^2(df)/t$	n.a.									0.05	
출생순위											
첫째	0.4	1.1	8.3	12.7	42.4	25.9	8.9	0.3	100.0(963)	13.00 <sup>a</sup>	1.00
둘째	0.8	2.7	9.2	14.6	42.4	21.1	8.9	0.3	100.0(545)	12.51 <sup>a</sup>	0.00
셋째 이상	-	3.6	5.3	18.0	48.9	15.4	8.1	0.6	100.0(117)	12.30 <sup>a</sup>	3.00
$\chi^2(df)/F$	n.a.									4.81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	2.2	9.5	11.9	46.4	21.7	8.2	0.1	100.0(290)	12.69	3.00
301~500만원	0.5	1.1	7.7	15.1	42.8	23.6	8.9	0.2	100.0(819)	12.85	0.00
501~700만원	0.6	3.0	8.7	13.4	42.7	23.1	7.7	1.0	100.0(332)	12.62	1.00
701만원 이상	0.8	2.3	8.9	11.2	37.7	27.1	12.0	-	100.0(183)	12.98	0.00
$\chi^2(df)/F$	n.a.									0.62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3)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1$ .

동영상 시청의 이용 일수는 일주일 평균 5.13일이었다. 주중(평일)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44.05분, 주말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45.91분이었다.

아동 월령별로 살펴보면 이용 일수와 이용 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주말 이용 시간에서 16~17개월이 40.55분, 18~19개월이 44.35분, 20~21개월이 47.83분, 22~23개월이 50.88분으로 월령이 높을수록 이용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주중 이용시간이 50.06분이었으나 701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주중 이용시간이 40.37분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시간이 더 짧게 나타났다.



〈표 III-2-14〉 디지털미디어 이용 일수 및 시간: 동영상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

단위: 일, 분(명)

구분	이용 일수		주중 이용시간		주말 이용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13	2.02	44.05	41.75	45.91	43.34	(1625)
아동 월령							
16~17개월	4.90	2.12	39.55	34.97	40.55 <sup>a</sup>	39.35	( 294)
18~19개월	5.24	1.99	44.10	46.81	44.35 <sup>ab</sup>	40.69	( 565)
20~21개월	5.10	2.01	44.75	37.69	47.83 <sup>ab</sup>	43.53	( 445)
22~23개월	5.21	1.97	47.16	43.06	50.88 <sup>b</sup>	50.07	( 321)
<i>F</i>	1.98		2.37		3.46 <sup>*</sup>		
아동 성별							
남	5.17	1.99	45.05	42.36	46.78	44.49	( 810)
여	5.09	2.04	43.08	41.13	45.04	42.18	( 815)
<i>t</i>	0.83		0.90		0.81		
출생순위							
첫째	5.05	2.05	44.83	43.17	45.20	43.79	( 963)
둘째	5.22	1.96	42.36	37.26	46.32	42.62	( 545)
셋째 이상	5.39	2.01	45.63	49.03	49.80	43.10	( 117)
<i>F</i>	2.24		1.07		0.6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32	2.00	50.06 <sup>b</sup>	54.16	50.87	47.02	( 290)
301~500만원	5.11	1.99	43.79 <sup>ab</sup>	38.24	44.47	42.45	( 819)
501~700만원	5.00	2.06	41.52 <sup>a</sup>	39.54	46.88	45.59	( 332)
701만원 이상	5.19	2.07	40.37 <sup>a</sup>	36.74	42.72	36.09	( 183)
<i>F</i>	1.42		4.13 <sup>**</sup>		1.9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동영상 시청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TV라고 응답한 비율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29.3%, 태블릿PC 17.5% 등의 순이었다.

〈표 III-2-15〉 디지털미디어 이용 주사용 디바이스: 동영상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스마트폰	TV	태블릿PC	개인용 컴퓨터	기타	(수)
전체	29.3	76.2	17.5	0.6	0.2	(162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보호자가 방해 없이 일하거나 휴식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리에 앉아 식사하게 하기 위해’ 23.3%, ‘아이의 놀이 위해’ 18.5%,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16〉 디지털미디어 이용 주사용 이유: 동영상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기관 등원 준비를 위해	자리에 앉아 식사하게 하기 위해	보호자가 방해없이 일하거나 휴식하기 위해	아이의 놀이 위해	아이의 교육 위해	아이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잠을 재우기 위해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기타	(수)
전체	1.6	13.5	23.3	56.9	18.5	5.6	6.4	1.9	14.7	5.5	(162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두 번째로, 게임이나 놀이를 위한 미디어 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였다. 아동 월령별로 살펴보면 16~17개월 아동이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 18~19개월 4.1%, 20~21개월 5.3%, 22~23개월 5.9%로 월령이 증가할수록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아동 성별로 살펴보면 여아가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남아(3.4%)에 비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301~500만원 이하 가구가 5.7%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17〉 디지털미디어 이용 여부: 게임, 놀이

단위: %(명)

구분	이용	이용하지 않음	계(수)
전체	4.4	95.6	100.0(2555)
아동 월령			
16~17개월	2.2	97.8	100.0( 514)
18~19개월	4.1	95.9	100.0( 870)
20~21개월	5.3	94.7	100.0( 685)
22~23개월	5.9	94.1	100.0( 486)
$\chi^2(df)$		10.41(3)*	
아동 성별			
남	3.4	96.6	100.0(1313)
여	5.4	94.6	100.0(1242)
$\chi^2(df)$		5.87(1)*	
출생순위			
첫째	4.2	95.8	100.0(1577)
둘째	5.0	95.0	100.0( 793)
셋째 이상	2.8	97.2	100.0( 185)
$\chi^2(df)$		2.15(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6	96.4	100.0( 423)

구분	이용	이용하지 않음	계(수)
301~500만원	5.7	94.3	100.0(1296)
501~700만원	3.6	96.4	100.0( 534)
701만원 이상	0.9	99.1	100.0( 301)
$\chi^2(df)$	15.42(3)**		

주: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게임이나 놀이를 위한 미디어 이용 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 최솟값은 생후 1개월, 평균 월령은 11.12개월이었다.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23.6%,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18〉 디지털미디어 이용 시작 개월: 게임, 놀이(애니메이션, 유튜브)

단위: %(명), 개월

구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계(수)	시작 개월	
	3개월 미만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평균	최솟값					
전체	2.8	6.8	16.8	13.2	34.6	23.6	2.2	100.0(112)	11.12	1.00					
아동 성별															
남	3.5	6.2	15.2	7.7	40.8	21.2	5.5	100.0( 45)	11.41	1.00					
여	2.4	7.3	17.9	16.9	30.4	25.1	-	100.0( 67)	10.93	1.00					
$\chi^2(df)/t$	n.a.											-0.29			
출생순위															
첫째	4.8	3.4	13.3	11.9	38.7	26.0	1.8	100.0( 67)	11.32	1.00					
둘째	-	13.4	18.5	14.7	30.7	19.7	3.1	100.0( 40)	10.92	3.00					
셋째 이상	-	-	49.3	17.8	11.1	21.8	-	100.0( 5)	10.13	7.00					
$\chi^2(df)/F$	n.a.											0.2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0.6	9.4	19.2	-	33.4	27.4	-	100.0( 15)	10.09	1.00					
301~500만원	2.1	7.1	17.5	13.0	37.8	19.3	3.3	100.0( 74)	11.07	1.00					
501~700만원	-	4.7	15.0	26.1	23.4	30.9	-	100.0( 19)	11.58	5.00					
701만원 이상	-	-	-	-	35.0	65.0	-	100.0( 3)	14.93	12.00					
$\chi^2(df)/F$	n.a.											1.28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게임, 놀이를 위한 미디어 이용 일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주중 평균 이용 일수는 4.11일이었다. 주중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35.91분, 주말 1일 평균 이용 시

간은 31.18분이었다.

아동 월령별로 살펴보면, 주중 이용 시간과 주말 이용시간은 20~21개월 월령 아동이 각각 44.65분, 37.32분으로 가장 길었다. 16~17개월 아동은 주중 이용시간 19.88분, 주말 이용 시간 19.96분으로 다른 월령에 비해 짧은 편이었다.

〈표 III-2-19〉 디지털미디어 이용 일수: 게임, 놀이

단위: 일, 분(명)

구분	이용 일수		주중 이용 시간		주말 이용 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11	1.98	35.91	31.09	31.18	23.59	(112)
아동 월령							
16~17개월	4.00 <sup>a</sup>	2.10	19.88 <sup>a</sup>	13.96	19.96 <sup>a</sup>	15.79	( 11)
18~19개월	4.74 <sup>a</sup>	1.97	39.57 <sup>a</sup>	29.08	34.56 <sup>a</sup>	21.93	( 36)
20~21개월	3.96 <sup>a</sup>	2.00	44.65 <sup>a</sup>	39.62	37.32 <sup>a</sup>	29.26	( 36)
22~23개월	3.56 <sup>a</sup>	1.79	26.60 <sup>a</sup>	20.76	23.65 <sup>a</sup>	16.43	( 29)
<i>F</i>	2.84*		3.12*		3.02*		
아동 성별							
남	4.24	1.98	31.27	23.62	29.84	22.87	( 45)
여	4.02	1.98	39.01	35.05	32.08	24.18	( 67)
<i>t</i>	0.58		-1.29		-0.49		
출생순위							
첫째	4.09	1.98	36.49	34.26	29.60	21.40	( 67)
둘째	4.15	1.99	35.44	26.88	33.70	27.46	( 40)
셋째 이상	4.03	2.22	32.10	20.48	32.10	20.48	( 5)
<i>F</i>	0.28		0.05		0.3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97	2.04	28.34	19.44	32.96	36.84	( 15)
301~500만원	3.90	1.84	35.83	34.00	29.90	20.19	( 74)
501~700만원	4.03	2.25	42.87	27.33	34.75	24.03	( 19)
701만원 이상	5.70	2.33	30.74	27.20	30.74	27.20	( 3)
<i>F</i>	1.28		0.64		0.24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게임이나 놀이 이용을 위한 주사용 디바이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TV가 4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폰 36.7%, 태블릿PC 29.5% 순이었다.

〈표 III-2-20〉 디지털미디어 이용 주사용 디바이스: 게임, 놀이(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스마트폰	TV	태블릿PC	(수)
전체	36.7	49.7	29.5	(112)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게임이나 놀이를 위한 미디어 이용의 주사용 이유는 ‘아이의 놀이를 위해’ 42.4%, ‘아이의 교육을 위해’ 28.2%, ‘보호자가 방해 없이 일하거나 휴식하기 위해’ 25.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21〉 디지털미디어 이용 주사용 이유: 게임, 놀이(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기관 등원 준비를 위해	자리에 앉아 식사하게 하기 위해	보호자가 방해없이 일하거나 휴식하기 위해	아이의 놀이 위해	아이의 교육 위해	아이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잠을 재우기 위해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기타	(수)
전체	1.7	9.4	12.6	25.6	42.4	28.2	8.3	1.6	9.2	1.1	(112)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다음으로 교육용 앱 활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아동 월령 별로 살펴보면 16~17개월 6.9%, 18~19개월 7.6%, 20~21개월 9.5%, 22~23개월 10.8%이었다.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301~500만원이 10.0%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1~700만원 9.6%, 300만원 이하 6.1%, 701만원 이상 4.2%로 나타났다.

〈표 III-2-22〉 디지털미디어 이용 여부: 교육용 앱 활용

단위: %(명)

구분	이용	이용하지 않음	계(수)
전체	8.6	91.4	100.0(2555)
아동 월령			
16~17개월	6.9	93.1	100.0( 514)
18~19개월	7.6	92.4	100.0( 870)
20~21개월	9.5	90.5	100.0( 685)
22~23개월	10.8	89.2	100.0( 486)
$\chi^2(df)$		7.19(3)	
아동 성별			
남	8.5	91.5	100.0(1313)
여	8.6	91.4	100.0(1242)
$\chi^2(df)$		0.01(1)	

구분	이용	이용하지 않음	계(수)
출생순위			
첫째	7.8	92.2	100.0(1577)
둘째	10.2	89.8	100.0( 793)
셋째 이상	8.4	91.6	100.0( 185)
$\chi^2(df)$	3.99(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1	93.9	100.0( 423)
301~500만원	10.0	90.0	100.0(1296)
501~700만원	9.6	90.4	100.0( 534)
701만원 이상	4.2	95.8	100.0( 301)
$\chi^2(df)$	14.00(3)**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1$ .

교육용 앱의 이용 시작 개월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시작 개월의 최솟값은 생후 1개월이었으며 평균은 생후 12.62개월이었다.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이 39.0%로 가장 높았으며,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이 22.7%,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9.6% 등의 순이었다.

〈표 III-2-23〉 디지털미디어 이용 시작 개월: 교육용 앱 활용

단위: %(명), 개월

구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계(수)	시작 개월	
	3개월 미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평균		최솟값	
전체	0.4	2.0	9.1	17.0	39.0	22.7	9.6	0.3	100.0(219)	12.62	1.00
아동 성별											
남	0.7	4.0	7.6	19.0	36.6	17.9	14.1	-	100.0(112)	12.56	1.00
여	-	-	10.6	14.8	41.5	27.6	4.8	0.7	100.0(107)	12.69	6.00
$\chi^2(df)/t$	n.a.									-0.29	
출생순위											
첫째	0.6	1.0	10.7	19.2	36.6	22.8	8.5	0.6	100.0(123)	12.50	1.00
둘째	-	3.1	8.3	13.3	42.7	23.5	9.0	-	100.0( 81)	12.64	4.00
셋째 이상	-	4.7	-	18.5	39.0	17.2	20.6	-	100.0( 15)	13.55	4.00
$\chi^2(df)/F$	n.a.									0.6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	3.8	10.2	20.4	35.4	20.3	9.9	-	100.0( 26)	12.23	4.00
301~500만원	0.6	2.7	7.2	18.7	40.6	21.0	8.6	0.6	100.0(129)	12.54	1.00
501~700만원	-	-	10.2	15.0	37.8	26.8	10.2	-	100.0( 51)	12.91	6.00
701만원 이상	-	-	21.2	-	35.1	27.9	15.7	-	100.0( 13)	13.18	6.00
$\chi^2(df)/F$	n.a.									0.3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교육용 앱 이용 일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주중 평균 이용 일수는 3.91일, 주중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33.49분, 주말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32.34분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주중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남아 29.34분, 여아 37.83분, 주말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남아 25.30분, 여아 39.70분으로 여아가 더 길게 이용하고 있었다.

〈표 III-2-24〉 디지털미디어 이용 일수: 교육용 앱 활용

단위: 일, 분(명)

구분	이용 일수		주중 이용 시간		주말 이용 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91	1.90	33.49	30.35	32.34	34.23	(219)
아동 월령							
16~17개월	3.62	1.89	28.69	22.44	31.79	29.16	( 35)
18~19개월	4.30	1.99	31.98	18.40	34.98	39.21	( 66)
20~21개월	3.90	1.87	41.81	45.28	37.03	40.15	( 65)
22~23개월	3.64	1.81	28.29	21.18	23.58	18.20	( 53)
<i>F</i>	1.54		2.55		1.71		
아동 성별							
남	3.72	1.92	29.34	21.58	25.30	24.72	(112)
여	4.11	1.88	37.83	37.01	39.70	40.77	(107)
<i>t</i>	0.58		-2.06*		-3.14*		
출생순위							
첫째	3.88	1.83	31.35	22.20	32.51	38.27	(123)
둘째	3.77	1.98	35.53	40.57	30.69	28.92	( 81)
셋째 이상	4.95	1.86	39.69	23.01	39.63	25.63	( 15)
<i>F</i>	2.60		0.81		0.4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50	1.99	21.87	12.58	15.49	16.02	( 26)
301~500만원	4.05	1.90	36.50	36.86	34.66	33.67	(129)
501~700만원	3.92	1.82	30.75	16.73	34.71	40.63	( 51)
701만원 이상	3.25	2.08	37.61	17.17	33.45	32.48	( 13)
<i>F</i>	1.14		0.63		0.24		

주: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교육용 앱을 이용하기 위한 주사용 디바이스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TV라고 응답한 비율이 5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태블릿PC 33.2%, 스마트폰 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25〉 디지털미디어 이용 주사용 디바이스: 교육용 앱 활용(중복응답)

구분	단위: %(명)					(수)
	스마트폰	TV	태블릿PC	개인용 컴퓨터	기타	
전체	25.0	57.1	33.2	2.2	0.3	(219)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주사용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아이의 놀이를 위해’ 28.9%, ‘보호자가 방해 없이 일하거나 휴식하기 위해’ 20.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26〉 미디어 이용 주사용 이유: 교육용 앱 활용(중복응답)

구분	단위: %(명)										(수)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기관 지원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위해	보호자가 방해없이 일하거나 휴식하기 위해	아이의 놀이 위해	아이의 교육 위해	아이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잠을 재우기 위해	특별한 이유 없이 원할 때	기타	
전체	1.5	6.8	8.8	20.0	28.9	61.1	8.5	2.2	8.1	2.4	(219)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동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에 대한 규칙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규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6%였다. 아동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701만원 이상이 49.3%로 가장 높았으며, 501~700만원 47.7%, 301~500만원 40.1%, 300만원 이하가 38.7%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 미디어 이용 규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2-27〉 디지털미디어 이용 규칙 여부

구분	단위: %(명)		
	있다	없다	계(수)
전체	42.6	57.4	100.0(2555)
아동 월령			
16~17개월	40.9	59.1	100.0( 514)
18~19개월	43.1	56.9	100.0( 870)
20~21개월	41.2	58.8	100.0( 685)
22~23개월	45.2	54.8	100.0( 486)
$\chi^2(df)$	2.62(3)		
아동 성별			
남	43.0	57.0	100.0(1313)
여	42.0	58.0	100.0(1242)
$\chi^2(df)$	0.26(1)		
출생순위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첫째	42.1	57.9	100.0(1577)
둘째	44.0	56.0	100.0( 793)
셋째 이상	40.7	59.3	100.0( 185)
$\chi^2(df)$	1.07(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8.7	61.3	100.0( 423)
301~500만원	40.1	59.9	100.0(1296)
501~700만원	47.7	52.3	100.0( 534)
701만원 이상	49.3	50.7	100.0( 301)
$\chi^2(df)$	17.19(3)**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1$ .

아동의 디지털미디어 이용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규칙이 대체로 지켜진다는 응답이 56.9%,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23.3%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켜진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은 약 74.0%(항상 지켜짐+대체로 지켜짐)이었다(5점 척도에서 평균 3.88점).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규칙이 지켜지는 정도에 대해 첫째는 3.93점, 둘째는 3.82점, 셋째 이상은 3.77점으로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I-2-28〉 디지털미디어 이용 규칙 잘 지켜지는지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항상 지켜지지 않음	대체로 지켜지지 않음	상황에 따라 다름	대체로 지켜짐	항상 지켜짐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1	2.6	23.3	56.9	17.1	100.0(1087)	3.88	0.71
아동 월령								
16~17개월	-	2.6	21.6	56.1	19.7	100.0( 210)	3.93	0.72
18~19개월	0.3	3.1	25.5	51.8	19.3	100.0( 375)	3.87	0.76
20~21개월	-	2.5	20.9	60.6	16.0	100.0( 282)	3.90	0.68
22~23개월	-	1.8	24.5	61.5	12.2	100.0( 220)	3.84	0.65
$\chi^2(df)/F$			n.a.				0.67	
아동 성별								
남	-	3.0	21.2	57.6	18.2	100.0( 565)	3.91	0.71
여	0.2	2.2	25.7	56.1	15.8	100.0( 522)	3.85	0.71
$\chi^2(df)/t$			n.a.				1.35	
출생순위								
첫째	0.2	1.7	22.6	56.4	19.2	100.0( 664)	3.93 <sup>a</sup>	0.70
둘째	-	4.1	23.8	58.3	13.9	100.0( 348)	3.82 <sup>a</sup>	0.71
셋째 이상	-	4.1	27.9	54.8	13.2	100.0( 75)	3.77 <sup>a</sup>	0.73
$\chi^2(df)/F$			n.a.				3.59 <sup>*</sup>	

구분	항상 지켜지지 않음	대체로 지켜지지 않음	상황에 따라 다름	대체로 지켜짐	항상 지켜짐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7	3.6	27.7	52.2	15.7	100.0( 164)	3.79	0.77
301~500만원	-	2.2	24.1	57.4	16.3	100.0( 520)	3.88	0.69
501~700만원	-	2.4	21.2	60.7	15.8	100.0( 255)	3.90	0.68
701만원 이상	-	3.4	19.6	53.7	23.4	100.0( 149)	3.97	0.75
$\chi^2(df)/F$			n.a.					1.8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항상 지켜지지 않음 ~ 5. 항상 지켜짐).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4)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5$ .

## 나. 아동 건강

아동의 건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장애 여부,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수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 1) 건강 상태

아동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양육자가 평가하는 평소 아동의 건강 상태,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경험, 질환 진단 여부를 알아보았다.

먼저, 주양육자는 아동의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해 대체로 좋거나(55.2%) 매우 좋은 상태로(38.7%) 평가하였다.

〈표 III-2-29〉 평소 아동 건강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우 나쁨	대체로 나쁨	보통	대체로 좋음	매우 좋음	
전체	0.0	0.5	5.6	55.2	38.7	100.0(255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가)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총 8개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여부 및 입원 여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을 방문한 사유로는 호흡기 질환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계통 질환 10.3%, 피부 질환 5.0% 등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방문이 가장 많은 점은 유사하며, 아동이 0세일 때는 소화계통 질환에 의한 방문은 2.9%이었는데 1세가 되어 10.3%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배운진 외, 2023: 64-65).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을 방문 후 입원을 한 경우 그 사유로 호흡기 질환(47.1%), 비노생식계통 질환(44.3%), 신경계통 질환(27.4%), 순환계통 질환(22.1%) 등이 있었다.

〈표 III-2-30〉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

단위: %(명),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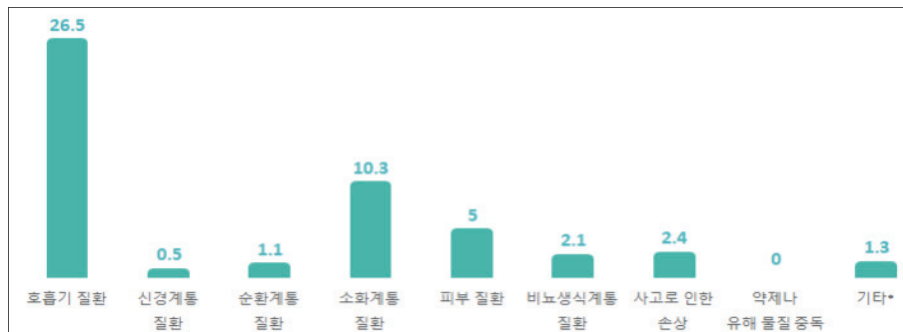
구분	방문 여부			입원 여부			입원 일수
	예	아니오	계 (수)	예	아니오	계 (수)	
호흡기 질환	26.5	73.5	100.0 (2555)	47.1	52.9	100.0 (678)	5.92
신경계통 질환	0.5	99.5	100.0 (2555)	27.4	72.6	100.0 ( 12)	2.06
순환계통 질환	1.1	98.9	100.0 (2555)	22.1	77.9	100.0 ( 29)	2.81
소화계통 질환	10.3	89.7	100.0 (2555)	8.8	91.2	100.0 (262)	2.11
피부 질환	5.0	95.0	100.0 (2555)	15.4	84.6	100.0 (129)	4.42
비노생식계통 질환	2.1	97.9	100.0 (2555)	44.3	55.7	100.0 ( 54)	11.32
사고로 인한 손상	2.4	97.6	100.0 (2555)	10.6	89.4	100.0 ( 62)	7.85
약제나 유해 물질 중독	0.0	100.0	100.0 (2555)	-	-	-	-
기타*	1.3	98.7	100.0 (2555)	39.6	60.4	100.0 ( 34)	8.52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타 응답으로 구내염, 아데노바이러스, 중이염, 바이러스뇌염, 구개열, 사경, 황달, 허유착 등이 있음.

〈그림 III-2-2〉 질환별 의료기관·응급실 방문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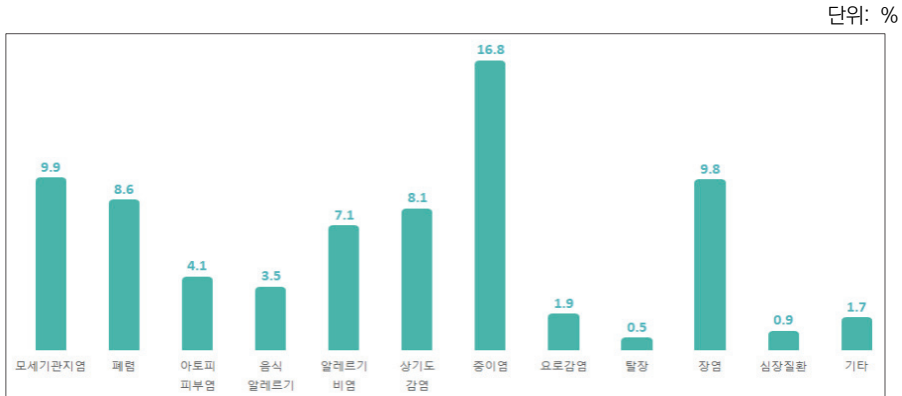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나) 질환 진단

아동의 질환 진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11개의 질환에 대해 의사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III-2-3] 질환별 진단 비율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호흡기 질환 중 중이염을 진단 받은 아동이 16.8%로 가장 많았고, 모세기관지염 9.9%, 폐렴 8.6% 등 다른 질환에 비해서 진단받은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알레르기성 질환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음식 알레르기,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비염이 7.1%, 아토피피부염 4.1% 등이었다. 그 외의 질환으로 장염을 진단받은 아동은 9.8%이었다. 대부분 질환에서 여아에 비해 남아가 진단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월령에 따라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 III-2-31> 질환 진단 여부

단위: %(명)

구분	모세기관지염		폐렴		아토피피부염		음식 알레르기		알레르기 비염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9.9	90.1	8.6	91.4	4.1	95.9	3.5	96.5	7.1	92.9
아동 월령										
16~17개월	13.3	86.7	7.9	92.1	5.4	94.6	3.6	96.4	8.0	92.0
18~19개월	10.4	89.6	9.6	90.4	5.3	94.7	4.5	95.5	8.0	92.0
20~21개월	6.7	93.3	8.5	91.5	2.1	97.9	2.2	97.8	5.8	94.2
22~23개월	9.8	90.2	7.7	92.3	3.1	96.9	3.3	96.7	6.4	93.6
$\chi^2(df)$	14.56(3)**		1.66(3)		13.20(3)**		6.09(3)		3.82(3)	
아동 성별										
남	11.1	88.9	9.9	90.1	5.3	94.7	4.2	95.8	8.0	92.0
여	8.6	91.4	7.2	92.8	2.7	97.3	2.8	97.2	6.1	93.9
$\chi^2(df)$	4.80(1)*		6.05(1)*		11.02(1)**		3.64(1)		3.44(1)	
구분	상기도 감염		중이염		오로감염		탈장		장염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8.1	91.9	16.8	83.2	1.9	98.1	0.5	99.5	9.8	90.2

구분	상기도 감염		중이염		요로감염		탈장		장염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동 월령										
16~17개월	9.4	90.6	17.2	82.8	2.4	97.6	0.2	99.8	8.8	91.2
18~19개월	9.3	90.7	21.0	79.0	2.2	97.8	0.5	99.5	11.4	88.6
20~21개월	6.3	93.7	14.3	85.7	1.3	98.7	0.8	99.2	9.1	90.9
22~23개월	7.1	92.9	12.4	87.6	1.6	98.4	0.6	99.4	8.9	91.1
$\chi^2(df)$	6.91(3)		21.15(3)***		2.36(3)		n.a.		4.06(3)	
아동 성별										
남	9.4	90.6	18.0	82.0	2.4	97.6	0.9	99.1	10.7	89.3
여	6.7	93.3	15.6	84.4	1.4	98.6	0.2	99.8	8.9	91.1
$\chi^2(df)$	6.57(1)*		2.56(1)		3.87(1)*		5.79(1)*		2.38(1)	
구분	심장질환		기타*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0.9	99.1	1.7	98.3	100.0(2555)					
아동 월령										
16~17개월	1.0	99.0	0.9	99.1	100.0( 514)					
18~19개월	1.0	99.0	2.8	97.2	100.0( 870)					
20~21개월	0.6	99.4	1.3	98.7	100.0( 685)					
22~23개월	0.9	99.1	1.1	98.9	100.0( 486)					
$\chi^2(df)$	n.a.		9.65(3)*							
아동 성별										
남	1.1	98.9	1.9	98.1	100.0(1313)					
여	0.6	99.4	1.5	98.5	100.0(1242)					
$\chi^2(df)$	1.78(1)		0.53(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3) 기타 응답으로 구내염, 코로나19, 수족구, 상기도 감염 등이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2) 장애

패널아동 중 장애를 가진 영아는 0.2%에 해당하였다. 중증 장애로는 뇌전증장애, 경증 장애로는 지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장루·요루장애가 있었다.

〈표 III-2-32〉 장애 종류 및 정도

구분	계(수)	중증	경증
지체장애	100.0(1)	-	100.0
뇌병변장애	-	-	-
시각장애	-	-	-
청각장애	-	-	-
언어장애	-	-	-
지적장애	-	-	-

단위: %(명)

구분	계(수)	중증	경증
정신장애	-	-	-
자폐성 장애	-	-	-
신장장애	100.0(1)		100.0
심장장애	100.0(1)		100.0
호흡기장애	-	-	-
간장애	-	-	-
안면장애	-	-	-
장루·요루장애	100.0(1)	-	100.0
뇌전증장애	100.0(1)	100.0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3)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아동의 예방접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예방접종 여부를 조사하였다.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월령별로 1~4차로 나누어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수막구균(77.4%)을 제외한 나머지 예방접종은 모두 1차에서는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월령 특성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방접종으로 여겨지는 A형간염이나 일본뇌염 등을 제외하고는 2차 예방접종 비율도 90% 이상이었다.

〈표 III-2-33〉 예방접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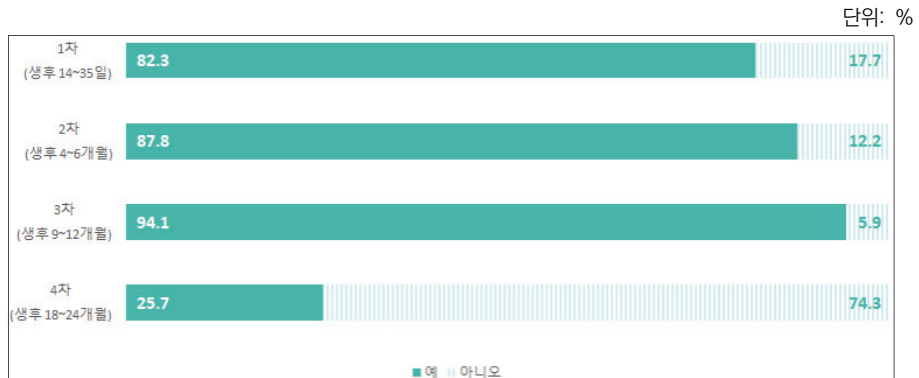
구분	1차		2차		3차		4차		계(수)
	예	아니오/무응답	예	아니오/무응답	예	아니오/무응답	예	아니오/무응답	
B형간염(HepB)	99.8	0.2	98.0	2.0	92.5	7.5	-	-	100.0 (2555)
결핵	98.1	1.9	-	-	-	-	-	-	100.0 (2555)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99.4	0.6	96.2	3.8	90.4	9.6	72.6	27.4	100.0 (2555)
폴리오(IPV)	98.0	2.0	94.3	5.7	88.0	12.0	-	-	100.0 (2555)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96.2	3.8	92.5	7.5	86.4	13.6	71.4	28.6	100.0 (2555)
폐렴구균(PCV)	99.6	0.4	96.3	3.7	89.8	10.2	75.0	25.0	100.0 (2555)
로타바이러스(RV1)	97.3	2.7	93.6	6.4	84.9	15.1	-	-	100.0 (2555)
수막구균*	77.4	22.6	-	-	-	-	-	-	100.0 (2555)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96.8	3.2	-	-	-	-	-	-	100.0 (2555)
수두(VAR)	96.7	3.3	-	-	-	-	-	-	100.0 (2555)
A형간염(HepA)	95.3	4.7	72.9	27.1	-	-	-	-	100.0 (2555)
일본뇌염(IJEV/LJEV)	94.2	5.8	78.8	21.2	-	-	-	-	100.0 (2555)
인플루엔자	91.8	8.2	79.5	20.5	-	-	-	-	100.0 (255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수막구균은 기타예방접종(유료접종)으로 분류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당시 아동 월령이 16~23개월에 해당하므로, 생후 18~24개월에 수검해야 하는 4차 건강검진의 수검율은 25.7%로 낮은 편이었으나, 3차의 경우 94.1%로 나타났다.

[그림 Ⅲ-2-4]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여부: 1~4차 검진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생후 18~29개월에 이루어지는 1차 영유아 구강검진의 경우 조사 당시 17.5%의 당시 수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2-5]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 여부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다. 발달 특성

### 1) 신체 발달

아동의 체중을 살펴보면, 1세 아동의 평균 체중은 11.50kg이었으며, 10kg 미만인 경우는 6.4%, 10kg 이상 11kg 미만 18.9%, 11kg 이상 12kg 미만 31.8%, 12kg 이상 13kg 미만 25.4%, 13kg 이상인 경우는 17.5%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월령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남아의 평균 체중은 11.79kg, 여아의 평균 체중은 11.20kg으로 남아가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4〉 아동 체중

단위: %(명), kg

구분	10kg 미만	10kg 이상 11kg 미만	11kg 이상 12kg 미만	12kg 이상 13kg 미만	13kg 이상	계(수)	체중	
							평균	표준편차
전체	6.4	18.9	31.8	25.4	17.5	100.0(2555)	11.50	1.27
아동 월령								
16~17개월	12.4	29.6	33.8	17.7	6.4	100.0( 514)	10.92 <sup>a</sup>	1.10
18~19개월	6.5	19.3	34.9	26.1	13.1	100.0( 870)	11.41 <sup>b</sup>	1.18
20~21개월	4.8	16.7	30.7	27.2	20.6	100.0( 685)	11.64 <sup>c</sup>	1.27
22~23개월	1.9	10.0	25.6	29.9	32.6	100.0( 486)	12.10 <sup>d</sup>	1.28
$\chi^2(d\hat{h})/F$			240.88(12) <sup>***</sup>					83.55 <sup>***</sup>
아동 성별								
남	3.4	13.9	30.1	30.3	22.4	100.0(1313)	11.79	1.24
여	9.5	24.2	33.6	20.4	12.3	100.0(1242)	11.20	1.22
$\chi^2(d\hat{h})/t$			137.68(4) <sup>***</sup>					12.07 <sup>***</sup>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01$ .

아동의 신장을 살펴보면, 1세 아동의 평균 신장은 82.83cm이었다. 신장이 80cm 이상 85cm 미만인 경우 52.4%이며, 85cm 이상도 33.4%이었다. 체중과 동일하게 월령 분포에 따라 신장의 분포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아(82.24cm)에 비해 남아(83.40cm)의 신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5〉 아동 신장

단위: %(명), cm

구분	75cm 미만	75cm 이상 80cm 미만	80cm 이상 85cm 미만	85cm 이상	계(수)	신장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	13.1	52.4	33.4	100.0(2555)	82.83	3.84
아동 월령							
16~17개월	2.3	29.7	54.2	13.9	100.0( 514)	80.62 <sup>a</sup>	3.51
18~19개월	1.1	14.2	59.1	25.6	100.0( 870)	82.32 <sup>b</sup>	3.55
20~21개월	0.5	7.4	51.9	40.2	100.0( 685)	83.58 <sup>c</sup>	3.64
22~23개월	0.8	1.6	39.3	58.3	100.0( 486)	85.05 <sup>d</sup>	3.46
$\chi^2(d\hat{h})/F$			383.97(9) <sup>***</sup>				146.40 <sup>***</sup>
아동 성별							
남	0.8	10.1	50.2	38.9	100.0(1313)	83.40	3.76
여	1.5	16.3	54.7	27.6	100.0(1242)	82.24	3.84
$\chi^2(d\hat{h})/t$			48.55(3) <sup>***</sup>				7.73 <sup>***</sup>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01$ .

아동의 신체 발달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활용하여



저신장, 저체중 및 과체중, 비만 비율을 산출하였다.

먼저, 저신장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4.6%에 해당하였으며, 남이는 5.9%, 여이는 3.1%로 여아보다는 남아 중에 저신장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신장을 백분 위수로 변환하여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월령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월령에 따른 평균 백분위수의 차이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차이로 여겨진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701만원 이상인 경우 백분위수가 57.4로 가장 높았다.

〈표 Ⅲ-2-36〉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에 따른 저신장 비율

구분	저신장	일반	계(수)	단위: %(명), 백분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6	95.4	100.0(2555)	49.4	30.4
아동 월령					
16~17개월	4.3	95.7	100.0( 514)	54.6 <sup>b</sup>	30.6
18~19개월	4.4	95.6	100.0( 870)	52.4 <sup>b</sup>	30.0
20~21개월	4.7	45.3	100.0( 685)	45.9 <sup>a</sup>	30.0
22~23개월	5.0	95.0	100.0( 486)	43.6 <sup>a</sup>	30.1
$\chi^2(df)/F$	0.28(3)			17.00 <sup>***</sup>	
아동 성별					
남	5.9	94.1	100.0(1313)	47.7	31.2
여	3.1	96.9	100.0(1242)	51.2	29.5
$\chi^2(df)/t$	11.49(1) <sup>**</sup>			-2.89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8	95.2	100.0( 423)	49.5 <sup>a</sup>	30.5
301~500만원	4.7	95.3	100.0(1296)	47.8 <sup>a</sup>	29.7
501~700만원	4.3	95.7	100.0( 534)	48.8 <sup>a</sup>	31.1
701만원 이상	4.1	95.9	100.0( 301)	57.4 <sup>b</sup>	30.9
$\chi^2(df)/F$	0.40(3)			8.26 <sup>***</sup>	
저소득층 여부					
저소득층 아님	4.6	95.4	100.0(2502)	49.4	30.4
저소득층임	2.9	97.2	100.0( 53)	51.6	33.0
$\chi^2(df)/t$	0.08(1)			-0.54	
다문화 가구 여부					
다문화 가구 아님	4.6	95.4	100.0(2414)	49.6	30.4
다문화 가구임	4.1	95.9	100.0( 141)	46.6	29.8
$\chi^2(df)/t$	0.04(1)			1.13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저신장 아동의 경우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데이터테이블을 활용하여 산출된 값으로 3백분위수 미만의 아동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2017).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이용지침서.

\*\*  $p < .01$ , \*\*\*  $p < .001$ .



다음으로 저체중 및 과체중 비율을 살펴보았다. 저체중은 1.0%, 과체중은 7.3%의 아동이 해당하였다. 저소득층 가구에서 저체중 비율이 8.3%, 다문화 가구에서 저체중 비율이 4.7%, 과체중 비율이 10.1%로 일반 가구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체중을 백분위수로 변환하여 살펴본 결과, 아동 월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월령에 따른 차이는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는 63.9, 남아는 61.8로 여아의 백분위수가 더 높았다.

〈표 III-2-3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에 따른 저체중 및 과체중 비율

단위: %(명), 백분위수

구분	저체중	과체중	일반	계(수)	백분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	7.3	91.7	100.0(2555)	62.8	25.3
아동 월령						
16~17개월	0.7	6.9	92.4	100.0( 514)	63.9 <sup>ab</sup>	24.7
18~19개월	0.6	7.2	92.2	100.0( 870)	64.7 <sup>b</sup>	24.6
20~21개월	1.3	7.7	91.1	100.0( 685)	60.6 <sup>a</sup>	25.8
22~23개월	1.4	7.6	91.0	100.0( 486)	61.3 <sup>ab</sup>	26.2
$\chi^2(d.f)/F$		3.15(6)				4.26 <sup>**</sup>
아동 성별						
남	1.1	7.7	91.2	100.0(1313)	61.8	26.1
여	0.9	7.0	92.2	100.0(1242)	63.9	24.5
$\chi^2(d.f)/t$		0.79(2)				-2.07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9	7.9	90.2	100.0( 423)	62.8	26.0
301~500만원	0.9	6.5	92.7	100.0(1296)	61.7	25.3
501~700만원	0.3	9.1	90.6	100.0( 534)	64.3	24.8
701만원 이상	1.2	7.3	91.5	100.0( 301)	65.1	25.1
$\chi^2(d.f)/F$		10.34(6)				2.32
저소득층 여부						
저소득층 아님	0.8	7.4	91.8	100.0(2502)	62.9	25.2
저소득층임	8.3	5.5	86.2	100.0( 53)	59.5	30.1
$\chi^2(d.f)/t$		25.51(2) <sup>***</sup>				0.81
다문화 가구 여부						
다문화 가구 아님	0.8	7.2	92.1	100.0(2414)	63.0	25.1
다문화 가구임	4.7	10.1	85.3	100.0( 141)	60.2	28.9
$\chi^2(d.f)/t$		26.01(2) <sup>***</sup>				1.1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저체중 및 과체중 아동의 경우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데이터테이블을 활용하여 산출된 값으로 3백분위수 미만/95백분위수 이상의 아동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2017).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이용지침서.

\*  $p < .05$ , \*\*  $p < .01$ , \*\*\*  $p < .001$ .

마지막으로 비만 비율을 살펴보았다. 아동 중 14.3%가 비만에 속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가구소득이 501~700만원인 경우 비만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소득에 따른 선형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아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한편 평균 백분위수는 65.2로 나타나 중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여겨진다.

〈표 III-2-38〉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에 따른 비만 비율

구분	비만	일반	계(수)	단위: %(명), 백분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3	85.7	100.0(2555)	65.2	28.0
아동 월령					
16~17개월	12.5	87.6	100.0( 514)	63.7	28.5
18~19개월	14.9	85.1	100.0( 870)	65.4	27.7
20~21개월	12.7	87.3	100.0( 685)	65.1	27.4
22~23개월	17.5	82.5	100.0( 486)	66.8	28.9
$\chi^2(df)/F$	7.11(3)			1.08	
아동 성별					
남	15.0	85.0	100.0(1313)	65.7	28.4
여	13.5	86.5	100.0(1242)	64.7	27.6
$\chi^2(df)/t$	1.15(1)			0.8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4.8	85.2	100.0( 423)	64.7	28.8
301~500만원	13.0	87.1	100.0(1296)	65.3	27.8
501~700만원	18.0	82.0	100.0( 534)	66.5	27.7
701만원 이상	12.8	87.2	100.0( 301)	63.6	28.2
$\chi^2(df)/F$	8.36(3)*			0.74	
저소득층 여부					
저소득층 아님	14.3	85.7	100.0(2502)	65.3	27.9
저소득층임	12.3	87.7	100.0( 53)	61.4	32.0
$\chi^2(df)/t$	0.33(1)			1.00	
다문화 가구 여부					
다문화 가구 아님	14.2	85.8	100.0(2414)	65.2	27.8
다문화 가구임	15.2	84.8	100.0( 141)	65.1	31.4
$\chi^2(df)/t$	0.17(1)			0.04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비만 아동의 경우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데이터테이블(신장별 체중)을 활용하여 산출된 값으로 95백분위수 이상의 아동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2017).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이용지침서.

\*  $p < .05$ .



## 2) K-DST 검사 결과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인 K-DST(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차년도 조사에서 18개월 미만까지의 아동은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의 총 5개 영역을, 18개월 이상의 아동은 앞선 5개 영역에서 ‘자조’까지 총 6개 영역을 검사하였다. 해당 검사는 월령간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2개월씩 조사지가 나누어져 있으며, 따라서 해당 개월별로 나누어 발달 검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6~17개월, 18~19개월, 20~21개월, 22~23개월).

### 가) 대근육운동 영역

먼저 대근육운동 영역에서는 팔·다리와 고개, 몸통 등을 움직이는 행동인 목 가누기, 기기, 걷기, 달리기, 차기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16~17개월 아동의 경우 또래 수준은 59.0%, 또래보다 빠르다고 평가된 경우는 36.0%였다. 심화평가가 권고되는 해당 월령의 아동은 약 0.2% 정도였다. 영역 평균 점수는 22.24점이었으며, 결과에서 남녀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9〉 대근육운동 영역: 16~17개월 아동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단위: %(명), 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	4.8	59.0	36.0	100.0 (529)	22.24	2.35
아동 성별							
남	0.0	4.8	59.0	36.3	100.0 (277)	22.20	2.38
여	0.4	4.9	59.0	35.7	100.0 (252)	22.29	2.32
$\chi^2(df)/t$		n.a.					-0.4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18~19개월 아동의 경우 또래 수준이 69.2%, 또래보다 빠른 수준은 20.1%로 나타났으며, 추적검사가 요망되는 아동의 비율은 9.6%, 심화평가가 권고되는 아동의 비율은 1.1%였다. 대근육운동 영역의 평균 점수는 21.46점이었으며 16~17개월 아동과 마찬가지로 결과에서 남아와 여아 간 차이는 없었다.

〈표 III-2-40〉 대근육운동 영역: 18~19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	9.6	69.2	20.1	100.0 (822)	21.46	2.43
아동 성별							
남	0.5	8.6	71.1	19.8	100.0 (423)	21.45	2.18
여	1.6	10.7	67.2	20.4	100.0 (399)	21.48	2.66
$\chi^2(df)/t$	n.a.						-0.18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20~21개월 아동의 경우 대근육운동 영역 발달에 있어 또래 수준이라는 정도가 앞선 월령보다 더 늘어나 74.1%로 나타났고, 또래보다 빠른 수준이라는 비율이 약 20%를 차지했다. 추적검사가 요망되는 아동의 비율은 5.9%였다. 평균 점수는 21.15점이었으며, 해당 월령 아동들의 결과에서도 역시 남아와 여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41〉 대근육운동 영역: 20~21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5.9	74.1	19.9	100.0 (499)	21.15	2.30
아동 성별							
남	0.0	5.3	76.7	18.0	100.0 (251)	21.05	2.21
여	0.3	6.5	71.5	21.7	100.0 (248)	21.26	2.38
$\chi^2(df)/t$	n.a.						-1.0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22~23개월 아동의 대근육운동 영역 검사 결과, 또래 수준은 76.2%, 또래보다 빠르다는 정도는 20.3%, 추적검사가 요망되는 비율은 3.5%이었다. 평균 점수는 21.46점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와 여아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42〉 대근육운동 영역: 22~23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	3.5	76.2	20.3	100.0 (266)	21.46	1.97
아동 성별							
남	-	2.8	76.8	20.4	100.0 (135)	21.50	1.93
여	-	4.2	75.6	20.2	100.0 (131)	21.42	2.02
$\chi^2(df)/t$		0.48(2)					0.34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나) 소근육운동 영역

팔과 손, 손가락을 사용하는 미세한 운동과 사물의 조작능력, 협응 운동 발달을 알 수 있는 잡기, 블록 쌓기, 쓰기, 그리기, 자르기 등의 미세운동을 평가하는 소근육운동 영역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16~17개월 아동의 경우 또래 수준은 70.2%, 또래보다 빠른 수준은 19.7%였으며, 추적검사가 요망되는 비율은 9.5%, 심화평가 권고 비율은 0.6%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21.37점으로 나타났고, 이 역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43〉 소근육운동 영역: 16~17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6	9.5	70.2	19.7	100.0 (529)	21.37	2.47
아동 성별							
남	0.8	9.8	72.7	16.6	100.0 (277)	21.25	2.39
여	0.4	9.2	67.4	23.0	100.0 (252)	21.51	2.55
$\chi^2(df)/t$		n.a.					-1.2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18~19개월 아동의 경우 발달이 또래수준 정도로 평가된 아동은 전체의 57.3%였고, 또래보다 빠른 수준은 32.6%로 나타났으며 추적 검사가 요망되는 비율은 8.5%였다. 해당 아동의 전체 평균 점수는 20.79점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점수에서 아동 성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아의 소근육운동 발달 수준이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III-2-44〉 소근육운동 영역: 18~19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	8.5	57.3	32.6	0.3	100.0 (822)	20.79	2.76	
아동 성별									
남	1.2	9.6	60.0	29.0	0.2	100.0 (423)	20.61	2.73	
여	1.4	7.3	54.4	36.5	0.4	100.0 (399)	20.98	2.77	
$\chi^2(df)/t$	n.a.						-1.9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5$ .

20~21개월 아동의 경우 소근육운동 발달 수준이 또래 수준으로 평가된 비율이 67.7%, 또래보다 빠르다는 비율은 22.5% 정도였으며, 추적검사가 요망되는 비율은 8.1%였다. 평균 점수는 21.33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성별 간 차이는 없었다.

〈표 III-2-45〉 소근육운동 영역: 20~21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7	8.1	67.7	22.5	100.0 (499)	21.33	2.50	
아동 성별								
남	1.6	6.9	72.7	18.9	100.0 (251)	21.23	2.44	
여	1.7	9.3	62.8	26.2	100.0 (248)	21.43	2.57	
$\chi^2(df)/t$	n.a.						-0.92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22~23개월 아동의 경우 또래 수준 정도가 72.2%, 또래보다 빠른 수준인 정도는 26.5%였다. 평균 점수는 20.92점으로, 역시 아동 성별 간 차이는 없었다.

〈표 III-2-46〉 소근육운동 영역: 22~23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	1.3	72.2	26.5	100.0 (266)	20.92	2.03	
아동 성별								
남	-	1.7	74.5	23.8	100.0 (135)	20.78	2.05	
여	-	0.9	69.8	29.4	100.0 (131)	21.06	2.01	
$\chi^2(df)/t$	n.a.						-1.1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다) 인지 영역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시청각적, 통합적 지각, 사고, 추리, 비교와 분류, 기억 및 모방, 수 개념, 공간 개념, 문제해결 등과 관련된 행동(놀이, 학습 영역 포함)을 평가하는 인지영역의 경우, 16~17개월 아동에 있어 또래 수준이라고 평가된 비율이 80.1%, 또래보다 빠른 수준이라는 비율은 15.3%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20.57점으로 나타났고,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47〉 인지 영역: 16~17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	4.4	80.1	15.3	0.1	100.0 (529)	20.57	3.11
아동 성별								
남	-	5.3	80.7	14.0	0.0	100.0 (277)	20.39	3.20
여	-	3.5	79.5	16.7	0.3	100.0 (252)	20.77	2.99
$\chi^2(df)/t$			n.a.					-1.43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18~19개월 아동의 경우 발달이 또래 수준 정도가 61.9%, 또래보다 빠른 수준은 31.3%로 나타났다. 인지 영역 평균 점수는 20.09점이었으며, 해당 점수에서 아동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의 평균 점수는 20.74점으로, 남아의 19.4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III-2-48〉 인지 영역: 18~19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7	6.1	61.9	31.3	100.0 (822)	20.09	3.64
아동 성별							
남	1.3	7.9	65.5	25.4	100.0 (423)	19.49	4.01
여	0.0	4.2	58.2	37.6	100.0 (399)	20.74	3.08
$\chi^2(df)/t$			n.a.				-5.04***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



20~21개월 아동 경우 발달이 또래 수준 정도로 평가된 비율은 68.5%, 또래보다 빠른 수준이라는 비율은 29.1%로 나타났다. 한편 추적검사가 요망되는 비율은 2.0%, 심화평가가 권고된다는 비율은 0.3%였다. 평균 점수는 20.42점으로, 아동 성별 간 점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9〉 인지 영역: 20~21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3	2.0	68.5	29.1	0.1	100.0 (499)	20.42	2.83
아동 성별								
남	0.3	2.5	70.5	26.7	0.0	100.0 (251)	20.22	2.83
여	0.3	1.6	66.4	31.4	0.3	100.0 (248)	20.62	2.83
$\chi^2(df)/t$			n.a.					-1.5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22~23개월 아동의 경우 발달이 또래 수준이라고 평가된 비율은 70%였고, 또래보다 빠른 수준이라고 평가된 비율은 29.3%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20.56점이었으며, 남아와 여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50〉 인지 영역: 22~23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	0.7	70.0	29.3	100.0 (266)	20.56	2.59
아동 성별							
남	-	0.0	73.4	26.6	100.0 (135)	20.41	2.48
여	-	1.4	66.5	32.1	100.0 (131)	20.71	2.69
$\chi^2(df)/t$			n.a.				-0.94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라) 언어 영역

언어 영역은 용알이, 말하기, 듣기 등 연령에 기대되는 수준의 언어 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이다. 16~17개월 아동의 경우 발달이 또래 수준 정도라고 평가된 비율은 78.7%, 또래보다 빠른 수준은 14.4% 등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20.18점이었다. 평균 점수에서 아동 성별 간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의 평균 점수가 20.63점으로 남아의 19.76점보다 유의하게 높아 해당 월령의 경우 언어 발달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51〉 언어 영역: 16~17개월 아동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단위: %(명), 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0.5	6.2	78.7	14.4	0.1	100.0 (529)	20.18	3.46	
아동 성별									
남	0.6	6.4	82.7	10.0	0.3	100.0 (277)	19.76	3.43	
여	0.4	6.1	74.2	19.3	0.0	100.0 (252)	20.63	3.45	
$\chi^2(df)/t$	n.a.							-2.9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1$ .

18~19개월 아동의 경우 언어 발달이 또래 수준 정도로 평가된 비율은 65.1%, 또래보다 빠른 수준이라는 비율은 30.7%였으며, 추적검사가 요망되는 비율은 4.1%이었다. 평균 점수는 19.13점이었고, 이는 아동 성별 간 차이가 있어 18~19개월 여아의 언어 발달 수준이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52〉 언어 영역: 18~19개월 아동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단위: %(명), 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	4.1	65.1	30.7	100.0 (822)	19.13	3.56	
아동 성별								
남	-	6.2	66.5	27.3	100.0 (423)	18.76	3.70	
여	-	2.0	63.7	34.4	100.0 (399)	19.51	3.36	
$\chi^2(df)/t$	11.95(2)**							-3.0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1$ .

20~21개월 아동의 경우 언어 발달 정도가 또래 수준이라는 비율이 75.6%였고, 또래보다 빠른 수준이라는 비율은 21.1%였으며, 추적검사가 요망되는 비율은 2.4%였다. 평균 점수는 18.86점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53〉 언어 영역: 20~21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5	2.4	75.6	21.1	0.4	100.0 (499)	18.86	4.07	
아동 성별									
남	0.7	2.0	81.9	14.9	0.5	100.0 (251)	18.54	3.97	
여	0.3	2.8	69.2	27.4	0.4	100.0 (248)	19.18	4.14	
$\chi^2(df)/t$	n.a.							-1.7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22~23개월 아동의 경우 언어 발달이 또래 수준인 경우가 87.9%, 또래보다 빠른 경우는 11.3%였다. 평균 점수는 19.74점이었는데, 남아 19.08점, 여아 20.42점으로 여아의 언어 발달 수준이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4〉 언어 영역: 22~23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3	0.6	87.9	11.3	100.0 (266)	19.74	3.33	
아동 성별								
남	0.6	0.5	90.7	8.2	100.0 (135)	19.08	3.56	
여	0.0	0.6	85.0	14.5	100.0 (131)	20.42	2.95	
$\chi^2(df)/t$	n.a.						-3.3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

#### 마) 사회성 영역

사회성 영역은 타인과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기술로 눈 맞춤 공동주시, 모방행동, 타인의 감정 파악, 규칙이 있는 놀이하기, 상상놀이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 해당 사회성 영역에서 16~17개월 패널아동 중 발달 정도가 또래 수준이라는 결과는

69.7%, 또래보다 빠른 수준이라는 결과는 23.1%로 나타났으며, 추적검사가 요망되는 경우는 7% 수준이었다. 평균 점수는 21.35점으로, 남녀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55〉 사회적 영역: 16~17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	7.0	69.7	23.1	100.0 (529)	21.35	2.57
아동 성별							
남	0.0	7.1	74.7	18.2	100.0 (277)	21.17	2.47
여	0.4	7.0	64.1	28.6	100.0 (252)	21.54	2.68
$\chi^2(df)/t$	n.a.						-1.6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18~19개월 아동의 경우 사회적 발달이 또래수준이라는 결과가 67.9%, 또래보다 빠르다는 비율이 22.5%였으며,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8.7%였다. 평균 점수는 21.08점이었으며 남아의 경우 20.66점, 여아의 경우 21.52점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해당 영역 점수가 높았다.

〈표 III-2-56〉 사회적 영역: 18~19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8	8.7	67.9	22.5	0.1	100.0 (822)	21.08	2.87
아동 성별								
남	1.2	9.8	71.2	17.6	0.2	100.0 (423)	20.66	2.98
여	0.4	7.5	64.4	27.7	0.0	100.0 (399)	21.52	2.68
$\chi^2(df)/t$	n.a.						-4.3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

20~21개월 아동의 경우 사회적 발달의 정도에 있어 또래 수준이라는 결과가 약 80%, 또래보다 빠른 수준이라는 결과가 15.5%로 나타났으며, 추적검사가 요망된다는 비율이 3.9%였다. 평균 점수는 20.47점이었는데, 남아와 여아 간 차이는 유

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57〉 사회성 영역: 20~21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5	3.9	80.1	15.5	100.0 (499)	20.47	2.97
아동 성별							
남	0.7	3.5	83.5	12.3	100.0 (251)	20.23	2.87
여	0.3	4.3	76.6	18.8	100.0 (248)	20.71	3.06
$\chi^2(df)/t$		n.a.					-1.8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22~23개월 아동의 경우 사회성 영역에 있어 또래 수준이라는 결과가 85.0%, 또래보다 빠른 수준이라는 결과가 13.8%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20.47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2-58〉 사회성 영역: 22~23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	1.1	85.0	13.8	100.0 (266)	20.47	2.62
아동 성별							
남	-	0.0	91.8	8.2	100.0 (135)	20.27	2.43
여	-	2.3	78.1	19.6	100.0 (131)	20.68	2.79
$\chi^2(df)/t$		n.a.					-1.3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바) 자조 영역

자조 영역은 아동이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로, 식사하기, 대소변 가리기, 옷 입고 벗기, 청결과 위생 등과 같은 행동이 포함된다. 해당 영역에서 18~19개월 아동의 발달 수준은 또래 수준이라는 결과가 62.9%, 또래보다 빠른 수준이라는 결과는 25.4%로 나타났다. 18~19개월 아동의 자조 영역 발달 점수의 평균은 20.09점이었는데, 남아가 19.68점, 여아가 20.53점으로 통계적으로 남아보다 여아의 발달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9〉 자조 영역: 18~19개월 아동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단위: %(명), 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0.7	10.9	62.9	25.4	0.1	100.0 (822)	20.09	2.92	
아동 성별									
남	0.7	14.3	64.9	20.0	0.2	100.0 (423)	19.68	2.93	
여	0.6	7.4	60.9	31.2	0.0	100.0 (399)	20.53	2.85	
$\chi^2(df)/t$	n.a.							-4.22***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

20~21개월 아동의 경우 자조 영역의 발달에 있어 또래 수준이라는 결과가 62.5%로 나타났으며, 또래보다 빠른 수준이라는 결과는 30.1%로 나타났다. 해당 영역의 평균 점수는 20.36점이었으며, 남아 20.24점, 여아 20.48점으로 성별 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표 III-2-60〉 자조 영역: 20~21개월 아동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단위: %(명), 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	5.9	62.5	30.1	100.0 (499)	20.36	3.05	
아동 성별								
남	1.6	4.2	67.9	26.4	100.0 (251)	20.24	2.95	
여	1.4	7.7	57.1	33.8	100.0 (248)	20.48	3.15	
$\chi^2(df)/t$	n.a.							-0.8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22~23개월 아동의 경우 자조 영역 발달 정도가 또래 수준이라는 결과가 84.1%, 또래보다 빠른 수준은 15.6%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점수는 20.56점이었 다.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61〉 자조 영역: 22~23개월 아동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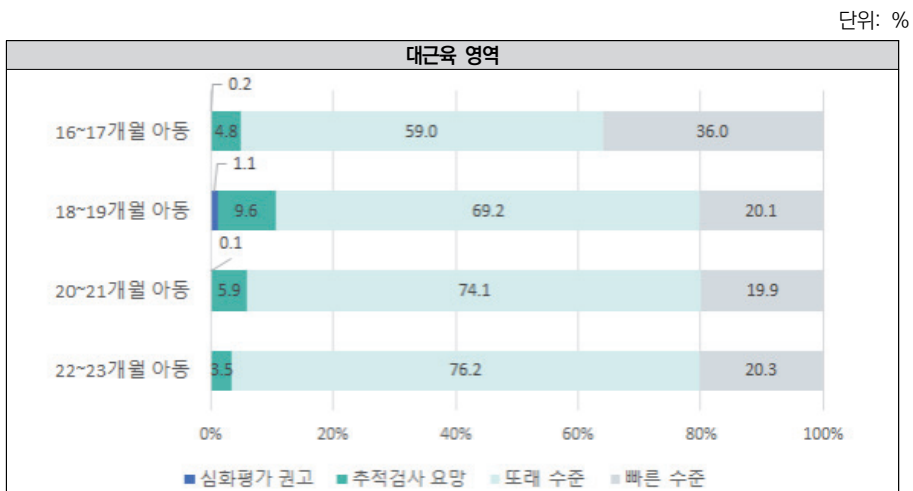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	0.3	84.1	15.6	100.0 (266)	20.56	2.40
아동 성별							
남	-	0.6	84.5	14.9	100.0 (135)	20.44	2.36
여	-	0.0	83.7	16.3	100.0 (131)	20.68	2.45
$\chi^2(df)/t$		n.a.					-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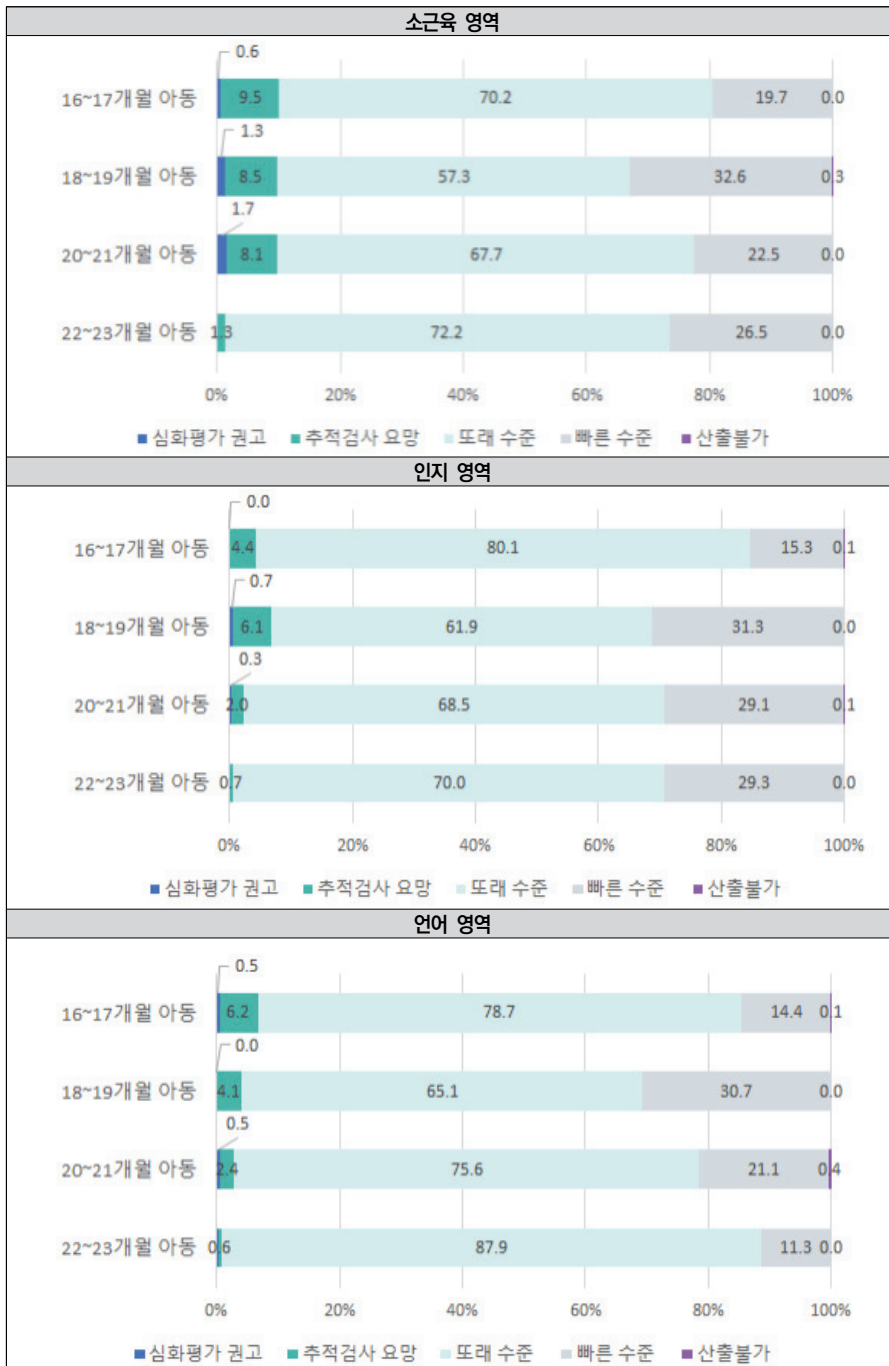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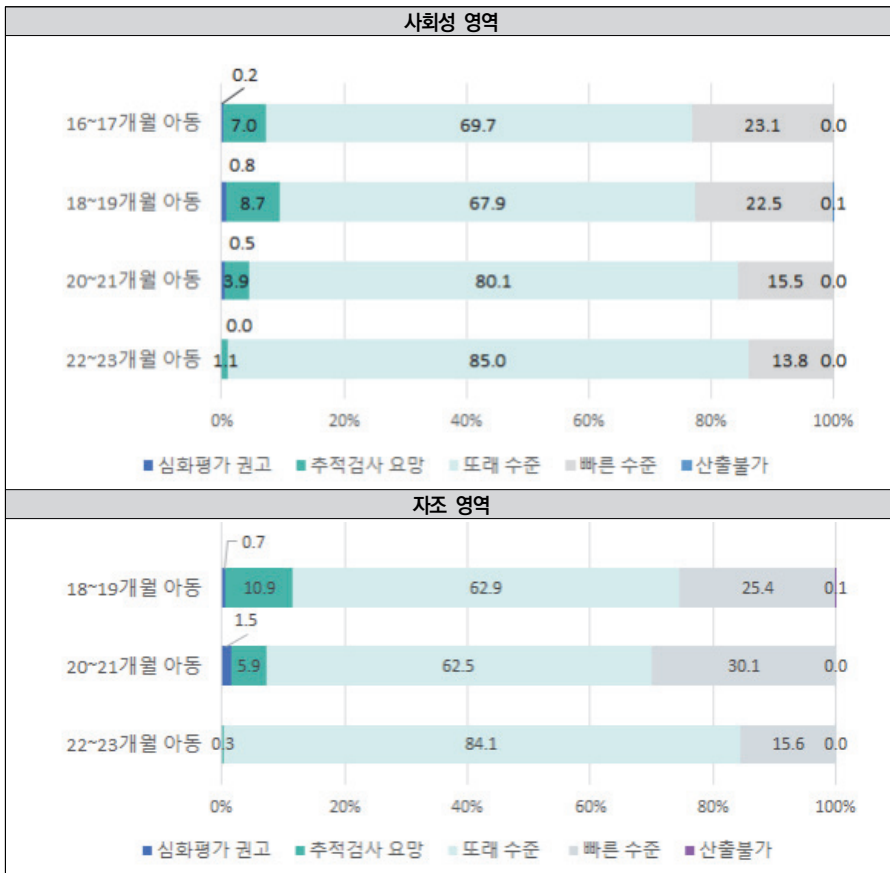
각 영역별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III-2-6]과 같다.

[그림 III-2-6] K-DST 검사 결과









주: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사) 추가 질문

K-DST에는 각 영역의 발달과 관련된 문항뿐만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과 발달의 양적인 지연이 뚜렷하지 않으면서도 질적으로 변형된 발달을 보이는 신경발달장애를 탐지할 수 있는 항목을 다루는 추가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대한소아과학회, 2017: 10). 2차년도에 실시한 K-DST 질문지에서는 운동 발달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3가지와 사회성 발달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2가지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심화평가가 권고되는 아동은 18~19개월 아동의 경우 0.5%, 20~21개월 아동의 경우 1.2%로 나타났다.

〈표 III-2-62〉 추가질문 결과

단위: %(명)

구분	16~17개월			18~19개월			20~21개월			22~23개월		
	정상	심화평가 권고	(수)	정상	심화평가 권고	(수)	정상	심화평가 권고	(수)	정상	심화평가 권고	(수)
전체	100.0	-	(529)	99.5	0.5	(822)	98.8	1.2	(499)	100.0	-	(26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3)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결과

주양육자인 부모가 아동의 평소 행동에 대해 응답하여 문제행동 정도를 알아보는 CBCL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97.0%가 정상군에 속하였으며, 준임상군은 0.7%, 임상군은 2.4%에 해당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정상군은 96.3%, 준임상군은 0.7%, 임상군은 2.9%이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정상군은 95.8%, 준임상군은 2.8%, 임상군은 1.5%가 해당하였다.

〈표 III-2-63〉 CBCL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단위: %

영역	구분	보호자의 증후군 평가(CBCL)			계(수)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총 문제행동	전체	97.0	0.7	2.4	100.0(2041)
	남	96.9	0.8	2.3	100.0(1051)
	여	97.0	0.6	2.4	100.0( 990)
내재화 문제행동	전체	96.3	0.7	2.9	100.0(2041)
	남	96.3	0.9	2.9	100.0(1051)
	여	96.4	0.6	3.0	100.0( 990)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	95.8	2.8	1.5	100.0(2041)
	남	96.8	1.9	1.3	100.0(1051)
	여	94.7	3.7	1.6	100.0( 990)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문제행동 정도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월령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 부모는 월령이 어릴수록 그 수준을 높게 보고하였다. 또한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즉, 첫째가 둘째나 셋째 이상인 경우 보다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서 문제행동 정도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표 III-2-64〉 영아 문제행동

단위: 점(명)

구분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96	10.92	37.31	10.35	35.79	9.65	(2041)
아동 월령							
18~19개월	35.54	10.58	37.67	9.76	36.42 <sup>b</sup>	9.83	( 870)
20~21개월	34.37	9.78	36.88	9.52	35.26 <sup>a</sup>	8.82	( 685)
22~23개월	34.75	12.84	37.27	12.32	35.40 <sup>ab</sup>	10.37	( 486)
<i>F</i>	2.32		1.13		3.30 <sup>*</sup>		
아동 성별							
남	34.89	10.46	37.21	9.75	35.80	9.26	(1051)
여	35.03	11.39	37.41	10.96	35.78	10.05	( 990)
<i>t</i>	-0.29		-0.45		0.03		
출생순위							
첫째	35.57 <sup>b</sup>	11.26	37.85 <sup>b</sup>	10.61	36.35 <sup>b</sup>	9.88	(1259)
둘째	34.24 <sup>ab</sup>	10.77	36.55 <sup>ab</sup>	10.23	35.14 <sup>ab</sup>	9.66	( 632)
셋째 이상	32.87 <sup>a</sup>	7.77	35.94 <sup>a</sup>	8.17	33.82 <sup>a</sup>	6.83	( 150)
<i>F</i>	6.10 <sup>**</sup>		4.73 <sup>**</sup>		6.76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T점수가 64점 이상이면 임상, 60점 이상~ 64점 미만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 \*\*  $p < .01$ .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은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이 있다. 이들 중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은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으로 나누어지며, 주의집중문제에서 출생순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인 경우 둘째나 셋째 이상의 아동에 비해 부모는 주의집중문제를 더 높게 보고하였다.

〈표 III-2-65〉 내재화 문제행동

단위: 점(명)

구분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0.88	3.90	50.85	3.98	51.24	4.58	51.08	4.42	(2041)
아동 월령									
18~19개월	50.87	4.01	50.79	3.97	51.08	4.18	51.06	4.47	( 870)
20~21개월	50.66	3.17	50.72	3.18	51.15	4.07	50.94	3.84	( 685)
22~23개월	51.19	4.56	51.14	4.91	51.65	5.79	51.33	5.03	( 486)
<i>F</i>	2.70		1.69		2.63		1.16		
아동 성별									
남	50.78	3.17	50.72	3.21	51.13	3.90	51.04	3.82	(1051)
여	50.98	4.54	51.00	4.67	51.35	5.21	51.13	4.98	( 990)
<i>t</i>	-1.18		-1.58		-1.07		-0.44		
출생순위									

구분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첫째	50.99	3.93	50.97	4.09	51.40	4.70	51.17	4.49	(1259)
둘째	50.80	4.22	50.76	4.16	50.99	4.58	50.94	4.50	( 632)
셋째 이상	50.26	1.45	50.24	1.47	50.95	3.45	50.91	3.32	( 150)
<i>F</i>	2.52		2.52		1.99		0.72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70점 미만이면 준임상 수준임.

〈표 III-2-66〉 외현화 문제행동

단위: 점(명)

구분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0.99	3.46	50.63	3.38	(2041)
아동 월령					
18~19개월	51.15	3.68	50.69	3.71	( 870)
20~21개월	50.73	2.94	50.44	2.66	( 685)
22~23개월	51.06	3.70	50.80	3.66	( 486)
<i>F</i>	2.89		1.77		
아동 성별					
남	50.97	3.11	50.53	2.60	(1051)
여	51.00	3.79	50.75	4.05	( 990)
<i>t</i>	-0.18		-1.46		
출생순위					
첫째	51.18 <sup>b</sup>	3.69	50.65	3.39	(1259)
둘째	50.72 <sup>ab</sup>	3.22	50.72	3.71	( 632)
셋째 이상	50.47 <sup>a</sup>	1.97	50.14	0.81	( 150)
<i>F</i>	5.54 <sup>**</sup>		1.8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70점 미만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1$ .

### 3. 가정의 양육 환경

본 절에서는 아동을 둘러싼 가정의 양육환경 즉, 부모 특성 및 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부모 건강

##### 1) 장애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모의 장애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본조사에

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중증 장애, 경증 장애, 해당 없음의 세 가지 범주로 장애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아버지의 경우 중증 장애를 가진 비율은 0.2%, 경증 장애를 가진 비율은 1.1%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8.8%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경우 중증 장애를 가진 비율은 0.3%, 경증 장애를 가진 비율은 0.3%로, 대부분인 99.3%가 장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1〉 부모 장애 여부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중증	경증	해당없음	계(수)	중증	경증	해당없음	계(수)
전체	0.2	1.1	98.8	100.0(1411)	0.3	0.3	99.3	100.0 (2036)

주: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조사된 장애 종류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아버지의 경우, 조사된 장애는 주로 지체장애(9명), 시각장애(4명), 지적장애(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를 가진 아버지 중에서는 11.1%가 중증 장애를, 88.9%가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각장애의 경우 100%가 경증 장애에 속했다. 또한, 신장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의 경우는 모두 중증 장애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경우, 장애 유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지체장애(6명), 간장애(2명) 등이 주요한 장애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지체장애를 가진 어머니 중에서는 33.3%가 중증 장애, 66.7%가 경증 장애로 나타났으며, 간장애를 가진 어머니는 모두 중증 장애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경우 각각 1명이 중증 또는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부모 장애 종류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중증	경증	계(수)	중증	경증	계(수)
지체장애	11.1(1)	88.9(8)	100.0(9)	33.3(2)	66.7(4)	100.0(6)
뇌병변장애	-	100.0(1)	100.0(1)	100.0(1)	-	100.0(1)
시각장애	-	100.0(4)	100.0(4)	-	100.0(1)	100.0(1)
청각장애	-	-	-	-	100.0(1)	100.0(1)
언어장애	-	-	-	-	-	-
지적장애	100.0(1)	-	100.0(1)	100.0(1)	-	100.0(1)
정신장애	-	100.0(1)	100.0(1)	-	-	-
자폐성장애	-	-	-	-	-	-
신장장애	100.0(1)	-	100.0(1)	-	-	-
심장장애	-	100.0(1)	100.0(1)	-	-	-
호흡기장애	-	-	-	-	-	-
간장애	-	-	-	100.0(2)	-	100.0(2)
안면장애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100.0(1)	100.0(1)
뇌전증장애	-	-	-	100.0(1)	-	100.0(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2) 흡연 및 음주

부모의 흡연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경우 28.7%가 흡연한다고 답했으며, 71.3%가 비흡연자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는 2.3%만이 흡연자로, 97.7%는 비흡연자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5세 미만의 아버지는 흡연 비율이 80.1%로 가장 높았으며, 25~30세 미만에서는 50.2%, 30~35세 미만에서는 28.0%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0세 이상의 아버지도 29.9%의 흡연율을 기록했다. 어머니의 경우, 2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흡연 비율이 14.9%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30세 이상에서는 약 1.0~1.3%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3-3〉 부모 흡연 여부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피우지 않음	피움	계(수)	피우지 않음	피움	계(수)
전체	71.3	28.7	100.0(1411)	97.7	2.3	100.0(2036)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19.9	80.1	100.0( 8)	85.1	14.9	100.0( 29)
25~30세 미만	49.8	50.2	100.0( 65)	91.8	8.2	100.0( 203)
30~35세 미만	72.0	28.0	100.0( 371)	98.7	1.3	100.0( 832)
35~40세 미만	74.4	25.6	100.0( 611)	98.4	1.6	100.0( 741)
40세 이상	70.1	29.9	100.0( 350)	99.0	1.0	100.0( 230)
$\chi^2(df)$	27.09(4)***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

최근 7일 내 간접흡연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경우 9.3%가 간접흡연을 경험하였으나, 90.7%가 간접흡연을 경험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8.4%가 간접흡연을 경험했으며, 91.6%는 간접흡연을 경험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25세 미만인 경우 약 20%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4〉 최근 7일 내 간접흡연 여부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	계(수)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	계(수)
전체	9.3	90.7	100.0(1411)	8.4	91.6	100.0(2036)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24.5	75.5	100.0( 8)	21.6	78.4	100.0( 29)
25~30세 미만	7.2	92.8	100.0( 65)	11.6	88.4	100.0( 203)
30~35세 미만	10.2	89.8	100.0( 371)	7.7	92.3	100.0( 832)
35~40세 미만	7.4	92.6	100.0( 611)	7.9	92.1	100.0( 741)
40세 이상	12.1	87.9	100.0( 350)	8.4	91.6	100.0( 230)
$\chi^2(df)$	8.53(6)			8.86(4)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모의 음주 습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경우 72.3%가 음주를 한다고 답했으며, 27.7%는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는 46.8%가 음주를 한다고 답했으며, 53.2%는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5세 미만의 아버지는 39.3%로 음주 비율이 가장 낮았고, 25~30세 미만에서는 67.7%, 30~35세 미만에서는 68.0%, 40세 이상에서는 69.7%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음주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경우, 25세 미만에서는 22.4%로 가장 낮았고, 30~35세 미만에서는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II-3-5〉 음주 습관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마셨음	마시지 않았음	계(수)	마셨음	마시지 않았음	계(수)
전체	72.3	27.7	100.0(1411)	46.8	53.2	100.0(2036)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39.3	60.7	100.0( 8)	22.4	77.6	100.0( 29)
25~30세 미만	67.7	32.3	100.0( 65)	37.9	62.1	100.0( 203)
30~35세 미만	68.0	32.0	100.0( 371)	50.0	50.0	100.0( 832)
35~40세 미만	77.6	22.4	100.0( 611)	47.1	52.9	100.0( 741)
40세 이상	69.7	30.3	100.0( 350)	45.4	54.6	100.0( 230)
$\chi^2(df)$	18.48(4)**			16.66(4)**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1$ .

부모의 음주 습관(음주량)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경우, 월 1회 이하 음주는 13.4%, 월 2~4회 음주는 49.7%, 주 2~4회 음주는 29.4%, 그리고 거의 매일 음주하는 비율은 7.5%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월 1회 이하 음주가 20.0%, 월 2~4회 음주는 48.7%, 주 2~4회 음주는 28.0%, 거의 매일 음주는 3.3%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5세 미만 아버지는 월 1회 이하 음주가 74.6%로 가장 높았으며, 30~35세 미만에서는 월 2~4회 음주가 55.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25세 미만에서는 월 2~4회 음주가 88.9%로 가장 많았으며, 30~35세 미만에서는 47.3%가 월 2~4회 음주를 한다고 답했다.



〈표 III-3-6〉 음주 습관 (음주하는 경우) 음주량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4회	거의 매일	계(수)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4회	거의 매일	계(수)
전체	13.4	49.7	29.4	7.5	100.0(1020)	20.0	48.7	28.0	3.3	100.0( 953)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74.6	-	25.4	0.0	100.0( 3)	11.1	88.9	-	-	100.0( 7)
25~30세 미만	25.5	38.4	24.1	12.0	100.0( 44)	17.8	46.0	32.6	3.7	100.0( 77)
30~35세 미만	9.1	55.1	31.0	4.8	100.0( 252)	20.3	47.3	29.5	3.0	100.0( 416)
35~40세 미만	13.6	49.1	30.0	7.3	100.0( 474)	18.5	49.0	28.3	4.1	100.0( 349)
40세 이상	14.4	48.2	27.9	9.5	100.0( 244)	26.0	52.3	19.6	2.1	100.0( 105)
$\chi^2(df)$	n.a.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3) 만성질환 및 집중 여부

부모의 만성질환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성질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 고혈압이 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 당뇨병(2.6%), 간질환(2.5%), 심·뇌혈관질환(1.8%), 만성하기도질환(1.1%), 관절질환(2.4%) 등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갑상선질환이 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우울/조울증(2.3%), 고혈압(1.2%), 관절질환(2.0%), 기타 질환(3.1%)이 주요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다.

기타 만성질환에서는 아버지의 악성신생물이 0.5%, 어머니의 경우 0.6%로 조사되었다.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아버지(0.2%)와 어머니(0.1%) 모두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3-7〉 부모 만성질환 여부

단위: %

구분	아버지	어머니	구분	아버지	어머니
고혈압	8.1	1.2	관절질환	2.4	2.0
당뇨병	2.6	0.7	갑상선질환	0.9	3.4
심·뇌혈관질환	1.8	0.4	우울/조울증	1.0	2.3
간질환	2.5	0.7	만성신부전증	0.2	0.1
만성하기도질환	1.1	0.9	악성신생물	0.5	0.6
			기타	1.9	3.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아버지는 1,411명, 어머니는 2,036명 기준임.

아버지의 질병 가족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sup>18)</sup> 아버지의 부모, 즉 아동의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의 질병 가족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신지체의 경우 아버지의 어머니(친할머니)는 0.1%, 아버지의 아버지(친할아버지)는 0.5%가 해당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형아 출산의 경우, 친할머니는 0.1%, 친할아버지는 0.0%로 조사되었다. 자폐증의 경우, 친할머니는 0.1%, 친할아버지는 0.2%로 나타났다.

유전질환에 대해서는 친할머니가 1.4%, 친할아버지가 2.0%로, 유전질환 가족력을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타 질병에서는 친할머니가 2.2%, 친할아버지가 3.0%로 조사되었다.

〈표 III-3-8〉 질병 가족력: 아버지

단위: %(명)

구분	아버지의 어머니(아동 친할머니)				아버지의 아버지(아동 친할아버지)			
	예	아니오	모름	계(수)	예	아니오	모름	계(수)
정신지체	0.1	98.1	1.9	100.0(1411)	0.5	98.1	1.4	100.0(1411)
기형아 출산	0.1	97.6	2.3	100.0(1411)	-	97.6	2.4	100.0(1411)
자폐증	0.1	98.7	1.2	100.0(1411)	0.2	98.5	1.3	100.0(1411)
유전질환	1.4	94.1	4.5	100.0(1411)	2.0	93.4	4.5	100.0(1411)
기타	2.2	93.2	4.5	100.0(1411)	3.0	92.5	4.4	100.0(141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어머니의 임신 중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69.8%의 어머니가 임신 중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30.2%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세 미만 어머니의 71.6%가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25~30세 미만에서는 56.4%가 예방접종을 받았다. 30~35세 미만에서는 72.1%, 35~40세 미만에서는 71.4%, 40세 이상에서는 68.2%가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분석에서는, 3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서 66.3%가 예방접종을 받았고, 301~500만원 소득 가구에서는 68.3%, 501~700만원 소득 가구에서는 72.1%, 701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78.3%가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8) 어머니의 질병 가족력은 기초조사에서 실시한 바 있음.

〈표 III-3-9〉 임신 중 예방접종 여부: 어머니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69.8	30.2	100.0(2036)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71.6	28.4	100.0( 29)
25~30세 미만	56.4	43.6	100.0( 203)
30~35세 미만	72.1	27.9	100.0( 832)
35~40세 미만	71.4	28.6	100.0( 741)
40세 이상	68.2	31.8	100.0( 230)
$\chi^2(df)$	20.82(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6.3	33.7	100.0( 357)
301~500만원	68.3	31.7	100.0(1040)
501~700만원	72.1	27.9	100.0( 409)
701만원 이상	78.3	21.7	100.0( 231)
$\chi^2(df)$	12.31(3)**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1$ , \*\*\*  $p < .001$ .

어머니의 임신 중 접종 종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임신 중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6%의 어머니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고, 49.4%는 접종을 받지 않았다. 백일해 예방접종의 경우 46.4%가 접종을 받았으며, 53.6%는 받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7.6%가 받았으며, 82.4%는 받지 않았다.

풍진 예방접종은 11.6%가 받았으며, 88.4%는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형 간염과 B형 간염 예방접종 비율은 각각 11.5%와 10.5%로 조사되었으며, 대다수의 어머니가 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 기타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0.2%로 매우 낮았다.

〈표 III-3-10〉 임신 중 접종 종류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구분	예	아니오	계(수)
풍진	11.6	88.4	100.0 (2036)	코로나19	17.6	82.4	100.0 (2036)
백일해	46.4	53.6	100.0 (2036)	독감	50.6	49.4	100.0 (2036)
B형 간염	10.5	89.5	100.0 (2036)	기타	0.2	99.8	100.0 (2036)
A형 간염	11.5	88.6	100.0 (203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4) 스마트폰 과의존

아버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아버지의 89.6%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으며, 8.2%는 잠재적 위험군, 2.2%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25세 미만 아버지의 경우 100.0%가 일반 사용자로 나타났다. 25~30세 미만에서는 97.5%가 일반 사용자로 분류되었고, 잠재적 위험군은 2.5%였다. 35~40세 미만 아버지의 경우 잠재적 위험군 비율이 9.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위험군은 3.1%로 나타났다. 40세 이상의 아버지는 89.8%가 일반 사용자로 분류되었으며, 잠재적 위험군 비율은 8.5%, 고위험군은 1.7%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취업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취업 중인 아버지의 89.6%가 일반 사용자에게 해당하였다. 가구소득별 분석에서는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 고위험군 비율이 2.7%로 나타났으며, 701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잠재적 위험군 비율이 10.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3-11〉 스마트폰 과의존: 아버지

단위: %(명), 점

구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89.6	8.2	2.2	100.0(1411)	16.31	5.29
아버지 연령						
25세 미만	100.0	0.0	0.0	100.0( 8)	14.73 <sup>a</sup>	4.96
25~30세 미만	97.5	2.5	0.0	100.0( 65)	14.59 <sup>a</sup>	4.28
30~35세 미만	91.4	7.0	1.6	100.0( 371)	16.01 <sup>a</sup>	5.14
35~40세 미만	87.3	9.6	3.1	100.0( 611)	16.87 <sup>a</sup>	5.35
40세 이상	89.8	8.5	1.7	100.0( 350)	16.04 <sup>a</sup>	5.47
$\chi^2(df)/F$		n.a.			4.11 <sup>**</sup>	
아버지 취업 여부						
취업 중	89.6	8.4	1.9	100.0(1367)	16.30 <sup>a</sup>	5.26
학업 중	39.4	0.0	60.6	100.0( 2)	25.46 <sup>b</sup>	6.20
미취업/미취학	90.6	1.8	7.5	100.0( 42)	16.26 <sup>a</sup>	6.02
$\chi^2(df)/F$		n.a.			3.01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89.8	7.5	2.7	100.0( 271)	16.66 <sup>a</sup>	5.51
301~500만원	89.3	8.3	2.4	100.0( 728)	16.21 <sup>a</sup>	5.34
501~700만원	90.6	7.6	1.8	100.0( 261)	16.19 <sup>a</sup>	5.13
701만원 이상	89.1	10.1	0.8	100.0( 151)	16.40 <sup>a</sup>	4.95

구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계(수)	평균	표준 편차
$\chi^2(df)/F$	3.05(6)				0.54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점 척도이며(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10개 문항으로 구성됨.  
 3) 기준점수: 고위험군 29점 이상, 잠재적 위험군 24~28점  
 4)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5)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분석 결과, 81.4%의 어머니가 일반 사용자로 분류되었으며, 13.6%는 잠재적 위험군, 5.0%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세 미만 어머니의 경우 85.5%가 일반 사용자였으며, 9.2%는 잠재적 위험군, 5.3%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30~35세 미만 어머니의 경우 80.5%가 일반 사용자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 비율은 15.6%, 고위험군 비율은 3.9%였다. 40세 이상의 어머니는 고위험군 비율이 6.7%로 가장 높았다.

취업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취업 중인 어머니의 82.6%가 일반 사용자였으며, 학업 중인 어머니의 고위험군 비율은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서 잠재적 위험군 비율이 16.8%로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군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701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는 고위험군 비율이 4.4%로 조사되었다.

〈표 III-3-12〉 스마트폰 과의존: 어머니

구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81.4	13.6	5.0	100.0(2036)	18.01	5.78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85.5	9.2	5.3	100.0( 29)	18.09	5.90
25~30세 미만	82.9	11.9	5.2	100.0( 203)	17.43	5.87
30~35세 미만	80.5	15.6	3.9	100.0( 832)	18.18	5.70
35~40세 미만	80.8	13.4	5.7	100.0( 741)	18.20	5.74
40세 이상	84.3	9.0	6.7	100.0( 230)	17.27	6.03
$\chi^2(df)/F$	11.21(8)				1.83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82.6	13.1	4.3	100.0(1036)	18.04	5.71
학업 중	85.7	7.0	7.3	100.0( 21)	16.08	6.21
미취업/미취학	79.9	14.3	5.7	100.0( 979)	18.01	5.84

단위: %(명), 점

구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계(수)	평균	표준 편차
$\chi^2(df)/F$	n.a.				1.1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79.5	16.8	3.7	100.0( 357)	17.90	5.94
301~500만원	81.7	12.7	5.6	100.0(1040)	18.10	5.76
501~700만원	81.8	13.2	5.0	100.0( 409)	17.72	5.92
701만원 이상	82.2	13.4	4.4	100.0( 231)	18.26	5.38
$\chi^2(df)/F$	6.09(6)				0.62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점 척도이며(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10개 문항으로 구성됨.

3) 기준점수: 고위험군 29점 이상, 잠재적 위험군 24~28점

4)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스마트폰 과의존은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되었다. 아버지의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 조절실패의 평균은 6.10점으로 나타났고, 현저성은 4.82점, 문제적 결과는 5.39점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30세 미만 아버지의 조절실패 평균은 5.72점, 현저성은 4.01점이었다. 30~35세 미만 아버지의 조절실패는 5.95점, 현저성은 4.78점으로 나타났고, 35~40세 미만에서는 조절실패가 6.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현저성은 4.96점으로 조사되었다. 40세 이상에서는 조절실패가 5.81점, 현저성은 4.80점으로 연령대 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취업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취업 중인 아버지의 조절실패는 6.10점, 현저성은 4.82점으로 나타났고, 학업 중인 아버지는 조절실패 평균이 10.82점으로 가장 높았다. 미취업/미취학 아버지의 조절실패는 5.97점, 현저성은 4.68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13〉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영역: 아버지

단위: 점(명)

구분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6.10	2.48	(1411)	4.82	1.92	(1411)	5.39	1.86	(1411)
아버지 연령									
25세 미만	5.07 <sup>a</sup>	2.30	( 8)	4.83 <sup>a</sup>	2.38	( 8)	4.83	1.36	( 8)
25~30세 미만	5.72 <sup>a</sup>	2.56	( 65)	4.01 <sup>a</sup>	1.42	( 65)	4.85	1.55	( 65)
30~35세 미만	5.95 <sup>a</sup>	2.48	( 371)	4.78 <sup>a</sup>	1.91	( 371)	5.28	1.75	( 371)
35~40세 미만	6.42 <sup>a</sup>	2.48	( 611)	4.96 <sup>a</sup>	1.92	( 611)	5.49	1.94	( 611)
40세 이상	5.81 <sup>a</sup>	2.41	( 350)	4.80 <sup>a</sup>	1.97	( 350)	5.43	1.90	( 350)
F	4.77***			3.72**			2.35		

구분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아버지 취업 여부									
취업 중	6.10 <sup>a</sup>	2.48	(1367)	4.82	1.91	(1367)	5.38	1.83	(1367)
학업 중	10.82 <sup>b</sup>	2.07	( 2)	7.42	2.76	( 2)	7.21	1.38	( 2)
미취업/미취학	5.97 <sup>a</sup>	2.26	( 42)	4.68	2.09	( 42)	5.61	2.65	( 42)
<i>F</i>	3.72 <sup>*</sup>			1.97			1.3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25	2.49	( 271)	4.93	2.02	( 271)	5.48	2.03	( 271)
301~500만원	6.01	2.49	( 728)	4.78	1.88	( 728)	5.42	1.89	( 728)
501~700만원	6.15	2.48	( 261)	4.80	1.87	( 261)	5.25	1.70	( 261)
701만원 이상	6.22	2.39	( 151)	4.88	1.97	( 151)	5.30	1.65	( 151)
<i>F</i>	0.83			0.48			0.8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조절실패와 현저성은 4~12점, 문제적 결과는 4~16점 범위임.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영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절실패의 평균은 6.95점, 현저성은 5.56점, 문제적 결과는 5.50점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25세 미만 어머니의 경우 조절실패 평균은 6.67점, 현저성은 5.95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성 점수가 높았다. 30~35세 미만 어머니의 조절실패 평균은 7.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현저성은 5.65점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에서는 조절실패 평균이 6.33점으로 가장 낮았고, 현저성은 5.20점으로 나타났다.

〈표 III-3-14〉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영역: 어머니

단위: 점(명)

구분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6.95	2.67	(2036)	5.56	2.26	(2036)	5.50	1.98	(2036)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6.67 <sup>a</sup>	2.70	( 29)	5.95 <sup>a</sup>	2.56	( 29)	5.47	1.62	( 29)
25~30세 미만	6.59 <sup>a</sup>	2.71	( 203)	5.33 <sup>a</sup>	2.30	( 203)	5.52	2.06	( 203)
30~35세 미만	7.10 <sup>a</sup>	2.70	(832)	5.65 <sup>a</sup>	2.25	( 832)	5.43	1.94	( 832)
35~40세 미만	7.07 <sup>a</sup>	2.62	( 741)	5.63 <sup>a</sup>	2.28	( 741)	5.50	1.93	( 741)
40세 이상	6.33 <sup>a</sup>	2.62	( 230)	5.20 <sup>a</sup>	2.14	( 230)	5.75	2.20	( 230)
<i>F</i>	5.27 <sup>***</sup>			2.70 <sup>*</sup>			1.20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7.01	2.63	(1036)	5.56	2.24	(1036)	5.48	1.94	(1036)
학업 중	5.89	2.96	( 21)	5.19	2.80	( 21)	4.99	1.27	( 21)

구분	조절실패			현재성			문제적 결과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미취업/미취학 <i>F</i>	6.90	2.70	( 979)	5.57	2.28	( 979)	5.54	2.02	( 979)
	2.02			0.29			0.9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96	2.79	( 357)	5.51	2.36	( 357)	5.43	1.91	( 357)
301~500만원	6.97	2.66	(1040)	5.61	2.28	(1040)	5.51	1.97	(1040)
501~700만원	6.74	2.59	( 409)	5.41	2.23	( 409)	5.57	2.13	( 409)
701만원 이상	7.17	2.64	( 231)	5.67	2.10	( 231)	5.42	1.80	( 231)
<i>F</i>	1.41			1.01			0.4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조절실패와 현재성은 4~12점, 문제적 결과는 4~16점 범위임.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그림 III-3-1] 부모 스마트폰 과의존

단위: 점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나. 부모 심리적 및 관계적 특성

### 1) 심리적 특성

부모의 그릿(Grit)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릿은 5점 척도, 총 8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평균은 3.55점, 어머니의 평균은 3.35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25~30세 미만에서 3.64점으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상에서는 3.53점으로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의 경우 40세 이상이 3.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5세 미만에서는 3.14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어머니 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최종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보다 그릿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아버지는 3.66점, 어머니는 3.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하 학력에서는 아버지 3.49점, 어머니 3.28점으로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경우 학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으며, 취업 중인 아버지의 그릿 평균은 3.55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는 학업 중일 때 3.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취업/미취학인 경우 3.2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구소득별 분석에서는 701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아버지가 3.69점, 어머니는 3.50점으로 가장 높은 그릿 점수를 보였으며,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아버지 3.50점, 어머니 3.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3-15〉 부모 그릿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55	0.55	(1411)	3.35	0.54	(2036)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3.47	0.67	( 8)	3.14 <sup>a</sup>	0.49	( 29)
25~30세 미만	3.64	0.55	( 65)	3.28 <sup>ab</sup>	0.54	( 203)
30~35세 미만	3.55	0.54	( 371)	3.33 <sup>ab</sup>	0.53	( 832)
35~40세 미만	3.54	0.54	( 611)	3.38 <sup>b</sup>	0.56	( 741)
40세 이상	3.53	0.56	( 350)	3.42 <sup>b</sup>	0.51	( 230)
<i>F</i>	0.59			3.61 <sup>**</sup>		
아버지/어머니 최종학력						
고졸이하	3.49 <sup>a</sup>	0.58	( 267)	3.28 <sup>a</sup>	0.55	( 324)
전문대(기능대학)	3.50 <sup>a</sup>	0.54	( 220)	3.29 <sup>a</sup>	0.55	( 364)
대학교	3.56 <sup>ab</sup>	0.54	( 802)	3.36 <sup>a</sup>	0.52	(1148)
대학원 이상	3.66 <sup>b</sup>	0.52	( 123)	3.55 <sup>b</sup>	0.60	( 200)
<i>F</i>	3.66 <sup>*</sup>			12.09 <sup>***</sup>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3.55	0.55	(1367)	3.41 <sup>ab</sup>	0.54	(1036)
학업 중	3.63	0.00	( 2)	3.55 <sup>b</sup>	0.71	( 21)
미취업/미취학	3.50	0.63	( 42)	3.28 <sup>a</sup>	0.53	( 979)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i>F</i>	0.16			16.4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50 <sup>a</sup>	0.57	( 271)	3.28 <sup>a</sup>	0.55	( 357)
301~500만원	3.53 <sup>a</sup>	0.54	( 728)	3.34 <sup>a</sup>	0.54	(1040)
501~700만원	3.56 <sup>ab</sup>	0.53	( 261)	3.38 <sup>a</sup>	0.52	( 409)
701만원 이상	3.69 <sup>b</sup>	0.55	( 151)	3.50 <sup>b</sup>	0.53	( 231)
<i>F</i>	4.23**			8.8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 총 1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아버지의 평균은 3.20점, 어머니의 평균은 3.05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25~30세 미만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3.27점으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상에서는 3.1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어머니의 경우, 25세 미만에서 자아존중감이 2.8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35~40세 미만에서 3.08점으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최종학력에 따른 분석에서는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각각 3.32점과 3.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하에서는 각각 3.16점과 2.90점으로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경우 학력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취업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취업 중인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3.12점, 학업 중인 어머니는 3.36점으로 가장 높았다. 미취업/미취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2.9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버지의 경우,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구소득별로는 701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3.37점과 3.23점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서는 각각 3.13점과 2.95점으로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소득에 따른 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3-16〉 부모 자이존증감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20	0.44	(1411)	3.05	0.49	(2036)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2.99 <sup>a</sup>	0.63	( 8)	2.88 <sup>a</sup>	0.43	( 29)
25~30세 미만	3.27 <sup>a</sup>	0.45	( 65)	2.96 <sup>a</sup>	0.50	( 203)
30~35세 미만	3.24 <sup>a</sup>	0.42	( 371)	3.05 <sup>a</sup>	0.49	( 832)
35~40세 미만	3.19 <sup>a</sup>	0.44	( 611)	3.08 <sup>a</sup>	0.48	( 741)
40세 이상	3.15 <sup>a</sup>	0.43	( 350)	3.02 <sup>a</sup>	0.48	( 230)
<i>F</i>	2.97 <sup>*</sup>			3.29 <sup>*</sup>		
아버지/어머니 최종학력						
고졸이하	3.16 <sup>a</sup>	0.43	( 267)	2.90 <sup>a</sup>	0.50	( 324)
전문대(기능대학)	3.15 <sup>a</sup>	0.39	( 220)	3.00 <sup>ab</sup>	0.48	( 364)
대학교	3.20 <sup>a</sup>	0.45	( 802)	3.07 <sup>b</sup>	0.47	(1148)
대학원 이상	3.32 <sup>b</sup>	0.45	( 123)	3.24 <sup>c</sup>	0.50	( 200)
<i>F</i>	4.80 <sup>**</sup>			22.49 <sup>***</sup>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3.20	0.44	(1367)	3.12 <sup>a</sup>	0.48	(1036)
학업 중	3.31	1.03	( 2)	3.36 <sup>b</sup>	0.47	( 21)
미취업/미취학	3.20	0.44	( 42)	2.96 <sup>a</sup>	0.48	( 979)
<i>F</i>	0.08			30.72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13 <sup>a</sup>	0.44	( 271)	2.95 <sup>a</sup>	0.49	( 357)
301~500만원	3.17 <sup>a</sup>	0.44	( 728)	3.02 <sup>ab</sup>	0.48	(1040)
501~700만원	3.22 <sup>a</sup>	0.43	( 261)	3.09 <sup>b</sup>	0.48	( 409)
701만원 이상	3.37 <sup>b</sup>	0.38	( 151)	3.23 <sup>c</sup>	0.45	( 231)
<i>F</i>	11.40 <sup>***</sup>			18.85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모의 일상 스트레스에 대하여 단일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평균 스트레스 점수는 2.78점, 어머니는 2.71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에 따른 분석에서는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 점수가 각각 2.63점, 2.61점으로 대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에 비해 점수가 낮아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7〉 부모 일상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78	0.68	(1411)	2.71	0.68	(2036)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2.64	0.51	( 8)	2.64	0.70	( 29)
25~30세 미만	2.69	0.65	( 65)	2.76	0.68	( 203)
30~35세 미만	2.79	0.67	( 371)	2.74	0.69	( 832)
35~40세 미만	2.78	0.67	( 611)	2.68	0.67	( 741)
40세 이상	2.79	0.70	( 350)	2.71	0.63	( 230)
<i>F</i>	0.48			1.23		
아버지/어머니 최종학력						
고졸이하	2.63 <sup>a</sup>	0.69	( 267)	2.61 <sup>a</sup>	0.73	( 324)
전문대(기능대학)	2.80 <sup>ab</sup>	0.69	( 220)	2.68 <sup>a</sup>	0.71	( 364)
대학교	2.83 <sup>b</sup>	0.66	( 802)	2.75 <sup>a</sup>	0.64	(1148)
대학원 이상	2.77 <sup>ab</sup>	0.67	( 123)	2.73 <sup>a</sup>	0.70	( 200)
<i>F</i>	5.88 <sup>***</sup>			3.84 <sup>**</sup>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2.79	0.68	(1367)	2.72	0.69	(1036)
학업 중	2.00	0.00	( 2)	2.75	0.65	( 21)
미취업/미취학	2.66	0.71	( 42)	2.70	0.67	( 979)
<i>F</i>	2.06			0.2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72	0.73	( 271)	2.65	0.70	( 357)
301~500만원	2.79	0.66	( 728)	2.71	0.66	(1040)
501~700만원	2.79	0.64	( 261)	2.75	0.67	( 409)
701만원 이상	2.80	0.72	( 151)	2.78	0.68	( 231)
<i>F</i>	0.77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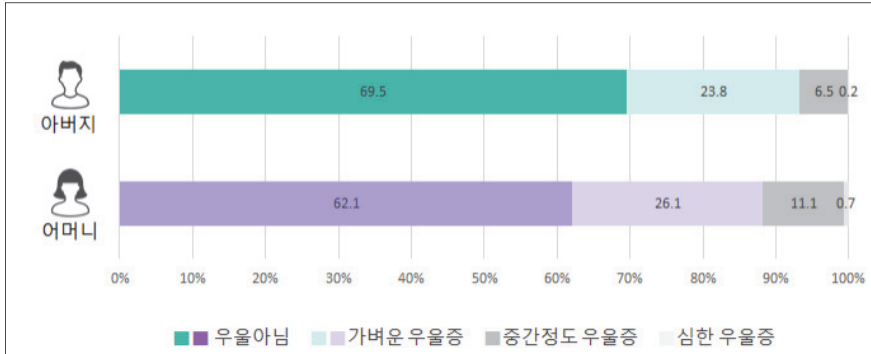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점 척도임(1.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 4.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  $p < .001$ .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I-3-2] 부모 우울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버지의 우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69.5%의 아버지가 우울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23.8%는 가벼운 우울증, 6.5%는 중간 정도의 우울증, 0.2%는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분석에서는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아버지 중 62.2%가 우울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28.9%는 가벼운 우울증, 8.9%는 중간 정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아버지 중에서는 73.3%가 우울하지 않았으며, 중간 정도 우울증 비율은 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고졸 이하 아버지의 우울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취업 중인 아버지의 69.7%가 우울하지 않았으며, 6.5%는 중간 정도의 우울증을 보고했다. 반면, 미취업/미취학 아버지의 62.2%는 우울하지 않았으며, 33.0%는 가벼운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에서는 3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아버지 중 67.8%가 우울하지 않았으며, 8.8%는 중간 정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701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서는 71.3%가 우울하지 않았으며, 정도 우울증을 겪는 비율은 6.1%로 나타났다.

〈표 III-3-18〉 부모 우울: 아버지

단위: %(명), 점

구분	우울 아님	가벼운 우울증	중간정도 우울증	심한 우울증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9.5	23.8	6.5	0.2	100.0(1411)	3.62	3.64
아버지 연령							
25세 미만	74.5	-	25.5	-	100.0( 8)	4.33	6.13
25~30세 미만	70.9	24.2	4.9	-	100.0( 65)	3.46	3.16
30~35세 미만	72.1	22.1	5.7	-	100.0( 371)	3.38	3.40
35~40세 미만	66.3	26.2	7.2	0.4	100.0( 611)	3.88	3.76
40세 이상	67.4	32.6	-	-	100.0( 7)	3.44	3.70
$\chi^2(df)/F$		n.a.				1.48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이하	62.2	28.9	8.9	-	100.0( 267)	4.12 <sup>b</sup>	3.75
전문대(기능대학)	67.1	26.0	6.6	0.3	100.0( 220)	3.91 <sup>ab</sup>	3.73
대학교	72.0	21.8	5.9	0.3	100.0( 802)	3.45 <sup>ab</sup>	3.63
대학원 이상	73.3	21.8	4.9	-	100.0( 123)	3.13 <sup>a</sup>	3.17
$\chi^2(df)/F$		n.a.				3.48 <sup>*</sup>	
아버지 취업 여부							
취업 중	69.7	23.5	6.5	0.3	100.0(1424)	3.61	3.64
학업 중	60.6	39.4	-	-	100.0( 2)	4.36	4.13
미취업/미취학	62.2	33.0	4.8	-	100.0( 42)	3.91	3.54
$\chi^2(df)/F$		n.a.				0.1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7.8	22.7	8.8	0.7	100.0( 271)	3.97	4.10
301~500만원	69.5	24.4	5.9	0.2	100.0( 728)	3.57	3.62
501~700만원	70.2	24.0	5.9	-	100.0( 261)	3.52	3.35
701만원 이상	71.3	22.6	6.1	-	100.0( 151)	3.44	3.33
$\chi^2(df)/F$		n.a.				1.0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9개 문항의 4점 척도이며(0. 전혀 아니다 ~ 3. 거의 매일), 우울 아님(0~4점), 가벼운 우울증(5~9점), 중간정도 우울증(10~19점), 심한 우울증(20~27점)으로 나누어짐.

3)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5$ .

어머니의 우울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62.1%의 어머니가 우울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26.1%는 가벼운 우울증, 11.1%는 중간 정도의 우울증, 0.7%는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분석에서는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중 56.5%가 우울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6.2%는 중간 정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어머니에서는 우울하지 않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많았으며, 중간 정도 우울증 비율은 7.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취업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취업 중인 어머니의 64.1%가 우울하지 않았으며, 8.0%는 중간 정도의 우울증을 보고했다. 반면, 미취업/미취학 어머니는 60.3%가 우울하지 않았으며, 13.9%는 중간 정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에서는 3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어머니 중 55.8%가 우울하지 않았으며, 20.0%는 중간 정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701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서는 67.7%가 우울하지 않았으며, 중간 정도 우울증 비율은 7.1%로 가장 낮았다.

〈표 III-3-19〉 부모 우울: 어머니

단위: %(명), 점

구분	우울 아님	가벼운 우울증	중간정도 우울증	심한 우울증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2.1	26.1	11.1	0.7	100.0(2036)	4.32	4.16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59.5	16.8	23.7	-	100.0( 29)	5.49	5.10
25~30세 미만	62.3	24.0	13.1	0.6	100.0( 203)	4.42	4.44
30~35세 미만	64.5	24.8	10.0	0.7	100.0( 832)	4.14	4.14
35~40세 미만	59.5	28.4	11.2	0.9	100.0( 741)	4.54	4.13
40세 이상	64.0	25.7	10.0	0.3	100.0( 230)	4.02	3.90
$\chi^2(df)/F$		n.a.				1.79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이하	56.5	26.5	16.2	0.8	100.0( 324)	4.93 <sup>b</sup>	4.80
전문대(기능대학)	54.4	31.6	13.2	0.8	100.0( 364)	4.88 <sup>ab</sup>	4.33
대학교	65.6	24.7	9.2	0.5	100.0(1148)	4.03 <sup>a</sup>	3.85
대학원 이상	67.1	23.3	7.8	1.8	100.0( 200)	4.00 <sup>a</sup>	4.24
$\chi^2(df)/F$		33.80(9) <sup>***</sup>				6.77 <sup>***</sup>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64.1	27.3	8.0	0.6	100.0(1036)	4.11 <sup>a</sup>	3.84
학업 중	66.6	15.1	18.3	-	100.0( 21)	3.90 <sup>a</sup>	4.55
미취업/미취학	60.3	25.0	13.9	0.8	100.0( 979)	4.56 <sup>a</sup>	4.46
$\chi^2(df)/F$		21.08(6) <sup>**</sup>				3.15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5.8	23.4	20.0	0.8	100.0( 357)	5.18 <sup>b</sup>	4.75
301~500만원	62.7	26.7	9.9	0.7	100.0(1040)	4.26 <sup>a</sup>	4.12
501~700만원	64.1	28.5	7.8	0.5	100.0( 409)	4.02 <sup>a</sup>	3.82
701만원 이상	67.7	24.5	7.1	0.7	100.0( 231)	3.85 <sup>a</sup>	3.74
$\chi^2(df)/F$		40.24(9) <sup>***</sup>				6.89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9개 문항의 4점 척도이며(0. 전혀 아니다 ~ 3. 거의 매일), 우울 아님(0~4점), 가벼운 우울증(5~9점), 중간정도 우울증(10~19점), 심한 우울증(20~27점)으로 나누어짐.  
 3)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2) 관계적 특성

결혼 만족도에 대하여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평균 결혼 만족도는 6.06점, 어머니의 평균 결혼 만족도는 5.54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25세 미만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는 5.42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어머니의 경우 25세 미만에서 5.93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25~30세 미만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는 6.22점으로 가장 높았고, 30~35세 미만 아버지의 만족도는 6.14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40세 이상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는 5.24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별 분석에서는 300만원 이하 소득 가구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는 5.92점으로 나타났고, 701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아버지 만족도는 6.11점으로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34점으로 가장 낮았고, 501~700만원 소득 가구에서 5.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3-20〉 결혼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6.06	0.94	(1408)	5.54	1.18	(2020)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5.42 <sup>a</sup>	1.47	( 8)	5.93 <sup>b</sup>	1.23	( 28)
25~30세 미만	6.22 <sup>b</sup>	1.03	( 64)	5.49 <sup>ab</sup>	1.28	( 200)
30~35세 미만	6.14 <sup>b</sup>	0.90	( 371)	5.68 <sup>ab</sup>	1.11	( 828)
35~40세 미만	6.08 <sup>ab</sup>	0.93	( 609)	5.47 <sup>ab</sup>	1.18	( 735)
40세 이상	5.90 <sup>ab</sup>	0.94	( 350)	5.24 <sup>a</sup>	1.25	( 230)
<i>F</i>	4.64 <sup>**</sup>			8.34 <sup>***</sup>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6.06	0.94	(1365)	5.58	1.19	(1027)
학업 중	6.39	0.69	( 2)	5.13	1.58	( 21)
미취업/미취학	5.99	0.98	( 41)	5.50	1.16	( 972)
<i>F</i>	0.24			2.5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92 <sup>a</sup>	1.08	( 269)	5.34 <sup>a</sup>	1.32	( 344)
301~500만원	6.08 <sup>a</sup>	0.92	( 727)	5.57 <sup>ab</sup>	1.15	(1037)
501~700만원	6.12 <sup>a</sup>	0.83	( 261)	5.60 <sup>b</sup>	1.10	( 408)
701만원 이상	6.11 <sup>a</sup>	0.92	( 151)	5.58 <sup>b</sup>	1.20	( 231)
<i>F</i>	2.70 <sup>*</sup>			4.04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7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7. 매우 만족한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5점 척도, 8개 문항으로 구성된 부부 갈등 수준에 대해서 질문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평균 점수가 낮아, 전반적으로 부부 갈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균 점수는 1.86점, 어머니의 평균 점수는 1.93점으로, 어머니의 갈등 인식이 약간 더 높았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5세 미만 어머니의 경우 부부 갈등을 평균 2.29점으로 보고하여 가장 높았으며, 30~35세 미만 어머니의 경우 평균 1.84점으로 보고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III-3-21〉 부부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86	0.79	(1408)	1.93	0.87	(2020)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2.17	1.42	( 8)	2.29 <sup>b</sup>	0.93	( 28)
25~30세 미만	1.81	0.83	( 64)	1.97 <sup>ab</sup>	0.93	( 200)
30~35세 미만	1.79	0.80	( 371)	1.84 <sup>a</sup>	0.83	( 828)
35~40세 미만	1.87	0.78	( 609)	1.98 <sup>ab</sup>	0.88	( 735)
40세 이상	1.93	0.77	( 350)	2.04 <sup>ab</sup>	0.85	( 230)
<i>F</i>	1.73			5.00 <sup>***</sup>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1.86	0.79	(1365)	1.91	0.85	(1027)
학업 중	1.20	0.09	( 2)	1.99	1.00	( 21)
미취업/미취학	1.82	0.85	( 41)	1.96	0.88	( 972)
<i>F</i>	0.76			1.03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93	0.85	( 269)	2.01	0.91	( 344)
301~500만원	1.84	0.77	( 727)	1.93	0.85	(1037)
501~700만원	1.87	0.81	( 261)	1.88	0.86	( 408)
701만원 이상	1.84	0.74	( 151)	1.91	0.87	( 231)
<i>F</i>	0.81			1.3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01$ .

## 다. 양육 특성

### 1) 주양육자

아동의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알아본 결과, 어머니라는 응답이 97.4%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는 1.3%, 조부모는 1.1% 등이었다.

〈표 III-3-22〉 아동의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아기의 조부모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배아비서터 등)	계(수)
전체	97.4	1.3	1.1	0.0	0.1	100.0(255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대부분이며, 60대가 75.0%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5.6%, 대학교 졸업이 22.2% 등이었다.

〈표 III-3-23〉 (부모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36)	연령	100.0(36)
성별		40대	2.8( 1)
남자	8.3( 3)	50대	13.9( 5)
여자	91.7(33)	60대	75.0(27)
최종학력		70대	5.6( 2)
중학교	2.8( 1)	모름	2.8( 1)
고등학교	55.6(20)		
전문대학(기능대학)	2.8( 1)		
대학교	22.2( 8)		
모름	16.7( 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하였음.

시간대별로 아동의 주양육자를 조사한 결과, 기상 후 아침 시간과 잠들기 전이나 수면 중에는 어머니가 가장 많이 돌보고 있었다. 지난해 조사와 동일하게 저녁시간에는 아버지가 양육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져서(배운진 외, 2023: 102~103) 20~21시에는 39.7%까지 높아졌다. 어린이집 이용은 9시부터 16시까지 50% 이상으로 보고되었다. 어린이집 하원 후로 예상되는 16~18시에는 조부모 및 비혈연 육아인력의 돌봄 비율이 다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3-24〉 시간대별 주양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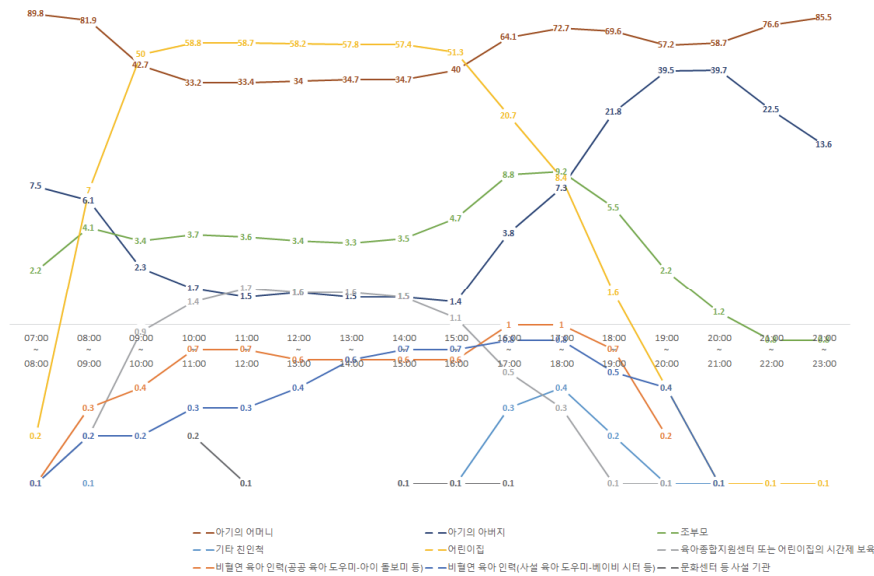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아기의 어머니	아기의 아버지	조부모	기타 친인척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비할연 육아 인력(공공 육아도우미·아이돌보미 등)	비할연 육아 인력(사설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	육아 인력(사설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	문화센터 등 사설 기관	계(수)
07:00~08:00	89.8	7.5	2.2	0.0	0.2	0.1	0.1	0.1	0.1	-	100.0(2555)
08:00~09:00	81.9	6.1	4.1	0.1	7.0	0.2	0.3	0.2	-	100.0(2555)	
09:00~10:00	42.7	2.3	3.4	0.0	50.0	0.9	0.4	0.2	-	100.0(2555)	
10:00~11:00	33.2	1.7	3.7	0.0	58.8	1.4	0.7	0.3	0.2	100.0(2555)	
11:00~12:00	33.4	1.5	3.6	0.1	58.7	1.7	0.7	0.3	0.1	100.0(2555)	
12:00~13:00	34.0	1.6	3.4	0.0	58.2	1.6	0.6	0.4	0.0	100.0(2555)	
13:00~14:00	34.7	1.5	3.3	0.1	57.8	1.6	0.6	0.6	-	100.0(2555)	
14:00~15:00	34.7	1.5	3.5	0.1	57.4	1.5	0.6	0.7	0.1	100.0(2555)	
15:00~16:00	40.0	1.4	4.7	0.1	51.3	1.1	0.6	0.7	0.1	100.0(2555)	
16:00~17:00	64.1	3.8	8.8	0.3	20.7	0.5	1.0	0.8	0.1	100.0(2555)	
17:00~18:00	72.7	7.3	9.2	0.4	8.4	0.3	1.0	0.8	-	100.0(2555)	
18:00~19:00	69.6	21.8	5.5	0.2	1.6	0.1	0.7	0.5	-	100.0(2555)	
19:00~20:00	57.2	39.5	2.2	0.1	0.4	0.1	0.2	0.4	-	100.0(2555)	
20:00~21:00	58.7	39.7	1.2	0.1	0.1	-	0.0	0.1	-	100.0(2555)	
21:00~22:00	76.6	22.5	0.8	-	0.1	-	-	0.0	-	100.0(2555)	
22:00~23:00	85.5	13.6	0.8	-	0.1	-	-	0.0	-	100.0(255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3-3〉 시간대별 주양육자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모가 아닌 다른 돌봄인력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 발생 여부와 월 평균 비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부모에게는 43.9%, 친인척에게는 20.2%, 아이돌보미에게는 69.3%, 사설육아도우미에게는 94.6%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응답하였다. 월 평균 비용은 사설육아도우미의 경우 136만원이었으며, 조부모는 84만 2천원, 친인척에게는 90만 5천원, 아이돌보미에게는 46만 6천원, 어린이집에는 13만 3천원 등으로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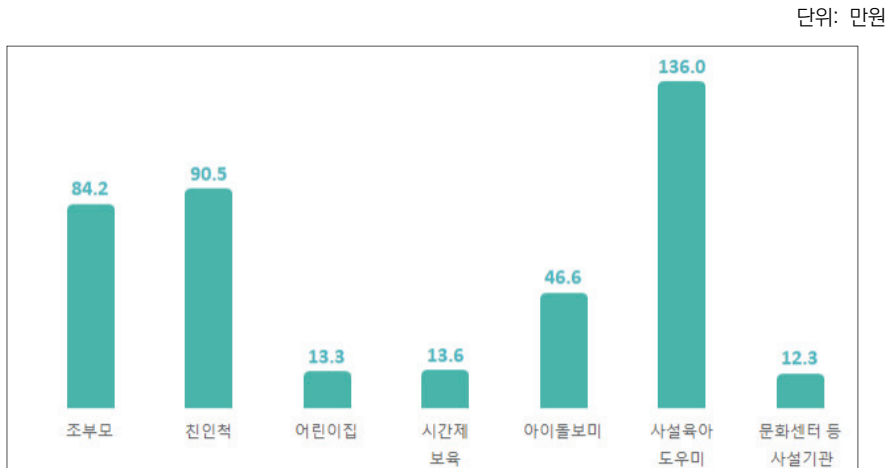
〈표 III-3-25〉 보육·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발생 여부 및 월 평균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예	아니오	계(수)	(비용 발생 시)	
				평균	(수)
조부모	43.9	56.1	100.0( 349)	84.2	(153)
친인척	20.2	79.8	100.0( 19)	90.5	( 4)
어린이집	25.4	74.6	100.0(1512)	13.3	(384)
시간제 보육	53.5	46.5	100.0( 53)	13.6	( 28)
아이돌보미	69.3	30.7	100.0( 50)	46.6	( 34)
사설육아도우미	94.6	5.4	100.0( 30)	136.0	( 29)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93.8	6.2	100.0( 11)	12.3	( 1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3-4〉 보육·육아지원서비스 월 평균 비용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2) 부모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은 5점 척도의 결과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더 반응적이고 애정적인 행동을 함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평균 3.78점, 어머니는 평균 3.97점이었으며, 부모는 패널아동이 첫째인 경우에 둘째나 셋째 이상인 경우보다 더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더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6〉 부모 양육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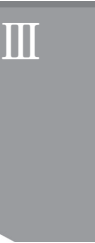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8	0.60	(1411)	3.97	0.52	(2036)
아동 월령						
16~17개월	3.82	0.58	( 335)	3.96	0.53	( 439)
18~19개월	3.78	0.59	( 549)	3.99	0.50	( 714)
20~21개월	3.72	0.63	( 343)	3.95	0.51	( 541)
22~23개월	3.80	0.63	( 184)	3.98	0.54	( 342)
<i>F</i>	1.91			0.68		
출생순위						
첫째	3.84 <sup>c</sup>	0.58	( 929)	4.03 <sup>b</sup>	0.51	(1308)
둘째	3.69 <sup>b</sup>	0.61	( 394)	3.88 <sup>a</sup>	0.51	( 587)
셋째 이상	3.52 <sup>a</sup>	0.66	( 88)	3.81 <sup>a</sup>	0.56	( 142)
<i>F</i>	18.38 <sup>***</sup>			23.43 <sup>***</sup>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2	0.57	( 691)	4.00	0.51	( 691)
맞벌이 아님	3.74	0.63	( 683)	4.00	0.51	( 684)
<i>t</i>	41.90			23.13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65 <sup>a</sup>	0.67	( 271)	3.90 <sup>a</sup>	0.54	( 357)
301~500만원	3.80 <sup>ab</sup>	0.60	( 728)	3.97 <sup>ab</sup>	0.50	(1040)
501~700만원	3.84 <sup>b</sup>	0.54	( 261)	4.01 <sup>ab</sup>	0.54	( 409)
701만원 이상	3.82 <sup>b</sup>	0.57	( 151)	4.00 <sup>b</sup>	0.48	( 231)
<i>F</i>	5.29 <sup>**</sup>			3.13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III-3-5] 부모 양육행동

단위: 점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는 평균 2.09점, 어머니는 평균 2.44점이었다.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표 III-3-27〉 부모 양육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09	0.70	(1411)	2.44	0.78	(2036)
아동 월령						
16~17개월	2.04	0.67	( 335)	2.43	0.82	( 439)
18~19개월	2.07	0.69	( 549)	2.45	0.79	( 714)
20~21개월	2.12	0.73	( 343)	2.47	0.75	( 541)
22~23개월	2.14	0.75	( 184)	2.37	0.76	( 342)
<i>F</i>	1.18			1.27		
출생순위						
첫째	2.03 <sup>a</sup>	0.68	( 929)	2.39 <sup>a</sup>	0.77	(1308)
둘째	2.15 <sup>a</sup>	0.70	( 394)	2.51 <sup>ab</sup>	0.79	( 587)
셋째 이상	2.37 <sup>b</sup>	0.85	( 88)	2.55 <sup>b</sup>	0.84	( 142)
<i>F</i>	12.18 <sup>***</sup>			6.55 <sup>**</sup>		
맞벌이 여부						
맞벌이	2.07	0.67	( 691)	2.39	0.76	( 691)
맞벌이 아님	2.11	0.74	( 684)	2.44	0.81	( 684)
<i>t</i>	43.17			40.1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22 <sup>b</sup>	0.74	( 271)	2.54 <sup>c</sup>	0.82	( 357)
301~500만원	2.07 <sup>ab</sup>	0.71	( 728)	2.47 <sup>bc</sup>	0.80	(1040)
501~700만원	2.05 <sup>ab</sup>	0.69	( 261)	2.35 <sup>ab</sup>	0.74	( 409)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701만원 이상 <i>F</i>	1.98 <sup>a</sup>	0.59	( 151)	2.31 <sup>a</sup>	0.70	( 231)
	4.81 <sup>**</sup>			6.56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1$ , \*\*\*  $p < .001$ .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하위영역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유능감이 높거나 불안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먼저 아버지의 유능감은 평균 3.46점, 불안감은 평균 2.31점이었다. 아버지의 유능감은 아동의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맞벌이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게 평가하였다. 아버지의 불안감은 아동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맞벌이가 아닌 경우,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높았다.

〈표 III-3-28〉 부모 양육효능감: 아버지

단위: 점(명)

구분	부모 유능감		부모 불안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6	0.58	2.31	0.81	(1411)
아동 월령					
16~17개월	3.50	0.58	2.23 <sup>a</sup>	0.79	( 335)
18~19개월	3.44	0.58	2.29 <sup>ab</sup>	0.81	( 549)
20~21개월	3.41	0.60	2.34 <sup>ab</sup>	0.79	( 343)
22~23개월 <i>F</i>	3.52	0.51	2.43 <sup>b</sup>	0.83	( 184)
	2.22		2.65 <sup>*</sup>		
출생순위					
첫째	3.48 <sup>b</sup>	0.58	2.23 <sup>a</sup>	0.80	( 929)
둘째	3.43 <sup>ab</sup>	0.56	2.42 <sup>ab</sup>	0.81	( 394)
셋째 이상 <i>F</i>	3.32 <sup>a</sup>	0.60	2.57 <sup>b</sup>	0.78	( 88)
	3.62 <sup>*</sup>		12.41 <sup>***</sup>		
맞벌이 여부					
맞벌이	3.49	0.57	2.25	0.77	( 691)
맞벌이 아님 <i>t</i>	3.43	0.58	2.37	0.85	( 684)
	2.22 <sup>*</sup>		-2.64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35 <sup>a</sup>	0.61	2.34 <sup>b</sup>	0.80	( 271)
301~500만원	3.47 <sup>ab</sup>	0.58	2.35 <sup>ab</sup>	0.81	( 728)
501~700만원	3.51 <sup>b</sup>	0.54	2.27 <sup>a</sup>	0.83	( 261)
701만원 이상 <i>F</i>	3.53 <sup>b</sup>	0.56	2.13 <sup>a</sup>	0.73	( 151)
	5.06 <sup>**</sup>		3.30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 \*\*  $p < .01$ , \*\*\*  $p < .001$ .

어머니의 유능감은 평균 3.50점, 불안감은 평균 2.62점이었다. 어머니의 유능감은 아동의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더 높게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불안감은 아동이 둘째나 셋째인 경우, 맞벌이가 아닌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3-29〉 부모 양육효능감: 어머니

단위: 점(명)

구분	부모 유능감		부모 불안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0	0.56	2.62	0.87	(2036)
아동 월령					
16~17개월	3.54	0.56	2.59	0.88	( 439)
18~19개월	3.50	0.59	2.57	0.88	( 714)
20~21개월	3.47	0.51	2.67	0.83	( 541)
22~23개월	3.52	0.56	2.69	0.88	( 342)
<i>F</i>	1.15		2.15		
출생순위					
첫째	3.52	0.56	2.56 <sup>a</sup>	0.88	(1308)
둘째	3.47	0.55	2.73 <sup>a</sup>	0.85	( 587)
셋째 이상	3.49	0.61	2.68 <sup>a</sup>	0.79	( 142)
<i>F</i>	1.52		7.50 <sup>***</sup>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4	0.57	2.51	0.83	( 691)
맞벌이 아님	3.49	0.58	2.65	0.89	( 684)
<i>t</i>	1.76		-3.10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41 <sup>a</sup>	0.60	2.68 <sup>b</sup>	0.84	( 357)
301~500만원	3.49 <sup>ab</sup>	0.55	2.68 <sup>b</sup>	0.88	(1040)
501~700만원	3.58 <sup>bc</sup>	0.54	2.53 <sup>ab</sup>	0.86	( 409)
701만원 이상	3.61 <sup>c</sup>	0.53	2.42 <sup>a</sup>	0.82	( 231)
<i>F</i>	9.12 <sup>***</sup>		7.80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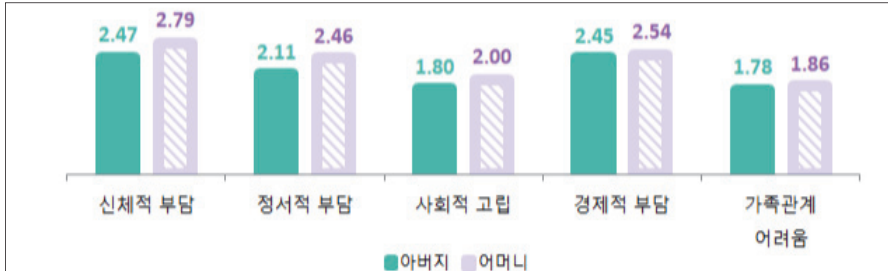
\*\*  $p < .01$ , \*\*\*  $p < .001$ .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담에 대해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III-3-6] 부모 양육 부담

단위: 점



주: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먼저 아버지의 양육 부담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부담이 2.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부담은 2.45점, 정서적 부담 2.1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셋째 이상인 경우 정서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은 높아지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경제적 부담과 가족관계 어려움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표 III-3-30> 양육 부담: 아버지

단위: 점(명)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47	0.79	2.11	0.77	1.80	0.78	2.45	0.91	1.78	0.73	(1411)
아동 월령											
16~17개월	2.50	0.79	2.12	0.76	1.78	0.77	2.48	0.94	1.76	0.76	( 335)
18~19개월	2.45	0.79	2.07	0.78	1.76	0.73	2.43	0.91	1.76	0.72	( 549)
20~21개월	2.48	0.78	2.13	0.71	1.81	0.77	2.49	0.88	1.80	0.73	( 343)
22~23개월	2.49	0.81	2.20	0.84	1.92	0.93	2.39	0.92	1.81	0.73	( 184)
F	0.25		1.31		2.09		0.69		0.34		
출생순위											
첫째	2.47	0.78	2.06 <sup>a</sup>	0.75	1.77	0.79	2.38 <sup>a</sup>	0.92	1.74	0.73	( 919)
둘째	2.48	0.77	2.19 <sup>ab</sup>	0.78	1.84	0.75	2.54 <sup>a</sup>	0.86	1.84	0.74	( 404)
셋째 이상	2.55	0.92	2.37 <sup>b</sup>	0.86	1.83	0.80	2.84 <sup>b</sup>	0.93	1.88	0.72	( 88)
F	0.43		9.27 <sup>***</sup>		1.24		12.75 <sup>***</sup>		8.3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9	0.74	2.10	0.74	1.77	0.76	2.34	0.89	1.74	0.72	( 691)
맞벌이 아님	2.45	0.83	2.13	0.80	1.83	0.78	2.56	0.92	1.82	0.74	( 684)
t	0.89		-0.67		-1.43		-4.66 <sup>***</sup>		-2.17 <sup>*</sup>		
가구소득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300만원 이하	2.49	0.78	2.20	0.80	1.91	0.81	2.79 <sup>c</sup>	0.89	1.93 <sup>b</sup>	0.80	( 271)
301~500만원	2.43	0.82	2.10	0.76	1.79	0.75	2.46 <sup>b</sup>	0.90	1.77 <sup>ab</sup>	0.71	( 728)
501~700만원	2.53	0.73	2.06	0.75	1.72	0.79	2.31 <sup>b</sup>	0.85	1.71 <sup>a</sup>	0.71	( 261)
701만원 이상	2.58	0.74	2.09	0.77	1.74	0.80	2.08 <sup>a</sup>	0.90	1.69 <sup>a</sup>	0.72	( 151)
<i>F</i>	2.35		1.74		3.20		24.30 <sup>***</sup>		5.38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점 척도임(1.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 4. 매우 부담스러움).

\*  $p < .05$ , \*\*\*  $p < .001$ .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신체적 부담이 2.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부담 2.54점, 정서적 부담 2.46점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양육에 관한 가족 간 의견 불일치 등을 의미하는 가족관계 어려움 영역에서 아동의 월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월령이 높을수록 그 어려움 수준을 보고한 경향이 있었다. 아동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정서적 부담,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맞벌이인 경우 신체적 부담을 높게, 맞벌이가 아닌 경우 경제적 부담을 높게 평가하였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이웃이나 지인과의 교류 부족 등),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 수준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표 III-3-31〉 양육 부담: 어머니

단위: 점(명)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79	0.76	2.46	0.79	2.00	0.83	2.54	0.89	1.86	0.80	(2036)
아동 월령											
16~17개월	2.82	0.77	2.49	0.80	2.04	0.81	2.57	0.87	1.84 <sup>a</sup>	0.81	( 439)
18~19개월	2.80	0.76	2.42	0.78	1.95	0.85	2.50	0.92	1.79 <sup>a</sup>	0.78	( 714)
20~21개월	2.79	0.75	2.49	0.78	2.05	0.85	2.57	0.87	1.93 <sup>a</sup>	0.82	( 541)
22~23개월	2.72	0.77	2.49	0.79	2.01	0.81	2.49	0.88	1.92 <sup>a</sup>	0.79	( 342)
<i>F</i>	1.24		1.24		1.73		1.21		3.96 <sup>**</sup>		
출생순위											
첫째	2.80	0.76	2.40 <sup>a</sup>	0.79	2.00	0.83	2.47 <sup>a</sup>	0.87	1.83 <sup>a</sup>	0.80	(1308)
둘째	2.76	0.76	2.55 <sup>ab</sup>	0.75	1.98	0.83	2.58 <sup>a</sup>	0.89	1.89 <sup>ab</sup>	0.80	( 587)
셋째 이상	2.79	0.77	2.64 <sup>b</sup>	0.87	2.14	0.86	2.92 <sup>b</sup>	0.92	2.00 <sup>b</sup>	0.81	( 142)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i>F</i>	0.68		11.52**		2.08		17.31***		3.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1	0.76	2.42	0.78	1.97	0.83	2.45	0.85	1.84	0.81	( 691)
맞벌이 아님	2.73	0.80	2.49	0.82	2.04	0.84	2.68	0.87	1.88	0.80	( 684)
<i>t</i>	2.02*		-1.46		-1.44		-5.07***		-1.0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72	0.78	2.51	0.80	2.09 <sup>b</sup>	0.86	2.79 <sup>c</sup>	0.90	1.98 <sup>b</sup>	0.85	( 357)
301~500만원	2.79	0.77	2.48	0.81	2.05 <sup>ab</sup>	0.84	2.61 <sup>b</sup>	0.87	1.86 <sup>ab</sup>	0.80	(1040)
501~700만원	2.81	0.74	2.40	0.75	1.88 <sup>a</sup>	0.82	2.33 <sup>a</sup>	0.83	1.77 <sup>a</sup>	0.78	( 409)
701만원 이상	2.85	0.70	2.42	0.76	1.91 <sup>a</sup>	0.74	2.16 <sup>a</sup>	0.87	1.82 <sup>ab</sup>	0.76	( 231)
<i>F</i>	1.62		1.88		6.26***		34.79***		4.4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점 척도임(1.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 4. 매우 부담스러움).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양육분담 및 지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양육과 가사를 분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응답하였으며, 먼저 아버지의 응답에 따르면 양육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담 정도는 3.09 : 6.91이었으며, 가사의 경우 3.44 : 6.56이었다. 양육에 있어서 맞벌이가 아닌 경우 어머니의 분담 정도가 더 높아졌다. 가사의 경우 아동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가구에서 첫째나 둘째인 가구에 비해 어머니의 가사 분담 정도가 높아지고, 맞벌이 가구에서도 그러하였다.

〈표 III-3-32〉 어머니: 아버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 아버지 조사

구분	양육		가사		(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전체	6.91	3.09	6.56	3.44	1400
출생순위					
첫째	6.88	3.12	6.47 <sup>a</sup>	3.53	( 912)
둘째	6.94	3.06	6.65 <sup>a</sup>	3.35	( 402)
셋째 이상	7.07	2.93	7.07 <sup>b</sup>	2.93	( 86)
<i>F</i>	2.26	1.57	3.27*	1.01	
맞벌이 여부					
맞벌이	6.60	3.40	6.19	3.81	( 688)
맞벌이 아님	7.26	2.74	6.94	3.06	( 675)

단위: 점(명)

구분	양육		가사		(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i>t</i>	-8.60***	-8.60***	-8.15***	-8.1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10점 척도임(어머니: 아버지 합 10 기준).

\*  $p < .05$ , \*\*\*  $p < .001$ .

어머니의 응답에 따르면, 양육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담 비율은 2.97 : 7.03이며, 가사에 있어서는 3.06 : 6.94로 나타났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 맞벌이 가구에 비해 양육과 가사에서의 어머니 분담 비율이 더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I-3-33〉 어머니: 아버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 어머니 조사

단위: 점(명)

구분	양육		가사		(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전체	7.03	2.97	6.94	3.06	(2006)
출생순위					
첫째	6.94	3.06	6.79	3.21	(1274)
둘째	7.15	2.85	7.09	2.91	( 594)
셋째 이상	7.44	2.56	7.68	2.32	( 138)
<i>F</i>	1.13	2.11	1.50	2.69	
맞벌이 여부					
맞벌이	6.59	3.41	6.47	3.53	( 686)
맞벌이 아님	7.35	2.65	7.30	2.70	( 675)
<i>t</i>	-9.72***	9.72***	-9.04***	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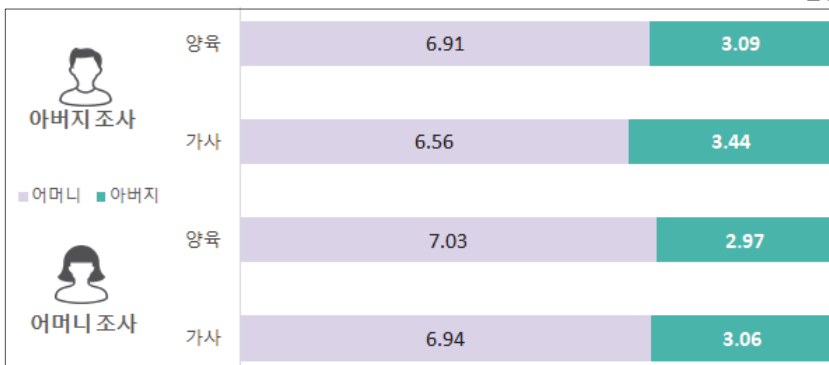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10점 척도임(어머니: 아버지 합 10 기준).

\*\*\*  $p < .001$ .

〈그림 III-3-7〉 어머니: 아버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

단위: 점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다음으로 배우자 이외에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지원자가 있는지(정기적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를 조사한 결과, 40.2%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맞벌이 가구이거나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도움을 주는 지원자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I-3-34〉 사회적 지원 인원 유무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40.2	59.8	100.0(2555)	
출생순위				
첫째	40.7	59.3	100.0(1577)	
둘째	38.5	61.5	100.0( 793)	
셋째 이상	43.5	56.5	100.0( 185)	
$\chi^2(df)$	2.0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5	48.5	100.0( 724)	
맞벌이 아님	31.4	68.6	100.0(1036)	
$\chi^2(df)$	71.57(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3.1	66.9	100.0( 423)	
301~500만원	37.0	63.0	100.0(1296)	
501~700만원	44.0	56.0	100.0( 534)	
701만원 이상	57.6	42.4	100.0( 301)	
$\chi^2(df)$	55.67(3)***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01$ .

주변으로부터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원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지지 4.04점, 사교적 지지 3.99점, 도구적 지지 3.90점, 정보적 지지 3.91점이었다. 맞벌이 여부와 가구소득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맞벌이 가구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4개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지지를 받는 정도가 더 높았다.

〈표 III-3-35〉 사회적 지원 정도

											단위: 점(명)
구분	전체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사교적 지지		정보적 지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95	0.60	4.04	0.67	3.90	0.71	3.99	0.66	3.91	0.71	(2555)

구분	전체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사교적 지지		정보적 지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출생순위											
첫째	3.96	0.59	4.06 <sup>b</sup>	0.65	4.06	0.70	3.99	0.65	3.91	0.70	(1577)
둘째	3.96	0.60	4.01 <sup>ab</sup>	0.68	4.01	0.71	3.99	0.66	3.92	0.71	( 793)
셋째 이상	3.88	0.66	3.93 <sup>a</sup>	0.73	3.93	0.78	3.91	0.70	3.88	0.73	( 185)
<i>F</i>		1.68		4.24 <sup>*</sup>		1.99		1.51		0.3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04	0.63	4.11	0.70	4.11	0.73	4.06	0.70	3.98	0.73	( 725)
맞벌이 아님	3.89	0.62	4.00	0.70	4.00	0.75	3.92	0.69	3.86	0.74	( 697)
<i>t</i>		4.54 <sup>***</sup>		3.10 <sup>**</sup>		5.76 <sup>***</sup>		3.92 <sup>***</sup>		2.86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81 <sup>a</sup>	0.63	3.95 <sup>a</sup>	0.70	3.71 <sup>a</sup>	0.76	3.86 <sup>a</sup>	0.70	3.75 <sup>a</sup>	0.73	( 423)
301~500만원	3.95 <sup>b</sup>	0.78	4.04 <sup>ab</sup>	0.65	3.89 <sup>b</sup>	0.68	3.99 <sup>b</sup>	0.64	3.90 <sup>b</sup>	0.70	(1296)
501~700만원	4.01 <sup>bc</sup>	0.60	4.07 <sup>ab</sup>	0.65	4.00 <sup>bc</sup>	0.68	4.02 <sup>b</sup>	0.64	3.97 <sup>bc</sup>	0.69	( 534)
701만원 이상	4.07 <sup>c</sup>	0.63	4.12 <sup>b</sup>	0.70	4.04 <sup>c</sup>	0.74	4.09 <sup>b</sup>	0.67	4.05 <sup>c</sup>	0.70	( 301)
<i>F</i>		13.67 <sup>***</sup>		4.22 <sup>**</sup>		17.89 <sup>***</sup>		8.31 <sup>***</sup>		12.76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3)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35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  $p < .05$ , \*\*  $p < .01$ , \*\*\*  $p < .001$ .

#### 4) 모유수유

1차년도 조사에 이어 자녀 출산 이후 조사시점까지 아동의 개월별로 모유수유 여부와 그 방법을 조사하였다. 모유만 수유하는 경우는 0개월에 26.2%이며, 4개월 이후에는 20% 이하로, 9개월부터는 10% 이하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0개월부터 혼합수유하는 비율이 61.6%로 가장 높는데, 이후 점차 낮아지는 대신 분유 수유의 경우 3개월 이후부터 60% 이상으로 비율이 높아졌다. 13개월부터는 수유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0%대로 상승하였다.

〈표 III-3-36〉 모유수유 여부 및 개월별 수유방법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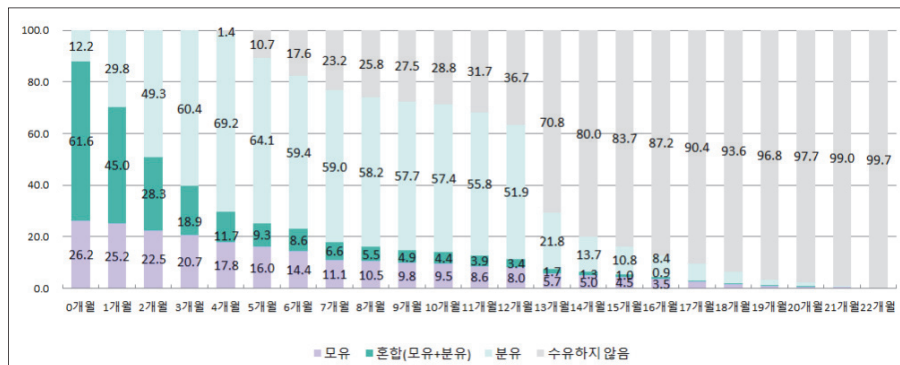
구분	모유	혼합(모유+분유)	분유	수유하지 않음	계(수)
0개월	26.2	61.6	12.2	-	100(2036)
1개월	25.2	45.0	29.8	-	100(2036)
2개월	22.5	28.3	49.3	-	100(2036)
3개월	20.7	18.9	60.4	-	100(2036)
4개월	17.8	11.7	69.2	1.4	100(2036)
5개월	16.0	9.3	64.1	10.7	100(2036)

구분	모유	혼합(모유+분유)	분유	수유하지 않음	계(수)
6개월	14.4	8.6	59.4	17.6	100(2036)
7개월	11.1	6.6	59.0	23.2	100(2036)
8개월	10.5	5.5	58.2	25.8	100(2036)
9개월	9.8	4.9	57.7	27.5	100(2036)
10개월	9.5	4.4	57.4	28.8	100(2036)
11개월	8.6	3.9	55.8	31.7	100(2036)
12개월	8.0	3.4	51.9	36.7	100(2036)
13개월	5.7	1.7	21.8	70.8	100(2036)
14개월	5.0	1.3	13.7	80.0	100(2036)
15개월	4.5	1.0	10.8	83.7	100(2036)
16개월	3.5	0.9	8.4	87.2	100(2036)
17개월	2.5	0.6	6.6	90.4	100(2036)
18개월	1.7	0.2	4.5	93.6	100(2036)
19개월	1.0	0.2	2.0	96.8	100(2036)
20개월	0.7	0.2	1.4	97.7	100(2036)
21개월	0.4	0.2	0.4	99.0	100(2036)
22개월	0.0	0.1	0.1	99.7	100(203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3-8] 개월별 수유 방법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라. 부모 근로 특성

부모의 취업 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 아버지의 경우 96.9%가 취업 중이며, 0.1%는 학업 중, 3.0%는 미취업/미취학 상태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는 50.9%가 취업 중, 1.0%는 학업 중, 48.1%는 미취업/미취학 상태였다.

〈표 III-3-37〉 부모 취업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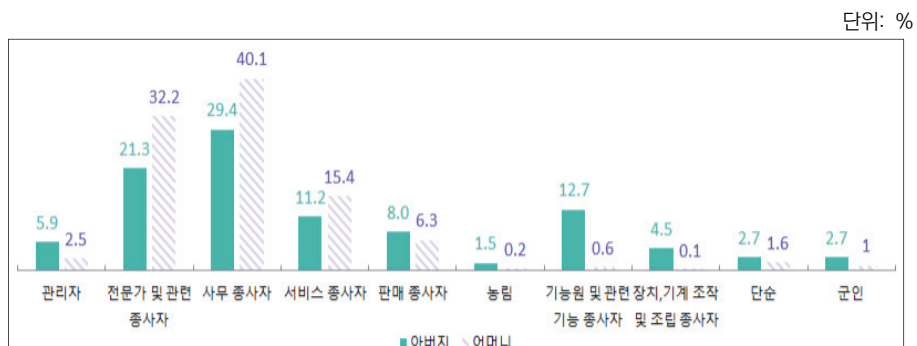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계(수)
	취업중	학업중	미취업/미취학	
아버지	96.9	0.1	3.0	100.0(1411)
어머니	50.9	1.0	48.1	100.0(203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 분류에 대한 분석 결과,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 종사자가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1.3%, 서비스 종사자는 11.2%로 나타났다. 그 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12.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4.5%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사무 종사자가 40.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2.2%, 서비스 종사자는 15.4%로 나타났다. 단순 노무 종사자는 1.6%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I-3-9〕 아버지-어머니의 직업 분류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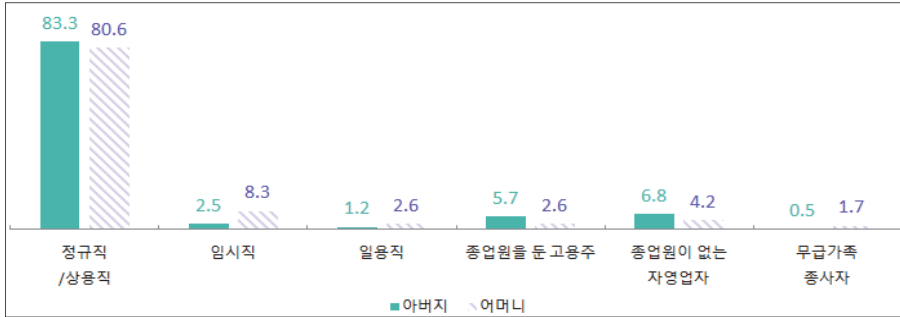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에 대한 분석 결과, 아버지의 경우 정규직/상용직이 83.3%로 가장 많았으며,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8%, 임시직은 2.5%로 나타났다. 일용직 아버지의 비율은 1.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어머니의 경우 정규직/상용직이 80.6%로 가장 많았고, 임시직은 8.3%, 일용직은 2.6%로 나타났다. 또한,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로 나타났으며,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은 1.7%였다.



[그림 III-3-10] 아버지·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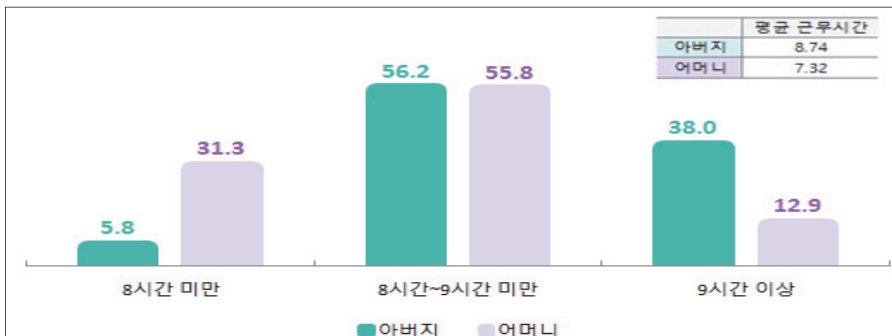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아버지의 경우 8시간~9시간 미만 근무시간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9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38.0%, 8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은 5.8%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74시간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8시간~9시간 미만 근무시간이 55.8%로 아버지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8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이 31.3%로 아버지에 비해 훨씬 높다. 9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12.9%였으며, 어머니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7.32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어머니는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III-3-11] 아버지·어머니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

단위: %, 시간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버지와 어머니의 출퇴근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아버지의 경우 1시간 소요 시간이 55.0%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미만 소요 시간이 20.8%, 1시간 초과 소요 시간이 24.2%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1.19시간이었다.

어머니의 경우도 1시간 소요 시간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미만 소요 시간이 23.7%, 1시간 초과 소요 시간이 23.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1.17시간으로 아버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III-3-38〉 아버지-어머니의 출퇴근 소요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1시간 초과	평균(시간)	계(수)
아버지	20.8	55.0	24.2	1.19	100.0 (1367)
어머니	23.7	52.6	23.7	1.17	100.0 (103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최근 3개월 간의 아버지의 재택근무 일수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5.2%의 아버지가 재택근무를 했으며, 나머지 94.8%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재택근무 일수는 평균 3.06일로 조사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정규직/상용직 아버지의 재택근무 비율은 4.6%, 임시직은 6.1%, 일용직은 6.9%로 나타났다.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5.3%로 나타났으며,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택근무 일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정규직/상용직 아버지의 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2.69일이었고, 임시직은 2.40일, 일용직은 4.00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3.29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75일로 조사되어 자영업자 중에서도 재택근무 일수가 가장 많았다.

〈표 III-3-39〉 아버지의 재택근무 일수: 최근 3개월

단위: %(명), 일

구분	재택근무 여부		재택근무 일수	계(수)
	함	하지 않음		
전체	5.2	94.8	3.06	100.0(1367)
종사상 지위				
정규직/상용직	4.6	95.4	2.69 <sup>a</sup>	100.0(1138)
임시직	6.1	93.9	2.40 <sup>a</sup>	100.0( 35)

구분	재택근무 여부		재택근무 일수	계(수)
	함	하지 않음		
일용직	6.9	93.1	4.00 <sup>a</sup>	100.0( 16)
종업원을 둔 고용주	5.3	94.7	3.29 <sup>a</sup>	100.0( 77)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2.1	87.9	4.75 <sup>a</sup>	100.0( 93)
무급가족종사자	0.0	100.0	-	100.0( 7)
$\chi^2(df)/F$	9.41		3.7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최근 3개월 간 어머니의 재택근무 일수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11.9%의 어머니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88.1%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재택근무 일수는 평균 3.34일로 조사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정규직/상용직 어머니의 재택근무 비율은 9.7%로 나타났고, 임시직은 18.3%, 일용직은 12.2%로 나타났다.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30.2%로 가장 높은 재택근무 비율을 기록했으며,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5.6%로 조사되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일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정규직/상용직 어머니의 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2.95일이었고, 임시직은 4.58일, 일용직은 3.51일로 조사되었다.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4.12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65일로 나타났다.

〈표 III-3-40〉 어머니의 재택근무 일수: 최근 3개월

단위: %(명), 일

구분	재택근무 여부		재택근무 일수	계(수)
	함	하지 않음		
전체	11.9	88.1	3.34	100.0(1036)
종사상 지위				
정규직/상용직	9.7	90.3	2.95 <sup>a</sup>	100.0( 835)
임시직	18.3	81.7	4.58 <sup>a</sup>	100.0( 86)
일용직	12.2	87.8	3.51 <sup>a</sup>	100.0( 27)
종업원을 둔 고용주	30.2	69.8	4.12 <sup>a</sup>	100.0( 27)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35.6	64.4	3.65 <sup>a</sup>	100.0( 44)
무급가족종사자	0.0	100.0	-	100.0( 17)
$\chi^2(df)/F$	42.80***		3.6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  $p < .001$ ,

아버지의 월 평균 근로소득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396.92만원으로 나타났다. 301~400만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아버지들이 36.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401~500만원 소득 구간이 23.3%로 조사되었다. 2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아버지는 3.0%로 나타났으며, 1,000만원 이상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비율은 3.1%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40세 이상 아버지의 월 평균 소득이 422.4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5세 미만 아버지의 평균 소득이 273.5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35~40세 미만 아버지의 월 평균 소득은 407.32만원으로, 이 연령대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였다.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아버지의 월 평균 소득이 467.2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하 학력 아버지의 소득은 355.52만원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표 III-3-41〉 아버지의 월 평균 근로소득

단위: %(명), 만원

구분	응답 시 평균 소득	무응답 시											(수)
		100 만원 이하	101~ 200 만원	201~ 300 만원	301~ 400 만원	401~ 500 만원	501~ 600 만원	601~ 700 만원	701~ 800 만원	801~ 900 만원	901~ 1000 만원	1000 만원 이상	
전체	396.92	-	3.0	20.9	36.0	23.3	6.4	3.1	1.5	1.7	0.9	3.1	(1367)
아버지 연령													
25세 미만	273.59 <sup>a</sup>	-	-	-	-	-	-	-	-	-	-	-	( 8)
25~30세 미만	330.09 <sup>ab</sup>	-	19.4	0.0	9.6	27.4	0.0	23.7	19.9	0.0	0.0	0.0	( 63)
30~35세 미만	371.78 <sup>ab</sup>	-	3.5	22.5	35.8	27.2	6.2	1.6	0.0	1.1	0.0	2.1	( 360)
35~40세 미만	407.32 <sup>b</sup>	-	0.6	20.8	41.3	21.5	6.4	3.1	1.0	2.0	2.0	1.3	( 594)
40세 이상	422.45 <sup>b</sup>	-	5.0	20.7	29.2	22.3	7.8	2.0	2.0	2.2	0.0	8.6	( 336)
$\chi^2(df)/F$	7.82 <sup>***</sup>						n.a.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이하	355.52 <sup>a</sup>	-	12.1	16.2	33.8	24.8	1.8	4.7	0.0	2.5	0.0	4.0	( 256)
전문대(기능대학)	363.55 <sup>a</sup>	-	0.0	41.2	30.6	12.8	8.6	0.0	4.5	2.3	0.0	0.0	( 215)
대학교	409.45 <sup>b</sup>	-	1.7	17.6	39.9	25.6	6.3	2.7	0.7	0.8	1.4	3.4	( 779)
대학원 이상	467.27 <sup>c</sup>	-	0.0	22.3	10.9	19.3	15.1	10.9	7.9	8.6	0.0	5.0	( 117)
$\chi^2(df)/F$	15.96 <sup>***</sup>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

어머니들의 월 평균 근로소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어머니들의 월 평균 소득은 28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300만원 소득 구간이 가장 많아 40.6%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100만원 이하(18.7%)와 101~200만원(16.3%) 구간이 뒤를 이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른 소득에 차이가 있었다.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의 평균 소득은 227.40만원으로, 1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이 33.9%로 가장 많았다. 전문대 졸업 어머니들은 평균 238.16만원을 벌었으며, 201~300만원 소득 구간이 24.9%로 가장 많았다. 대학교 졸업 어머니들은 평균 286.14만원을 벌었으며, 이 중 51.2%가 201~300만원 소득 구간에 속했다.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은 평균 327.16만원을 벌었으며, 201~300만원 소득 구간이 38.4%로 가장 많았고, 501~600만원 구간도 8.4%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월 평균 소득도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III-3-42〉 어머니의 월 평균 근로소득

단위: %(명), 만원

구분	응답 시	무응답 시										(수)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600만원	601~700만원	701~800만원	801~900만원	901~1000만원 이상		
전체	280.0	18.7	16.3	40.6	11.7	3.7	2.0	1.6	1.1	0.7	-	3.6	(1036)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260.68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0.0	( 11)
25~30세 미만	243.46	42.1	10.2	23.7	8.8	5.1	0.0	0.0	4.5	0.0	-	5.6	( 77)
30~35세 미만	280.06	17.3	16.3	50.7	8.2	0.0	2.0	4.3	1.2	0.0	-	0.0	( 436)
35~40세 미만	287.56	11.2	18.4	39.1	16.0	3.5	3.1	0.0	0.0	1.7	-	7.0	( 409)
40세 이상	276.43	27.9	4.2	33.4	12.1	22.4	0.0	0.0	0.0	0.0	-	0.0	( 103)
$\chi^2(df)/F$	1.16	n.a.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이하	227.40 <sup>a</sup>	33.9	23.0	18.8	4.5	6.1	0.0	4.5	0.0	0.0	-	9.3	( 103)
전문대(기능대학)	238.16 <sup>ab</sup>	30.6	18.8	24.9	18.8	6.8	0.0	0.0	0.0	0.0	-	0.0	( 153)
대학교	286.14 <sup>bc</sup>	11.5	13.3	51.2	12.1	2.6	2.4	1.6	1.8	1.1	-	2.4	( 641)
대학원 이상	327.16 <sup>c</sup>	16.2	20.5	38.4	6.1	0.0	8.4	0.0	0.0	0.0	-	10.4	( 139)
$\chi^2(df)/F$	12.00 <sup>***</sup>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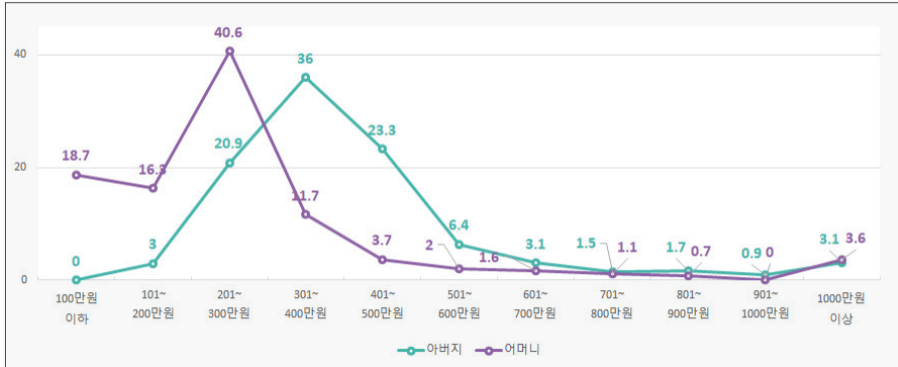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



[그림 III-3-12] 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마. 가구 특성

### 1) 가구 형태 및 가구원

패널아동과 패널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수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가구원 수 평균 3.61명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3명 이하인 가구가 53.5%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원 수가 4명인 가구가 35.4%, 5명 이상인 가구가 11.2%였다.

<표 III-3-43> 가구원 수(명)

단위: %(명), 명

구분	3명 이하	4명	5명 이상	계(수)	평균	최솟값	최댓값
전체	53.5	35.4	11.2	100.0(2555)	3.61	2.00	8.00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패널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구 형태를 질문한 결과, ‘부모+자녀’ 가구가 95.4%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부모+자녀’ 가구가 3.1%, ‘한조부모+부모+자녀’ 가구가 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44> 가구 형태

단위: %(명)

구분	부모+자녀	어머니+자녀	조부모+부모+자녀	조부모+어머니+자녀	한조부모+부모+자녀	한조부모+어머니+자녀	기타	계(수)
전체	95.4	0.1	3.1	0.1	0.9	0.0	0.3	100.0(255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패널아동이 부모와 주 4일 이상 함께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동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있다는 응답이 2.1%, 어머니는 0.2%로 나타났다.

〈표 III-3-45〉 부모 동거 여부

단위: %(명)

구분	아기와 함께 살고 있음	아기와 떨어져 살고 있음	계(수)
아버지	97.9	2.1	100.0(2555)
어머니	99.8	0.2	100.0(255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비동거 가구를 중심으로 비동거 사유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경우는 ‘타지역에서 근무 중’인 경우가 8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15.2%, ‘장기 입원, 요양 중’ 2.8%, ‘타지역에서 학업 중’ 1.7% 순이었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모두 ‘타지역에 근무 중’인 이유로 패널아동과 떨어져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6〉 부모 비동거 사유

단위: %(명)

구분	타지역 (또는 해외)에 근무 중	타지역 (또는 해외)에 학업 중	장기 입원, 요양 중	기타	계(수)
아버지	80.3	1.7	2.8	15.2	100.0(55)
어머니	100.0	-	-	-	100.0( 4)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2) 다문화 가정

패널아동의 부모에게 대한민국 국적 및 귀화 여부를 질문하였다. 다문화 가구 어머니 중 귀화자는 36.3%이며, 다문화 가구 아버지 중 귀화자는 16.2%, 외국인은 83.8%로 나타났다.

〈표 III-3-47〉 다문화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및 귀화 여부

단위: %(명)

어머니			아버지		
계(수)	대한민국 (귀화자)	외국인	계(수)	대한민국 (귀화자)	외국인
100.0( 107)	36.3	63.7	100.0(6)	16.2	83.8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귀화하거나 외국인인 다문화 부모에게 아이와 배우자에게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부모가 아이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거의 반반씩 사용함’이 47.3%로 가장 높았으며,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나의 모국어를 가끔씩 사용함’이 33.2%, ‘한국어만 사용함’이 19.5%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나의 모국어를 가끔씩 사용함’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거의 반반씩 사용함’이 27.3%, ‘한국어만 사용함’이 22.6%, ‘주로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가끔씩 사용함’이 10.4%, ‘나의 모국어만 사용함’이 2.7%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부모가 배우자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거의 반반씩 사용함’ 48.2%로 가장 높았으며,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나의 모국어를 가끔씩 사용함’이 32.3%, ‘한국어만 사용함’이 19.5%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한국어만 사용함’이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나의 모국어를 가끔씩 사용함’이 16.2%, ‘주로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가끔씩 사용함’ 11.0%,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거의 반반씩 사용함’ 6.3%, ‘제3의 언어(한국어와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함’ 1.2%로 나타났다.

〈표 III-3-48〉 다문화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배우자에게 사용하는 언어

단위: %(명)

구분	아이						배우자					
	한국어만 사용	주로 한국어 사용하나 모국어 가끔 사용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 거의 반반 사용	주로 나의 모국어 사용하고 한국어 가끔 사용	나의 모국어만 사용	(수)	한국어만 사용	주로 한국어 사용하나 모국어 가끔 사용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 거의 반반 사용	주로 나의 모국어 사용하고 한국어 가끔 사용	제3의 언어 사용	(수)
부	19.5	33.2	47.3	-	-	( 6)	19.5	32.3	48.2	-	-	( 6)
모	22.6	37.0	27.3	10.4	2.7	(107)	65.3	16.2	6.3	11.0	1.2	(107)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다문화 부모에게 본인의 한국어 구사 수준과 배우자가 다문화 부모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수준을 ‘1. 전혀 못함’에서부터 ‘5. 매우 유창함’까지의 5단계로 질문하였다.

우선, 한국어 구사 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유창한 편임’이 49.4%로



가장 높았으며,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함’이 31.1%, ‘매우 유창함’이 19.5%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 수준은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함’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창한 편임’이 33.6%, ‘매우 유창함’이 14.8%, ‘전혀 못함’이 2.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다문화 부모의 모국어 구사 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유창한 편임’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함’이 32.3%, ‘전혀 못함’이 19.5%, ‘매우 유창함’이 15.0%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전혀 못함’이 26.2%로 가장 높았으며, ‘거의 못함’이 21.6%,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함’이 20.8%, ‘유창한 편임’이 20.1%, ‘매우 유창함’이 11.3%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3-49〉 다문화 부모의 언어 구사 수준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구사 수준						배우자가 귀하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수준					
	전혀 못함	거의 못함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함	유창한 편임	매우 유창함	(수)	전혀 못함	거의 못함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함	유창한 편임	매우 유창함	(수)
부	-	-	31.1	49.4	19.5	( 6)	19.5	-	32.3	33.2	15.0	( 6)
모	2.0	-	49.6	33.6	14.8	(107)	26.2	21.6	20.8	20.1	11.3	(107)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다음은 다문화 가구 부모가 각 대상별로 의사소통할 때의 어려움 정도를 알아본 설문으로 ‘1. 전혀 어려움이 없음’에서부터 ‘4. 매우 어려움이 있음’까지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아버지의 대상별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과 소통할 때’ 평균 1.99점, ‘선생님과 소통할 때’ 평균 1.83점, ‘자녀와 소통할 때’ 평균 1.66점, ‘이웃과 소통할 때’ 평균 1.49점으로 대부분 대상별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이웃과 소통할 때’ 평균 2.27점, ‘선생님과 소통할 때’ 평균 2.17점, ‘가족과 소통할 때’ 평균 1.78점, ‘자녀와 소통할 때’ 1.77점으로 이웃과 선생님과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50〉 의사소통 어려움

단위: 점(명)

구분	자녀와 소통할 때		가족과 소통할 때		이웃과 소통할 때		선생님과 소통할 때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1.66	0.81	1.99	1.09	1.49	0.54	1.83	0.98	( 6)
어머니	1.77	0.71	1.78	0.64	2.27	0.82	2.17	0.81	( 10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점 척도임(1. 전혀 어려움이 없음 ~ 4. 매우 어려움이 있음).

다문화 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과 모국에 대한 소속감을 4점 척도(1. 매우 약하게 ~ 4. 매우 강하게)로 질문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소속감’이 평균 2.45점, ‘모국에 대한 소속감’이 평균 2.44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모국에 대한 소속감’이 평균 2.89점, ‘한국에 대한 소속감’ 2.86점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한국 및 모국에 대한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51〉 문화적응

단위: 점(명)

구분	한국에 대한 소속감		모국에 대한 소속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2.45	0.87	2.44	1.07	( 6)
어머니	2.86	0.58	2.89	0.78	( 10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점 척도임(1. 매우 약하게 ~ 4. 매우 강하게).

다음은 다문화 가구 부모에게 가족의 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내 모국의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 가족은 내 모국의 명절을 챙긴다’ 등 총 12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결과이다. 아버지의 경우 평균 3.50점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3.16점으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가족 문화수용성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52〉 가족의 문화수용성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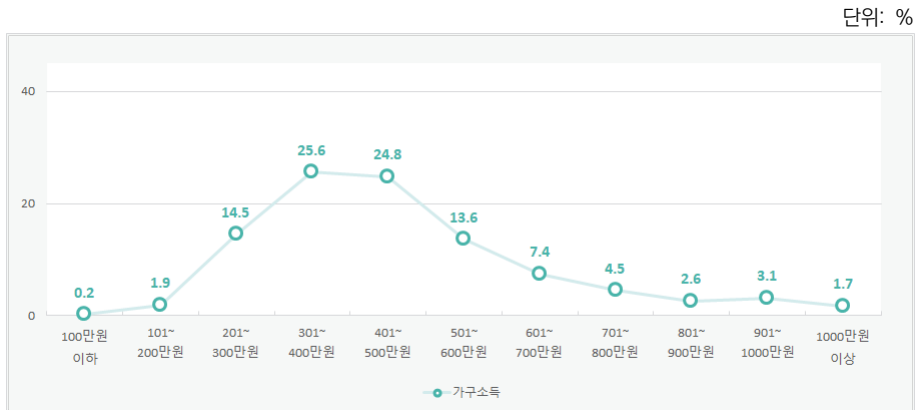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아버지	3.50	1.05	( 6)
어머니	3.16	0.82	( 10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3) 경제적 특성

월 평균 가구소득을 구간으로 질문한 결과, 301~400만원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1~500만원이 24.8%, 201~300만원이 14.5%, 501~600만원이 1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3] 월 평균 가구소득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패널가구의 부채와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부채액이 전체 평균 약 9,765.8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채 없음’이 40.9%로 가장 높고,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28.7%, ‘1억원 미만’이 21.6%, ‘3억원 이상’이 8.7%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가구 부채액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 부채액이 평균 1억 2,287.41만원으로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 비해서 약 3,5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 부채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3-53> 가구 부채액

단위: %(명), 만원

구분	부채 없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계(수)	부채액	
						평균	표준편차
전체	40.9	21.6	28.7	8.7	100.0(2555)	9765.80	18525.48
출생순위							
첫째	41.0	21.7	29.5	7.8	100.0(1577)	9436.23	16930.05
둘째	40.2	22.0	27.4	10.4	100.0( 793)	10260.86	20581.13

구분	부채 없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계(수)	부채액	
						평균	표준편차
셋째 이상 $\chi^2(df)/F$	43.6	19.2	27.7	9.5	100.0( 185)	10455.58	21986.26 0.81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3	21.1	33.7	12.9	100.0( 691)	12287.41	18560.45
맞벌이 아님	49.5	18.6	14.5	7.4	100.0( 684)	8815.19	14932.25
$\chi^2(df)/t$		21.55(3) <sup>***</sup>					-49.76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7.2	27.3	20.8	4.7	100.0( 423)	6403.04 <sup>a</sup>	11927.40
301~500만원	41.9	21.6	29.4	7.1	100.0(1296)	9390.64 <sup>ab</sup>	20072.20
501~700만원	37.3	21.4	31.5	9.8	100.0( 534)	9936.00 <sup>b</sup>	12973.70
701만원 이상	34.6	14.0	32.0	19.4	100.0( 301)	15797.99 <sup>c</sup>	25077.13
$\chi^2(df)/F$		88.91(9) <sup>***</sup>					15.76 <sup>***</sup>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sup>\*\*\*</sup>  $p < .001$ .

부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채액에 대한 월 상환액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상환액은 85.5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37.7%로 가장 높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9.6%, ‘50만원 미만’이 2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54〉 가구 부채 월 상환액

단위: %(명),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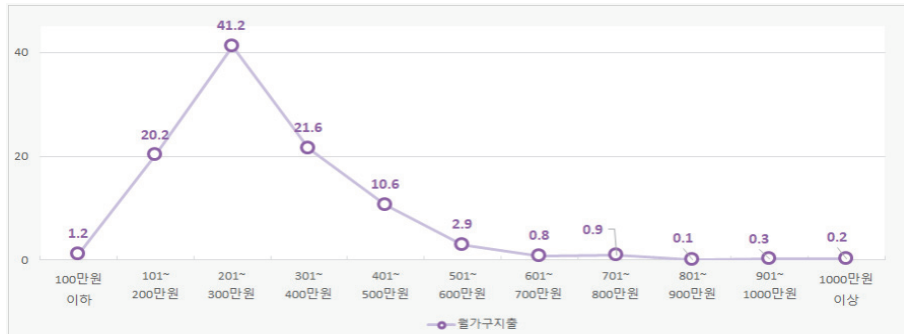
구분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무응답	계(수)	월 상환액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	28.7	29.6	37.7	0.5	100.0(1509)	85.54	73.79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총 가구지출을 살펴보면, ‘201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1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21.6%, ‘101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4] 월 평균 가구지출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비가 약 12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주거비가 약 43만원, 자녀 교육·보육비는 약 13만원, 보건의료비가 약 10만원이었으며, 그 외 항목을 합친 지출이 월 평균 약 124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I-3-55> 월 평균 가구지출: 항목별

단위: 만원(명)

구분	전체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자녀 교육·보육비	그 외	(수)
전체	315.09	120.54	43.68	10.02	13.79	124.90	(219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0.6%,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0.7%,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0.7%, 교육급여 수급 가구도 0.5%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 가구는 0.7%였다.

<표 III-3-5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단위: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차상위계층	(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전체	0.6	0.7	0.7	0.5	0.7	(255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우리사회 구조를 10단계 사다리로 제시하여 주양육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아보았다. 주양육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평균 5.64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이 3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6점 26.4%, 7점 14.6%순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평균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인 경우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비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였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7〉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1	0.9	4.1	10.1	34.7	26.4	14.6	7.0	2.1	-	100.0(2555)	5.64	1.33
맞벌이 여부													
맞벌이	0.1	0.4	2.4	7.3	34.6	27.8	18.7	6.9	1.9	-	100.0( 691)	5.80	1.24
맞벌이 아님	0.2	1.6	5.5	12.4	40.5	20.9	11.1	5.8	2.0	0.2	100.0( 684)	4.41	1.37
$\chi^2(df)/t$					n.a.							5.5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6	3.3	10.2	19.4	39.4	13.9	6.0	6.9	0.3	-	100.0( 423)	4.95 <sup>a</sup>	1.43
301~500만원	0.0	0.5	3.4	10.5	38.3	26.2	13.3	5.4	2.3	0.1	100.0(1296)	5.60 <sup>b</sup>	1.27
501~700만원	0.0	0.0	1.9	6.0	32.2	32.1	16.8	7.6	3.3	-	100.0( 534)	5.92 <sup>c</sup>	1.23
701만원 이상	0.0	0.7	1.9	2.9	16.7	34.8	28.5	12.9	1.6	-	100.0( 301)	6.28 <sup>d</sup>	1.20
$\chi^2(df)/F$					n.a.							74.83***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0.1	1.1	4.3	8.2	33.9	26.7	15.6	7.4	2.7	-	100.0( 911)	5.71	1.37
중소도시(비광역시/동)	0.1	0.4	3.4	12.1	35.4	26.4	13.7	6.3	2.1	0.1	100.0(1286)	5.61	1.29
읍·면	0.2	2.1	5.8	7.8	34.1	25.5	15.5	8.4	0.7	-	100.0( 358)	5.58	1.39
$\chi^2(df)/F$					n.a.							1.83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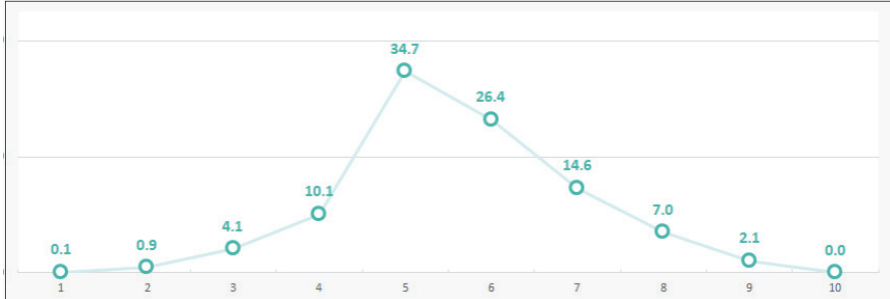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3) ①: 사회 경제적 지위가 제일 낮음 ~ ⑩: 사회 경제적 지위가 제일 높음

\*\*\*  $p < .001$ .

[그림 III-3-1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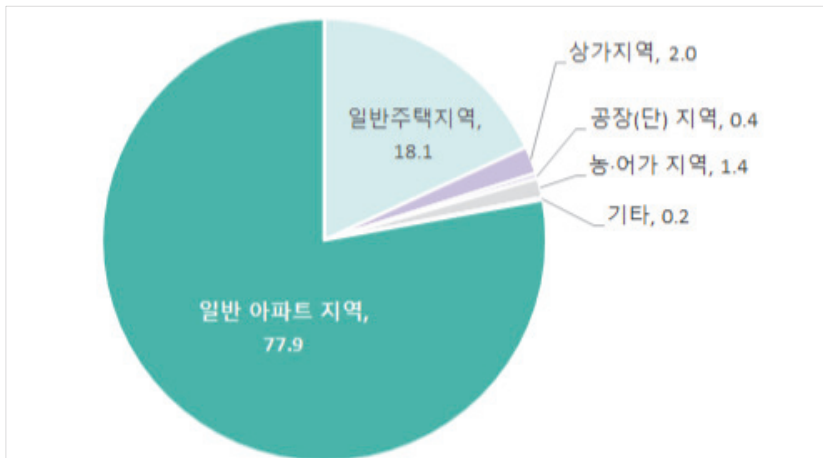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4) 주거환경

현재 거주지역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일반 아파트 지역이 77.9%, 일반주택지역이 18.1%, 상가지역 2.0%, 농·어가 지역 1.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군부대나 그 인근지역에 해당하였다.

[그림 III-3-16] 거주지역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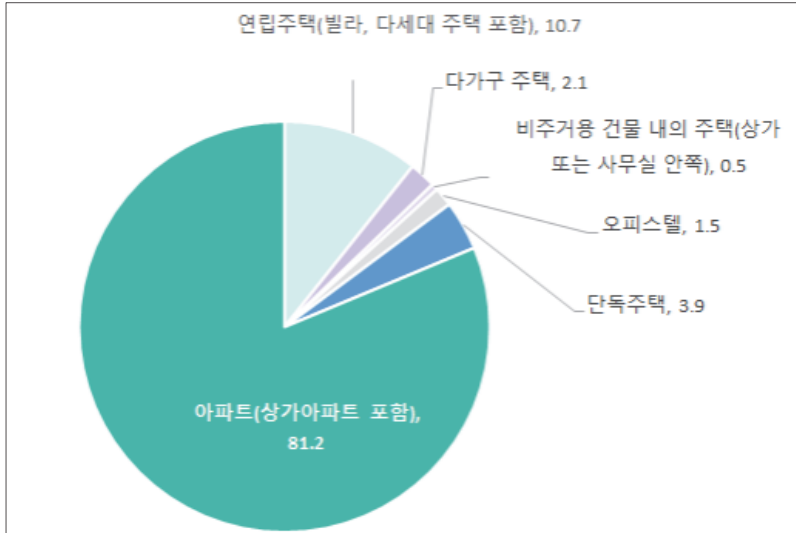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살펴본 결과, 아파트가 8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연립주택이 10.7%, 단독주택이 3.9%, 다가구 주택 2.1%, 오피스텔 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7] 주거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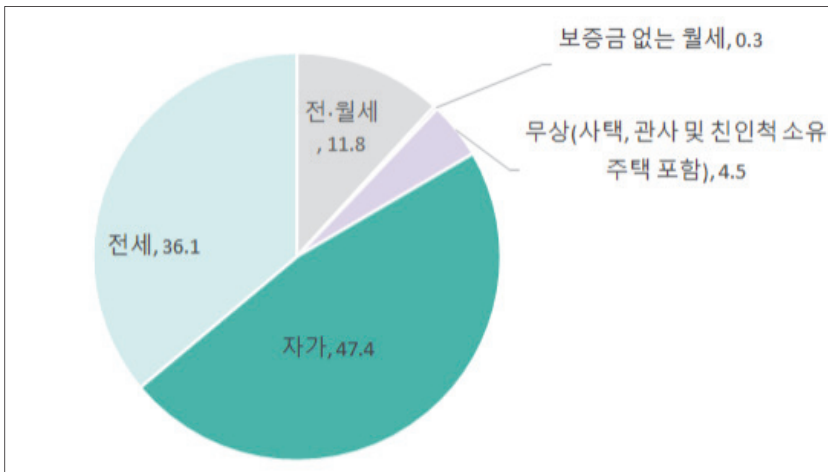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를 살펴본 결과, 자가 4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세 36.1%, 전·월세 11.8%, 무상 4.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8] 주택 점유형태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현재 거주지를 정할 때 가장 고려한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무지와의 거리’가 42.5%로 가장 많았고, ‘주거 비용’이 20.8%, ‘돌봄 제공자와의 접근성’ 17.5%, ‘양육 환경’이 17.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 거주 이유는 출생순위,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패널아동의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근무지와의 거리’가 주된 이유인 비율이 높았으며, 아동이 출생 둘째나 셋째인 경우 양육환경이 거주지 선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 비해 ‘돌봄 제공자와의 접근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돌봄 제공자와의 접근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58〉 현거주지 거주 이유

단위: %(명)

구분	돌봄 제공자					계(수)
	근무지와의 거리	(조부모, 친척 등)와의 접근성	주거 비용	양육환경	기타	
전체	42.5	17.5	20.8	17.3	1.9	100.0(2555)
출생순위						
첫째	45.2	18.2	20.4	13.8	2.4	100.0(1577)
둘째	39.6	16.5	21.0	21.7	1.3	100.0( 793)
셋째 이상	32.1	16.3	22.9	27.8	0.9	100.0( 185)
$\chi^2(df)$			45.92(8)***			
맞벌이 여부						
맞벌이	40.9	24.2	16.3	15.7	3.0	100.0( 691)
맞벌이 아님	41.6	12.2	21.5	22.5	2.2	100.0( 684)
$\chi^2(df)$			40.93(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6.1	13.4	28.8	18.7	2.9	100.0( 423)
301~500만원	44.3	16.5	20.6	17.0	1.7	100.0(1296)
501~700만원	42.4	21.2	18.2	16.5	1.7	100.0( 534)
701만원 이상	43.9	21.5	14.6	18.0	2.0	100.0( 301)
$\chi^2(df)$			40.50(12)***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01$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면적을 살펴본 결과, 평균 94.4m<sup>2</sup>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120m<sup>2</sup>미만’이 35.7%, ‘80~100m<sup>2</sup> 미만’이 27.6%, ‘60~80m<sup>2</sup> 미만’이 20.7%, ‘60m<sup>2</sup>미만’ 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59〉 주거 면적(m<sup>2</sup>)

단위: %(명), m<sup>2</sup>

구분	60m <sup>2</sup> 미만	60~80m <sup>2</sup> 미만	80~100m <sup>2</sup> 미만	100~120m <sup>2</sup> 미만	120m <sup>2</sup> 이상	계(수)	주거면적	
							평균	표준 편차
전체	9.0	20.7	27.6	35.7	6.8	100.0 (2555)	94.4	24.09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방의 개수를 살펴본 결과, 평균 2.94개였으며, 3개가 7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개 12.0%, 4개 이상이 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60〉 주거지 방 개수

단위: %(명), 개

구분	1개 이하	2개	3개	4개 이상	계(수)	주거지 방 개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	12.0	79.3	7.7	100.0(2555)	2.94	0.50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패널아동의 개인 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동 개인방이 있는 가구는 43.1%이었다.

〈표 III-3-61〉 아동 개인 방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개인 방이 있음	아니오, 개인 방이 없음	계(수)
전체	43.1	56.9	100.0(255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패널가구에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는 10.7%로 나타났다.

〈표 III-3-62〉 반려동물 여부

단위: %(명)

구분	키움	키우지 않음	계(수)
전체	10.7	89.3	100.0(255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4. 교육·보육 환경

아동의 교육·보육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아동의 기관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어린이집 담임교사 조사를 통해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을 살펴보았다.

### 가. 기관 이용 현황

주양육자 조사를 통해 아동의 기관 이용 현황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였다. 기관 이용 현황 및 기관 외 사교육 이용 현황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 연장보육/돌봄 이용 여부와 어린이집 이외의 사교육 이용 여부 및 실태(횟수, 시간, 비용, 이용 목적)가 어떠한지를 파악하였다.

#### 1) 어린이집

패널아동 중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61.2%, 시간제 보육만 이용하는 아동은 37.7%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재원 여부는 아동의 월령과 출생순위,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아동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맞벌이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이거나 읍면지역인 경우 어린이집에 재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4-1〉 어린이집 재원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다님	시간제 보육만 이용할	다른 기관을 이용하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음	계(수)
전체	61.2	37.7	1.1	100.0(2555)
아동 월령				
16~17개월	50.6	48.4	1.0	100.0( 514)
18~19개월	61.9	36.6	1.5	100.0( 870)
20~21개월	63.0	36.1	0.9	100.0( 685)
22~23개월	68.9	30.3	0.8	100.0( 486)
$\chi^2(df)$		40.21(6)***		
출생순위				
첫째	61.0	37.5	1.5	100.0(1577)
둘째	63.7	35.8	0.6	100.0( 793)
셋째 이상	52.6	47.4	-	100.0( 185)
$\chi^2(df)$		15.95(4)**		
맞벌이 여부				

구분	어린이집 다님	시간제 보육만 이용함	다른 기관을 이용하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음	계(수)
맞벌이	73.2	25.7	1.1	100.0( 724)
맞벌이 아님	47.2	51.2	1.7	100.0(1044)
$\chi^2(df)$		120.67(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1.5	47.0	1.4	100.0( 423)
301~500만원	57.0	41.8	1.2	100.0(1296)
501~700만원	70.7	28.3	1.0	100.0( 534)
701만원 이상	76.2	23.5	0.3	100.0( 301)
$\chi^2(df)$		75.69(6)***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73.2	25.7	1.1	100.0( 91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7.2	51.2	1.7	100.0(1286)
읍·면	68.9	30.8	0.3	100.0( 358)
$\chi^2(df)$		16.88(4)**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1$ , \*\*\*  $p < .001$ .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는 평균 12.88개월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는 ‘12개월에서 15개월 미만’이 50.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15개월에서 18개월 미만’이 21.6%,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14.1%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평균 시작 시기에 있어 맞벌이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좀 더 일찍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계(수)	시작 시기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0	2.0	5.8	14.1	50.1	21.6	5.4	0.8	100.0(1593)	12.88	2.96
출생순위											
첫째	0.0	1.8	5.4	13.7	51.5	21.3	5.3	0.9	100.0( 986)	12.95	2.88
둘째	0.1	1.7	7.1	15.8	46.1	23.3	5.4	0.4	100.0( 509)	12.78	3.04
셋째 이상	0.0	5.5	3.2	9.6	57.2	16.1	6.7	1.7	100.0( 97)	12.70	3.38
$\chi^2(df)/F$					n.a.						0.73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3.1	7.7	19.6	50.1	15.3	3.2	1.0	100.0( 538)	12.29	3.06
맞벌이 아님	0.1	1.0	3.4	9.7	49.4	28.0	7.5	0.8	100.0( 504)	13.56	2.79
$\chi^2(df)/t$					n.a.						-7.00***
가구소득											

구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계(수)	시작 시기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평균	표준 편차	
300만원 이하	0.0	3.1	4.2	12.0	50.0	23.5	6.0	1.1	100.0( 224)	13.17 <sup>b</sup>	3.13	
301~500만원	0.0	0.9	4.7	12.1	49.3	25.2	7.2	0.7	100.0( 755)	13.26 <sup>b</sup>	2.83	
501~700만원	0.2	2.2	8.5	16.5	48.2	20.0	3.1	1.3	100.0( 383)	12.49 <sup>a</sup>	3.07	
701만원 이상	0.0	4.3	6.7	18.9	56.2	11.1	2.9	0.0	100.0( 231)	12.00 <sup>a</sup>	2.81	
$\chi^2(d.f)/F$											14.23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0.0	0.9	6.1	14.7	53.1	19.8	4.6	0.8	100.0( 532)	12.87	2.78	
중소도시(비광역시/동)	0.1	2.4	5.5	14.8	50.5	20.6	5.6	0.5	100.0( 830)	12.78	2.96	
읍·면	0.0	3.2	6.4	10.2	42.0	29.7	6.5	1.9	100.0( 230)	13.26	3.35	
$\chi^2(d.f)/F$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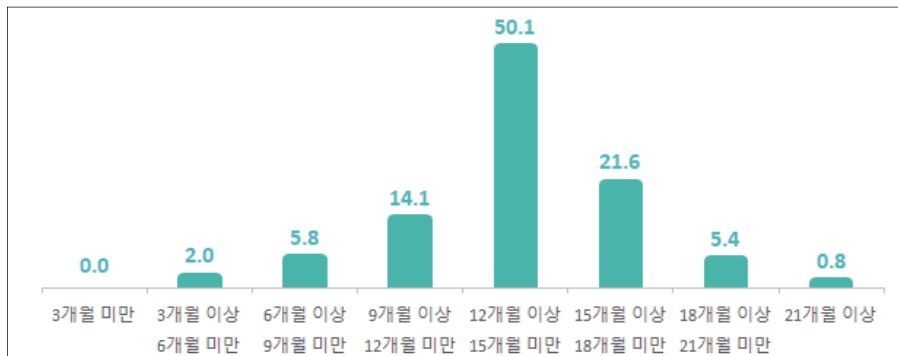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

[그림 III-4-1]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월령)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동의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기본보육 이용은 94.3%, 연장보육 이용은 23.2%, 야간연장 이용은 0.4%, 휴일보육 이용은 0.2%, 야간 12시간 이용은 0.1%이었다. 아동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경우, 맞벌이가 구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연장보육 이용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표 III-4-3〉 어린이집 돌봄/연장보육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기본보육	연장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수)
전체	94.3	23.2	-	0.2	0.4	0.1	(1563)
출생순위							
첫째	95.2	21.8	-	0.2	0.3	0.1	( 963)
둘째	93.0	25.1	-	0.2	0.5	-	( 505)
셋째 이상	92.0	27.3	-	-	1.6	-	( 96)
$\chi^2(df)$	n.a.	n.a.	n.a.	n.a.	n.a.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92.2	32.0		0.2	0.7	0.1	( 530)
맞벌이 아님	96.1	12.4		0.3	0.2	-	( 492)
$\chi^2(df)$	n.a.	n.a.	n.a.	n.a.	n.a.	n.a.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3.0	17.6	-	-	-	-	( 218)
301~500만원	96.0	18.0	-	0.2	0.2	0.1	( 737)
501~700만원	91.7	32.4	-	-	0.4	-	( 378)
701만원 이상	94.5	30.0	-	0.4	1.7	-	( 230)
$\chi^2(df)$	n.a.	n.a.	n.a.	n.a.	n.a.	n.a.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93.8	22.4		0.5	0.7	-	( 516)
중소도시(비광역시/동)	95.1	24.9		-	0.3	-	( 817)
읍면	92.7	19.0		-	0.3	0.3	( 229)
$\chi^2(df)$	n.a.	n.a.	n.a.	n.a.	n.a.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부모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와의 소통 정도를 알아보았다. 조사 대상 중 자주 소통하는 편이 63.5%, 매우 자주 소통함이 28.7%로 92.2%가 소통하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소통 정도는 5점 평균 4.21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아동 월령이 낮을수록,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소통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4-4〉 부모-어린이집 담임교사 간 소통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소통하지 않는 편	보통	자주 소통하는 편	매우 자주 소통함	계(수)	대표값 - 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4	7.4	63.5	28.7	100.0 (1563)	4.21	0.58
아동 월령							
16~17개월	0.0	6.0	53.2	40.8	100.0 ( 260)	4.35 <sup>b</sup>	0.59
18~19개월	0.5	8.5	60.0	31.0	100.0 ( 536)	4.21 <sup>a</sup>	0.61

구분	소통하지 않는 편	보통	자주 소통하는 편	매우 자주 소통함	계(수)	대표값 - 점	
						평균	표준 편차
20~21개월	0.6	8.2	68.6	22.6	100.0 ( 431)	4.13 <sup>a</sup>	0.56
22~23개월	0.0	5.8	70.5	23.7	100.0 ( 335)	4.18 <sup>a</sup>	0.51
$\chi^2(df)/F$	n.a.					8.05 <sup>***</sup>	
출생순위							
첫째	0.2	6.5	63.0	30.3	100.0 ( 963)	4.23 <sup>a</sup>	0.57
둘째	0.8	9.1	63.3	26.8	100.0 ( 505)	4.16 <sup>a</sup>	0.60
셋째 이상	0.0	7.7	69.4	22.9	100.0 ( 96)	4.15 <sup>a</sup>	0.53
$\chi^2(df)/F$	n.a.					3.09 <sup>*</sup>	
맞벌이 여부							
맞벌이	0.7	6.2	58.6	34.5	100.0 ( 530)	4.27	0.60
맞벌이 아님	0.4	10.3	58.8	30.5	100.0 ( 492)	4.19	0.62
$\chi^2(df)/t$	n.a.					2.03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소통하지 않는다 ~ 5. 매우 자주 소통한다).  
 3)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참여하는 편이 53.1%, 항상 참여함이 26.0%로 약 79.1%가 참여하는 편으로 나타났고, 참여 정도는 평균 4.00점으로 높았다. 아동 월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뚜렷한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표 III-4-5〉 어린이집 행사 참여 정도: 부모 응답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는 편	보통	참여하는 편	항상 참여함	계(수)	단위: %(명), 점	
							대표값 - 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0.5	4.2	16.2	53.1	26.0	100.0 (1563)	4.00	0.80
아동 월령								
16~17개월	1.8	4.1	15.8	46.5	31.8	100.0 ( 260)	4.02 <sup>a</sup>	0.90
18~19개월	0.4	7.0	15.3	48.2	29.0	100.0 ( 536)	3.98 <sup>a</sup>	0.87
20~21개월	0.0	2.8	18.1	56.6	22.6	100.0 ( 431)	3.99 <sup>a</sup>	0.72
22~23개월	0.3	1.8	15.5	61.5	21.0	100.0 ( 335)	4.01 <sup>a</sup>	0.68
$\chi^2(df)/F$	n.a.						6.73 <sup>***</sup>	
출생순위								
첫째	0.5	4.7	15.6	52.6	26.6	100.0 ( 963)	4.00	0.81
둘째	0.7	3.5	16.7	53.4	25.7	100.0 ( 505)	4.00	0.79
셋째 이상	0.0	2.9	19.0	56.3	21.8	100.0 ( 96)	3.97	0.73
$\chi^2(df)/F$	n.a.						0.96	
맞벌이 여부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는 편	보통	참여하는 편	항상 참여함	계수)	대표값 - 점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0.6	6.4	16.7	46.3	30.0	100.0 ( 530)	3.99	0.88
맞벌이 아님	0.5	4.4	15.2	51.3	28.7	100.0 ( 492)	4.03	0.81
$\chi^2(df)/t$	n.a.						-0.7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5. 항상 참여한다).  
 3)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를 보육과정, 물리적 환경, 어린이집과의 소통, 담임교사, 개별지도 및 지원 등 5개 분야로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42점, 어린이집과의 소통 평균 4.36점, 보육과정 평균 4.29점, 개별지도 및 지원 평균 4.23점, 물리적 환경 평균 4.16점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 보면, 보육과정은 아동 월령이 낮거나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의 소통, 담임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맞벌이가 아닌 부모보다 맞벌이 부모에게서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개별지도 및 지원은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도시지역일수록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4-6〉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구분	(수)	단위: %(명), 점									
		보육과정		물리적 환경		어린이집과의 소통		담임교사		개별지도 및 지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63)	4.29	0.60	4.16	0.71	4.36	0.63	4.42	0.63	4.23	0.65
아동 월령											
16~17개월	( 260)	4.37 <sup>b</sup>	0.57	4.16	0.74	4.40	0.62	4.49	0.58	4.31	0.69
18~19개월	( 536)	4.29 <sup>ab</sup>	0.63	4.14	0.73	4.37	0.62	4.45	0.61	4.25	0.65
20~21개월	( 431)	4.29 <sup>ab</sup>	0.62	4.20	0.71	4.33	0.67	4.39	0.68	4.20	0.68
22~23개월	( 335)	4.21 <sup>a</sup>	0.52	4.15	0.64	4.35	0.61	4.37	0.61	4.19	0.58
$\chi^2(df)/F$		3.29 <sup>*</sup>		0.69		0.58		2.39		2.35	
출생순위											
첫째	( 963)	4.29	0.59	4.13	0.71	4.38	0.62	4.44	0.61	4.23	0.65
둘째	( 505)	4.30	0.61	4.21	0.72	4.35	0.67	4.39	0.66	4.25	0.67
셋째 이상	( 96)	4.18	0.62	4.21	0.65	4.22	0.59	4.42	0.58	4.20	0.58
$\chi^2(df)/F$		1.67		2.09		2.87		1.24		0.37	
맞벌이 여부											
맞벌이	( 530)	4.39	0.61	4.20	0.73	4.49	0.60	4.53	0.59	4.35	0.65
맞벌이 아님	( 486)	4.27	0.61	4.16	0.74	4.31	0.67	4.37	0.65	4.19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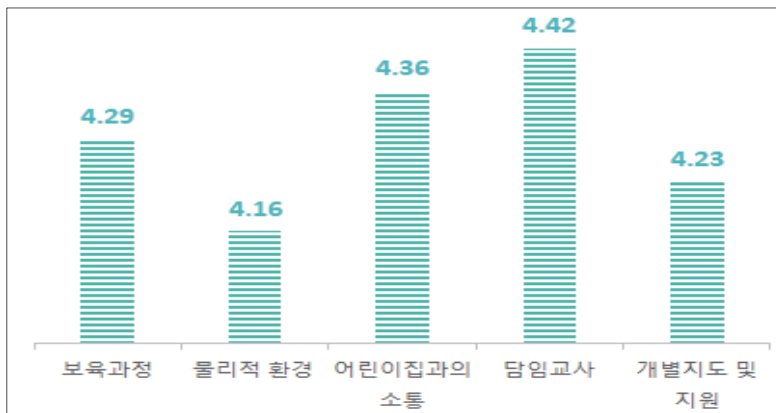


구분	(수)	보육과정		물리적 환경		어린이집과의 소통		담임교사		개별지도 및 지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chi^2(df)/t$		3.19**		0.79		4.56***		4.12***		4.0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 218)	4.24	0.62	4.14	0.70	4.33	0.69	4.46 <sup>a</sup>	0.63	4.20	0.74
301~500만원	( 737)	4.28	0.59	4.16	0.69	4.34	0.65	4.39 <sup>a</sup>	0.62	4.20	0.62
501~700만원	( 378)	4.32	0.60	4.19	0.71	4.40	0.61	4.41 <sup>a</sup>	0.66	4.26	0.66
701만원 이상	( 230)	4.31	0.58	4.14	0.80	4.40	0.57	4.53 <sup>a</sup>	0.59	4.31	0.65
$\chi^2(df)/F$		1.05		0.38		1.07		3.21*		2.06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 516)	4.33	0.61	4.18	0.72	4.41	0.62	4.51 <sup>b</sup>	0.59	4.31 <sup>b</sup>	0.64
중소도시(비광역시/동)	( 817)	4.27	0.58	4.16	0.69	4.35	0.63	4.40 <sup>a</sup>	0.62	4.21 <sup>ab</sup>	0.65
읍면	( 229)	4.25	0.62	4.12	0.75	4.30	0.68	4.31 <sup>a</sup>	0.70	4.12 <sup>a</sup>	0.68
$\chi^2(df)/F$		2.15		0.65		2.70		9.55***		7.6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III-4-2]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단위: 점



주: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2) 사교육 기관

어린이집이 이외 반일제 이상 사교육 기관의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의 0.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 1.6%, 읍면지역 0.9%, 중소도시 0.4%의 비율로 반일제 이상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하여야 하겠다.

〈표 III-4-7〉 반일제 이상 사교육 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0.9	99.1	100.0(25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	98.6	100.0( 724)
맞벌이 아님	0.8	99.2	100.0(1044)
$\chi^2(df)$	1.56(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0	99.0	100.0( 423)
301~500만원	0.7	99.3	100.0(1296)
501~700만원	0.5	99.5	100.0( 534)
701만원 이상	2.3	97.7	100.0( 301)
$\chi^2(df)$	n.a.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1.6	98.4	100.0( 91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0.4	99.6	100.0(1286)
읍·면	0.9	99.1	100.0( 358)
$\chi^2(df)$	9.47(2)**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1$ .

반일제 이상 사교육 기관 이용 일수는 주당 평균 2.45일로 확인되었으며, 1일 이용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평균 4.0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비용은 월 평균 21만 1천원이었다.

〈표 III-4-8〉 반일제 이상 사교육 기관 이용 일수

단위: %(명), 일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계(수)	이용 일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2	29.0	9.8	4.0	21.0	100.0(23)	2.45	1.5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 III-4-9〉 반일제 이상 사교육 기관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계(수)	대표값 - 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0	6.4	10.7	14.3	6.7	100.0(23)	4.02	1.50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 III-4-10〉 반일제 이상 사교육 기관 이용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비용 내지 않음	1만원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5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계(수)	대표값 - 점	
		5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5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3	10.1	19.5	4.0	3.3	24.0	34.8	100.0(23)	21.1	17.4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동의 어린이집이나 반일제 사교육 기관 이외의 아동의 어린이집이나 반일제 사교육 기관 이외의 기타 사교육 이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기타 사교육 이용은 전체 아동의 약 13.7%로 나타났다. 기타 사교육 중에서 문화센터 이용 비율이 11.7%로 가장 높았다.

〈표 III-4-11〉 기타 사교육 이용 여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기타	이용하지 않음	(수)
전체	0.5	11.7	1.2	1.2	0.1	86.3	(25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0.8	11.4	1.4	1.5	0.0	86.1	( 724)
맞벌이 아님	0.5	13.7	0.9	0.9	0.2	84.8	(1044)
$\chi^2(df)$	n.a.	n.a.	n.a.	n.a.	n.a.	n.a.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2	12.7	0.6	-	0.4	86.5	( 423)
301~500만원	0.3	11.4	1.1	1.1	-	87.1	(1296)
501~700만원	0.3	12.2	1.5	1.5	-	85.4	( 534)
701만원 이상	2.1	10.7	2.3	3.0	-	84.0	( 301)
$\chi^2(df)$	n.a.	n.a.	n.a.	n.a.	n.a.	n.a.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0.9	13.6	1.5	2.3	0.0	83.0	( 91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0.3	10.9	1.0	0.9	0.1	87.7	(1286)
읍·면	0.2	9.4	1.3	0.0	0.0	89.3	( 358)
$\chi^2(df)$	n.a.	n.a.	n.a.	n.a.	n.a.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기타 사교육 이용 일수는 주당 평균 1.61일로 확인되었으며, 2일 미만 이용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1.03시간이었으며,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이용이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용은 월 평균 10.69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4-12〉 기타 사교육 이용 일수

단위: %(명), 일

구분	2일 미만	2일 이상 ~4일 미만	4일 이상 ~6일 미만	6일 이상	계(수)	대표값-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59.0	36.1	4.3	0.6	100.0(351)	1.61	0.9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 III-4-13〉 기타 사교육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수)	대표값 - 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31.6	65.3	2.1	1.0	100.0(351)	1.03	0.7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 III-4-14〉 기타 사교육 기관 이용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계(수)	대표값 - 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0	29.0	25.7	9.7	5.7	7.9	100.0(351)	10.69	8.42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어린이집 이외의 기타 사교육 기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 중 1순위를 분석한 결과, ‘아이의 신체 발달을 위해’가 32.6%로 가장 많았고, ‘아이의 인지/언어 발달을 위해’ 24.5%, ‘아이의 다양한 예체능적인 경험을 위해’ 20.0%, ‘아이의 또래관계 경험을 위해’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15〉 기타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목적: 1순위

단위: %(명)

구분	아이의 신체 발달을 위해	아이의 인지/언어 발달을 위해	아이의 또래관계 경험을 위해	아이의 다양한 예체능적인 경험을 위해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타	계(수)
전체	32.6	24.5	18.6	20.0	2.6	1.5	0.3	100.0 (351)
아동 월령								
16~17개월	21.6	27.3	19.2	29.1	-	2.8	-	100.0 ( 77)
18~19개월	30.5	24.5	17.4	23.2	1.8	2.6	-	100.0 (125)
20~21개월	44.7	19.0	21.2	11.4	3.7	-	-	100.0 ( 91)
22~23개월	32.6	29.5	16.2	14.2	5.8	-	1.7	100.0 ( 58)
$\chi^2(df)$				n.a.				
아동 성별								
남	34.5	29.4	13.9	19.6	1.3	0.8	0.5	100.0 (187)
여	30.4	18.9	24.0	20.4	4.0	2.4	-	100.0 (164)
$\chi^2(df)$				n.a.				

구분	아이의 신체 발달을 위해	아이의 인지/언어 발달을 위해	아이의 또래관계 경험을 위해	아이의 다양한 예체능적인 경험을 위해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타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6	27.4	18.2	23.0	3.1	0.8	0.0	100.0 (101)
맞벌이 아님	31.2	22.5	23.6	18.7	1.5	2.4	0.0	100.0 (158)
$\chi^2(df)$				n.a.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3.0	20.7	24.1	17.7	3.2	1.3	-	100.0 ( 57)
301~500만원	32.0	26.6	18.7	17.7	3.3	1.8	-	100.0 (167)
501~700만원	32.9	25.1	15.5	24.1	1.3	1.2	-	100.0 ( 78)
701만원 이상	33.5	20.7	16.6	24.0	1.6	1.6	2.0	100.0 ( 48)
$\chi^2(df)$				n.a.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29.0	26.3	15.1	25.0	3.1	1.5	0.0	100.0 (155)
중소도시(비광역시/동)	37.4	22.6	19.3	16.2	2.5	1.5	0.6	100.0 (158)
읍·면	27.2	24.9	29.7	15.3	0.8	1.9	0.0	100.0 ( 38)
$\chi^2(df)$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어린이집 이외의 기타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 1, 2순위를 함께 분석한 결과 ‘아이의 다양한 예체능적인 경험을 위해’가 4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이의 신체 발달을 위해’ 47.7%, ‘아이의 또래관계 경험을 위해’ 43.6%, ‘아이의 인지/언어 발달을 위해’ 4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16〉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목적: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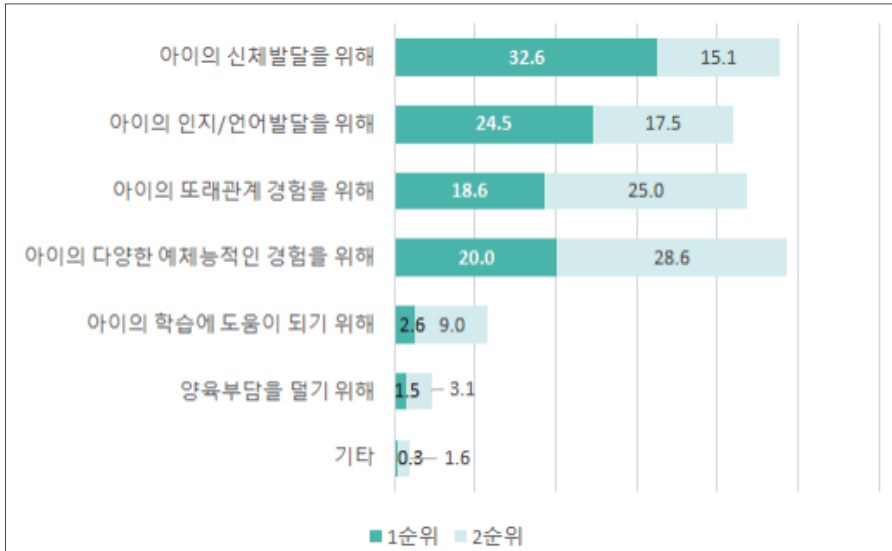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아이의 신체발달을 위해	아이의 인지/언어 발달을 위해	아이의 또래관계 경험을 위해	아이의 다양한 예체능적인 경험을 위해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타	(수)
전체	47.7	42.0	43.6	48.6	11.6	4.6	1.9	(35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4-3]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목적: 1+2순위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나. 어린이집 환경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환경을 기관 특성과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기관 특성<sup>19)</sup>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특성을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총 306개소이며, 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 32.4%, 가정어린이집 30.1%, 민간 어린이집 29.7%,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은 각각 3% 내외로 소수이었다. 어린이집 소재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각각 14.1%, 21.2%, 대구 10.8%이고 나머지 시도는 10% 미만 수준이었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는 야간연장 28.4%, 장애아통합 6.5%, 시간제보육 4.3%, 휴일보육 1.3%, 영아전담 0.7%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중 46.7%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어린이집 조사에 응답한 사례만 포함함.

며, 정원 규모는 40~79인 32.4%, 20인 이하 31.1%, 21~39인 21.2%, 80인 이상 15.4%를 차지하였다.

〈표 III-4-17〉 어린이집 특성

단위: %(개소)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306)	운영 서비스 유형(중복)	
어린이집 유형		일반	67.3 (206)
국공립	32.4 ( 99)	영아전담	0.7 ( 2)
사회복지법인	3.6 ( 11)	장애아전문	-
법인·단체등	1.6 ( 5)	장애아통합	6.5 ( 20)
민간	29.7 ( 91)	야간연장	28.4 ( 87)
가정	30.1 ( 92)	휴일보육	1.3 ( 4)
직장	2.6 ( 8)	24시간보육	-
어린이집 소재 지역		시간제보육	4.3 ( 13)
서울	14.1 ( 43)	통학차량 운영 여부	
부산	3.9 ( 12)	운영	46.7 (143)
대구	10.8 ( 33)	미운영	53.3 (163)
인천	1.3 ( 4)	어린이집 소재 지역 규모	
광주	8.5 ( 26)	대도시(광역시/동)	42.48 (130)
대전	1.6 ( 5)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3.14 (132)
울산	4.6 ( 14)	읍 면	14.38 ( 44)
세종	0.7 ( 2)	어린이집 정원 규모	
경기	21.2 ( 65)	20인 이하	31.1 ( 95)
강원	5.2 ( 16)	21~39인	21.2 ( 65)
충북	0.3 ( 1)	40~79인	32.4 ( 99)
충남	0.3 ( 1)	80인 이상	15.4 ( 47)
전북	3.6 ( 11)		
전남	8.8 ( 27)		
경북	5.6 ( 17)		
경남	6.9 ( 21)		
제주	2.6 ( 8)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관조사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모두 확인된 306사례만 제시함.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의 리더십 수준을 알아보았다. 교사들이 5점 척도로 평가한 원장의 리더십은 평균 3.43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원장의 리더십은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21~39인 규모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4-18〉 소속 어린이집 원장 리더십

단위: 점(명)

구분	인간 지향성		목표 지향성		관료 지향성		총점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05	0.83	4.12	0.73	2.12	0.96	3.43	0.37	(28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89 <sup>a</sup>	0.91	4.16 <sup>a</sup>	0.70	2.35 <sup>a</sup>	1.07	3.47	0.37	( 93)
사회복지법인	3.61 <sup>a</sup>	0.56	3.51 <sup>a</sup>	0.59	2.21 <sup>a</sup>	0.64	3.11	0.34	( 12)
법인·단체등	4.62 <sup>a</sup>	0.51	4.25 <sup>a</sup>	0.56	1.41 <sup>a</sup>	0.47	3.43	0.24	( 4)
민간	4.03 <sup>a</sup>	0.86	4.05 <sup>a</sup>	0.83	2.15 <sup>a</sup>	0.93	3.41	0.43	( 81)
가정	4.26 <sup>a</sup>	0.69	4.22 <sup>a</sup>	0.60	1.87 <sup>a</sup>	0.84	3.45	0.30	( 90)
직장	4.08 <sup>a</sup>	0.92	4.03 <sup>a</sup>	1.09	2.28 <sup>a</sup>	1.12	3.46	0.32	( 7)
<i>F</i>	2.95 <sup>*</sup>		2.34 <sup>*</sup>		2.79 <sup>*</sup>		2.16		
어린이집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3.86 <sup>a</sup>	0.86	4.01	0.77	2.31 <sup>b</sup>	1.02	3.39	0.39	(114)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12 <sup>ab</sup>	0.82	4.17	0.69	2.05 <sup>ab</sup>	0.92	3.44	0.35	(138)
읍·면	4.39 <sup>b</sup>	0.63	4.24	0.69	1.83 <sup>a</sup>	0.82	3.49	0.37	( 36)
<i>F</i>	6.84 <sup>***</sup>		2.07		4.24 <sup>*</sup>		1.19		
어린이집 정원 규모									
20인 이하	4.27 <sup>a</sup>	0.68	4.22	0.60	1.87 <sup>a</sup>	0.84	3.45 <sup>ab</sup>	0.30	( 93)
21~39인	4.05 <sup>a</sup>	0.83	4.16	0.67	2.37 <sup>b</sup>	0.99	3.53 <sup>b</sup>	0.40	( 61)
40~79인	3.90 <sup>a</sup>	0.93	4.07	0.79	2.21 <sup>ab</sup>	1.03	3.39 <sup>ab</sup>	0.38	( 90)
80인 이상	3.90 <sup>a</sup>	0.84	3.93	0.90	2.16 <sup>ab</sup>	0.90	3.33 <sup>a</sup>	0.41	( 44)
<i>F</i>	3.73 <sup>*</sup>		1.77		3.86 <sup>**</sup>		2.90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2) 반 형태 및 구성

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연령반은 단일 연령반이 79.6%, 혼합 연령반이 20.4%로 대부분 단일 연령반에 편성되어 있었다.

〈표 III-4-19〉 반 형태

단위: %(명)

구분	단일 연령반	혼합 연령반	계(수)
전체	79.6	20.4	100.0 (309)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한 반의 영아 수를 아동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는 평균 2.63명, 여아는 평균 2.46명으로 남아와 여아의 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한 반을 구성하고 있었다. 한



편 한 반 안에 영아와 교사 수로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산출한 결과 2.32대 1로 나타났다.

〈표 III-4-20〉 반 구성: 영아 수

단위: %(명), 명

구분	남아					여아						
	2명 미만	2명~4명 미만	4명~6명 미만	6명 이상	계(수)	평균	2명 미만	2명~4명 미만	4명~6명 미만	6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7.2	45.5	20.1	7.2	100.0(288)	2.63	33.6	43.9	16.9	5.6	100.0(288)	2.4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 III-4-21〉 교사 배치

단위: %(명)

구분	담임교사만 배치	담임교사+보조교사 배치	계(수)
전체	46.4	53.6	100.0 (309)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현재 반내 특수요구 및 취약계층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장애 영아가 없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명 있다는 비율은 0.9%로 소수이었다. 장애 영아 수는 평균 1명이었다.

발달지연 관련 서비스 및 지원 대상 영아도 대부분은 없지만 1명 있다는 비율이 1.2%로 앞서 살펴본 장애 영아보다 높았다. 발달지연 관련 서비스 및 지원 대상 영아 수는 반당 평균 1명으로 보고되었다.

〈표 III-4-22〉 현재 반 내 특수요구 및 취약계층 영유아 현황: 장애 및 발달지연 영아

단위: %(명), 명

구분	장애 영아				발달지연 관련 서비스/지원 대상 영아			
	0명	1명	계(수)	평균 (수)	0명	1명	계(수)	평균 (수)
전체	99.1	0.9	100.0 (288)	1.00 (3)	98.8	1.2	100.0 (288)	1.00 (4)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평균값은 해당 영아가 1명 이상인 경우만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문화가정 영아도 없다는 비율이 79.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만, 1명이 있다는 비율은 16.3%, 2명 2.5%, 3명 이상 1.6%이고, 다문화가정 아동 수는 반당 평균 1.43명이었다.

〈표 III-4-23〉 현재 반 내 특수요구 및 취약계층 영유아 현황: 다문화 가정의 영아

단위: %(명),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평균	(수)
전체	79.6	16.3	2.5	1.6	100.0 (291)	1.43	(58)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평균값은 해당 영아가 1명 이상인 경우만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영아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8.0%). 있는 경우 소수이지만 1명은 1.6%, 2명 이상 0.4%로 나타났으며, 아동 수는 평균 1.63명이었다.

〈표 III-4-24〉 현재 반 내 특수요구 및 취약계층 영유아 현황: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영아

단위: %(명), 명

구분	0명	1명	2명 이상	계(수)	평균	(수)
전체	98.0	1.6	0.4	100.0 (288)	1.63	(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평균값은 해당 영아가 1명 이상인 경우만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 3) 교사 특성

어린이집 환경 조사에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총 309명이 참여하였다. 현 기관 근무 경력은 3년 미만인 62.8%로 다수를 차지하고, 7년 이상 18.5%, 3년 이상 5년 미만과 5년 이상 7년 미만이 각각 9% 대를 나타내었다. 전체 교사 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3.0%, 10년 이상 15년 미만 29.1%, 5년 미만 20.7%, 15년 이상 20년 미만 9.4%, 20년 이상 7.8%로 5년 이상 15년 미만이 과반을 차지하였다. 교사 중 19.1%는 유치원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표 III-4-25〉 교사 경력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309)	전체	
현 기관 근무 경력		전체 교사 경력	
3년 미만	62.8(194)	5년 미만	20.7( 64)
3년 이상 5년 미만	9.7( 30)	5년 이상 10년 미만	33.0(102)
5년 이상 7년 미만	9.1( 28)	10년 이상 15년 미만	29.1( 90)
7년 이상	18.5( 57)	15년 이상 20년 미만	9.4( 29)
유치원 재직 경험		20년 이상	7.8( 24)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있음	19.1( 59)		
없음	80.9(25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가중치 적용되지 않음.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사가 최초 취득한 교사 자격은 2급 보육교사가 57.3%, 유치원 2급 정교사 26.2%, 1급 보육교사 18.4%, 3급 보육교사 13.3%, 나머지는 1% 내외로 소수이었다.

한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사 자격은 1급 보육교사가 77.3%로 다수를 차지하고, 어린이집 원장 40.5%, 유치원 2급 정교사 24.6%, 2급 보육교사 17.2%,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6.5%, 나머지는 5%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4-26〉 교사 자격(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3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치원 1급 정교사	유치원 원장	중등 교사	특수 교사 2급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 교사 2급 이상 (초·중등 과정)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계(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	0.3	17.2	77.3	40.5	24.6	4.2	0.6	1.3	0.3	0.3	16.5	(309)
처음 취득한 교사 자격	13.3	57.3	18.4	3.6	26.2	0.3	0.3	1.6	-	0.3	-	(309)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 III-4-27〉 교사 전공

단위: %(명)

구분	아동 (복지)학	유아 교육학	보육학	가정(관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기타	계(수)
전체	20.1	40.5	6.9	5.1	12.0	1.5	13.9	100.0 (274)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주중 근무시간은 평균 8.34시간이며, 어린이집 유형, 정원 규모, 교사의 경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 일수는 월 평균 4.31일이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6.45시간이었다.

〈표 III-4-28〉 교사 근무시간

단위: 시간, 일(명)

구분	주중 근무시간		(수)	주말 근무일 수		주말 근무시간		(수)
	일 평균	표준편차		월 평균	표준편차	일 평균	표준편차	
전체	8.34	0.74	(288)	4.31	2.16	6.45	2.21	(38)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소진 정도를 알아보았다. 소진을 알아보는 도구는 5점 척도,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교사의 소진 정도는 평균 1.66점이며, 현재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형 및 정원 규모, 최종학력, 연령 및 경력 등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위 항목별로 보면, 정서적 고갈이 평균 2.08점, 직업적 회의 1.37점, 직업환경적 불만족 평균 1.72점, 무능감 1.48점으로 정서적 고갈이 가장 높았다. 하위 항목 중 무능감만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30세 미만이 그 이상 연령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나머지 항목은 어린이집 유형 및 정원 규모, 최종학력, 연령 및 경력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II-4-29〉 교사 소진

단위: 점(명)

구분	정서적 고갈		직업적 회의		직업환경적 불만족		무능감		총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8	0.75	1.37	0.48	1.72	0.86	1.48	0.55	1.66	0.53	(28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13	0.76	1.42	0.52	1.83	0.92	1.52	0.62	1.73	0.56	( 93)
사회복지법인	2.13	0.69	1.59	0.42	2.04	0.86	1.43	0.36	1.80	0.47	( 12)
법인·단체등	2.17	1.14	1.00	0.00	1.00	0.00	1.13	0.31	1.33	0.36	( 4)
민간	1.95	0.68	1.29	0.38	1.62	0.76	1.47	0.53	1.58	0.49	( 81)
가정	2.11	0.77	1.35	0.51	1.66	0.88	1.46	0.50	1.64	0.53	( 90)
직장	2.34	0.87	1.59	0.57	1.83	0.89	1.73	0.62	1.87	0.64	( 7)
<i>F</i>	0.86		2.03		1.53		0.77		1.39		
어린이집 정원 규모											
20인 이하	2.12	0.76	1.36	0.50	1.65	0.87	1.47	0.51	1.65	0.52	( 93)
21~39인	2.20	0.77	1.37	0.51	1.81	0.94	1.57	0.66	1.74	0.29	( 61)
40~79인	1.97	0.72	1.33	0.44	1.60	0.76	1.45	0.55	1.59	0.51	( 90)
80인 이상	2.05	0.71	1.43	0.46	1.96	0.88	1.45	0.46	1.72	0.50	( 44)
<i>F</i>	1.26		0.43		2.15		0.63		1.20		
최종학력											
고졸이하	2.01	0.68	1.44	0.55	1.77	0.97	1.57	0.68	1.70	0.56	( 58)
전문대(기능대학)	2.09	0.76	1.36	0.44	1.71	0.87	1.45	0.49	1.65	0.52	(123)

구분	정서적 고갈		직업적 회의		직업환경적 불만족		무능감		총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학교	2.17	0.77	1.35	0.50	1.74	0.80	1.50	0.53	1.69	0.52	( 90)
대학원 이상	1.69	0.56	1.14	0.32	1.48	0.67	1.28	0.51	1.40	0.43	( 16)
<i>F</i>	2.09		1.74		0.46		1.41		1.50		
연령											
30세 미만	2.26	0.76	1.45	0.58	1.72	0.88	1.73 <sup>b</sup>	0.69	1.79	0.62	( 32)
30~40세 미만	2.15	0.79	1.43	0.47	1.76	1.01	1.36 <sup>a</sup>	0.47	1.68	0.56	( 40)
40~50세 미만	2.06	0.77	1.32	0.44	1.73	0.88	1.44 <sup>a</sup>	0.52	1.63	0.51	(133)
50세 이상	2.01	0.67	1.35	0.46	1.65	0.73	1.50 <sup>ab</sup>	0.52	1.63	0.48	( 81)
<i>F</i>	1.03		0.96		0.22		3.34 <sup>*</sup>		0.87		
경력											
5년 미만	2.07	0.73	1.36	0.49	1.72	0.89	1.62	0.64	1.69	0.58	( 59)
5~10년 미만	2.04	0.77	1.31	0.43	1.70	0.91	1.44	0.50	1.62	0.52	( 92)
10~15년 미만	2.16	0.77	1.47	0.51	1.85	0.84	1.51	0.54	1.75	0.52	( 85)
15~20년 미만	1.98	0.66	1.26	0.37	1.41	0.64	1.27	0.49	1.48	0.43	( 28)
20년 이상	2.06	0.72	1.34	0.55	1.63	0.83	1.47	0.53	1.63	0.54	( 23)
<i>F</i>	0.45		1.69		1.51		2.31		1.64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

5점 척도의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를 활용하여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았다.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 4.16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최종학력과 경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연령이 40세 이상일수록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어린이집 유형 및 정원 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4-30〉 교사 자기효능감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16	0.49	(28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13	0.50	( 93)
사회복지법인	4.03	0.30	( 12)
법인·단체등	4.25	0.46	( 4)
민간	4.21	0.49	( 81)
가정	4.17	0.50	( 90)
직장	4.08	0.51	( 7)
<i>F</i>	0.48		
어린이집 정원 규모			
20인 이하	4.16	0.50	( 93)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21~39인	4.20	0.50	( 61)
40~79인	4.12	0.50	( 90)
80인 이상	4.19	0.43	( 44)
<i>F</i>		0.38	
최종학력			
고졸이하	4.08 <sup>a</sup>	0.47	( 58)
전문대(기능대학)	4.13 <sup>a</sup>	0.51	(123)
대학교	4.19 <sup>a</sup>	0.46	( 90)
대학원 이상	4.58 <sup>b</sup>	0.29	( 16)
<i>F</i>		4.71 <sup>**</sup>	
연령			
30세 미만	3.87 <sup>a</sup>	0.55	( 32)
30~40세 미만	4.05 <sup>ab</sup>	0.46	( 40)
40~50세 미만	4.25 <sup>b</sup>	0.46	(133)
50세 이상	4.22 <sup>b</sup>	0.45	( 81)
<i>F</i>		6.66 <sup>***</sup>	
경력			
5년 미만	4.08 <sup>a</sup>	0.52	( 59)
5~10년 미만	4.14 <sup>a</sup>	0.43	( 92)
10~15년 미만	4.11 <sup>a</sup>	0.53	( 85)
15~20년 미만	4.34 <sup>a</sup>	0.41	( 28)
20년 이상	4.40 <sup>a</sup>	0.48	( 23)
<i>F</i>		3.11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보육교사로서의 직무 만족도를 직무, 근무환경, 인정, 보상 4개 차원으로 알아보았다. 직무만족도는 5점 척도로 평균 3.93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어린이집 소재 지역이 읍면지역일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02점, 근무환경 평균 3.81점, 인정 평균 4.33점, 보상 평균 3.54점으로 인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제 특성별로 보면, 4개 항목이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지역 규모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린이집이 중소도시에 소재하거나 보육교사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유의미하게 높았고, 인정에 대한 만족도는 어린이집이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 그리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높았다. 보상은 읍면지역인 경우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4-31〉 교사 직무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직무		근무환경		인정		보상		총점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02	0.68	3.81	0.81	4.33	0.58	3.54	0.96	3.93	0.64	(28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97	0.71	3.76	0.90	4.27	0.61	3.69	0.94	3.92	0.69	( 93)
사회복지법인	3.56	0.70	3.55	0.69	3.98	0.51	3.14	0.69	3.56	0.57	( 12)
법인·단체등	4.29	0.54	4.26	0.65	4.73	0.45	3.34	1.03	4.16	0.54	( 4)
민간	4.08	0.67	3.78	0.81	4.34	0.57	3.37	1.06	3.89	0.64	( 81)
가정	4.08	0.65	3.91	0.75	4.41	0.53	3.61	0.88	4.01	0.59	( 90)
직장	3.88	0.77	3.67	0.87	4.33	0.71	3.61	1.16	3.97	0.81	( 7)
<i>F</i>	1.70		0.90		1.83		1.50		1.24		
어린이집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3.85 <sup>a</sup>	0.73	3.66 <sup>a</sup>	0.84	4.20 <sup>a</sup>	0.64	3.35 <sup>a</sup>	0.99	3.76 <sup>a</sup>	0.66	(114)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14 <sup>b</sup>	0.62	3.90 <sup>a</sup>	0.81	3.40 <sup>ab</sup>	0.50	3.65 <sup>ab</sup>	0.95	4.02 <sup>ab</sup>	0.61	(138)
읍·면	4.10 <sup>ab</sup>	0.68	3.94 <sup>a</sup>	0.71	4.48 <sup>b</sup>	0.58	3.78 <sup>b</sup>	0.83	4.07 <sup>b</sup>	0.57	( 36)
<i>F</i>	5.94 <sup>**</sup>		3.30 <sup>*</sup>		5.18 <sup>**</sup>		4.42 <sup>*</sup>		6.33 <sup>**</sup>		
어린이집 정원 규모											
20인 이하	4.08	0.64	3.92	0.75	4.41	0.53	3.61	0.88	4.01	0.58	( 93)
21~39인	4.01	0.63	3.78	0.80	4.34	0.58	3.45	1.01	3.89	0.62	( 61)
40~79인	3.98	0.71	3.73	0.87	4.23	0.62	3.57	1.04	3.88	0.71	( 90)
80인 이상	3.99	0.78	3.78	0.86	4.36	0.57	3.49	0.91	3.91	0.64	( 44)
<i>F</i>	0.42		0.92		1.56		0.42		0.73		
최종학력											
고졸이하	4.05	0.66	3.83	0.74	4.27	0.52	3.54	0.98	3.93	0.57	( 58)
전문대(기능대학)	3.98	0.67	3.77	0.81	4.30	0.58	3.64	0.88	3.92	0.62	(123)
대학교	4.00	0.72	3.85	0.82	4.36	0.61	3.45	1.01	3.92	0.69	( 90)
대학원 이상	4.33	0.65	3.80	1.11	4.59	0.48	3.35	1.19	4.02	0.79	( 16)
<i>F</i>	1.27		0.21		1.49		0.86		0.11		
연령											
30세 미만	3.87 <sup>ab</sup>	0.69	3.66	0.93	4.23 <sup>ab</sup>	0.67	3.73	0.80	3.87	0.66	( 32)
30~40세 미만	3.70 <sup>a</sup>	0.78	3.68	0.89	4.10 <sup>a</sup>	0.66	3.40	1.08	3.72	0.73	( 40)
40~50세 미만	4.04 <sup>ab</sup>	0.65	3.87	0.76	4.36 <sup>ab</sup>	0.54	3.57	0.92	3.96	0.60	(133)
50세 이상	4.21 <sup>b</sup>	0.63	3.85	0.38	4.44 <sup>b</sup>	0.51	3.51	1.04	4.00	0.63	( 81)
<i>F</i>	5.81 <sup>***</sup>		1.05		3.60 <sup>*</sup>		0.80		1.98		
경력											
5년 미만	4.11	0.60	3.69	0.83	4.29	0.63	3.63	0.85	3.93	0.61	( 59)
5~10년 미만	3.94	0.68	3.79	0.85	4.28	0.51	3.49	0.96	3.88	0.64	( 92)
10~15년 미만	3.95	0.74	3.81	0.80	4.30	0.59	3.43	1.02	3.87	0.66	( 85)
15~20년 미만	4.17	0.58	3.85	0.77	4.57	0.49	3.81	1.02	4.10	0.59	( 28)
20년 이상	4.19	0.74	4.13	0.72	4.44	0.69	3.67	0.94	4.11	0.68	( 23)
<i>F</i>	1.70		0.90		1.83		1.50		1.24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4) 프로그램 및 환경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기관적용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기 전 부모와 영아가 어린이집 방문하여 어린이집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가 90.9%, ‘학기가 시작되기 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96.8%, ‘학기 초에는 영아가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한다’ 87.4%,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안내문을 보내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 92.2%로 학기 전 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가장 많았다.

[그림 III-4-4] 기관적용 프로그램 실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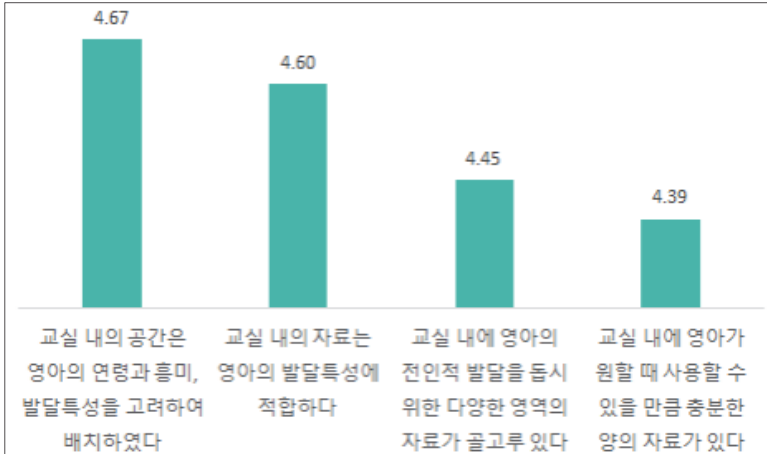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동이 배치되어 있는 보육실 환경에 대해 5점 척도, 4개 문항을 통해 알아보았다. ‘교실 내의 공간은 영아의 연령과 흥미,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었’다가 5점 척도로 평균 4.67점, ‘교실 내의 자료는 영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다’ 평균 4.60점, ‘교실 내에 영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가 골고루 있다’ 평균 4.45점, ‘교실 내에 영아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자료가 있다’ 평균 4.39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5] 보육실 환경

단위: 점



주: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어린이집 내에서의 영유아의 디지털미디어 사용 빈도를 알아보았다. 사용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0.0%로 1/5 정도를 차지하였다.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이거나 2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사용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디지털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용 빈도 및 이용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당 횟수는 평균 1.99회이고, 월 평균 2.11회이며 회당 11.76분을 이용하였다. 디지털미디어 주당 이용 횟수는 보육교사 경력이 낮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았다. 경력이 적은 교사일수록 디지털미디어 사용이 용이하여 보육과정 운영 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월 평균 이용 횟수 및 이용시간은 어린이집 유형 및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4-32> 영유아 디지털미디어 사용 빈도

단위: %(명), 회/분

구분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는 경우					
	사용함	사용하지 않음	계(수)	주당 횟수		월 횟수		이용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0	80.0	100.0 (288)	1.99	1.21	2.11	1.10	11.76	7.8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4.9	85.1	100.0 ( 93)	1.94	1.20	2.11	0.92	9.57	6.35
사회복지법인	6.3	93.7	100.0 ( 12)	-	-	3.00	0.00	10.00	0.00
법인·단체등	37.7	63.3	100.0 ( 4)	1.00	0.00	-	-	5.00	0.00

구분	사용함	사용하지 않음	계(수)	사용하는 경우					
				주당 횟수		월 횟수		이용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민간	23.7	76.3	100.0 ( 91)	2.24	1.17	2.87	1.37	10.85	6.23
가정	23.9	76.1	100.0 ( 90)	1.86	1.33	1.71	0.83	14.56	9.60
직장	10.6	89.6	100.0 ( 7)	-	-	1.00	0.00	10.00	0.00
$\chi^2(df)/F$	n.a.			0.57		1.29		1.05	
경력									
5년 미만	15.1	84.9	100.0( 59)	3.43 <sup>b</sup>	1.49	1.00	0.00	12.05	10.66
5~10년 미만	14.7	85.3	100.0( 92)	1.70 <sup>ab</sup>	0.92	2.63	0.55	11.25	5.53
10~15년 미만	22.8	62.2	100.0( 85)	1.77 <sup>ab</sup>	0.96	2.28	1.41	12.51	8.11
15~20년 미만	21.0	79.0	100.0( 28)	1.58 <sup>ab</sup>	0.91	1.63	0.67	12.05	10.68
20년 이상	27.1	72.9	100.0( 24)	1.39 <sup>a</sup>	0.93	2.02	0.94	9.57	4.67
$\chi^2(df)/F$	5.71(4)			3.99 <sup>**</sup>		0.86		0.1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1$ .

### 5) 부모와의 소통

보육교사가 부모와 아이에 관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소통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소통 횟수는 주당 평균 4.76회로 최소 하루 1회 정도는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단위로 응답할 수 없는 경우 월 단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 평균 소통 횟수는 평균 14.9회이었다.

〈표 III-4-33〉 부모와 아이에 관한 내용으로 소통하는 정도

단위: 회(명)

구분	주당 횟수			월당 횟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76	0.78	(266)	14.9	7.46	(22)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동의 부모가 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해 가지는 관심 정도를 알아보았다. 관심을 가지는 편 35.8%, 매우 관심이 큼 60.2%로 96.0%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심 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 4.55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관심 정도는 자녀의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월령이나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4-34〉 패널아동 부모가 기관에서의 아이 생활에 가지는 관심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관심 없음	별로 관심 없는 편임	보통	관심을 가지는 편임	매우 관심이 큼	계(수)	대표값 - 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	-	1.3	2.7	35.8	60.2	100.0(288)	4.55	0.62
아동 월령								
16~17개월	-	2.8	27.7	69.5	-	100.0( 58)	4.64	0.64
18~19개월	-	1.5	2.0	36.9	59.6	100.0(113)	4.55	0.62
20~21개월	-	-	5.7	40.4	53.8	100.0( 53)	4.48	0.61
22~23개월	-	-	5.0	37.7	57.3	100.0( 44)	4.52	0.60
$\chi^2(df)/F$			n.a.					0.65
출생순위								
첫째	-	0.7	1.9	36.0	61.5	100.0(183)	4.58 <sup>b</sup>	0.57
둘째	-	0.8	2.9	35.5	60.7	100.0( 91)	4.56 <sup>b</sup>	0.60
셋째 이상	-	11.5	12.5	36.1	39.9	100.0( 14)	4.04 <sup>a</sup>	1.03
$\chi^2(df)/F$			n.a.					5.17 <sup>**</sup>
맞벌이 여부								
맞벌이		0.5	3.2	36.1	60.2	100.0(153)	4.56	0.58
맞벌이 아님		2.2	1.3	39.1	57.5	100.0( 75)	4.52	0.64
$\chi^2(df)/t$			n.a.					0.4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관심 없음 ~ 5. 매우 관심이 큼).  
 3)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35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4)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1$ .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부모의 어린이집 행사 참여도를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행사의 실시 및 참여 횟수는 학기 초부터 조사시점(연 하반기)까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참여 행사 실시 횟수는 평균 4.97회이며, 부모의 행사 참여 횟수는 평균 2.50회로 부모참여 행사 대비 참석 비율은 평균 61.4%로 나타났다. 부모참여 행사 실시 대비 참석 비율은 어린이집 유형 및 아동 월령,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II-4-35〉 부모의 어린이집 행사 참여도: 교사 응답

단위: 회, %(명)

구분	부모참여 행사 실시 횟수		부모참여 행사 참석 횟수		부모참여 행사 실시 대비 참석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97	5.12	2.50	2.29	61.4	(28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6.73 <sup>a</sup>	5.59	3.04 <sup>a</sup>	2.33	61.3	( 93)

구분	부모참여 행사 실시 횟수		부모참여 행사 참석 횟수		부모참여 행사 실시 대비 참석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복지법인	2.94 <sup>a</sup>	4.46	1.18 <sup>a</sup>	1.07	49.5	( 12)
법인·단체등	2.84 <sup>a</sup>	2.21	1.81 <sup>a</sup>	1.11	60.1	( 4)
민간	3.90 <sup>a</sup>	5.50	1.81 <sup>a</sup>	1.82	60.1	( 81)
가정	4.33 <sup>a</sup>	3.86	2.68 <sup>a</sup>	2.59	63.5	( 90)
직장	6.96 <sup>a</sup>	4.74	3.70 <sup>a</sup>	2.10	68.8	( 7)
<i>F/x<sup>2</sup>(df)</i>	4.12 <sup>***</sup>		4.09 <sup>***</sup>		0.34	
아동 월령						
16~17개월	4.54	3.68	2.27	2.08	57.8	( 58)
18~19개월	4.76	5.25	2.33	2.33	59.3	(113)
20~21개월	5.88	6.55	2.85	2.15	66.7	( 53)
22~23개월	5.08	4.3.7	2.91	2.56	65.9	( 44)
<i>F/x<sup>2</sup>(df)</i>	0.77		1.33		0.82	
출생순위						
첫째	4.79	5.13	2.44	2.23	61.3	(183)
둘째	5.33	5.10	2.79	2.50	64.0	( 91)
셋째 이상	5.06	5.41	1.47	1.02	45.2	( 14)
<i>F/x<sup>2</sup>(df)</i>	0.34		2.22		1.41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4	4.58	2.56	2.34	59.0	(153)
맞벌이 아님	3.99	3.29	2.46	2.23	64.4	( 75)
<i>t/x<sup>2</sup>(df)</i>	1.93		0.32		-0.9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행사 실시 횟수 및 참여 횟수는 학기초부터 조사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함.  
 3)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35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

### 다. 기관에서의 아동 생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는지 알아본 결과 99.5%가 낮잠을 자고 있고, 0.5%는 낮잠을 자지 않았다. 낮잠을 자는 경우 낮잠 시간은 평균 1.89시간으로 2시간 가까이 되었다.

〈표 III-4-36〉 패널아동 낮잠 여부 및 낮잠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낮잠을 잠	낮잠을 안 잠	불규칙적임	낮잠시간이 없음	계(수)	(낮잠 자는 경우)	
						평균	표준편차
전체	99.5	0.5	-	-	100.0 (288)	1.89	0.3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동의 기관적응 정도를 집단생활 적응, 부정적 행동, 긍정적 정서, 규칙적 기본생활, 활동성, 흥미 및 또래상호 6개 차원으로 알아보았다. 기관적응 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 4.20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기관적응 정도는 아동 월령 및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 항목별로 보면, 집단생활 적응은 평균 4.08점, 부정적 행동 평균 3.92점, 긍정적 정서 평균 4.52점, 규칙적 기본생활 평균 4.28점, 활동성 평균 4.35점, 흥미 및 또래상호작용 평균 4.08점으로 긍정적 정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칙적 기본생활은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적응 수준이 높았다. 나머지 항목은 아동 월령 및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III-4-37〉 아동 기관적응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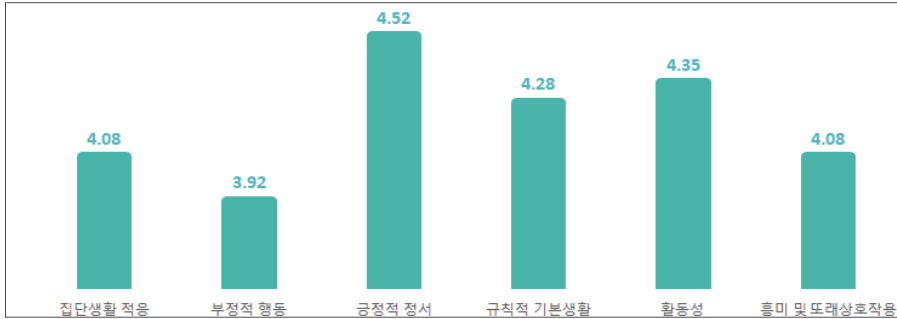
구분	집단생활 적응		부정적 행동		긍정적 정서		규칙적 기본생활		활동성		흥미 및 또래상호작용		총점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08	0.64	3.92	0.75	4.52	0.62	4.28	0.62	4.35	0.56	4.08	0.62	4.20	.044	(288)
아동 월령															
16~17개월	4.18	0.64	4.01	0.77	4.62	0.57	4.35	0.56	4.29	0.52	4.01	0.59	4.24	0.43	( 58)
18~19개월	4.06	0.65	3.93	0.73	4.57	0.56	4.32	0.62	4.39	0.59	4.15	0.64	4.24	0.43	(133)
20~21개월	4.01	0.67	3.80	0.79	4.45	0.71	4.23	0.67	4.35	0.46	4.09	0.59	4.16	0.46	( 53)
22~23개월	4.05	0.60	3.88	0.76	4.33	0.71	4.11	0.63	4.30	0.65	3.97	0.64	4.11	0.45	( 44)
<i>F</i>		0.70		0.78		2.40		1.72		0.63		1.24		1.37	
아동 성별															
남	4.01	0.65	3.91	0.74	4.50	0.61	4.33	0.58	4.31	0.57	4.06	0.58	4.19	0.42	(153)
여	4.15	0.63	3.92	0.77	4.55	0.63	4.22	0.67	4.40	0.55	4.11	0.67	4.23	0.46	(135)
<i>t</i>		-1.83		-0.20		-0.64		1.43		-1.34		-0.63		-0.75	
출생순위															
첫째	4.07	0.61	3.88	0.74	4.49	0.65	4.21 <sup>a</sup>	0.64	4.37	0.57	4.05	0.64	4.18	0.44	(183)
둘째	4.08	0.69	3.97	0.81	4.58	0.58	4.41 <sup>a</sup>	0.59	4.32	0.56	4.17	0.60	4.25	0.45	( 91)
셋째 이상	4.16	0.70	4.01	0.60	4.51	0.56	4.36 <sup>a</sup>	0.43	4.35	0.58	4.05	0.46	4.24	0.32	( 14)
<i>F</i>		0.13		0.51		0.60		3.37 <sup>*</sup>		0.18		1.16		1.0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그림 III-4-6] 아동 기관적응

단위: 점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담임교사 조사 자료 및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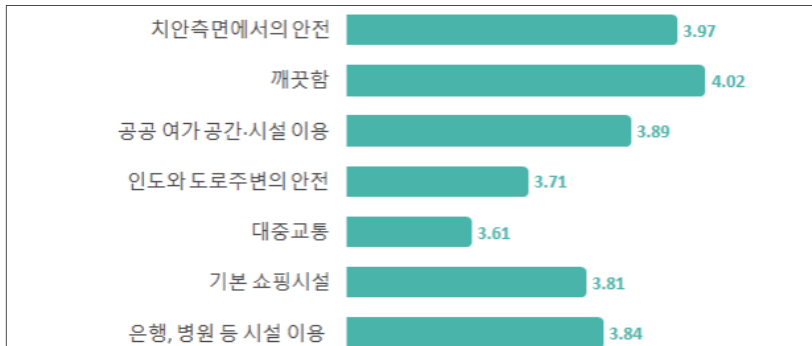
## 5. 지역사회 및 정책 환경

### 가. 지역사회 환경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치안측면에서의 안전, 깨끗함(청결), 공공여가 공간 및 시설 이용(인프라), 인도와 도로주변의 안전, 대중교통, 기본쇼핑시설, 은행, 병원 등 시설 이용 등 7개 차원에서 알아보았다. 치안측면에서의 안전에 대해 평균 3.97점, 깨끗함은 평균 4.02점, 공공 여가 공간 및 시설 이용 평균 3.89점, 인도와 도로주변의 안전 평균 3.71점, 대중교통 평균 3.61점, 기본 쇼핑시설 평균 3.81점, 은행, 병원 등 시설 이용 3.84점 등으로 깨끗함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나타났다.

[그림 III-5-1]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1) 치안 측면에서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중소 도시에 거주할수록 유의미하게 높았다. 2) 깨끗함은 가구소득이 301만원 이상이거나 도시에 거주할수록 유의미하게 높았다. 3) 공공여가 공간·시설 이용도 가구소득이 501만원 이상이거나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높았다. 4) 인도와 도로주변의 안전은 가구소득이 501~700만원 구간이거나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인식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5-1〉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1)

단위: 점(명)

구분	치안측면에서의 안전		깨끗함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인도와 도로주변의 안전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97	0.71	4.02	0.73	3.89	0.90	3.71	0.87	(255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84 <sup>a</sup>	0.79	3.82 <sup>a</sup>	0.77	3.73 <sup>a</sup>	0.98	3.57 <sup>a</sup>	0.93	( 423)
301~500만원	3.96 <sup>ab</sup>	0.70	4.04 <sup>b</sup>	0.72	3.89 <sup>ab</sup>	0.88	3.72 <sup>ab</sup>	0.84	(1296)
501~700만원	4.04 <sup>b</sup>	0.66	4.06 <sup>b</sup>	0.69	3.99 <sup>b</sup>	0.84	3.80 <sup>b</sup>	0.85	( 534)
701만원 이상	4.04 <sup>b</sup>	0.73	4.14 <sup>b</sup>	0.71	3.97 <sup>b</sup>	0.93	3.72 <sup>ab</sup>	0.97	( 301)
<i>F</i>	7.31 <sup>***</sup>		14.70 <sup>***</sup>		7.35 <sup>***</sup>		5.68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3.96 <sup>b</sup>	0.73	4.01 <sup>b</sup>	0.74	3.90 <sup>b</sup>	0.89	3.68 <sup>b</sup>	0.89	( 91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01 <sup>b</sup>	0.68	4.06 <sup>b</sup>	0.70	3.97 <sup>b</sup>	0.87	3.78 <sup>b</sup>	0.83	(1286)
읍·면	3.86 <sup>a</sup>	0.76	3.90 <sup>a</sup>	0.75	3.58 <sup>a</sup>	0.98	3.55 <sup>a</sup>	0.94	( 358)
<i>F</i>	6.85 <sup>**</sup>		7.65 <sup>***</sup>		27.21 <sup>***</sup>		11.25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1$ , \*\*\*  $p < .001$ .

대중교통은 도시지역일수록 인식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본 쇼핑시설과 은행, 병원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5-2〉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2)

단위: 점(명)

구분	대중교통		기본 소평시설		은행, 병원 등 시설 이용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61	0.98	3.81	0.87	3.84	0.86	(255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47	1.04	3.69 <sup>a</sup>	0.93	3.68 <sup>a</sup>	0.90	( 423)
301~500만원	3.61	0.93	3.79 <sup>ab</sup>	0.83	3.80 <sup>ab</sup>	0.85	(1296)
501~700만원	3.64	1.00	3.87 <sup>bc</sup>	0.86	3.93 <sup>bc</sup>	0.82	( 534)
701만원 이상	3.74	1.00	3.95 <sup>c</sup>	0.92	4.02 <sup>c</sup>	0.90	( 301)
<i>F</i>	1.73		6.73 <sup>***</sup>		12.06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3.83 <sup>c</sup>	0.90	3.90 <sup>b</sup>	0.84	3.96 <sup>b</sup>	0.82	( 91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3.59 <sup>b</sup>	0.95	3.86 <sup>b</sup>	0.84	3.86 <sup>b</sup>	0.82	(1286)
읍·면	3.13 <sup>a</sup>	1.06	3.40 <sup>a</sup>	0.95	3.42 <sup>a</sup>	0.99	( 358)
<i>F</i>	69.01 <sup>***</sup>		47.90 <sup>***</sup>		54.87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01$ .

지역사회의 양육환경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알아보았다. 대체로 그러함이 65.8%, 매우 그러함 9.8%로 만족도가 평균 3.80점으로 높았다. 지역사회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5-3〉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8	7.5	25.5	58.6	7.6	100.0( 423)	3.65 <sup>a</sup>	0.76
301~500만원	0.6	3.5	20.4	67.4	8.1	100.0(1296)	3.79 <sup>b</sup>	0.66
501~700만원	0.6	3.4	14.3	69.5	12.2	100.0( 534)	3.89 <sup>b</sup>	0.67
701만원 이상	0.6	3.0	17.7	62.5	16.1	100.0( 301)	3.90 <sup>b</sup>	0.71
$\chi^2(d\text{f})/F$	58.83(12) <sup>***</sup>						12.77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0.1	5.3	18.4	64.0	12.2	100.0( 911)	3.83 <sup>b</sup>	0.70
중소도시(비광역시/동)	0.4	2.6	18.7	68.3	10.0	100.0(1286)	3.85 <sup>b</sup>	0.64
읍·면	2.6	6.4	26.2	61.5	3.2	100.0( 358)	3.56 <sup>a</sup>	0.77
$\chi^2(d\text{f})/F$	71.68(8) <sup>***</sup>						25.51 <sup>***</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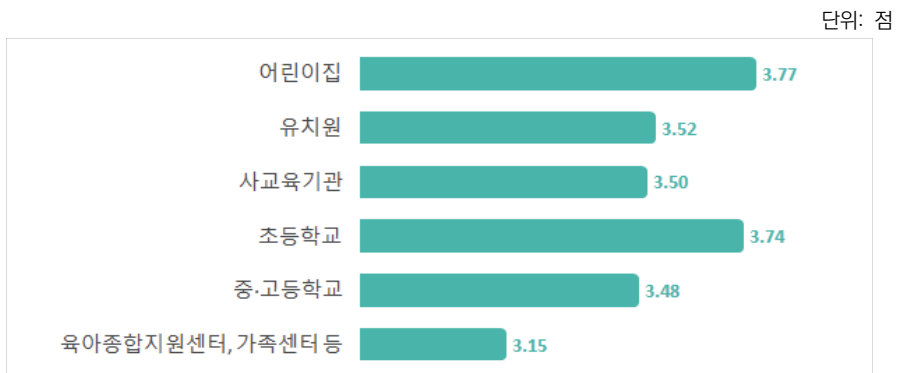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01$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의 아동 관련 기관/시설의 충분성을 5점 척도로 알아보았다. 어린이집이 평균 3.77점, 유치원 3.52점, 사교육기관 평균 3.50점, 초등학교 평균 3.74점, 중·고등학교 평균 3.48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평균 3.15점으로 어린이집의 충분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그림 Ⅲ-5-2] 아동 관련 기관/시설 충분성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기관/시설별로 보면, 어린이집의 충분성은 도시지역인 경우가 읍면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유치원의 충분성은 가구소득이 501~700만원인 경우이거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높았다. 사교육기관의 충분성은 가구소득이 301~500만원이거나 도시지역인 경우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Ⅲ-5-4> 아동 관련 기관/시설 충분성(1)

단위: 점(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기관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77	0.93	(2541)	3.52	0.99	(2416)	3.50	1.00 (237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74	0.93	( 419)	3.39 <sup>a</sup>	0.99	( 396)	3.39 <sup>a</sup>	1.04 ( 389)
301~500만원	3.79	0.90	(1291)	3.55 <sup>a</sup>	0.98	(1232)	3.55 <sup>a</sup>	0.99 (1207)
501~700만원	3.80	0.94	( 530)	3.57 <sup>a</sup>	0.98	( 503)	3.54 <sup>a</sup>	1.00 ( 497)
701만원 이상	3.67	1.02	( 301)	3.46 <sup>a</sup>	1.00	( 285)	3.39 <sup>a</sup>	1.01 ( 277)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기관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i>F</i>	1.75			3.31 <sup>*</sup>			3.80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3.77 <sup>b</sup>	0.93	( 904)	3.53 <sup>b</sup>	0.97	( 855)	3.53 <sup>b</sup>	1.02 ( 838)
중소도시(비광역시/동)	3.82 <sup>b</sup>	0.91	(1283)	3.57 <sup>b</sup>	0.98	(1212)	3.58 <sup>b</sup>	0.95 (1192)
읍면	3.56 <sup>a</sup>	0.99	( 355)	3.31 <sup>a</sup>	1.02	( 348)	3.17 <sup>a</sup>	1.10 ( 340)
<i>F</i>	11.55 <sup>***</sup>			10.03 <sup>***</sup>			22.57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름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함.  
 3)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sup>\*</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등의 충분성은 도시지역인 경우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5-5〉 아동 관련 기관/시설 충분성(2)

단위: 점(명)

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등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74	0.86	(2429)	3.48	0.95	(2375)	3.15	1.01	(221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71	0.80	( 404)	3.42	0.93	( 397)	3.09	1.01	( 371)
301~500만원	3.75	0.85	(1232)	3.50	0.93	(1209)	3.16	0.97	(1121)
501~700만원	3.78	0.89	( 508)	3.47	0.98	( 493)	3.19	1.04	( 466)
701만원 이상	3.64	0.93	( 284)	3.45	1.01	( 277)	3.13	1.07	( 260)
<i>F</i>	1.88			0.83			0.75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3.73 <sup>b</sup>	0.84	( 851)	3.52 <sup>b</sup>	0.94	( 832)	3.21 <sup>b</sup>	1.02	( 775)
중소도시(비광역시/동)	3.81 <sup>b</sup>	0.85	(1232)	3.53 <sup>b</sup>	0.93	(1202)	3.19 <sup>b</sup>	0.97	(1120)
읍면	3.51 <sup>a</sup>	0.91	( 346)	3.16 <sup>a</sup>	1.03	( 341)	2.85 <sup>a</sup>	1.04	( 324)
<i>F</i>	15.77 <sup>***</sup>			22.63 <sup>***</sup>			17.46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름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함.  
 3)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sup>\*\*\*</sup>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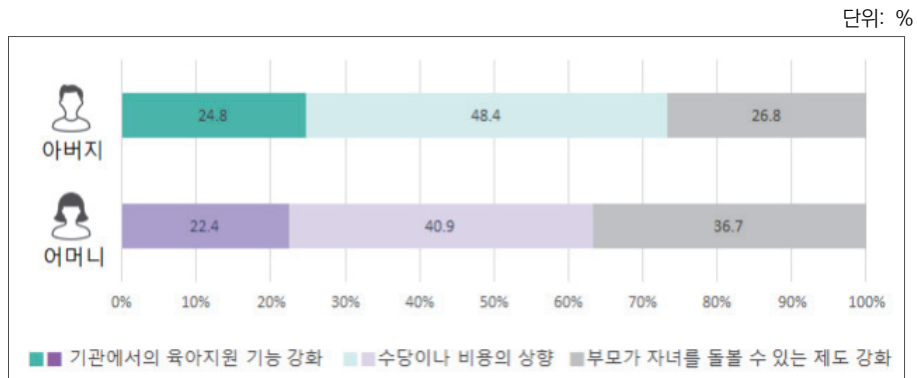
## 나. 정책 환경

다음은 각종 육아지원정책에 대하여 패널아동 주양육자 및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현금, 현물/바우처, 시간지원 정책에 대하여 이용 실태 및 관련 의견을 질문하였다.

### 1)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육아지원정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경우 거의 절반인 48.4%가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을, 26.8%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 24.8%는 '기관에서의 육아지원 기능 강화'를 가장 원하는 육아지원정책으로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40.9%는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 36.7%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 22.4%는 '기관에서의 육아지원 기능 강화'를 1순위로 응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는 육아지원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를 동일한 순서(수당이나 비용의 상향-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기관에서의 육아지원 기능 강화)대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3]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패널아동의 출생순위가 후순위일수록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을 원한다는 답변이 각각 많아졌고, 어머니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관에서의 육아지원 기능 강화’를 원한다는 어머니의 답변이 많아졌다. 또한 어머니가 학업 중인 경우는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을, 취업 중인 경우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를 원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한편 어머니와 아버지 조사 모두에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5-6〉 육아지원정책 방향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기관에서의 수당이나 육아지원 기능 강화	비용의 상향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	계(수)	기관에서의 수당이나 육아지원 기능 강화	비용의 상향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	계(수)
전체	24.8	48.4	26.8	100.0(1411)	22.4	40.9	36.7	100.0(2036)
출생순위								
첫째	25.5	46.9	27.6	100.0( 919)	21.5	39.2	39.3	100.0(1296)
둘째	25.5	48.8	25.7	100.0( 404)	24.7	41.3	34.0	100.0( 598)
셋째 이상	14.2	62.8	23.0	100.0( 88)	21.2	54.6	24.2	100.0( 142)
$\chi^2(df)$	9.81(4)*				19.08(4)**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60.8	29.7	9.5	100.0( 8)	13.3	65.1	21.5	100.0( 29)
25-30세 미만	15.0	60.3	24.7	100.0( 65)	19.5	52.3	28.1	100.0( 203)
30-35세 미만	23.7	49.4	26.9	100.0( 371)	20.4	41.7	37.9	100.0( 832)
35-40세 미만	24.4	45.7	29.8	100.0( 611)	24.5	34.9	40.6	100.0( 741)
40세 이상	28.1	49.5	22.3	100.0( 350)	26.5	44.1	29.4	100.0( 230)
$\chi^2(df)$	n.a.				36.77(8)***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24.9	48.4	26.6	100.0(1367)	21.4	32.9	45.7	100.0(1036)
학업 중	0.0	39.4	60.6	100.0( 2)	3.6	57.9	38.5	100.0( 21)
미취업/미취학	21.8	48.7	29.5	100.0( 42)	23.9	49.0	27.1	100.0( 979)
$\chi^2(df)$	n.a.				85.55(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7.7	59.2	23.1	100.0( 271)	21.6	51.5	26.9	100.0( 357)
301-500만원	25.1	51.4	23.4	100.0( 728)	22.7	41.6	35.7	100.0(1040)
501-700만원	27.3	36.5	36.2	100.0( 261)	21.1	34.5	44.4	100.0( 409)
701만원 이상	31.7	35.1	33.2	100.0( 151)	24.8	32.8	42.4	100.0( 231)
$\chi^2(df)$	45.55(6)***				36.35(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5$ , \*\*  $p < .01$ , \*\*\*  $p < .001$ .

## 2) 육아지원제도(현금)의 이용 및 인식

현금과 관련된 육아지원정책을 나열한 후 아동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

한 ‘이용 여부’와 이용 시 ‘만족도’에 대해 질문하였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해당 정책의 ‘인지 여부’ 및 ‘중요도’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우선 주양육자에게 질문한 결과, 아동수당의 수급 경험 비율은 96.9%로 육아지원제도 중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할인받았다는 비율이 64.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0~1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가정양육 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인 ‘부모급여’ 제도의 수급 비율은 43.5%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전체 중 5.9%가 혜택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이용 시 만족도의 경우 모든 육아지원제도가 3.5~3.7점 사이로 분포되었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을 대상으로 현금 관련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부와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장려세제를 제외한 모든 제도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지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인지비율이 90% 이상인 정책은 ‘아동수당’ 뿐이었다. 정책의 중요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출산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해당 정책들의 경우 중요도가 4.5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표 III-5-7〉 육아지원제도 이용/인지 여부, 만족도, 중요도: 현금

단위: %, 점, (명)

구분	주양육자			아버지			어머니		
	이용 비율	이용 시 만족도	(수)	인지 여부	중요도	(수)	인지 여부	중요도	(수)
1) 아동수당	96.9	3.51	(2476)	94.3	4.66	(1411)	99.2	4.72	(2036)
2) 부모급여	43.5	3.68	(1112)	81.3	4.59	(1411)	91.7	4.67	(2036)
3) 양육수당	-	-	-	86.7	4.63	(1411)	95.0	4.68	(2036)
4) 자녀장려세제	5.9	3.66	( 150)	35.8	4.31	(1411)	33.6	4.33	(2036)
5) 공공요금할인	64.6	3.54	(1649)	75.8	4.38	(1411)	83.0	4.52	(2036)
6) 출산급여	-	-	-	74.4	4.56	(1411)	85.1	4.66	(2036)
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	-	61.0	4.51	(1411)	64.0	4.56	(203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이용 비율은 주양육자 조사 응답자 2,555명 기준임.

3)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주양육자 대상으로 조사한 현금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만족도는 다음 〈표 III-5-8〉과 같다. 우선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도는 ‘부모급여’였으며 해당 제도의 만족도 점수는 3.68점이었다. 그다음으로 자녀장려세제 3.66점, 공공요금 할인 3.54

점, 아동수당 3.51점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인 경우 ‘공공요금 할인’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이상인 집단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5-8〉 육아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현금

단위: 점(명)

구분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자녀장려세제		공공요금 할인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51	1.02 (2476)	3.68	0.99 (1112)	3.66	0.85 (150)	3.54	0.99 (1649)
출생순위								
첫째	3.50	1.01 (1539)	3.66	0.98 (746)	3.70	0.77 (72)	3.53	0.99 (993)
둘째	3.51	1.05 (761)	3.72	1.04 (291)	3.62	0.95 (61)	3.58	0.97 (515)
셋째 이상	3.55	1.00 (175)	3.67	0.92 (75)	3.68	0.88 (16)	3.46	1.08 (141)
<i>F</i>	0.31		0.48		0.15		0.8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48	1.10 (669)	3.72	1.06 (327)	3.63	0.96 (32)	3.58	1.02 (514)
맞벌이 아님	3.41	1.01 (658)	3.58	0.97 (377)	3.68	0.74 (58)	3.44	1.01 (473)
<i>t</i>	1.19		1.75		-0.31		2.2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37 <sup>a</sup>	1.05 (410)	3.53	1.04 (209)	3.59	0.93 (69)	3.44	0.98 (298)
301~500만원	3.57 <sup>b</sup>	0.97 (1253)	3.72	0.93 (572)	3.73	0.79 (78)	3.60	0.97 (814)
501~700만원	3.51 <sup>ab</sup>	1.04 (513)	3.63	1.05 (205)	4.00	0.00 (2)	3.50	0.98 (325)
701만원 이상	3.43 <sup>ab</sup>	1.12 (300)	3.78	1.07 (127)	-	-	3.53	1.10 (212)
<i>F</i>	4.37***		2.50		0.62		1.95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3.56	1.04 (879)	3.78 <sup>a</sup>	0.99 (442)	3.63	0.78 (49)	3.57	1.01 (542)
중소도시(비광역시/동)	3.47	1.02 (1257)	3.60 <sup>a</sup>	1.01 (527)	3.64	0.94 (67)	3.53	0.98 (877)
읍·면	3.51	0.97 (339)	3.63 <sup>a</sup>	0.93 (143)	3.76	0.77 (34)	3.54	0.98 (230)
<i>F</i>	2.02		4.24*		0.27		0.28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음 ~ 5. 매우 만족함).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현금 관련 육아지원제도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제도는 ‘아동수당’으로 아버지 4.66점, 어머니 4.72점으로 평가되었다. 아동수당은 701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부모보다 소득이 그 이하인 경우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부모급여의 경우 아버지는 4.59점, 어머니는 4.67점으로 그 중요도를 평가하였는데,

701만원 이상으로 가구소득을 보고한 경우보다 그 이하인 경우의 어머니가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5-9〉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금(1)

단위: 점(명)

구분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66	0.62	(1411)	4.72	0.56	(2036)	4.59	0.69	(1411)	4.67	0.62	(2036)
출생순위												
첫째	4.65	0.62	( 929)	4.72	0.55	(1308)	4.61	0.67	( 929)	4.69	0.60	(1308)
둘째	4.67	0.62	( 394)	4.71	0.55	( 587)	4.57	0.73	( 394)	4.65	0.65	( 587)
셋째 이상	4.67	0.64	( 88)	4.69	0.60	( 142)	4.55	0.73	( 88)	4.58	0.70	( 142)
<i>F</i>		0.29			0.26			0.48			2.63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4	0.65	( 691)	4.72	0.55	( 691)	4.58	0.74	( 691)	4.69	0.61	( 691)
맞벌이 아님	4.67	0.60	( 684)	4.72	0.54	( 684)	4.60	0.65	( 684)	4.68	0.59	( 684)
<i>t</i>		-0.91			0.15			-0.71			0.3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76 <sup>b</sup>	0.52	( 271)	4.76 <sup>b</sup>	0.55	( 357)	4.68	0.58	( 271)	4.73 <sup>b</sup>	0.55	( 357)
301~500만원	4.65 <sup>ab</sup>	0.61	( 728)	4.74 <sup>b</sup>	0.53	(1040)	4.57	0.71	( 728)	4.69 <sup>ab</sup>	0.60	(1040)
501~700만원	4.65 <sup>ab</sup>	0.60	( 261)	4.69 <sup>ab</sup>	0.56	( 409)	4.59	0.69	( 261)	4.63 <sup>ab</sup>	0.68	( 409)
701만원 이상	4.51 <sup>a</sup>	0.81	( 151)	4.60 <sup>a</sup>	0.68	( 231)	4.55	0.75	( 151)	4.58 <sup>a</sup>	0.73	( 231)
<i>F</i>		5.42 <sup>**</sup>			4.88 <sup>**</sup>			2.05			3.60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64	0.64	( 538)	4.71	0.56	( 731)	4.56	0.73	( 538)	4.64	0.64	(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66	0.63	( 667)	4.72	0.56	( 998)	4.61	0.66	( 667)	4.69	0.62	( 998)
읍·면	4.69	0.53	( 206)	4.74	0.55	( 307)	4.62	0.66	( 206)	4.70	0.60	( 307)
<i>F</i>		0.53			0.30			1.10			1.58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35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3) 모두 5점 척도임(1.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 5. 매우 중요함).

\*  $p < .05$ , \*\*  $p < .01$ .

양육수당의 중요도는 아버지 4.63점, 어머니 4.68점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가구소득이 701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그 이하인 경우에서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자녀장려세제의 중요도는 아버지 4.31점, 어머니 4.33점으로 평가되었고, 패널아동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5-10〉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금(2)

단위: 점(명)

구분	양육수당						자녀장려세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63	0.64	(1411)	4.68	0.61	(2036)	4.31	0.87	(1411)	4.33	0.84	(2036)
출생순위												
첫째	4.62	0.64	( 929)	4.69	0.61	(1308)	4.28	0.88	( 929)	4.33 <sup>a</sup>	0.82	(1308)
둘째	4.63	0.65	( 394)	4.68	0.60	( 587)	4.36	0.87	( 394)	4.32 <sup>a</sup>	0.85	( 587)
셋째 이상	4.68	0.64	( 88)	4.68	0.68	( 142)	4.39	0.79	( 88)	4.38 <sup>a</sup>	0.89	( 142)
<i>F</i>		0.28			0.06			1.62			3.26 <sup>*</sup>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1	0.64	( 691)	4.69	0.61	( 691)	4.28	0.92	( 691)	4.34	0.85	( 691)
맞벌이 아님	4.64	0.65	( 684)	4.67	0.60	( 684)	4.34	0.83	( 684)	4.32	0.79	( 684)
<i>t</i>		-0.66			0.47			-1.22			0.63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75 <sup>b</sup>	0.55	( 271)	4.75 <sup>b</sup>	0.54	( 357)	4.35	0.85	( 271)	4.37	0.78	( 357)
301~500만원	4.60 <sup>ab</sup>	0.66	( 728)	4.69 <sup>ab</sup>	0.60	(1040)	4.33	0.85	( 728)	4.33	0.85	(1040)
501~700만원	4.64 <sup>ab</sup>	0.63	( 261)	4.66 <sup>ab</sup>	0.59	( 409)	4.31	0.88	( 261)	4.30	0.83	( 409)
701만원 이상	4.53 <sup>a</sup>	0.68	( 151)	4.57 <sup>a</sup>	0.78	( 231)	4.18	0.98	( 151)	4.27	0.87	( 231)
<i>F</i>		4.68 <sup>**</sup>			4.21 <sup>**</sup>			1.46			0.79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61	0.67	( 538)	4.66	0.63	( 731)	4.29	0.86	( 538)	4.27 <sup>a</sup>	0.86	(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63	0.64	( 667)	4.70	0.60	( 998)	4.34	0.87	( 667)	4.37 <sup>a</sup>	0.82	( 998)
읍·면	4.65	0.57	( 206)	4.69	0.60	( 307)	4.26	0.90	( 206)	4.30 <sup>a</sup>	0.80	( 307)
<i>F</i>		0.25			0.81			0.87			3.26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35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3) 모두 5점 척도임(1.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 5. 매우 중요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공공요금 할인의 경우 아버지 4.38점, 어머니 4.52점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경우 맞벌이인 가구보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아버지 집단에서 아버지가 보고한 소득이 701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그 이하인 경우 그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출산급여 중요도는 아버지 4.56점, 어머니 4.66점으로 평가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비맞벌이보다 맞벌이인 경우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5-11〉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금(3)

단위: 점(명)

구분	공공요금 할인						출산급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38	0.84	(1411)	4.52	0.73	(2036)	4.56	0.70	(1411)	4.66	0.61	(2036)
출생순위												
첫째	4.33 <sup>a</sup>	0.88	( 929)	4.52	0.72	(1308)	4.55	0.71	( 929)	4.68	0.60	(1308)
둘째	4.46 <sup>a</sup>	0.77	( 394)	4.51	0.73	( 587)	4.57	0.67	( 394)	4.63	0.63	( 587)
셋째 이상	4.48 <sup>a</sup>	0.74	( 88)	4.53	0.79	( 142)	4.56	0.75	( 88)	4.59	0.67	( 142)
<i>F</i>		3.59 <sup>*</sup>			0.07			0.19			2.18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4	0.90	( 691)	4.57	0.70	( 691)	4.55	0.72	( 691)	4.70	0.58	( 691)
맞벌이 아님	4.43	0.79	( 684)	4.50	0.69	( 684)	4.55	0.69	( 684)	4.61	0.61	( 684)
<i>t</i>		-2.06 <sup>*</sup>			1.84			-0.18			2.82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51 <sup>b</sup>	0.74	( 271)	4.56	0.65	( 357)	4.64	0.63	( 271)	4.67	0.60	( 357)
301~500만원	4.40 <sup>b</sup>	0.83	( 728)	4.53	0.72	(1040)	4.54	0.70	( 728)	4.67	0.59	(1040)
501~700만원	4.32 <sup>ab</sup>	0.87	( 261)	4.47	0.76	( 409)	4.55	0.73	( 261)	4.59	0.68	( 409)
701만원 이상	4.15 <sup>a</sup>	0.98	( 151)	4.47	0.83	( 231)	4.48	0.78	( 151)	4.69	0.59	( 231)
<i>F</i>		6.58 <sup>***</sup>			1.45			1.99			2.12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34	0.87	( 538)	4.49 <sup>ab</sup>	0.75	( 731)	4.55	0.72	( 538)	4.66	0.62	(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40	0.83	( 667)	4.56 <sup>b</sup>	0.70	( 998)	4.55	0.72	( 667)	4.67	0.61	( 998)
읍·면	4.39	0.83	( 206)	4.45 <sup>a</sup>	0.78	( 307)	4.61	0.63	( 206)	4.62	0.61	( 307)
<i>F</i>		0.90			3.50 <sup>*</sup>			0.67			0.6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35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3) 모두 5점 척도임(1.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 5. 매우 중요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아버지 4.51점, 어머니 4.5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비맞벌이보다 맞벌이 집단에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5-12〉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금(4)

단위: 점(명)

구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51	0.72	(1411)	4.56	0.72	(2036)
출생순위						
첫째	4.50	0.73	( 929)	4.58	0.69	(1308)
둘째	4.53	0.68	( 394)	4.55	0.75	( 587)

구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셋째 이상 <i>F</i>	4.48	0.77 0.29	( 88)	4.48	0.80 1.24	( 142)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6	0.72	( 691)	4.64	0.68	( 691)
맞벌이 아님 <i>t</i>	4.46	0.71 2.63**	( 684)	4.53	0.71 3.09**	( 68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54	0.67	( 271)	4.57	0.71	( 357)
301~500만원	4.49	0.73	( 728)	4.58	0.71	(1040)
501~700만원	4.57	0.71	( 261)	4.53	0.73	( 409)
701만원 이상 <i>F</i>	4.49	0.79 0.72	( 151)	4.54	0.76 0.67	( 231)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49	0.74	( 538)	4.55	0.76	(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50	0.73	( 667)	4.58	0.69	( 998)
읍·면 <i>F</i>	4.58	0.63 1.15	( 206)	4.56	0.70 0.42	( 30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35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3) 모두 5점 척도임(1.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 5. 매우 중요함).

\*\*  $p < .01$ .

### 3)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의 이용 및 인식

현물/바우처 관련 육아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주양육자 대상으로는 이용 비율과 이용 시 만족도를,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는 인지 여부와 정책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현물/바우처 관련 육아지원제도 중 보육료의 경우 지급받았다는 비율이 60.9%로 가장 높았고,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이용 비율이 11.6%,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7.3%,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이용 비율이 1.9%에 불과했다. 이용하는 경우 만족도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4.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보육료와 아이돌봄지원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여부의 경우 모든 현물/바우처 관련 육아지원제도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인지 정도가 높았는데, 어머니의 90% 이상은 첫만남 이용권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아동이 아직 영아인 것을 고려할 때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절반 혹은 그 이하 정도로 낮았고, 주로 신생아 및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물/바우처와 관련한 육아지원제도의 중요도 역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높  
이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보육료 지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유아학비 등을 4.5점 정도 혹  
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표 III-5-13〉 육아지원제도 이용/인지 여부, 만족도, 중요도: 현물/바우처

단위: %, 점(명)

구분	주양육자			아버지			어머니		
	이용 비율	이용 시 만족도	(수)	인지 여부	중요도	(수)	인지 여부	중요도	(수)
1) 보육료	60.9	4.06	(1555)	74.4	4.58	(1411)	88.3	4.72	(2036)
2) 유아학비	-	-	-	51.3	4.48	(1411)	55.5	4.57	(2036)
3)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11.6	4.11	( 296)	37.7	4.37	(1411)	52.8	4.46	(2036)
4) 방과후 과정	-	-	-	39.9	4.35	(1411)	50.6	4.45	(2036)
5) 아이돌봄지원사업	1.9	4.06	( 49)	48.0	4.39	(1411)	62.2	4.49	(2036)
6) 다함께 돌봄, 늘봄학교	-	-	-	30.3	4.29	(1411)	34.9	4.33	(2036)
7) 첫만남 이용권	-	-	-	82.1	4.56	(1411)	95.0	4.66	(2036)
8)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	75.9	4.58	(1411)	90.1	4.67	(2036)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	-	60.8	4.49	(1411)	78.9	4.58	(2036)
1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7.3	4.21	( 187)	52.0	4.41	(1411)	73.1	4.52	(203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이용비율은 주양육자 조사 응답자 2,555명 기준임.

3)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 이용 만족도는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 만족도가 4.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가 4.11점, 아이돌봄지원사업과 보육료는 4.06점으로 나타났다. 아동 월령별로 살  
펴보면 아동이 어린 편일수록 보육료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비맞벌이인 경우보다 맞벌이인 경우 보육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5-14〉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 이용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아이돌봄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06	0.81	(1555)	4.11	0.82	(296)	4.06	1.08	(49)	4.21	0.93	(187)
아동 월령												
16~17개월	4.14 <sup>b</sup>	0.83	( 272)	4.20 <sup>ab</sup>	0.88	( 56)	4.34	0.50	( 9)	4.32	0.90	( 39)
18~19개월	4.11 <sup>b</sup>	0.80	( 550)	4.26 <sup>b</sup>	0.74	( 98)	4.10	1.14	(20)	4.34	0.74	( 72)
20~21개월	4.03 <sup>ab</sup>	0.81	( 412)	4.07 <sup>ab</sup>	0.82	( 89)	3.78	1.39	(11)	3.95	1.14	( 51)
22~23개월	3.93 <sup>a</sup>	0.79	( 321)	3.82 <sup>a</sup>	0.85	( 52)	4.01	0.97	( 9)	4.18	0.93	( 24)
F	4.64 <sup>**</sup>			3.51 <sup>+</sup>			0.46			2.03		
출생순위												
첫째	4.06	0.81	( 940)	4.11	0.80	(156)	3.76	1.25	(22)	4.16	1.01	( 44)
둘째	4.07	0.80	( 503)	4.11	0.84	(113)	4.27	0.91	(21)	4.25	0.95	(101)
셋째 이상	3.97	0.89	( 112)	4.12	0.89	( 27)	4.38	0.74	( 6)	4.17	0.79	( 41)
F	0.70			0.00			1.60			0.17		
맞벌이 여부												
맞벌이	4.18	0.78	( 486)	4.28	0.76	(126)	4.19	1.00	(12)	4.05	0.94	( 41)
맞벌이 아님	3.99	0.86	( 357)	4.14	0.83	( 47)	4.07	1.24	(15)	4.31	0.96	( 78)
t	3.24 <sup>**</sup>			1.11			0.28			-1.3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96	0.86	( 224)	4.05	0.84	( 35)	4.01	1.31	(14)	4.07	0.96	( 86)
301~500만원	4.08	0.78	( 738)	4.06	0.84	(113)	4.07	0.99	(36)	4.33	0.89	(100)
501~700만원	4.02	0.82	( 372)	4.10	0.82	( 88)	-	-	-	-	-	-
701만원 이상	4.13	0.83	( 221)	4.27	0.77	( 61)	-	-	-	-	-	-
F	1.95			0.99			0.04			3.82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12	0.79	( 516)	4.30 <sup>a</sup>	0.79	( 95)	3.96	1.15	(21)	4.32	0.85	( 66)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01	0.83	( 824)	4.04 <sup>a</sup>	0.84	(165)	4.17	0.99	(20)	4.18	0.97	( 82)
읍·면	4.09	0.78	( 215)	4.00 <sup>a</sup>	0.77	( 37)	4.03	1.19	( 9)	4.08	0.98	( 39)
F	2.97			3.50 <sup>*</sup>			0.17			0.8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음 ~ 5. 매우 만족함).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가한 현물 및 바우처 관련 육아지원제도의 중요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료의 경우 아버지는 4.58점, 어머니는 4.72점으로 그 중요성을 평가하였고, 아버지 집단에서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보다 그 이하 구간에서 보육료 지원 제도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5-15〉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물/바우처(1)

단위: 점(명)

구분	보육료						유아학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58	0.68	(1411)	4.72	0.57	(2036)	4.48	0.73	(1411)	4.57	0.69	(2036)
출생순위												
첫째	4.58	0.68	( 929)	4.71	0.57	(1308)	4.45	0.74	( 929)	4.55	0.69	(1308)
둘째	4.60	0.66	( 394)	4.73	0.57	( 587)	4.52	0.72	( 394)	4.60	0.67	( 587)
셋째 이상	4.58	0.71	( 88)	4.69	0.61	( 142)	4.54	0.70	( 88)	4.56	0.74	( 142)
<i>F</i>		0.14			0.53			1.50			1.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0	0.67	( 691)	4.77	0.51	( 691)	4.48	0.75	( 691)	4.62	0.66	( 691)
맞벌이 아님	4.56	0.68	( 684)	4.65	0.61	( 684)	4.47	0.72	( 684)	4.55	0.66	( 684)
<i>t</i>		-0.17			4.13***			0.38			1.73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66 <sup>b</sup>	0.61	( 271)	4.71	0.56	( 357)	4.53	0.71	( 271)	4.61	0.65	( 357)
301~500만원	4.56 <sup>ab</sup>	0.68	( 728)	4.71	0.57	(1040)	4.46	0.73	( 728)	4.56	0.69	(1040)
501~700만원	4.63 <sup>b</sup>	0.67	( 261)	4.71	0.57	( 409)	4.51	0.73	( 261)	4.55	0.70	( 409)
701만원 이상	4.46 <sup>a</sup>	0.76	( 151)	4.76	0.57	( 231)	4.39	0.79	( 151)	4.55	0.73	( 231)
<i>F</i>		3.53*			0.45			1.39			0.51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57	0.66	( 538)	4.69	0.58	( 731)	4.46	0.74	( 538)	4.54	0.71	(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59	0.68	( 667)	4.73	0.57	( 998)	4.48	0.73	( 667)	4.60	0.67	( 998)
읍·면	4.59	0.70	( 206)	4.71	0.53	( 307)	4.51	0.71	( 206)	4.53	0.71	( 307)
<i>F</i>		0.18			0.91			0.30			2.08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35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3)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  $p < .05$ , \*\*\*  $p < .001$ .

방과후과정의 중요도는 아버지 4.35점, 어머니 4.45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응답 모두에서 비맞벌이보다 맞벌이인 경우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5-16〉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물/바우처(2)

단위: 점(명)

구분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방과후 과정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37	0.80	(1411)	4.46	0.76	(2036)	4.35	0.80	(1411)	4.45	0.75	(2036)
출생순위												
첫째	4.35	0.79	( 929)	4.46	0.76	(1308)	4.33	0.79	( 929)	4.41 <sup>a</sup>	0.77	(1308)
둘째	4.42	0.78	( 394)	4.48	0.76	( 587)	4.38	0.80	( 394)	4.53 <sup>a</sup>	0.72	( 587)
셋째 이상	4.33	0.91	( 88)	4.44	0.78	( 142)	4.36	0.87	( 88)	4.53 <sup>a</sup>	0.74	( 142)
<i>F</i>		1.33			0.32			0.30			6.29 <sup>**</sup>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0	0.78	(691)	4.55	0.71	(691)	4.40	0.77	( 691)	4.52	0.71	( 691)
맞벌이 아님	4.34	0.80	(684)	4.43	0.76	(684)	4.30	0.82	( 684)	4.40	0.76	( 684)
<i>t</i>		1.35			3.00 <sup>**</sup>			2.36 <sup>*</sup>			2.98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42	0.77	( 271)	4.41	0.76	( 357)	4.39	0.79	( 271)	4.43	0.75	( 357)
301~500만원	4.35	0.79	( 728)	4.48	0.73	(1040)	4.33	0.80	( 728)	4.44	0.74	(1040)
501~700만원	4.39	0.82	( 261)	4.48	0.75	( 409)	4.37	0.77	( 261)	4.49	0.74	( 409)
701만원 이상	4.32	0.85	( 151)	4.44	0.87	( 231)	4.31	0.87	( 151)	4.46	0.84	( 231)
<i>F</i>		0.76			0.84			0.51			0.40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33	0.82	( 538)	4.44	0.78	( 731)	4.32	0.83	( 538)	4.44	0.77	(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39	0.78	( 667)	4.49	0.75	( 998)	4.38	0.77	( 667)	4.47	0.75	( 998)
읍·면	4.38	0.79	( 206)	4.42	0.75	( 307)	4.34	0.81	( 206)	4.43	0.74	( 307)
<i>F</i>		1.07			1.59			1.04			0.5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35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3)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아버지 4.39점, 어머니 4.49점으로 평가하였다. 다함께 돌봄, 늘봄학교의 경우 아버지 4.29점, 어머니 4.33점으로 그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각 특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17〉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물/바우처(3)

단위: 점(명)

구분	아이돌봄지원사업						다함께 돌봄, 늘봄학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39	0.79	(1411)	4.49	0.75	(2036)	4.29	0.84	(1411)	4.33	0.85	(2036)
출생순위												
첫째	4.39	0.79	( 929)	4.47	0.75	(1308)	4.28	0.84	( 929)	4.32	0.86	(1308)
둘째	4.39	0.78	( 394)	4.51	0.75	( 587)	4.29	0.84	( 394)	4.36	0.84	( 587)
셋째 이상	4.38	0.88	( 88)	4.55	0.72	( 142)	4.27	0.91	( 88)	4.37	0.83	( 142)
<i>F</i>		0.01			1.19			0.02			0.69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2	0.78	( 691)	4.52	0.76	( 691)	4.28	0.85	( 691)	4.34	0.90	( 691)
맞벌이 아님	4.36	0.79	( 684)	4.46	0.72	( 684)	4.29	0.83	( 684)	4.36	0.78	( 684)
<i>t</i>		1.22			1.51			-0.20			-0.3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48	0.74	( 271)	4.50	0.71	( 357)	4.36	0.79	(271)	4.33	0.82	( 357)
301~500만원	4.37	0.78	( 728)	4.51	0.73	(1040)	4.30	0.84	(728)	4.35	0.83	(1040)
501~700만원	4.40	0.83	( 261)	4.47	0.74	( 409)	4.23	0.88	(261)	4.31	0.88	( 409)
701만원 이상	4.32	0.84	( 151)	4.42	0.89	( 231)	4.18	0.89	(151)	4.29	0.94	( 231)
<i>F</i>		1.64			0.95			1.87			0.46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37	0.82	( 538)	4.46	0.76	( 731)	4.24	0.87	( 538)	4.27 <sup>a</sup>	0.89	(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39	0.79	( 667)	4.52	0.75	( 998)	4.32	0.82	( 667)	4.37 <sup>a</sup>	0.84	( 998)
읍·면	4.46	0.74	( 206)	4.48	0.75	( 307)	4.29	0.82	( 206)	4.35 <sup>a</sup>	0.77	( 307)
<i>F</i>		1.07			1.35			1.46			3.34 <sup>a</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35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3)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아버지 4.56점, 어머니 4.66점으로 그 중요성을 평가하였고, 아버지 집단에서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그 미만인 경우에 해당 지원 정책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아버지 4.58점, 어머니 4.67점으로 그 중요도를 평가하였는데, 어머니 집단의 경우 비맞벌이보다 맞벌이인 경우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5-18〉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물/바우처(4)

단위: 점(명)

구분	첫만남 이용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56	0.71	(1411)	4.66	0.62	(2036)	4.58	0.68	(1411)	4.67	0.59	(2036)
출생순위												
첫째	4.57	0.69	(929)	4.68	0.59	(1308)	4.57	0.70	(929)	4.68	0.59	(1308)
둘째	4.52	0.75	(394)	4.62	0.68	(587)	4.59	0.63	(394)	4.66	0.61	(587)
셋째 이상	4.58		(88)	4.62	0.68	(142)	4.61	0.67	(88)	4.69	0.60	(142)
<i>F</i>		0.75			2.10			0.29			0.4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5	0.72	(691)	4.71	0.59	(691)	4.59	0.67	(691)	4.72	0.55	(691)
맞벌이 아님	4.55	0.71	(684)	4.65	0.60	(684)	4.57	0.69	(684)	4.64	0.59	(684)
<i>t</i>		-0.08			1.78			0.57			2.6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67 <sup>b</sup>	0.60	(271)	4.68	0.59	(357)	4.67	0.60	(271)	4.70	0.56	(357)
301~500만원	4.55 <sup>ab</sup>	0.70	(728)	4.67	0.60	(1040)	4.56	0.68	(728)	4.66	0.62	(1040)
501~700만원	4.55 <sup>ab</sup>	0.72	(261)	4.61	0.68	(409)	4.56	0.69	(261)	4.66	0.59	(409)
701만원 이상	4.41 <sup>a</sup>	0.86	(151)	4.66	0.67	(231)	4.54	0.72	(151)	4.72	0.56	(231)
<i>F</i>		4.61**			0.95			2.35			0.97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53	0.75	(538)	4.66	0.61	(731)	4.53	0.72	(538)	4.68	0.60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57	0.69	(667)	4.64	0.65	(998)	4.60	0.66	(667)	4.68	0.60	(998)
읍·면	4.57	0.69	(206)	4.69	0.59	(307)	4.63	0.59	(206)	4.64	0.58	(307)
<i>F</i>		0.64			0.78			2.03			0.7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35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3)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  $p < .0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아버지 4.49점, 어머니 4.58점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고, 아버지 집단에서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그 이하인 경우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경우 아버지는 4.41점, 어머니는 4.52점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해당 정책의 경우 아버지 집단에서 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소득이 그 이하인 경우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어머니 집단에서는 소득이 701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그 이하인 경우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5-19〉 육아지원제도 이용 중요도: 현물/바우처(5)

단위: 점(명)

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49	0.74	(1411)	4.58	0.69	(2036)	4.41	0.78	(1411)	4.52	0.75	(2036)
출생순위												
첫째	4.48	0.75	( 929)	4.55	0.72	(1308)	4.39	0.80	( 929)	4.49 <sup>a</sup>	0.75	(1308)
둘째	4.51	0.75	( 394)	4.62	0.65	( 587)	4.45	0.78	( 394)	4.55 <sup>ab</sup>	0.76	( 587)
셋째 이상	4.54	0.72	( 88)	4.64	0.62	( 142)	4.50	0.67	( 88)	4.66 <sup>b</sup>	0.63	( 142)
<i>F</i>		0.49			2.36			1.70			3.55 <sup>*</sup>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9	0.77	( 691)	4.63	0.67	( 691)	4.43	0.79	( 691)	4.54	0.76	( 691)
맞벌이 아님	4.49	0.72	( 684)	4.56	0.68	( 684)	4.40	0.78	( 684)	4.52	0.73	( 684)
<i>t</i>		-0.06			1.83			0.71			0.5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60 <sup>b</sup>	0.70	( 271)	4.60	0.68	( 357)	4.56 <sup>b</sup>	0.70	( 271)	4.63 <sup>b</sup>	0.64	( 357)
301~500만원	4.48 <sup>ab</sup>	0.71	( 728)	4.58	0.69	(1040)	4.39 <sup>ab</sup>	0.78	( 728)	4.51 <sup>ab</sup>	0.75	(1040)
501~700만원	4.45 <sup>ab</sup>	0.80	( 261)	4.58	0.66	( 409)	4.35 <sup>a</sup>	0.81	( 261)	4.50 <sup>ab</sup>	0.73	( 409)
701만원 이상	4.41 <sup>a</sup>	0.84	( 151)	4.51	0.77	( 231)	4.33 <sup>a</sup>	0.89	( 151)	4.43 <sup>a</sup>	0.90	( 231)
<i>F</i>		3.01 <sup>*</sup>			0.85			4.65 <sup>**</sup>			3.90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46	0.76	( 538)	4.55	0.72	( 731)	4.38	0.80	( 538)	4.50	0.76	(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50	0.74	( 667)	4.61	0.66	( 998)	4.43	0.77	( 667)	4.54	0.73	( 998)
읍·면	4.53	0.72	( 206)	4.55	0.71	( 307)	4.45	0.78	( 206)	4.49	0.77	( 307)
<i>F</i>		0.82			1.68			0.94			0.8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435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3)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  $p < .05$ , \*\*  $p < .01$ .

#### 4) 육아지원제도(시간)의 이용 및 인식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인지 여부 및 이용 비율,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 〈표 III-5-20〉과 같다. 우선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 여부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90% 이상이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근로금지 등의 경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인지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 인지비율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유사하였으나, 재택근무제를 제외한 유연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의 인지 정도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높았다.

이용 비율의 경우 육아휴직의 경우 아버지는 20% 미만, 어머니는 40% 정도로



나타났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아버지 8.2%, 어머니 14.6%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이용 비율이 더 높았으며, 재택근무제를 제외한 유연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의 이용률도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더 높았다. 다만 이러한 유연근무제도의 이용률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1~9% 대로 저조한 편이었다.

이용 시 만족도의 경우 모든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중 육아휴직이 아버지 3.69점, 어머니 3.82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나머지 육아지원제도(시간)의 만족도는 4점 혹은 3.9점 대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이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는 아버지의 경우 시차출퇴근제, 어머니의 경우 원격근무제였다.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의 중요도 평가는 대부분 4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평가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의 중요도만 4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된 정책은 육아휴직으로, 아버지는 이에 대해 4.45점을, 어머니는 이에 대해 4.65점으로 중요도를 각각 평가하였다.

〈표 III-5-20〉 육아지원제도 이용/인지 여부, 만족도, 중요도: 시간

단위: %,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인지 여부	이용 비율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평가	(수)	인지 여부	이용 비율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평가	(수)
1) 육아휴직	91.3	19.5	3.69	4.45	(1411)	90.2	41.2	3.82	4.65	(2036)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3.4	8.2	4.17	4.27	(1411)	74.9	14.6	3.98	4.47	(2036)
3)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58.6	-	-	4.30	(1411)	75.6	-	-	4.43	(2036)
4) 시간외 근로 금지 <sup>1)</sup>	44.3	-	-	4.14	(1411)	54.5	-	-	4.33	(2036)
5)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sup>1)</sup>	44.9	-	-	4.19	(1411)	54.4	-	-	4.35	(2036)
6) 가족돌봄휴가	56.6	13.2	4.06	4.21	(1411)	55.9	7.8	3.92	4.30	(2036)
7) 시차출퇴근제	47.1	6.1	4.21	4.05	(1411)	43.8	3.4	4.05	4.19	(2036)
8) 선택근무제	46.2	3.4	4.12	3.95	(1411)	43.0	1.4	3.92	4.13	(2036)
9) 재택근무제	61.5	7.9	3.97	3.91	(1411)	62.2	8.7	4.01	4.15	(2036)
10) 원격근무제	47.4	2.6	4.19	3.83	(1411)	45.0	1.7	4.11	4.04	(203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한편,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는 응답자가 취업중인 경우에 한하여 인지 여부와 이용 비율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육아휴직은 조사 시점에서 취업 중인 경우 이

용해됐다고 보고한 비율이 아버지는 19.2%, 어머니는 67.9%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아버지는 이용 비율이 7.9%에 그쳤고, 어머니의 경우에도 25.2%에 불과하였다.

〈표 III-5-21〉 (응답자가 취업 상태인 경우) 육아지원제도 이용/인지 여부: 시간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인지여부	이용 비율	(수)	인지여부	이용 비율	(수)
1) 육아휴직	91.5	19.2	(1367)	95.7	67.9	(1036)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3.2	7.9	(1367)	84.3	25.2	(1036)
3)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58.4	-	(1367)	85.9	-	(1036)
4) 시간외 근로 금지 <sup>1)</sup>	43.9	-	(1367)	64.3	-	(1036)
5)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44.4	-	(1367)	64.3	-	(1036)
6) 가족돌봄휴가	56.2	13.2	(1367)	64.9	12.7	(1036)
7) 시차출퇴근제	46.8	6.1	(1367)	49.9	6.4	(1036)
8) 선택근무제	45.9	3.4	(1367)	45.7	2.6	(1036)
9) 재택근무제	61.2	8.1	(1367)	67.3	16.1	(1036)
10) 원격근무제	47.0	2.7	(1367)	46.2	2.9	(103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조사 당시 시점에서의 취업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재분석을 실시함.

다음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시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결과이다. 육아휴직 이용 시 만족도는 아버지 3.69점, 어머니 3.82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중요도의 경우 아버지 4.45점, 어머니 4.65점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어머니가 평가한 육아휴직의 중요도 점수가 높았고, 아버지가 25세 미만인 경우보다 그보다 연령이 높은 경우에 아버지의 육아휴직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어머니 집단에서 가구소득이 701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보다 육아휴직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경우 육아휴직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2〉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육아휴직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69	1.10	(275)	4.45	0.81	(1411)	3.82	0.99	(839)	4.65	0.69	(2036)
출생순위												
첫째	3.71	1.08	(178)	4.49	0.79	(919)	3.82	0.99	(580)	4.69 <sup>b</sup>	0.64	(1296)
둘째	3.71	1.12	(81)	4.39	0.88	(404)	3.84	1.00	(216)	4.60 <sup>ab</sup>	0.73	(598)
셋째 이상	3.39	1.28	(15)	4.38	0.80	(88)	3.74	0.88	(42)	4.48 <sup>a</sup>	0.86	(142)
<i>F</i>		0.60			2.32			0.19		8.21 <sup>***</sup>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3.00	0.00	(3)	3.36 <sup>a</sup>	1.10	(8)	4.00	0.92	(5)	4.58 <sup>a</sup>	0.67	(29)
25~30세 미만	3.34	0.83	(9)	4.50 <sup>b</sup>	0.75	(65)	3.85	0.98	(57)	4.49 <sup>a</sup>	0.78	(203)
30~35세 미만	3.61	1.21	(80)	4.47 <sup>b</sup>	0.85	(371)	3.82	0.96	(362)	4.67 <sup>a</sup>	0.67	(832)
35~40세 미만	3.80	1.09	(125)	4.53 <sup>b</sup>	0.77	(611)	3.89	1.02	(332)	4.71 <sup>a</sup>	0.64	(741)
40세 이상	3.65	1.00	(58)	4.33 <sup>b</sup>	0.82	(350)	3.57	0.99	(83)	4.53 <sup>a</sup>	0.77	(230)
<i>F</i>		0.90			6.76 <sup>***</sup>			1.82		5.89 <sup>***</sup>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	-	4.45	0.81	(1367)	-	-	-	4.70 <sup>a</sup>	0.68	(1036)
학업 중	-	-	-	3.61	0.69	(2)	-	-	-	4.53 <sup>a</sup>	0.82	(21)
미취업/미취학	-	-	-	4.50	0.89	(42)	-	-	-	4.60 <sup>a</sup>	0.69	(979)
<i>F</i>		-			1.16			-		5.94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70	1.13	(49)	4.41	0.85	(271)	3.78	1.08	(70)	4.57 <sup>a</sup>	0.73	(357)
301~500만원	3.65	1.12	(146)	4.44	0.83	(728)	3.86	0.97	(390)	4.65 <sup>ab</sup>	0.69	(1040)
501~700만원	3.73	1.10	(49)	4.50	0.78	(261)	3.81	0.94	(235)	4.69 <sup>ab</sup>	0.64	(409)
701만원 이상	3.80	0.99	(30)	4.52	0.72	(151)	3.76	1.07	(145)	4.72 <sup>b</sup>	0.70	(231)
<i>F</i>		0.19			0.98			0.47		2.83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3.80	1.11	(96)	4.40	0.86	(538)	3.92	0.97	(337)	4.62 <sup>ab</sup>	0.72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3.67	1.09	(139)	4.50	0.77	(667)	3.78	1.03	(411)	4.69 <sup>b</sup>	0.64	(998)
읍면	3.50	1.11	(40)	4.44	0.80	(206)	3.70	0.88	(91)	4.57 <sup>a</sup>	0.76	(307)
<i>F</i>		1.10			2.43			2.63		4.11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이용 시 만족도가 아버지 4.17점, 어머니 3.98점이었다. 정책의 중요도는 아버지 4.27점, 어머니 4.47점으로 나타나 만족도는 아버지가, 중요성은 어머니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동의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아버지가 25세

미만인 경우보다 연령이 그보다 높은 경우에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고, 어머니 역시 25세 미만인 경우보다 연령이 그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어머니의 연령이 30~40세의 경우에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3〉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17	1.01	(115)	4.27	0.87	(1411)	3.98	1.10	(297)	4.47	0.78	(2036)
출생순위												
첫째	4.11	1.02	( 74)	4.31 <sup>b</sup>	0.85	( 919)	3.96	1.15	(196)	4.50 <sup>b</sup>	0.76	(1296)
둘째	4.33	0.98	( 32)	4.20 <sup>ab</sup>	0.88	( 404)	3.99	1.05	( 88)	4.45 <sup>ab</sup>	0.82	( 598)
셋째 이상	4.09	1.06	( 9)	4.09 <sup>a</sup>	0.91	( 88)	4.29	0.80	( 13)	4.32 <sup>a</sup>	0.81	( 142)
<i>F</i>		0.53			4.26 <sup>*</sup>			0.52			3.62 <sup>*</sup>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	-	-	3.12 <sup>a</sup>	1.03	( 8)	5.00	0.00	( 2)	4.15 <sup>a</sup>	0.90	( 29)
25~30세 미만	4.36	0.84	( 8)	4.24 <sup>b</sup>	0.83	( 65)	3.82	1.11	( 22)	4.33 <sup>ab</sup>	0.81	( 203)
30~35세 미만	4.16	0.95	( 34)	4.29 <sup>b</sup>	0.86	( 371)	4.04	1.06	(129)	4.51 <sup>b</sup>	0.76	( 832)
35~40세 미만	4.22	1.20	( 46)	4.33 <sup>b</sup>	0.86	( 611)	3.94	1.13	(121)	4.52 <sup>b</sup>	0.76	( 741)
40세 이상	4.00	0.76	( 26)	4.16 <sup>b</sup>	0.86	( 350)	3.97	1.26	( 23)	4.37 <sup>ab</sup>	0.84	( 230)
<i>F</i>		0.38			5.56 <sup>**</sup>			0.58			5.34 <sup>**</sup>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	-	4.26	0.87	(1367)	-	-	-	4.54 <sup>a</sup>	0.78	(1036)
학업 중	-	-	-	4.00	0.00	( 2)	-	-	-	4.42 <sup>a</sup>	0.90	( 21)
미취업/미취학	-	-	-	4.47	0.69	( 42)	-	-	-	4.41 <sup>a</sup>	0.77	( 979)
<i>F</i>		-			1.33			-			7.04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24	0.78	( 21)	4.24	0.89	( 271)	4.15	1.06	( 21)	4.46	0.74	( 357)
301~500만원	4.11	1.13	( 56)	4.27	0.87	( 728)	4.01	1.14	(144)	4.49	0.76	(1040)
501~700만원	4.52	0.75	( 21)	4.28	0.84	( 261)	4.06	0.93	( 84)	4.47	0.79	( 409)
701만원 이상	3.85	1.04	( 16)	4.24	0.86	( 151)	3.70	1.29	( 47)	4.41	0.91	( 231)
<i>F</i>		1.52			0.13			1.39			0.80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26	0.97	( 41)	4.21 <sup>ab</sup>	0.90	( 538)	4.08	1.02	(110)	4.43 <sup>ab</sup>	0.84	(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16	1.05	( 59)	4.34 <sup>b</sup>	0.83	( 667)	3.94	1.18	(158)	4.52 <sup>b</sup>	0.73	( 998)
읍·면	3.96	0.97	( 15)	4.17 <sup>a</sup>	0.89	( 206)	3.88	0.96	( 28)	4.41 <sup>a</sup>	0.80	( 307)
<i>F</i>		0.48			4.92 <sup>**</sup>			0.64			4.33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다음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간외 근로금지 제도,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제도의 중요도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질문한 결과이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중요성을 아버지는 4.30점, 어머니는 4.43점으로 평가하였다. 시간 외 근로 금지 제도의 경우 아버지 4.14점, 어머니 4.33점으로 그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제도의 경우 아버지 4.19점, 어머니 4.35점으로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보다 그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읍면보다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가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중요성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외 근로 금지 제도의 경우 아버지 연령이 25세 미만인 집단보다 연령이 그 이상인 집단에서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제도의 경우 아버지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보다 그 이상인 집단에서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5-24〉 육아지원제도(시간) 중요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시간 외 근로 금지/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단위: 점(명)

구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간 외 근로 금지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30	0.83	(1411)	4.43	0.80	(2036)	4.14	0.93	(1411)	4.33	0.88	(2036)	4.19	0.92	(1411)	4.35	0.86	(2036)
출생순위																		
첫째	4.33	0.83	(919)	4.46	0.77	(1296)	4.17	0.92	(919)	4.35	0.86	(1296)	4.20	0.90	(919)	4.40 <sup>a</sup>	0.83	(1296)
둘째	4.28	0.81	(404)	4.38	0.84	(598)	4.07	0.95	(404)	4.29	0.93	(598)	4.16	0.93	(404)	4.25 <sup>a</sup>	0.93	(598)
셋째 이상	4.13	0.95	(88)	4.38	0.82	(142)	4.13	0.92	(88)	4.28	0.83	(142)	4.19	0.97	(88)	4.29 <sup>a</sup>	0.83	(142)
F	2.56			2.06			1.65			1.45			0.24			6.06 <sup>**</sup>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3.07 <sup>a</sup>	1.05	(8)	4.34 <sup>a</sup>	0.85	(29)	3.07 <sup>a</sup>	0.94	(8)	4.18 <sup>a</sup>	0.83	(29)	3.07 <sup>a</sup>	1.05	(8)	4.06 <sup>a</sup>	1.04	(29)
25-30세 미만	4.21 <sup>b</sup>	0.87	(65)	4.24 <sup>a</sup>	0.83	(203)	4.12 <sup>b</sup>	0.94	(65)	4.17 <sup>a</sup>	0.91	(203)	4.20 <sup>b</sup>	0.94	(65)	4.22 <sup>a</sup>	0.87	(203)
30-35세 미만	4.32 <sup>b</sup>	0.79	(371)	4.45 <sup>a</sup>	0.80	(832)	4.12 <sup>b</sup>	0.95	(371)	4.32 <sup>a</sup>	0.89	(832)	4.16 <sup>b</sup>	0.90	(371)	4.36 <sup>a</sup>	0.86	(832)
35-40세 미만	4.36 <sup>b</sup>	0.86	(611)	4.49 <sup>a</sup>	0.75	(741)	4.19 <sup>b</sup>	0.94	(611)	4.40 <sup>a</sup>	0.84	(741)	4.24 <sup>b</sup>	0.93	(611)	4.41 <sup>a</sup>	0.83	(741)
40세 이상	4.24 <sup>b</sup>	0.79	(350)	4.32 <sup>a</sup>	0.85	(230)	4.09 <sup>b</sup>	0.89	(350)	4.30 <sup>a</sup>	0.91	(230)	4.15 <sup>b</sup>	0.89	(350)	4.28 <sup>a</sup>	0.91	(230)
F	5.76 <sup>***</sup>			5.41 <sup>***</sup>			3.33 <sup>**</sup>			3.21 <sup>*</sup>			3.57 <sup>**</sup>			3.06 <sup>*</sup>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4.30	0.83	(1367)	4.50 <sup>a</sup>	0.79	(1036)	4.14	0.93	(1367)	4.40 <sup>a</sup>	0.90	(1036)	4.18	0.91	(1367)	4.41 <sup>a</sup>	0.88	(1036)
학업 중	3.61	0.69	(2)	4.38 <sup>a</sup>	0.81	(21)	3.21	1.38	(2)	4.40 <sup>a</sup>	0.86	(21)	4.00	0.00	(2)	4.28 <sup>a</sup>	0.84	(21)
미취업/미취학	4.37	0.86	(42)	4.36 <sup>a</sup>	0.80	(979)	4.06	1.08	(42)	4.25 <sup>a</sup>	0.85	(979)	4.27	1.05	(42)	4.28 <sup>a</sup>	0.84	(979)
F	0.82			8.21 <sup>***</sup>			1.15			7.49 <sup>***</sup>			0.21			5.93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29	0.88	(271)	4.37	0.80	(357)	4.09	0.98	(271)	4.24	0.87	(357)	4.17	0.94	(271)	4.25	0.88	(357)
301~500만원	4.28	0.83	(728)	4.45	0.77	(1040)	4.16	0.91	(728)	4.32	0.88	(1040)	4.21	0.91	(728)	4.36	0.86	(1040)
501~700만원	4.36	0.78	(261)	4.43	0.80	(409)	4.11	0.92	(261)	4.38	0.85	(409)	4.15	0.90	(261)	4.41	0.82	(409)
701만원 이상	4.33	0.86	(151)	4.43	0.90	(231)	4.14	0.95	(151)	4.41	0.91	(231)	4.17	0.95	(151)	4.35	0.92	(231)
F	0.63			1.03			0.50			2.15			0.32			2.20		

구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간 외 근로 금지						아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지역 규모	4.24 <sup>ab</sup>	0.87	( 538)	4.40 <sup>ab</sup>	0.83	( 731)	4.07 <sup>a</sup>	0.97	( 538)	4.33	0.89	( 731)	4.12	0.95	( 538)	4.37	0.85	( 731)
대도시(광역시/동)	4.39 <sup>a</sup>	0.78	( 667)	4.48 <sup>b</sup>	0.76	( 998)	4.21 <sup>a</sup>	0.90	( 667)	4.34	0.86	( 998)	4.25	0.88	( 667)	4.36	0.86	( 998)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21 <sup>a</sup>	0.88	( 206)	4.35 <sup>a</sup>	0.83	( 307)	4.09 <sup>a</sup>	0.91	( 206)	4.27	0.88	( 307)	4.16	0.93	( 206)	4.27	0.86	( 307)
음·면	6.35 <sup>**</sup>			3.43 <sup>*</sup>			3.61 <sup>*</sup>						2.83			1.64		
F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다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이용 만족도가 아버지는 4.06점, 어머니는 3.92점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아버지 4.21점, 어머니 4.35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 중요도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25세 미만인 경우에 그 이상의 연령보다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사는 어머니가 가족돌봄휴가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5〉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가족돌봄휴가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06	1.01	(186)	4.21	0.88	(1411)	3.92	0.99	(159)	4.35	0.84	(2036)
출생순위												
첫째	4.07	1.00	(121)	4.23	0.87	(919)	3.82	1.00	(89)	4.36	0.83	(1296)
둘째	4.06	0.98	(54)	4.17	0.90	(404)	4.02	0.93	(57)	4.33	0.88	(598)
셋째 이상	3.91	1.37	(11)	4.25	0.87	(88)	4.13	1.21	(13)	4.34	0.77	(142)
F		0.13			0.72			1.04			0.26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	-	-	3.41 <sup>a</sup>	1.15	(8)	-	-	-	4.22 <sup>a</sup>	0.83	(29)
25~30세 미만	4.30	1.09	(4)	4.23 <sup>b</sup>	0.85	(65)	3.97	0.84	(11)	4.22 <sup>a</sup>	0.83	(203)
30~35세 미만	4.28	1.00	(52)	4.23 <sup>b</sup>	0.88	(371)	3.83	1.02	(74)	4.34 <sup>a</sup>	0.86	(832)
35~40세 미만	3.91	1.05	(91)	4.26 <sup>b</sup>	0.89	(611)	4.05	0.95	(55)	4.42 <sup>a</sup>	0.81	(741)
40세 이상	4.10	0.90	(38)	4.15 <sup>b</sup>	0.86	(350)	3.88	1.14	(19)	4.29 <sup>a</sup>	0.85	(230)
F		1.65			2.55 <sup>*</sup>			0.54			3.02 <sup>*</sup>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	-	4.20 <sup>a</sup>	0.88	(1367)	-	-	-	4.43 <sup>a</sup>	0.84	(1036)
학업 중	-	-	-	4.00 <sup>a</sup>	0.00	(2)	-	-	-	4.32 <sup>a</sup>	0.90	(21)
미취업/미취학	-	-	-	4.55 <sup>a</sup>	0.75	(42)	-	-	-	4.27 <sup>a</sup>	0.83	(979)
F		-			3.12 <sup>*</sup>			-			9.29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11	0.82	(30)	4.20	0.92	(271)	3.67	1.36	(13)	4.32	0.81	(357)
301~500만원	4.02	1.09	(93)	4.23	0.88	(728)	3.90	0.95	(80)	4.35	0.84	(1040)
501~700만원	4.24	0.86	(42)	4.19	0.87	(261)	4.04	0.94	(45)	4.40	0.81	(409)
701만원 이상	3.84	1.18	(21)	4.22	0.86	(151)	3.87	1.06	(21)	4.33	0.92	(231)
F		0.82			0.11			0.50			0.71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19	1.02	(78)	4.18	0.91	(538)	4.06	0.95	(53)	4.33 <sup>ab</sup>	0.94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03	0.93	(84)	4.26	0.86	(667)	3.89	1.02	(87)	4.40 <sup>b</sup>	0.80	(998)
읍면	3.77	1.22	(24)	4.17	0.85	(206)	3.66	0.99	(19)	4.25 <sup>a</sup>	0.94	(307)
F		1.74			1.57			1.18			4.31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sup>\*</sup> p < .05, <sup>\*\*\*</sup> p < .001.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이용 시 만족도는 아버지 4.21점, 어머니 4.05점으로 나타났고, 중요도는 아버지 4.05점, 어머니 4.19점으로, 만족도는 아버지의 점수가, 중요도는 어머니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해당 제도에 대한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5-26〉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시차출퇴근제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21	0.98	(86)	4.05	0.95	(1411)	4.05	0.92	(70)	4.19	0.91	(2036)
출생순위												
첫째	4.27	0.90	(59)	4.07	0.94	( 919)	4.12	0.85	(52)	4.21	0.90	(1296)
둘째	4.14	1.05	(24)	4.01	0.95	( 404)	3.82	1.17	(16)	4.15	0.94	( 598)
셋째 이상	3.63	1.86	( 4)	4.12	0.97	( 88)	4.00	0.00	( 2)	4.23	0.85	( 142)
F		0.78			0.81			0.62			0.96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	-	-	2.97 <sup>a</sup>	0.88	( 8)	-	-	-	4.11 <sup>a</sup>	0.91	( 29)
25~30세 미만	3.78	1.25	( 3)	4.14 <sup>b</sup>	0.91	( 65)	4.34	0.83	( 5)	4.11 <sup>a</sup>	0.86	( 203)
30~35세 미만	4.17	0.95	(19)	4.05 <sup>b</sup>	0.96	( 371)	4.05	0.96	(30)	4.17 <sup>a</sup>	0.94	( 832)
35~40세 미만	4.11	0.99	(46)	4.10 <sup>b</sup>	0.95	( 611)	3.99	0.92	(33)	4.27 <sup>a</sup>	0.87	( 741)
40세 이상	4.50	1.00	(18)	4.01 <sup>b</sup>	0.92	( 350)	4.50	0.74	( 2)	4.11 <sup>a</sup>	0.94	( 230)
F		0.84			3.16 <sup>*</sup>			0.34			2.51 <sup>*</sup>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	-	4.05	0.94	(1367)	-	-	-	4.24 <sup>a</sup>	0.93	(1036)
학업 중	-	-	-	3.61	0.69	( 2)	-	-	-	4.17 <sup>a</sup>	0.93	( 21)
미취업/미취학	-	-	-	4.17	1.08	( 42)	-	-	-	4.14 <sup>a</sup>	0.87	( 979)
F		-			0.52			-			3.39 <sup>*</sup>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93	0.89	(14)	3.98	0.98	( 271)	3.32	1.38	( 3)	4.09	0.90	( 357)
301~500만원	4.15	1.16	(38)	4.09	0.96	( 728)	4.18	0.85	(28)	4.21	0.88	(1040)
501~700만원	4.30	0.86	(22)	4.06	0.88	( 261)	3.98	0.84	(14)	4.23	0.92	( 409)
701만원 이상	4.51	0.62	(13)	4.04	0.94	( 151)	4.04	0.99	(24)	4.20	0.98	( 231)
F		0.87			0.83			0.90			1.81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31	1.04	(39)	4.02	0.97	( 538)	4.01	0.92	(38)	4.18 <sup>ab</sup>	0.92	(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22	0.87	(39)	4.10	0.94	( 667)	4.14	0.97	(25)	4.24 <sup>b</sup>	0.87	( 998)
읍면	3.69	1.16	( 8)	3.99	0.90	( 206)	3.96	0.82	( 7)	4.05 <sup>a</sup>	0.97	( 307)
F		1.36			1.59			0.17			5.15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선택근무제는 이용 시 만족도가 아버지 4.12점, 어머니 3.92점으로 나타났고, 중요도는 아버지 3.95점, 어머니 4.13점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보다 그 이상인 경우 선택근무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 Ⅲ-5-27〉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선택근무제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12	0.95	(48)	3.95	0.98	(1411)	3.92	1.12	(29)	4.13	0.91	(2036)
출생순위												
첫째	4.16	0.82	(35)	3.97	0.98	(919)	4.20	0.92	(18)	4.14	0.91	(1296)
둘째	4.07	1.29	(13)	3.90	0.97	(404)	3.49	1.29	(12)	4.10	0.94	(598)
셋째 이상	3.00	0.00	(1)	3.97	1.00	(88)	-	-	-	4.17		(142)
F		0.52			0.74			3.01			0.65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	-	-	3.12 <sup>a</sup>	0.97	(8)	-	-	-	4.18	0.89	(29)
25-30세 미만	3.00	0.00	(2)	4.12 <sup>b</sup>	0.91	(65)	3.48	1.05	(3)	4.06	0.89	(203)
30-35세 미만	4.30	0.73	(13)	3.92 <sup>b</sup>	1.01	(371)	4.20	0.85	(13)	4.11	0.93	(832)
35-40세 미만	4.21	0.83	(25)	4.00 <sup>b</sup>	0.96	(611)	3.64	1.34	(12)	4.17	0.89	(741)
40세 이상	3.77	1.45	(9)	3.90 <sup>b</sup>	0.97	(350)	5.00	0.00	(1)	4.14	0.94	(230)
F		1.38			2.64 <sup>*</sup>			1.01			0.79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	-	3.95	0.98	(1367)	-	-	-	4.17	0.95	(1036)
학업 중	-	-	-	3.61	0.69	(2)	-	-	-	4.21	0.95	(21)
미취업/미취학	-	-	-	4.00	1.07	(42)	-	-	-	4.09	0.87	(979)
F		-			0.17			-			1.7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27	0.75	(6)	3.90	1.00	(271)	3.58	0.93	(4)	4.06	0.86	(357)
301~500만원	4.12	1.02	(26)	3.98	0.99	(728)	3.77	1.12	(11)	4.16	0.91	(1040)
501~700만원	4.54	0.82	(9)	3.96	0.95	(261)	4.07	1.19	(3)	4.14	0.92	(409)
701만원 이상	4.29	0.67	(8)	3.90	0.94	(151)	4.13	1.24	(11)	4.09	1.00	(231)
F		2.39			0.60			0.30			1.29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20	1.05	(19)	3.91	1.02	(538)	3.58	1.40	(10)	4.08 <sup>a</sup>	0.94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18	0.86	(25)	4.01	0.96	(667)	4.15	0.94	(18)	4.19 <sup>a</sup>	0.89	(998)
읍·면	3.38	0.90	(4)	3.89	0.90	(206)	3.53	0.86	(2)	4.06 <sup>a</sup>	0.91	(307)
F		1.39			2.01			0.92			3.84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재택근무제의 경우 이용 시 만족도가 아버지는 3.97점, 어머니는 4.01점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아버지 3.91점, 어머니 4.15점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보다 그 이상의 연령인 경우에 재택근무제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해당 제도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5-28〉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재택근무제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97	0.98	(112)	3.91	1.03	(1411)	4.01	1.03	(177)	4.15	0.95	(2036)
출생순위												
첫째	4.07	0.87	(78)	3.95 <sup>a</sup>	1.01	(919)	3.96	1.06	(117)	4.16	0.94	(1296)
둘째	3.69	1.16	(32)	3.80 <sup>a</sup>	1.08	(404)	4.03	1.02	(49)	4.10	0.96	(598)
셋째 이상	4.23	1.28	(2)	3.94 <sup>a</sup>	0.98	(88)	4.51	0.68	(11)	4.23	0.94	(142)
F		1.81			3.13 <sup>*</sup>			1.40			1.62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3.00	0.00	(2)	2.93 <sup>a</sup>	1.18	(8)	3.00	0.00	(2)	3.95	1.05	(29)
25-30세 미만	3.00	0.00	(3)	4.17 <sup>b</sup>	0.89	(65)	4.64	0.72	(7)	4.08	0.89	(203)
30-35세 미만	3.94	0.91	(22)	3.90 <sup>b</sup>	1.03	(371)	4.04	1.11	(64)	4.14	0.98	(832)
35-40세 미만	4.04	0.99	(63)	3.97 <sup>b</sup>	1.00	(611)	3.99	1.03	(87)	4.20	0.94	(741)
40세 이상	3.96	1.05	(23)	3.80 <sup>b</sup>	1.05	(350)	3.89	0.85	(17)	4.13	0.89	(230)
F		1.20			4.39 <sup>**</sup>			1.15			1.14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	-	3.91	1.02	(1367)	-	-	-	4.17	1.00	(1036)
학업 중	-	-	-	3.21	1.38	(2)	-	-	-	4.27	0.85	(21)
미취업/미취학	-	-	-	3.97	1.10	(42)	-	-	-	4.13	0.89	(979)
F		-			0.53			-			0.5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08	0.94	(11)	3.84	1.05	(271)	3.67	1.18	(13)	4.06	0.91	(357)
301~500만원	3.96	0.94	(49)	3.92	1.05	(728)	3.94	1.02	(79)	4.18	0.93	(1040)
501~700만원	4.02	0.98	(27)	3.94	0.97	(261)	3.98	1.10	(38)	4.14	0.95	(409)
701만원 이상	3.87	1.10	(25)	3.92	0.99	(151)	4.27	0.94	(47)	4.14	1.08	(231)
F		0.16			0.58			1.59			1.38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03	0.93	(46)	3.85 <sup>a</sup>	1.07	(538)	4.15	0.94	(73)	4.12 <sup>ab</sup>	0.94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3.92	1.04	(60)	3.98 <sup>a</sup>	1.02	(667)	3.88	1.14	(89)	4.21 <sup>b</sup>	0.92	(998)
읍면	3.99	0.77	(6)	3.83 <sup>a</sup>	0.93	(206)	4.17	0.74	(14)	3.99 <sup>a</sup>	1.03	(307)
F		0.18			3.31 <sup>*</sup>			1.38			6.88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원격근무제의 경우 이용 시 만족도가 아버지 4.19점, 어머니 4.11점으로 나타났고, 중요도는 아버지 3.83점, 어머니 4.04점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별로는 25세 미만인 경우보다 그 이상인 경우에 원격근무제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5-29〉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원격근무제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19	0.92	(36)	3.83	1.06	(1411)	4.11	0.91	(35)	4.04	0.97	(2036)
출생순위												
첫째	4.20	0.84	(24)	3.87	1.05	(919)	4.09	0.90	(20)	4.04	0.97	(1296)
둘째	4.13	1.17	(11)	3.75	1.09	(404)	4.08	0.96	(14)	4.02	0.99	(598)
셋째 이상	4.40	0.88	(1)	3.86	1.06	(88)	5.00	0.00	(1)	4.13	0.94	(142)
F		0.09			1.73			0.53			0.68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	-	-	3.03 <sup>a</sup>	1.23	(8)	-	-	-	3.91	0.97	(29)
25-30세 미만	3.00	0.00	(2)	4.14 <sup>b</sup>	0.94	(65)	4.38	0.89	(4)	4.04	0.91	(203)
30-35세 미만	4.28	0.65	(9)	3.85 <sup>b</sup>	1.07	(371)	4.11	0.93	(17)	4.01	1.00	(832)
35-40세 미만	4.08	1.10	(19)	3.86 <sup>b</sup>	1.04	(611)	3.98	0.95	(13)	4.10	0.96	(741)
40세 이상	4.60	0.53	(7)	3.73 <sup>ab</sup>	1.10	(350)	4.74	1.00	(1)	3.98	0.94	(230)
F		1.52			3.38 <sup>**</sup>			0.38			1.24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	-	3.83	1.06	(1367)	-	-	-	4.02	1.04	(1036)
학업 중	-	-	-	3.21	1.38	(2)	-	-	-	4.20	0.87	(21)
미취업/미취학	-	-	-	3.88	1.28	(42)	-	-	-	4.06	0.99	(979)
F		-			0.38			-			0.7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00	0.00	(2)	3.83	1.08	(271)	3.83	1.11	(5)	4.00	0.91	(357)
301~500만원	4.23	1.07	(20)	3.84	1.08	(728)	4.16	0.91	(17)	4.08	0.96	(1040)
501~700만원	4.32	0.72	(7)	3.82	1.03	(261)	4.20	1.12	(5)	4.02	1.00	(409)
701만원 이상	4.34	0.51	(7)	3.81	1.03	(151)	4.12	0.77	(8)	3.98	1.07	(231)
F		1.46			0.08			0.17			1.06	
지역 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46 <sup>b</sup>	0.95	(13)	3.77	1.10	(538)	4.27	0.96	(14)	4.02 <sup>ab</sup>	0.96	(73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30 <sup>b</sup>	0.63	(18)	3.88	1.06	(667)	3.98	0.94	(17)	4.09 <sup>b</sup>	0.96	(998)
읍면	3.07 <sup>a</sup>	1.11	(5)	3.84	0.98	(206)	4.11	0.72	(5)	3.94 <sup>a</sup>	1.02	(307)
F		5.37 <sup>**</sup>			1.42			0.37			3.02 <sup>*</sup>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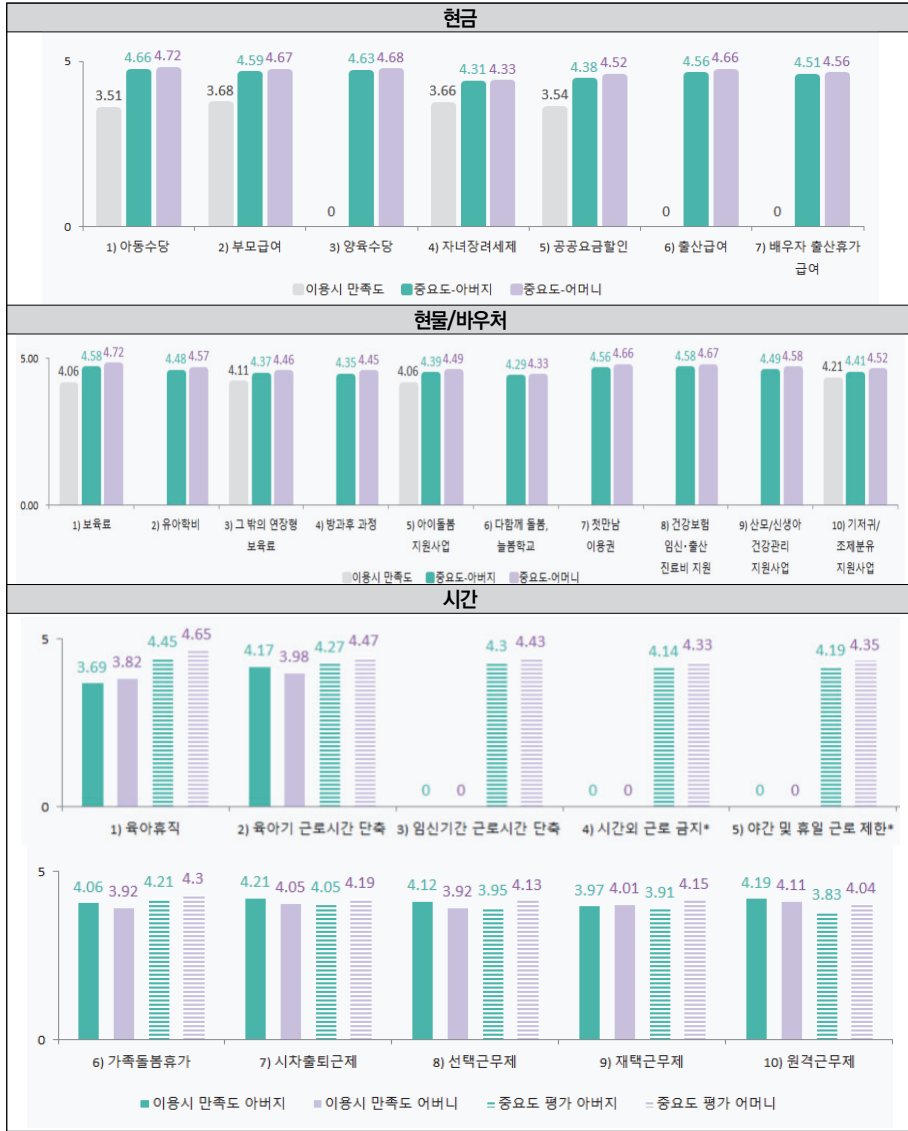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  $p < .05$ , \*\*  $p < .01$ .



[그림 III-5-4] 육아지원제도(현금, 현물/바우처, 시간) 만족도 및 중요도

단위: 점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6. 소결 및 시사점

### 가. 아동 특성

#### 1) 일상생활

아동의 평균 밤잠 시간은 13.59시간이었으며, 85.2%의 아동이 하루 중 1회 낮잠을 잔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1년 전보다(배운진 외, 2023: 61) 낮잠 횟수가 줄어들고 밤잠으로 수면시간을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본생활습관에서는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아보다 여아가, 그리고 둘째인 경우 스스로 해보려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배변훈련을 위한 준비도 더 되어 가고 있었다. 이유식 및 유아식 시작 시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각각 평균 6.06개월, 12.33개월에 시작한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디지털미디어 생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의 63.6%는 동영상 시청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디지털미디어 이용 시작 월령은 평균 12~14개월 사이였는데, 시작시기가 가장 이른 경우는 0개월로 나타나, 태어나자마자 디지털미디어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에 대한 규칙이 있는 가구는 42.6%이며, 그들 중 규칙을 지킨다는 응답은 약 74.0%이었다.

#### 2) 아동 건강

이 시기 아동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가장 많이 하며, 그다음 사유는 소화계통 질환이었다. 아동이 진단받은 질환으로는 중이염이 16.8%로 가장 많았고, 모세기관지염(9.9%)이나 폐렴(8.6%) 등도 다른 질환에 비해 진단받은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한편 패널아동 중 장애아동은 0.2%이었다.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필수예방접종인 경우 90% 이상이 접종을 하였으며, 영유아건강검진은 1, 2차는 80% 이상, 3차는 90% 이상 수검하였다. 구강검진의 경우 조사 기간이 수검 기간에 해당하여 수검을 완료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 3) 발달 특성

아동의 평균 체중은 11.50kg, 평균 신장은 82.83cm이었다.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sup>20)</sup>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패널아동의 평균 체중은 평균 범위이거나 좀 더 높은 수치로, 신장은 평균 범위의 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발달선별검사 (K-DST) 결과 모든 영역에서 약 90% 이상의 아동이 또래수준 이상의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나. 가정의 양육 환경

### 1) 부모 건강

첫째, 부모의 건강 상태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부분이 장애가 없었으며, 극히 일부가 경증 또는 중증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연과 음주 습관에서는 아버지의 흡연율이 어머니에 비해 높았으며, 음주율 역시 아버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흡연율이 높았고, 음주율은 젊은 층보다 나이가 더 많은 층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부모의 생활 습관 및 심리적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경우 대다수가 일반 사용자군에 속했지만,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도 약 10% 내외로 나타났다. 부모의 디지털미디어 사용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10%도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 없겠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영아기임에도 다수의 패널아동이 이미 디지털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있었으며, 가정 내 디지털미디어 이용 규칙이 있는 가구가 50% 미만이어서 부모에게 디지털미디어의 바람직한 이용에 대해 안내하고 가정에서 실천해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러한 분석 결과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미디어의 바람직한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자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20)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소아청소년 성장도표, [https://knhanes.kdca.go.kr/knhanes/grtcht/dwnld/dtDtl.do?pg=1&st=&sb=1&menuId=20011002&dataNo=7\(2024. 10. 16. 인출\).](https://knhanes.kdca.go.kr/knhanes/grtcht/dwnld/dtDtl.do?pg=1&st=&sb=1&menuId=20011002&dataNo=7(2024. 10. 16. 인출).)



은 아동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령별 적절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지원이 필요하겠다.

## 2) 부모 심리적 및 관계적 특성

첫째, 부모의 심리적 특성에서는 자아존중감, 그릿(Grit) 등에서 연령, 학력과 소득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주었으리라 예상해볼 수 있겠다.

더불어 우울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경미한 우울 증상까지 합치면 비교적 많은 부모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아기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지원에 있어 정서적 지원을 통해 부모가 일상생활에서의 우울감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부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결혼 만족도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부부 갈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3) 양육 특성

첫째, 아동의 주양육자는 주로 어머니이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9~16시까지 이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하원은 16~17시 경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원 후에는 다시 어머니가 양육하는 비율이 높아지지만, 어린이집 하원 시간 즈음에는 조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육아 인력의 비율도 약간이지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저녁시간에는 아버지가 주로 돌보는 비율이 약 40%까지 높아지기도 하였다.

둘째, 부모로서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자녀 수가 많을수록(때닐아동이 첫째인 경우보다 둘째나 셋째일수록), 맞벌이가 아니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효능감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즉, 효능감 수준이 가정의 상황이나 경제적 수준 등에 의해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

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부모교육 등에서 다루어져야 하겠다.

양육 부담은 영아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신체적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부담 정도도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응답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및 가사 분담에 있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많이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배우자 외에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0.2%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아동 월령별 수유방법에 따르면, 자녀 출생 후부터 1개월까지는 혼합수유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2개월부터는 분유수유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이후에 우유를 먹이기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13개월부터는 수유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그 전 36.7%에서 70.8%로 크게 증가하였다.

#### 4) 부모 근로 특성

아버지의 96.9%, 어머니의 50.9%가 취업 중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사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순으로 많았다. 어머니(7.32시간) 보다는 아버지(8.74시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좀 더 길었다. 아버지의 월 평균 근로 소득은 396.92만원, 어머니의 월 평균 소득은 280.00만원이었다.

#### 5) 가구 특성

가구 특성에서는 가구 형태 및 가구원, 다문화 가정, 가구 경제적 특성, 주거 환경을 살펴보았다. 가구 특성에서 주목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구의 경우 아이와 배우자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응답자인 어머니와 아버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과반이 배우자에게 ‘한국어만 사용함’인데 반해 아이에게는 22.6%만이 ‘한국어만 사용함’에 응답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에 비해 의사소통 및 문화 수용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문화적응에 있어서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한국 및 모국에 대한 소속감이 높았다.

둘째, 가구 부채와 관련한 변인에서 맞벌이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부채액이 많았으며, 주관적 사

회 경제적 지위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널가구의 현 거주지의 선택 이유 변인에서 출생순위, 맞벌이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패널아동의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근무지와 의 거리’의 비율이 높았으며, 패널아동의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주거 비용’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맞벌이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돌봄 제공자와의 접근성’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다. 교육·보육 환경

### 1) 기관 이용 현황

첫째, 어린이집에 다니는 패널아동은 61.2%이며, 시간제 보육은 37.7%가 이용하고 있어서 높은 어린이집 이용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0세반에 해당하는 패널아동 중 다수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아기 특성을 잘 반영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운영이나 양육지원에 있어 영아 중심의 관점이 필요하겠다.

둘째, 패널아동의 부모-어린이집 담임교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들은 부모-어린이집 담임교사 간 소통 정도 및 만족도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고,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도 주당 소통횟수를 평균 4.76회 등으로 답하였다. 이는 부모의 행사 참여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 행사 참여 정도에 대해 부모 중 79.1%가 참여하는 편 또는 매우 참여한다고 답하였고, 참여 정도는 5점 평균 4.00점으로 높았다.

셋째,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과정, 물리적 환경, 어린이집과의 소통, 담임교사, 개별지도 및 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5점 척도에서 모두 4점 이상으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사교육 기관 중 반일제 이상 기관은 0.9%, 비용은 평균 21만 1천원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문화센터는 11.7%, 학습지와 개인교습은 각각 1.2%가 이용하고 있었다.

## 2) 어린이집 환경

첫째, 패널아동의 79.6%는 어린이집에서 단일 연령반에 재원 중이며, 나머지는 혼합 연령반에 속하였다. 한 반의 영아 수를 살펴보았을 때 성비 즉, 남아와 여아의 수는 유사하였으며, 아동 대 교사 비율은 2.32대 1로 보고되었다.

둘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주중 근무시간은 평균 8.34시간이며, 주말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4.31일이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6.45시간이었다. 일과 운영 외에도 보육일지, 행정업무, 청소 등의 부가업무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고, 어린이집 토요일 운영으로 주말 근무가 빈번히 일어나 보조인력 및 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유보통합을 통해 기관의 운영시간을 새롭게 발표하였고, 돌봄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교사의 근무시간과 실제 보육시간에도 관심을 가지고 영유아와 보육교사 모두를 위한 근무환경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소진 정도는 평균 1.66점으로 낮았지만, 하위 항목 중 '정서적 고갈'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근무환경이나 보상 등과 더불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보육교사가 정서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영아를 보육하는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나 컨설팅 등에서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

넷째, 교사의 직무만족도 하위 항목 중 '보상'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그간 정부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등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교사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보육교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나 수고로움 등에 비해 보상 받는 정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다수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책적 과제일 것이다.

다섯째, 영아 보육에도 디지털미디어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미디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20.0%로 높았고, 이용 빈도도 주당 평균 1.99회

이고, 회당 11.76분을 사용하였다.

### 3) 기관에서의 아동 생활

영아의 기관적응 정도는 4.20점(5점 척도)로 기관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라.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 1) 지역사회 환경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지역사회 환경의 깨끗함이나 시설 이용 항목에 비해 인도와 도로 주변의 안전 및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시설의 충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통해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등을 확대나 접근성 제고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정책 특성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기관에서의 육아지원기능 강화' 순으로 원하는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응답하였다.

둘째, 육아지원제도 중 현금 관련 정책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자녀장려세제, 공공요금할인,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장려세제를 제외한 모든 제도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인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중요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출산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해당 정책들의 경우 중요도가 4.5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5점 척도). 한편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이 정책들의 이용 여부 및 이용 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이용 시 만족도 점

수는 모두 3.5~3.7점으로 분포하였으며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부모급여’이었다(3.68점).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주양육자에게 육아지원제도 중 현물 및 바우처 관련 정책인 보육료, 유아학비,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방과후 과정, 아이돌봄지원사업, 다함께 돌봄/늘봄학교, 첫만남 이용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금 관련 육아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현물/바우처 관련 육아지원제도 역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특히 어머니의 90% 이상이 첫만남 이용권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 모두 현물/바우처 관련 육아지원제도 중 보육료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유아학비 등에 있어 4.5점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물/바우처 관련 육아지원제도 만족도를 살펴보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만족도가 4.2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4.11점, 아이돌봄지원사업과 보육료가 각각 4.06점으로 차례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육아지원제도 중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90% 이상이나 나머지 제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각각의 제도 이용률은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더 높았다. 이용 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도는 아버지는 시차출퇴근제, 어머니는 원격근무제이었다. 중요도 평가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육아휴직을 가장 높게 보고하였다.

# IV

## 2차년도(2023년) 심층조사 결과

- 01 심층조사 참여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 02 1세 영아의 생활시간
- 03 1세 영아의 언어 발달
- 04 부모-자녀 상호작용





## IV. 2차년도(2023년) 심층조사 결과

### 1. 심층조사 참여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심층조사는 본조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그 시기 아동의 발달이나 부모의 양육에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는 변인을 선정하여 전체 패널가구 중에서 일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이다. 2030년까지의 전체 조사 기간 중 총 세 차례의 심층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sup>21)</sup>, 그 1차조사는 2023년에 실시하였다. 2023년은 아동의 연령이 1세 후반에 해당하므로 언어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발달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영아의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그들의 생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추후 종단데이터를 구축하여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1차 심층조사는 2023년도 조사에 참여한 전체 가구 중에서 40가구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추출을 통해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였으나 일부 가구에서 조사 참여를 거부하여 조사 후반에는 대체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심층조사에 참여한 패널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 특성은 <표 IV-1-1>, 부모 특성은 <표 IV-1-2>, 가구 특성은 <표 IV-1-3>에서 제시하였다.

21) 1차 심층조사는 2023년(영아기)에 실시하였으며, 2026년(유아기), 2029년(학령기)에 실시 예정임.

〈표 IV-1-1〉 심층조사 참여 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397)	아동 성별	
아동 월령		남	50.4(200)
16~17개월	25.7(102)	여	49.6(197)
18~19개월	26.8(146)	출생순위	
20~21개월	23.9( 95)	첫째	64.0(254)
22~23개월	12.6( 54)	둘째	28.2(112)
		셋째 이상	7.8( 3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 IV-1-2〉 심층조사 참여 부모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364)	전체	100.0(268)
어머니 연령		아버지 연령	
25세 미만	0.3( 1)	25세 미만	-
25~30세 미만	9.9( 36)	25~30세 미만	4.1( 11)
30~35세 미만	44.2(161)	30~35세 미만	27.6( 74)
35~40세 미만	36.0(131)	35~40세 미만	45.9(123)
40세 이상	9.6( 35)	40세 이상	21.6( 58)
평균(표준편차)	34.28세(3.87)	무응답	0.8( 2)
어머니 최종학력		평균(표준편차)	36.61세(4.49)
중졸이하	0.3( 1)	아버지 최종학력	
고등학교	13.7( 50)	중졸이하	-
전문대(기능대학)	17.3( 63)	고등학교	15.3( 41)
대학교	59.3(216)	전문대(기능대학)	13.1( 35)
대학교 석사	9.1( 33)	대학교	64.6(173)
대학교 박사	0.3( 1)	대학교 석사	6.0( 16)
대학교 박사	0.3( 1)	대학교 박사	1.0( 3)
어머니 취업 여부		아버지 취업 여부	
취업 중	52.5(191)	취업 중	97.4(261)
출산 후 복직 및 취업	73.8(141)	취업 중	
휴직 중(육아휴직+기타휴직)	23.6( 45)	육아휴직 이용	21.5( 56)
무응답/확인불가 등	2.6( 5)	육아휴직 미이용	63.2(165)
학업 중	1.1( 4)	해당사항 없음	15.3( 40)
미취업/미취학	46.4(169)	학업 중	-
		미취업/미취학	2.6( 7)
어머니 근로소득		아버지 근로소득	
없음	47.5(173)	없음	2.6( 7)
300만원 이하	41.5(151)	300만원 이하	27.6( 74)
301~500만원	9.1( 33)	301~500만원	56.7(152)
501~700만원	1.7( 6)	501~700만원	10.5( 28)
701만원 이상	0.3( 1)	701만원 이상	2.6( 7)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 IV-1-3〉 심층조사 참여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397)	부모 결혼기간*	
부모 결혼상태		1년 이하	-
유배우	91.9(365)	2~3년	21.2( 84)
별거	-	4~5년	33.2(132)
이혼	0.3( 1)	6년 이상	36.8(146)
사별	-	무응답	8.8( 35)
미혼	-	무응답	8.8( 35)
무응답	7.8( 31)	지역 규모	
저소득층 여부		대도시(광역시/동)	37.0(147)
저소득층 아님	99.2(394)	중소도시(비광역시/동)	51.4(204)
저소득층임	0.8( 3)	읍·면	11.6( 46)
다문화 가구 여부		가구소득	
다문화 가구 아님	96.5(383)	300만원 이하	13.9( 55)
다문화 가구임	3.5( 14)	301~500만원	57.2(227)
맞벌이 여부		501~700만원	21.9( 87)
맞벌이	48.9(130)	701만원 이상	7.0( 28)
맞벌이 아님	51.1(13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2. 1세 영아의 생활시간

1세 영아의 생활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평범한 주중 및 주말 하루의 영아의 생활시간을 조사하였다. 조사 양식은 해당 가구에 우편으로 사전에 발송하여 기준일에 부모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조사일에 조사원과 함께 회상하여 완성하도록 하였다. 시간은 밤 중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30분 단위로 조사를 하였기에 24시간 기준이 아니며, 특정 행동의 소요시간이 과대 산출될 수 있음을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IV-2-1〉 생활시간 행동영역 분류

구분	항목
개인유지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 휴식 및 개인 양육 받기, 기타 일상활동
학습	학원 및 학원 관련 학습, 미디어 매체를 통한 학습, 개인교습 등의 학습, 특기와 적성 관련 활동, 기타 학습활동
대리양육이용	기관이용, 양육도우미
가정관리 돕기	음식 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미디어 이용, 종교 활동 참여 및 종교 관련 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놀이, 따라가기, 아무것도 안하고 쉬, 기타 여가 관련 행동
이동하기	개인유지 관련 이동, 학습 관련 이동, 대리양육 전후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기타 이동하기,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기타행동

주: 도남희·박진아·예한나(2019). 유아 생활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5-26.

아동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위 비율이란 각 행동영역별로 참여한 영아의 비율을 뜻하며, 행위 평균은 각 행동영역을 영아가 행동한 평균 시간을 의미한다.

개인유지 행동은 모든 영아들이 참여하였으며, 주중 행위 평균 10시간 54분, 주말 행위 평균 12시간 40분으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영아기의 특성이 나타나는 결과이다. 주중에는 대리양육이용 비율이 61.2%이나 주말에는 0.3%로 대폭 줄어들며, 주중 행위 평균은 6시간 28분이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 주중 93.0%, 주말 99.2%의 영아가 참여하였으며, 주중(2시간 56분)보다 주말 행위 평균이 좀 더 증가하여 4시간 32분이었다.

〈표 IV-2-2〉 아동의 생활시간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주중			주말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개인유지	100.0	10:54	10:54	100.0	12:40	12:40
학습	60.2	0:53	0:32	60.0	0:58	0:35
대리양육이용	61.2	6:28	3:58	0.3	8:00	0:01
가정관리 돕기	1.3	1:24	0:01	4.8	0:36	0:02
교제 및 여가활동	93.0	2:56	2:44	99.2	4:32	4:30
이동하기	64.0	1:14	0:47	47.1	1:06	0:31
기타행동	10.8	0:46	0:05	38.5	1:46	0:4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행위 평균: 행위자 대상, 전체 평균: 비행위자 포함 전체 대상

### 가. 영역별 생활시간 사용

각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유지 영역에서는 수면은 100%이며, 개인관리, 식사 및 간식의 행위비율은 90% 이상이었다. 하루 중 식사 및 간식은 평균 2~3시간 정도, 개인관리에는 평균 1시간 40분~2시간 정도 할애한다고 보고되었다.

〈표 IV-2-3〉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개인유지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주중			주말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개인유지	100.0	10:54	10:54	100.0	12:40	12:40
-수면	100.0	7:05	7:05	100.0	7:34	7:34
-식사 및 간식	99.5	2:06	2:06	99.8	2:54	2:53
-개인관리	97.0	1:41	1:38	96.7	2:05	2:01
-건강관리	1.5	1:05	0:01	1.3	1:12	0:01
-개인양육받기	0.8	0:40	0:00	0.0	0:00	0:00
-기타 일상활동	7.6	0:52	0:04	11.8	1:35	0:1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행위 평균: 행위자 대상, 전체 평균: 비행위자 포함 전체 대상

학습 영역에서는 학과 학습 외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주중과 주말 각각 59.7%, 59.2%이었다. 학과 학습 외 활동의 행위 평균은 약 50분~1시간 정도였는데 문화센터 활동 등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여겨진다.

〈표 IV-2-4〉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학습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주중			주말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학습	60.2	0:53	0:32	60.0	0:58	0:35
-학습 활동	0.5	0:30	0:00	0.3	0:30	0:00
-학과 학습 외 활동	59.7	0:52	0:31	59.2	0:58	0:34
-놀이 학습	1.0	0:38	0:00	0.5	0:45	0:00
-기타	0.8	0:40	0:00	1.3	0:30	0:0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행위 평균: 행위자 대상, 전체 평균: 비행위자 포함 전체 대상



대리양육이용은 대부분 기관 이용에 해당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용 비율로 보인다. 평균 행위 평균이 6시간 28분으로 산출되었는데 시간제 보육 이용 시간과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 이용 시간의 평균으로 여겨진다.

〈표 IV-2-5〉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대리양육이용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주중			주말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대리 양육	61.2	6:28	3:58	0.3	8:00	0:01
-기관이용	61.2	6:28	3:58	0.3	8:00	0:01
-양육도우미	0.0	0:00	0:00	0.0	0:00	0:0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행위 평균: 행위자 대상, 전체 평균: 비행위자 포함 전체 대상

가정관리 돕기에 참여하는 영아는 주중에는 1.3%, 주말에는 4.8% 정도이며, 대부분 음식 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돕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 돕기 행위 평균은 주중 1시간 24분, 주말 36분으로 보고되었다.

〈표 IV-2-6〉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가정관리 돕기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주중			주말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가정관리 돕기	1.3	1:24	0:01	4.8	0:36	0:02
-음식 준비 및 정리	0.5	0:30	0:00	3.3	0:30	0:01
-의류관리 돕기	0.0	0:00	0:00	0.3	0:30	0:00
-청소 및 정리 돕기	0.8	0:50	0:00	1.5	0:45	0:01
-기타 가정관리 돕기	0.3	3:30	0:01	0.0	0:00	0:0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행위 평균: 행위자 대상, 전체 평균: 비행위자 포함 전체 대상

교제 및 여가 활동 중에서 실외놀이에 주중 44.6%, 주말 61.7%의 영아가 참여하고, 실내놀이에 주중 82.4%, 주말 92.4%의 영아가 참여하고 있었다. 주중보다 주말에 놀이 행위 비율 및 행위 평균이 모두 증가하였다. 미디어 이용 비율은 주중 44.6%, 주말 63.7%로 실외놀이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행위 평균은 주중 56분, 주말 1시간 5분으로 주말에 다소 증가하였다.

〈표 IV-2-7〉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교제 및 여가활동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주중			주말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교제 및 여가 활동	93.0	2:56	2:44	99.2	4:32	4:30
-교제 활동	16.4	1:00	0:10	23.7	1:34	0:22
-미디어 이용	44.6	0:56	0:25	63.7	1:05	0:41
-종교 관련 활동	0.3	1:30	0:00	2.3	1:40	0:02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0.0	0:00	0:00	3.5	1:30	0:03
-실외놀이	44.6	1:16	0:34	61.7	1:26	0:53
-실내놀이	82.4	1:51	1:31	92.4	2:14	2:04
-따라 하기	5.3	0:50	0:03	29.5	1:15	0:22
-아무 것도 안하고 쉬	1.0	0:45	0:00	5.5	0:44	0:02
-기타 여가관련 활동	1.0	0:45	0:00	0.3	2:30	0:0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행위 평균: 행위자 대상, 전체 평균: 비행위자 포함 전체 대상

이동하기 행동 중에서는 대리양육이용 전후 이동이 49.9%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 평균 58분에 해당하였다. 기타 이동하기의 경우 주중에는 30.5%, 주말에는 44.8%이었다.

〈표 IV-2-8〉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이동하기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주중			주말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이동하기	64.0	1:14	0:47	47.1	1:06	0:31
-개인유지관련 이동	1.5	0:30	0:00	4.3	0:30	0:01
-학습관련 이동	0.3	0:30	0:00	0.0	0:00	0:00
-대리양육이용 전후 이동	49.9	0:58	0:29	0.0	0:00	0:00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2.8	1:00	0:02	5.5	0:56	0:03
-기타 이동하기	30.5	0:52	0:16	44.8	0:59	0:27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0.3	1:00	0:00	0.0	0:00	0:0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행위 평균: 행위자 대상, 전체 평균: 비행위자 포함 전체 대상

## 나. 특성별 생활시간 사용

생활시간 사용에 대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각 행동영역별로 동반자가 누구인지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학습, 대리양육이용, 이동하기 등에서 남아보다 여아의 행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2-9〉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주중						주말					
	남아			여아			남아			여아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행위 비율	행위 평균	전체 평균
개인유지	100.0	10:56	10:56	100.0	10:51	10:51	100.0	12:36	12:36	100.0	12:44	12:44
학습	58.2	0:53	0:31	62.2	0:53	0:33	55.2	0:50	0:28	64.8	1:05	0:42
대리양육이용	58.7	6:37	3:53	63.8	6:19	4:02	0.0	0:00	0:00	0.5	8:00	0:02
가정관리 돕기	1.5	0:40	0:01	1.0	2:30	0:02	5.5	0:35	0:02	4.1	0:38	0:02
교제 및 여가활동	93.0	3:03	2:50	92.9	2:49	2:37	99.5	4:28	4:26	99.0	4:37	4:34
이동하기	60.7	1:14	0:45	67.4	1:14	0:50	57.2	1:10	0:40	36.7	0:59	0:22
기타행동	10.0	0:44	0:04	11.7	0:48	0:06	41.3	1:57	0:48	35.7	1:34	0:34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행위 평균: 행위자 대상, 전체 평균: 비행위자 포함 전체 대상

다음으로, 행동영역별로 동반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인유지 행동에는 수면, 식사 등이 포함되므로 혼자 하는 비율이 20.5% 정도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어머니와 함께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하는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꽤 높는데, 가정관리 행동을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기 때문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IV-2-10〉 생활시간 행동영역별 동반자

단위: %

행동영역	혼자	동반자						
		부	모	조부모	형제 자매	친구	선생님	기타
전체	14.7	7.6	47.7	2.5	9.2	0.6	17.2	0.6
개인유지	20.5	5.6	60.4	1.9	9.7	0.2	1.4	0.3
학습	6.4	27.5	55.7	1.3	8.0	0.2	0.4	0.6
대리양육이용	0.0	0.0	0.5	0.0	0.0	0.2	98.9	0.4
가정관리 돕기	10.3	1.7	63.8	3.4	20.7	0.0	0.0	0.0
교제 및 여가활동	16.3	14.9	44.9	4.8	14.1	1.6	2.1	1.3
이동하기	1.4	2.8	57.4	4.3	7.9	2.1	22.9	1.2
기타행동	2.0	10.3	57.8	9.3	15.1	1.9	1.9	1.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전체 시간의 경우 평일 1, 주말 1을 각각 평균을 계산 후 평일 5, 주말 2를 곱하는 방식으로 추정함.

3) 동반자 비율은 각각의 행위자(동반자)별 평균 전체를 합산 후 행위자(동반자)별 평균 비율을 산출한 값임.

아동의 행동영역별 동반자 비율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산출한 결과는 〈표 IV-2-11〉과 〈표 IV-2-12〉와 같다.



〈표 IV-2-11〉 생활시간 행동영역별 동반자: 주중

단위: %

행동영역	혼자	동반자						
		부	모	조부모	형제 자매	친구	선생님	기타
전체	13.8	4.6	46.6	2.5	7.5	0.6	23.9	0.5
개인유지	20.0	3.7	62.8	2.1	8.9	0.2	2.0	0.3
학습	6.7	20.4	62.1	1.5	7.7	0.2	0.5	0.7
대리양육이용	0.0	0.0	0.5	0.0	0.0	0.2	98.9	0.4
가정관리 돕기	0.0	0.0	71.4	0.0	28.6	0.0	0.0	0.0
교제 및 여가활동	18.0	9.6	48.8	5.2	12.0	2.1	3.3	1.0
이동하기	0.9	1.6	55.0	5.2	5.2	2.3	28.5	1.3
기타행동	3.2	3.2	50.0	16.1	19.4	0.0	8.1	0.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동반자 비율은 각각의 행위자별 평균 전체를 합산 후 행동자별 평균 비율을 산출한 값임.

〈표 IV-2-12〉 생활시간 행동영역별 동반자: 주말

단위: %

행동영역	혼자	동반자						
		부	모	조부모	형제 자매	친구	선생님	기타
전체	17.1	15.1	50.4	2.6	13.5	0.5	0.1	0.8
개인유지	21.6	9.6	55.3	1.6	11.4	0.1	0.0	0.3
학습	5.6	44.0	40.5	0.9	8.7	0.0	0.0	0.2
대리양육이용	0.0	0.0	0.0	0.0	0.0	0.0	100.0	0.0
가정관리 돕기	26.1	4.3	52.2	8.7	8.7	0.0	0.0	0.0
교제 및 여가활동	13.5	23.6	38.5	4.1	17.6	0.9	0.2	1.8
이동하기	3.3	7.1	66.6	1.1	18.4	1.1	1.4	1.1
기타행동	1.6	12.6	60.2	7.1	13.8	2.4	0.0	2.2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동반자 비율은 각각의 행위자별 평균 전체를 합산 후 행동자별 평균 비율을 산출한 값임.

### 다. 주요 행동영역의 시간대별 비율

아동의 주요 행동영역 중에서 기관 이용, 미디어 이용, 실내놀이, 실외놀이 비율을 조사범위인 5:00부터 24:00(23:30까지 30분 단위로 응답)까지 살펴보았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기관 이용의 경우 8시부터 행위 비율이 나타나며 10시 30분 및 11시에 59.7%로 가장 행위 비율이 높았다. 어린이집 기본보육반 하원 시간인 15시부터 17시 사이에 행위 비율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며, 20시 이전까지 행위 비율이 나타났다.

둘째, 미디어 이용에 있어 주중 비율과 주말 비율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주중에는 17시 30분에 10.6%로 행위비율이 가장 높았다. 오전에는 11시 30분에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말에는 오전 11시 30분에 16.4%로 가장 행위비율이 높았으며, 오후에는 17시~17시 30분에 7.3%로 가장 높았다. 주중과 주말 모두 6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행위비율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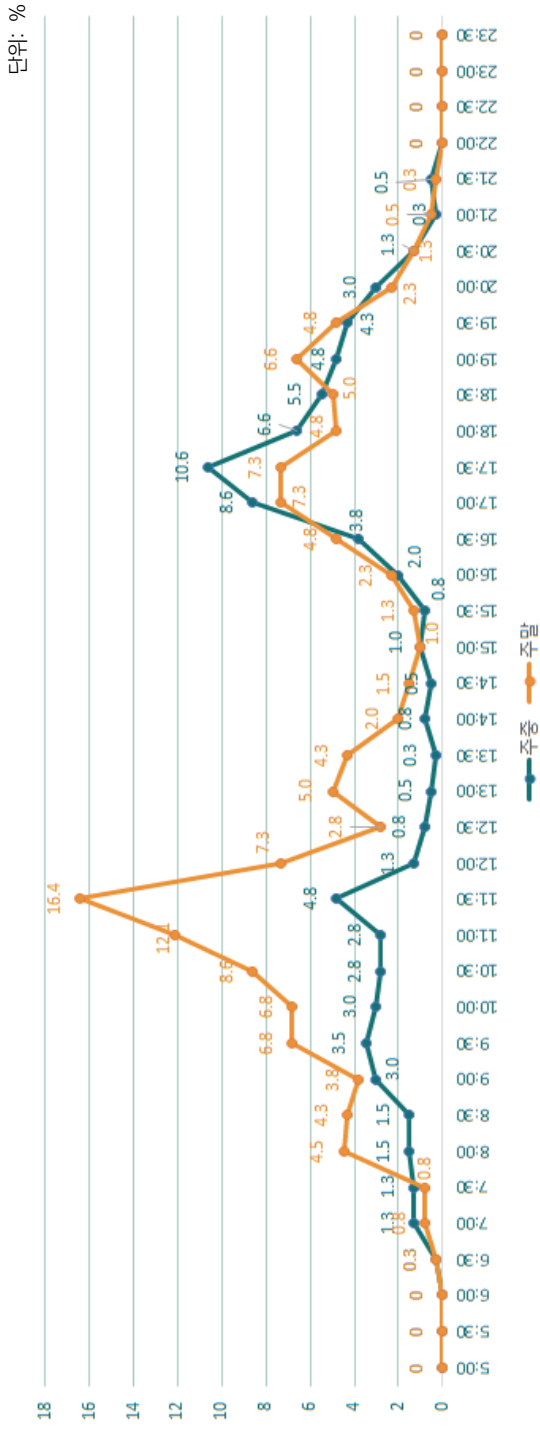
셋째, 실내외 놀이 비율을 주중과 주말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실내놀이의 경우 주중에는 최대 28.7%(19시), 25.2%(17시 30분), 주말에는 최대 35.5%(10시 30분)의 행위비율을 보였다. 주중에는 6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실내놀이 행위비율이 나타났으며, 주말에는 6시부터 22시까지 행위비율이 나타났다. 실외놀이의 경우, 주중에는 17.6%(16시 30시), 주말에는 19.7%(16시)의 비율을 보였다. 주중에는 6시부터 21시까지, 주말에는 7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실외놀이 행위비율이 나타났다.

[그림 IV-1-1] 시간대별 주중 기관이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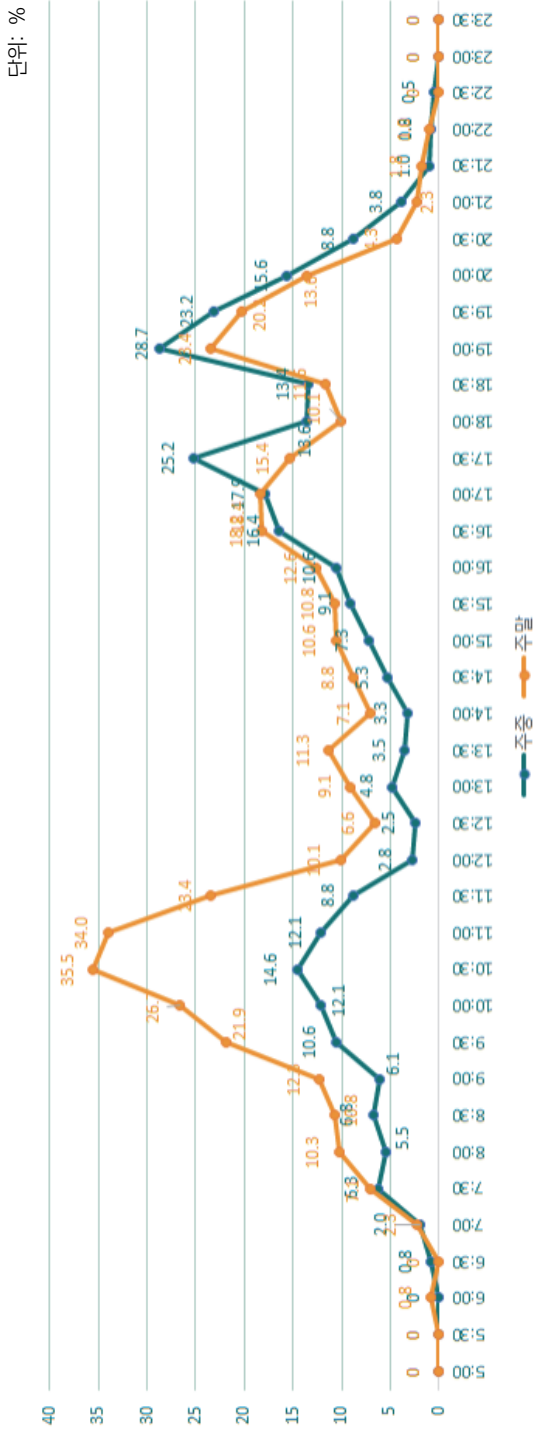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중앙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그림 IV-1-2] 시간대별 미디어이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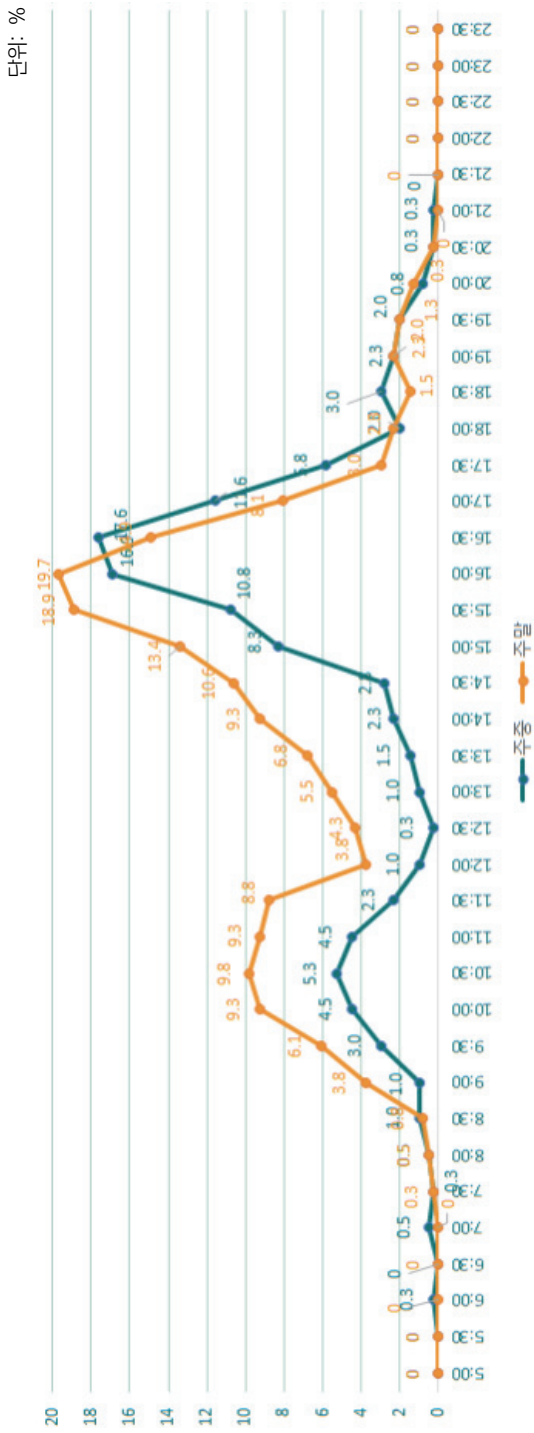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그림 IV-1-3] 시간대별 실내놀이 비율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중앙육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그림 IV-1-4] 시간대별 실외놀이 비율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3. 1세 영아의 언어 발달

1세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로 나누어지며, 월령이 17개월 이전은 제스처, 18개월 이후는 문법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해석은 백분위수 1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어휘 발달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백분위수 2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어휘 발달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이의 의미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배소영·곽금주, 2011: 26).

표현발달 즉 어휘를 표현하는 능력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는 7.8%,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5.6%이었다. 월령에 따른 차이는 발달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성별의 차이는 여아의 어휘 발달이 남아보다 다소 빠르게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표 IV-3-1〉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표현발달(16~23개월)

구분	백분위수					계(수)
	10	25	50	75	90	
전체	7.8	5.6	9.6	17.7	59.3	100.0(405)
아동 월령						
16~17개월	11.3	10.4	18.6	47.5	12.3	100.0( 81)
18~19개월	9.7	6.2	11.6	18.6	53.9	100.0( 97)
20~21개월	7.9	6.3	5.9	6.4	73.4	100.0( 96)
22~23개월	4.0	1.8	5.2	6.9	82.2	100.0(131)
$\chi^2(df)$			124.59(12)***			
아동 성별						
남	8.7	5.8	11.0	23.4	51.2	100.0(207)
여	6.8	5.5	8.1	11.8	67.8	100.0(198)
$\chi^2(df)$			13.94(4)**			
출생순위						
첫째	6.8	6.4	9.4	16.6	60.8	100.0(264)
둘째	8.7	4.7	9.2	18.0	59.3	100.0(110)
셋째 이상	12.1	2.5	12.1	26.6	46.7	100.0( 32)
$\chi^2(df)$			n.a.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1.9	7.8	10.4	17.1	52.8	100.0( 57)
301~500만원	8.3	4.5	12.2	16.2	58.8	100.0(230)
501~700만원	6.3	7.0	4.5	19.4	62.8	100.0( 89)
701만원 이상	-	5.7	2.4	25.9	65.7	100.0( 29)
$\chi^2(df)$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1$ , \*\*\*  $p < .001$ .

이해날말 영역은 17개월 이하의 영아에게만 해당하는 검사이다.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아는 12.1%,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영아는 8.3%이었다.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3-2〉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이해날말(16~17개월)

단위: %(명)

구분	백분위수 10	백분위수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90	계(수)
전체	12.1	8.3	10.8	14.3	53.5	100.0(81)
아동 월령						
16개월	10.8	7.0	11.5	19.0	51.7	100.0(21)
17개월	13.9	8.8	10.6	12.7	54.1	100.0(60)
$\chi^2(df)$			n.a.			
아동 성별						
남	17.7	3.3	9.9	5.0	64.2	100.0(47)
여	6.9	15.2	12.1	27.1	38.8	100.0(34)
$\chi^2(df)$			n.a.			
출생순위						
첫째	11.8	8.3	6.8	18.0	55.2	100.0(45)
둘째	10.6	7.9	20.1	9.7	51.8	100.0(29)
셋째 이상	30.5	9.9	-	9.8	49.9	100.0( 8)
$\chi^2(df)$			n.a.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5	13.8	15.2	19.7	46.8	100.0(16)
301~500만원	20.9	9.4	10.1	15.7	43.9	100.0(48)
501~700만원	-	-	8.5	-	91.5	100.0( 9)
701만원 이상	-	-	8.8	10.6	80.6	100.0( 9)
$\chi^2(df)$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제스처 영역 또한 17개월 이하 영아에게만 해당하는 검사이다. 제스처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능력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된다고 나타난 비율이 24.1%인데, 이와 같은 결과의 해석을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3-3〉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제스처(16~17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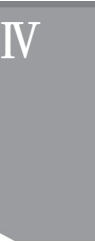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백분위수 10	백분위수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90	계(수)
전체	24.1	6.0	21.2	7.5	41.3	100.0(81)
아동 월령						
16개월	24.1	4.4	34.4	8.5	28.7	100.0(21)
17개월	24.1	6.4	16.6	7.2	45.7	100.0(60)
$x^2(df)$			n.a.			
아동 성별						
남	25.3	6.6	8.0	8.0	52.1	100.0(47)
여	22.5	4.9	39.1	6.9	26.6	100.0(34)
$x^2(df)$			n.a.			
출생순위						
첫째	15.0	8.9	26.5	8.3	41.2	100.0(45)
둘째	27.3	2.7	18.4	2.6	49.1	100.0(29)
셋째 이상	66.1	-	-	21.1	12.9	100.0( 8)
$x^2(df)$			n.a.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3.2	4.8	25.0	9.2	37.9	100.0(16)
301~500만원	33.2	4.9	26.0	1.7	34.2	100.0(48)
501~700만원	-	8.5	-	29.8	61.7	100.0( 9)
701만원 이상	-	10.6	8.8	14.2	66.4	100.0( 9)
$x^2(df)$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18개월 이상 영아에게 해당하는 문법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발달지연 의심 비율은 12.5%,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비율은 26.8%이었다. 이렇게 백분위수 75% 미만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패널 영아의 월령이 이제 문법발달이 시작하는 시기(즉, 검사대상 월령의 시작시점)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IV-3-4〉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문법(18~23개월)

단위: %(명)

구분	백분위수 9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25	계(수)
전체	12.5	26.8	15.1	45.6	100.0(324)
아동 월령					
18~19개월	10.2	10.2	11.0	68.6	100.0( 97)
20~21개월	13.2	13.7	15.0	58.2	100.0( 96)
22~23개월	13.8	48.7	18.2	19.4	100.0(131)
$\chi^2(df)$		76.76(6)***			
아동 성별					
남	10.5	23.8	14.5	51.2	100.0(160)
여	14.5	29.8	15.6	40.2	100.0(164)
$\chi^2(df)$		4.42(3)			
출생순위					
첫째	14.4	26.1	15.5	44.0	100.0(219)
둘째	9.0	30.6	15.1	45.3	100.0( 81)
셋째 이상	7.2	20.2	11.2	61.5	100.0( 24)
$\chi^2(df)$		4.32(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5.9	22.0	15.9	36.1	100.0( 41)
301~500만원	6.5	27.7	14.5	51.3	100.0(182)
501~700만원	16.0	28.0	16.9	39.1	100.0( 80)
701만원 이상	25.8	23.4	11.1	39.8	100.0( 20)
$\chi^2(df)$		19.02(9)*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  $p < .001$ .

#### 4.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응답하는 부모-자녀상호작용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분석하였다. 부모-자녀상호작용검사는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검사이다<sup>22)</sup>. 부모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하위영역은 〈표 IV-4-1〉과 같다.

22) 인사이트. 부모-자녀상호작용검사, [https://inspyt.co.kr/psy/item/view/IBS\\_CO\\_SG\(2024. 10. 16. 인출\)](https://inspyt.co.kr/psy/item/view/IBS_CO_SG(2024. 10. 16. 인출)).

〈표 IV-4-1〉 부모-자녀 상호작용 하위영역

척도	하위요인	내용
부모 상호작용행동 척도 (IBS-P)	반응성	일상에서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정도를 진단한다.
	효율성	일상에서 부모가 아동의 주의, 협력,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아동과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진단한다.
	지시성	일상에서 부모가 아동에게 먼저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정도를 진단한다.
아동 상호작용행동 척도 (IBS-P)	사회적 상호작용	아동이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을 공유하며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진단한다.
	주도성	아동이 주변사물을 탐색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상대방의 주의를 끌어들이면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진단한다.
	표현성	아동이 상대방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감정, 생각, 의견을 언어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정도를 진단한다.
	조절행동	아동이 상대방의 제안이나 요구를 수용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정도를 진단한다.

자료: 인사이트. 부모-자녀상호작용검사, [https://inpsyt.co.kr/psy/item/view/IBS\\_CO\\_SG\(2024. 10. 16. 인출\)](https://inpsyt.co.kr/psy/item/view/IBS_CO_SG(2024. 10. 16. 인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가 평가한 자신의 상호작용은 51.00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반응성은 25.11점, 효율성은 10.69점, 지시성은 15.23점이었다. 아동의 특성 즉, 월령,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4-2〉 부모 상호작용행동 영역(IBS-P)

단위: 점(명)

구분	전체		반응성		효율성		지시성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1.00	6.86	25.11	2.61	10.69	3.79	15.23	3.90	(395)
아동 월령									
16~17개월	51.14	6.28	25.01	2.81	10.90	3.53	15.24	3.62	( 94)
18~19개월	51.18	6.40	25.31	2.42	10.47	3.35	15.40	3.81	(150)
20~21개월	49.87	6.98	24.65	2.78	10.50	4.05	14.72	4.22	( 85)
22~23개월	52.03	8.32	25.39	2.48	11.16	4.69	15.48	4.10	( 66)
<i>F</i>	1.13		1.50		0.66		0.67		
아동 성별									
남	51.30	7.64	25.11	2.54	11.04	4.12	15.15	3.98	(197)
여	50.75	5.98	25.11	2.69	10.35	3.41	15.30	3.83	(199)
<i>t</i>	0.80		0.02		1.84		-0.39		
출생순위									
첫째	50.78	6.84	25.13	2.53	10.58	3.62	15.07	3.92	(258)
둘째	51.49	7.03	24.97	2.78	10.90	4.06	15.62	4.03	(109)
셋째 이상	51.53	6.44	25.46	2.78	10.93	4.32	15.14	3.25	( 28)

구분	전체		반응성		효율성		지시성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i>F</i>	0.49		0.41		0.33		0.7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2.63	6.81	24.22 <sup>a</sup>	3.06	11.98 <sup>a</sup>	4.66	16.43 <sup>b</sup>	3.42	( 58)
301~500만원	51.01	6.60	25.34 <sup>a</sup>	2.55	10.43 <sup>a</sup>	3.54	15.24 <sup>ab</sup>	3.73	(222)
501~700만원	50.43	7.02	25.12 <sup>a</sup>	2.33	10.56 <sup>a</sup>	3.43	14.75 <sup>ab</sup>	4.36	( 86)
701만원 이상	49.68	8.12	25.06 <sup>a</sup>	2.61	10.54 <sup>a</sup>	4.41	14.07 <sup>a</sup>	4.26	( 29)
<i>F</i>	1.66		2.88 <sup>*</sup>		2.69 <sup>*</sup>		3.17 <sup>*</sup>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25	6.98	25.30	2.63	10.71	3.96	15.23	4.04	(119)
맞벌이 아님	51.44	6.86	24.70	2.99	11.05	3.86	15.70	3.55	(132)
<i>t</i>	-0.22		1.71		-0.68		-0.9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점 척도이며(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그렇다), 반응성 7문항(7~28점), 효율성 7문항(7~28점), 지시성 7문항(7~28점), 총 21문항(21~84점)임.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sup>\*</sup>  $p < .05$ .

부모가 평가한 아동의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상호작용행동 점수는 58.57점이며, 사회적 상호작용 10.78점, 주도성 19.07점, 표현성 19.69점, 조절행동 9.01점이었다. 아동의 상호작용에서도 아동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만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아동인 경우 비맞벌이 가구의 아동보다 주도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표 IV-4-3〉 아동 상호작용행동 영역(IFS-C)

단위: 점(명)

구분	전체		사회적 상호작용		주도성		표현성		조절행동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8.57	7.94	10.78	4.32	19.07	3.14	19.69	2.89	9.01	3.21	100.0(390)
아동 월령											
16~17개월	59.76	7.78	11.26	4.29	19.21	3.00	19.77	3.00	9.53	3.09	100.0( 91)
18~19개월	57.65	7.58	10.71	4.01	18.84	3.03	19.34	3.00	8.75	3.11	100.0(151)
20~21개월	58.62	7.56	10.56	4.79	19.44	3.20	19.75	2.74	8.87	3.22	100.0( 85)
22~23개월	59.00	9.28	10.65	4.47	18.92	3.49	20.35	2.54	9.08	3.57	100.0( 63)
<i>F</i>	1.43		0.48		0.75		1.90		1.18		
아동 성별											
남	58.88	8.70	10.83	4.51	19.19	3.07	19.68	3.12	9.24	3.40	100.0(193)
여	58.26	7.11	10.76	4.14	19.01	3.20	19.70	2.64	8.79	3.00	100.0(197)

구분	전체		사회적 상호작용		주도성		표현성		조절행동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i>t</i>	0.77		0.15		0.40		-0.07		1.37		
출생순위											
첫째	58.31	8.10	10.73	4.39	18.97	3.14	19.64	2.97	8.97	3.12	100.0(253)
둘째	59.11	7.21	10.92	4.11	19.28	3.08	19.85	2.77	9.07	3.14	100.0(107)
셋째 이상	58.85	9.12	10.95	4.65	19.14	3.43	19.60	2.57	9.16	4.20	100.0( 29)
<i>F</i>	0.41		0.10		0.36		0.21		0.0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9.22	6.89	12.76 <sup>b</sup>	4.78	18.04 <sup>a</sup>	3.07	18.62 <sup>a</sup>	2.78	9.79	3.21	100.0( 57)
301~500만원	58.08	7.72	10.40 <sup>a</sup>	3.98	18.97 <sup>ab</sup>	3.27	19.87 <sup>ab</sup>	2.81	8.85	3.03	100.0(221)
501~700만원	59.51	8.22	10.58 <sup>ab</sup>	4.38	19.91 <sup>b</sup>	2.77	20.19 <sup>b</sup>	2.77	8.82	3.46	100.0( 85)
701만원 이상	58.23	10.58	10.58 <sup>ab</sup>	4.94	19.38 <sup>ab</sup>	2.67	18.92 <sup>ab</sup>	3.44	9.35	3.75	100.0( 26)
<i>F</i>	0.81		4.76 <sup>**</sup>		4.34 <sup>**</sup>		4.50 <sup>**</sup>		1.5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8.58	8.48	10.55	4.43	19.44	3.13	19.34	3.22	9.26	3.06	100.0(116)
맞벌이 아님	58.29	8.06	11.46	4.30	18.34	3.07	19.16	2.84	9.33	3.28	100.0(129)
<i>t</i>	0.27		-1.64		2.78 <sup>**</sup>		0.45		-0.18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및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점 척도이며(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사회적 상호작용 7문항(7~28점), 주도성 6문항(6~24점), 표현성 6문항(6~24점), 조절행동 6문항(6~24점), 총 25문항(25~100점)  
 \*\*  $p < .01$ .





# V

## 향후 추진 방안 및 제언

01 향후 추진 방안

02 연구 제언





## V. 향후 추진 방안 및 제언

### 1. 향후 추진 방안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2021년도에 설계와 패널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3차년도 조사까지 진행해왔다. 2030년까지 조사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패널아동의 영아기와 유아기, 그리고 초등학교까지의 데이터를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가. 향후 조사 계획

2023년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배운진 외, 2023: 174)에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중장기 조사 계획을 [그림 V-1-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본 패널 연구를 추진하면서 조사의 주요 방향은 첫째, 조사내용에서 변화를 최소화하여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를 거치므로 그에 알맞은 조사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는 2세가 된 패널아동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 자폐 스펙트럼장애 선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변인은 조사를 지속하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만 살펴볼 수 있는 발달특징이므로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

셋째, 심층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부가조사나 면담조사를 통해 본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특정 시기에 다룬다. 심층조사는 작년(2023년도)에 실시하였으므로 2026년과 2029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부가조사<sup>23)</sup>의 경우 올해는 부모의 근무환경에 대해 실시하고 있어서 추후 분석에서 활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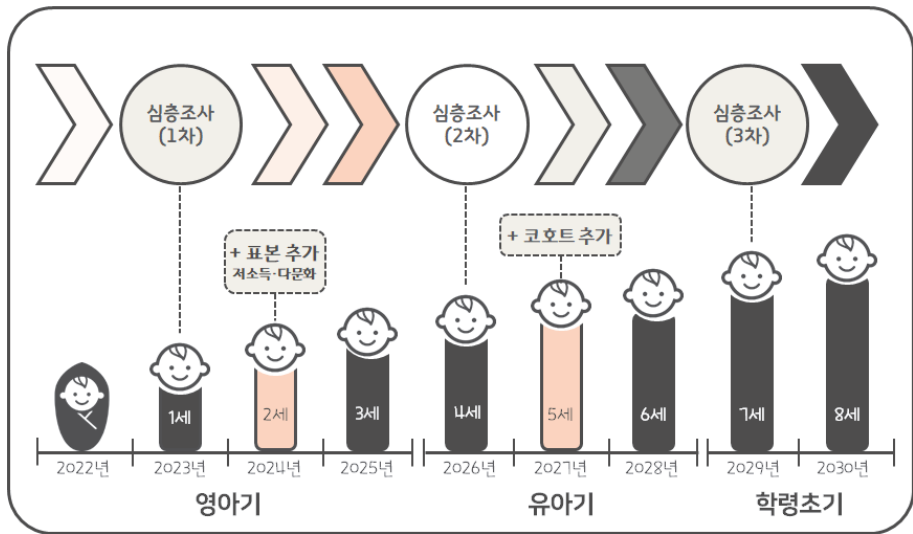
넷째, 다문화 및 저소득 가구 추가표집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었으며 이는 계

23) 해당 내용은 별도 보고서로 발간되었으며(배운진·김자연·이혜민(2024). 영아 부모의 육아기 근무환경 조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는 내년도 패널 보고서에서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획에 따라 올해 수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아 코호트 추가 구축, 행정데이터와의 결합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림 V-1-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추진 방향

- 조사의 안정성과 연속성 유지 + 영·유아기 및 아동기 특성 고려
- 심층조사·면담조사·부가조사 실시 / 행정데이터 활용



자료: 배운진 외(2023).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육아정책연구소. p. 174.

### 1) 본조사

올해 3차년도 조사까지 조사내용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조사 분량의 조정이나 내용 보완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다. 먼저, 아동 특성으로는 건강에 관한 변인을 보완하기 위해 ‘앉아있는 시간’을 추가하였으며, 영유아시기에 디지털미디어 이용에서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변인을 추가하였다. 과거 아동패널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변인이지만 현재의 생활상을 반영한 변인이라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유아기와 초등학령기까지는 현재의 변인을 유지하면서 종단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겠다.

부모 특성에서는 변인의 중요도나 활용성, 조사 참여율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인을 조사에서 제외하거나 매년 조사가 아닌 주기별 조사로 변경하였다. 그것의 경우 변화가 크지 않은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여기고 올해 조사부터 제외하였다. 이에 해당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결혼 만족도와 부부 갈등 변인은 영아기에 조사되었으므로 올해 조사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유아기 및 초등학령기에 다시 조사함으로써 매년 조사는 아니지만 생애 주기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신 올해 조사에서 추가되는 변인으로는 부모의 '가족 관계 만족도', '삶의 만족도', '(취업자 대상)일-가정 갈등' 변인이 있다. 이들 변인은 앞으로 지속하여 조사되어야 하는 변인이다.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에서는 기관에서의 교사-아동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하였다. 교사의 심리적 특성으로 소진,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나 패널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특성이 조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작년 중장기 조사 계획 수립 때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한국아동패널에서 다루었던 척도를 활용하여 교사-아동 상호작용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은 거의 그대로 변인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내용이다.

한편 내년도(2025년) 4차년도 조사 시에는 패널아동이 3세가 되고, 보육연령으로는 2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올해까지의 조사내용을 유지하면서 보육연령 3세가 되는 2026년도 조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유보통합의 추진에 따라 기관 조사의 대상이나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하겠다.

## 2) 심층조사 및 부가조사

작년 제1차 심층조사를 통해 아동의 언어 발달, 부모-자녀 상호작용, 생활시간 조사를 실시하였다(400가구 대상). 패널아동의 연령이 1세를 지난 시점에서 언어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므로 언어 발달을 변인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심층조사에서는 각 연령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발달 특성을 변인으로 삼고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능검사 혹은 학교준비도 검사를 본조사에서 다룬다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심층조사에서 다룰 수 있겠다.

생활시간조사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패널아동의 생활과 부모-자녀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앞으로 남은 두 번의 심층조사에서 지속하여 다룰 수 있는 변인이다. 따라서 이 변인에 대해서는 종단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영아기-유아기-초등학령 초기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올해 부모의 근무환경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모의 근무환경은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나 일·생활 균형, 자녀양육에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아동의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조사한 영아기의 데이터를 추후 종단분석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아기나 초등학령기에도 부가조사 형태로 근무환경을 재조사하여서 그 변화를 살펴보거나 변인 간의 관계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나. 패널 관리 계획

첫째, 작년도 조사 수행과 조사원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가구의 특성을 MZ 세대라고 표현한 바 있다(배운진 외, 2023: 170). 유선전화를 통한 사전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원활하지 않았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대면조사에 대해 거부감을 갖기도 하였다. 이러한 패널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전접촉 시에도 유선전화보다는 문자를 보내어서 웹상에서 간단히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참여 결과는 내년도(2025년) 발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가구에서 대면이 아닌 온라인 조사를 선택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온라인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올해는 인포그래픽과 카드뉴스 발간을 통해 패널 연구의 결과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패널 연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외부에 알릴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패널가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SNS를 이용하여 육아정보를 전달하면 더욱 유용할 것이라 여겨진다. 예를 들어, 패널 아동의 월령에 맞춘 아동 발달 정보나 패널가구에게 해당하는 정책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겠다.

셋째, 패널아동의 생일에 문자메시지와 함께 기프티콘을 발송하였다. 이 때 패널아동의 생일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부모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함께 발송하였는데 이 점이 패널가구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도 패널아동의 부모를 격려할 수 있는 메시지나 소소한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라포를 형성해나가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넷째, 패널가구와 조사 참여 기관에 감사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패널가구에게는 소속감을 높이고, 기관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임교사 조사에 참여한 기관에는 감사장을 통해 국가의 패널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유아기 동안 동일 기관에 2~3년 이상 재원하기도 하므로 다음 조사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패널가구를 위한 부모교육 행사를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내년에는 패널아동이 3세가 된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자녀양육 관련 내용을 주제로 하여 명사의 부모교육 강연을 준비하면 부모들의 자녀양육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패널가구로서 혜택을 경험하게 되어 패널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진다. 부모교육은 추후 유아기, 초등학교령기 때 다시 개최하여 각 시기별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패널가구에게는 패널 조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연구 제언

올해 조사를 수행하고 나면 임신기에 조사한 기초조사 데이터를 제외한 본조사 데이터가 3차년도까지 축적된다. 즉, 3개 시점 이상의 종단데이터가 구축되었으므로 다양한 분석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조사 1차년도부터 아동의 발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K-DST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심화평가권고, 추적관찰요망 등의 결과를 받은 아동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개별 아동을 중심으로 발달 정도를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통계와 비교하며 집단의 특성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심화평가권고로 나타

난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발달로 이끌기 위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패널아동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이다. 작년 심층조사를 통해 패널아동의 주중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비록 수면시간은 제외되었고 30분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진 한계는 있으나 우리나라 1세 아동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행동유형별로, 가구 특성별로, 아동 특성별로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특정 집단을 선택하여 아동의 생활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 심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초기 아동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패널아동과 부모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이다.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자녀의 디지털미디어 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영유아 시기 디지털미디어에 노출과 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종단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유아기가 되어 디지털미디어 역량에 관하여 조사하게 된다면 이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디지털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해 가정에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를 제안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부모의 우울에 대한 연구이다. 부모의 우울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임부시기인 기초조사 때부터 포함되어서 이미 3차 이상의 종단데이터가 확보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패널 연구의 데이터가 처음 공개된 올해 학술대회에서도 우울은 분석변인으로 많이 다루진 바 있다. 따라서 우울의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 임신 중, 출산 후, 자녀양육 시기에 따라 우울 양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우울에 영향을 주거나 우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변인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가능하다. 특히 앞선 2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 수준이 비교적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저소득 가구와 다문화 가구에 대한 연구이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아동의 건강상태나 신체 발달 등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지 등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가능하다.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특성에 있어서

도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이 다수 있었는데, 편견을 넘어서서 소득에 따른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다문화 가구의 경우 그들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변인들을 작년에도 다수 보완함으로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문화 수용성 등의 변인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아동의 발달에 끼치는 영향도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이탈집단 특성 분석이다. 산부인과에서의 초기 접촉에서부터 가구방문 조사까지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와 출생 시기가 맞물리면서 비교적 많은 패널가구가 조사에서 이탈하였다. 그리고 종단 조사의 특성상 매년 이탈하는 가구는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탈집단의 분석을 통해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대한소아과학회(2017). K-DST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사용지침서(개정판). 질병관리본부.
- 도남희·박진아·예한나(2019). 유아 생활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배소영·곽금주(2011).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전문가 지침서. 서울: 마인드프레스.
- 배윤진·김자연·이혜민(2024). 영아 부모의 육아기 근무환경 조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을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배윤진·박은정·김자연·조경진·이혜민·강민권(2023).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23. 12). 2023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2017).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이용지침서.
- 이정림·박은정·김자연·송신영·이혜민·이재희·이기재(202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배윤진·김자연·송신영·조경진·장현진·이기재(202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2. 육아정책연구소.
- 임지영·배윤진·이윤정(2017). 한국판 Rothbart 걸음마기 기질 척도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의 타당화. 한국아동학회지, 38(4), 33-47.
- 정은희·신재동·우선희·하은솔·김지원·박나영·김현규·이지혜·정해식·홍성운·손창균·이봉주·강상경·박정민·정원오·김화선·임은정·김건(2022).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미라·최효미·김동훈·김혜진·강민권(2023).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 (한국아동패널Ⅱ). 육아정책연구소.
- 질병관리청(2023).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2차년도(2023): 건강설문 성인(만19세 이상) 면접 조사표.

하형석·최용환·정은진·정윤미·한치형(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진구·김윤희·정윤미(2023).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Gerald D. A. (2007). Developmental Profile 3, DP-3: Manual.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Putnam, S. P., Gartstein, M. A.,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3), 386-401.

#### [인터넷 출처 자료]

인사이트. 부모-자녀상호작용검사. [https://inpsyt.co.kr/psy/item/view/IBS\\_CO\\_SG](https://inpsyt.co.kr/psy/item/view/IBS_CO_SG)(2024. 10. 16. 인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소아청소년 성장도표, <https://knhanes.kdca.go.kr/knhanes/grtcht/dwnld/dtDtl.do?pg=1&st=&sb=1&menuId=20011002&dataNo=7>(2024. 10. 16. 인출)

한국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 패널소개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21> (2024. 12. 30. 인출)

한국아동패널 > 도구프로파일 > 4차\_[교육 및 돌봄(영유아)] 아동과의 상호작용,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39&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authKey=&search\\_type=title&search\\_text=&rowCount=10&viewPage=11](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39&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authKey=&search_type=title&search_text=&rowCount=10&viewPage=11)(2024. 4. 22. 인출)

M-CHAT-R. <https://www.mchatscreen.com>(2024. 4. 22. 인출)



#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nel Study 2024

Yun-jin Bae · Jaehee Lee · Misun Yang · Kyungjin Cho · Hyemin Lee ·  
Min-gwon Kang

The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nel Study aims to collect longitudinal data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s well as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al systems, including caregiving in homes, intrinsic and extrinsic parental factors, educational and caregiving experiences in institutions,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from the prenatal stage through infancy, toddlerhood, and early childhood.

This study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to build foundational data for evaluating and formulating policies that support the happy and healthy lives for young children.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were completed to conduct this study, including literature review, investigation(3rd wave), expert advisory meetings, conference and data briefing. The third wave of 2024 will be conducted with a valid sample of 2,840 individuals who have participated in either the first or second wave. The primary caregiver and the parent surveys will be conducted using a combination of in-home interviews and online surveys, while the childcare center teacher survey will be conducted online. The survey covers child characteristics, the family's parenting environment (parent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education and childcare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institutions and childcare support services), and community and policy environment.

Additionally, an extra sample of 436 individuals is being collected. The nationwide list of childcare centers will be used as the sampling frame, and after obtaining cooperation from the institutions,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will be recruited.

The 2024 report presents the findings from the second survey conducted in 2023. A total of 2,555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second survey (primary caregiver survey), with 2,042 mothers and 1,473 fathers responding. Additionally, 309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institutional survey.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Child Characteristics) 1) The average age at which children began using digital media was between 12 and 14 months. However, the earliest age of use was 0 months, indicating that some children are exposed to digital media shortly after birth. For households with rules about digital media use, 42.6% of families reported having such rules, and among them, about 74.0% of them said they follow these rules. 2) Children most often visit the hospital for respiratory diseases, followed by gastrointestinal disorders. 3) The average weight of children was 11.50 kg, and the average height was 82.83 cm. Compared to the '2017 Growth Char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average weight of the children in the panel falls within or slightly above the average range, while their average height is within the average range.

(Parenting Environment) 1) In terms of smartphone overuse, most parents were categorized as regular users, but about 10% fell into the potential risk and high-risk groups. 2) Parents' demographic or socioeconomic background contributed to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elf-esteem and grit. Parental depression levels are concerning and require attention. 3) The primary caregivers are mainly the mother, and both physical and financial burden associated with childcare are relatively high. 4) 96.9% of fathers and 50.9% of mothers are employed.

(Childcare and Education Environment) 61.2% of children attend

childcare centers, and 37.7% utilize part-time childcare services. Of those receiving private education, 0.9% attend institutions for more than half a day, 11.7% attend cultural centers, and 1.2% use learning materials or private tutoring.

(Community and Policy Environment) 1) Parents' preferred childcare support policies directions were: "Increase allowances or fees" followed by "Strengthening the systems that allow parents to care for their children" and "Enhancing childcare support functions of institutions." 2) Among cash support policies, the "child allowance" was rated as the most important, while the policy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was "parental benefits." 3) Among in-kind/voucher-related childcare support systems, "childcare fee support" wa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and the "diaper/formula milk support program." was the most satisfactory. 4) The most satisfying policies were paternal leave for fathers and remote work systems for mothers, with both fathers and mothers rating parental leave as the most important policy.

(Additional Findings) 1) The average time spent in institutions was 3 hours and 57 minutes. Regarding socialization and leisure activities, 78.3% of infants participated in outdoor play on weekdays and 93.0% on weekends, while 26.8% participated in indoor play on weekdays and 51.8% on weekends. The media usage rate was relatively high at 44.8% on weekdays and 63.8% on weekends, and the average usage time was 24 minutes on weekdays and 41 minutes on weekends, with a slight increase on weekends. 2) In terms of expressive vocabulary development, 7.78% of the children were suspected to be developmental delays, and 5.63% required ongoing observation. 3) Parents rated their own interaction score as 51.0 points (out of 84), while their children's interaction behavior score was 58.57 points (out of 100), suggesting the need for further analysis.

The following are the future plans:

(Survey Strategy) 1) Minimize changes in the content of the survey to maintain stability and continuity. 2) Conduct in-depth surveys periodically and conduct supplementary surveys or interviews at specific

times to cover topics not covered in the main survey.

(Panel Management Strategy) 1) Maintain the online research method. 2) Promote the panel study findings through infographics and card news. 3) Develop strategies to build rapport with panel households. 4) Award certificates of appreciation to panel households and participating research institutions. 5) Organize parent education events on key topics related to child-rearing.

(Research Recommendations) 1) Deeper analysis of K-DST results. 2) Study of panel children's daily activities. 3) Research on the digital media use of parents and children. 4) Study of parental depression. 5) Research on low-income households and multicultural households. 6)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drop-out groups.

Keyword: Korean infancy, child development, panel study, longitudinal data

---

# 부 록

---

- 01 패널 추가 표본추출 방안
- 02 타 패널 조사 표본유지율 현황
- 03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어머니 대상 조사
- 04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아버지 대상 조사
- 05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주양육자 대상 조사
- 06 2차년도 심층조사 설문지: 주양육자 대상 조사
- 07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어린이집 담임교사 대상 조사
- 08 부록 표





## 부록 1. 패널 추가 표본추출 방안

### 가. 모집단 현황

〈부표 1-1〉 각 권역 및 성별 2세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계
전국	142,386	135,756	278,142
서울	22,476	21,208	43,684
경기/인천권	50,519	48,721	99,240
충청/강원권	20,895	19,772	40,667
경북권	12,896	12,091	24,987
경남권	20,214	19,346	39,560
전라/제주권	15,386	14,618	30,004

자료: 2022년 기준 『인구총조사』 결과

나. 추가 표본크기: 436명

다. 표본추가 방안

(1) 탈락률을 고려하는 방안

〈부표 1-2〉 병원권역별 응답여부 현황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조사				합계
	응답		무응답		
서울	397	90.2%	43	9.8%	440
인천/경기	749	87.4%	108	12.6%	857
대전/세종/충청/강원	230	85.8%	38	14.2%	268
대구/경북	285	88.2%	38	11.8%	323
부산/울산/경남	471	97.7%	11	2.3%	482
광주/전라/제주	358	88.4%	47	11.6%	405
합계	2,490	89.7%	285	10.3%	2,775

자료: 2022년 기준 『인구총조사』 결과

- 현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아닌 출산 당시의 병원소재지 정보 기준임.
- 일부 권역을 제외하면 응답률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님.

(2) 모집단 기준 비례배분하는 방안 모색

구분	모집단 현황				비례배분
	남	여	합계	열%	
전국	142,386	135,756	278,142	100.0%	436
서울	22,476	21,208	43,684	15.7%	68
경기/인천권	50,519	48,721	99,240	35.7%	156
충청/강원권	20,895	19,772	40,667	14.6%	64
경북권	12,896	12,091	24,987	9.0%	39
경남권	20,214	19,346	39,560	14.2%	62
전라/제주권	15,386	14,618	30,004	10.8%	47

(3) 모집단 현황 및 표본 기관수

- 표본 기관에서 조사 아동수는 평균 1.5명을 기준함.

구분	모집단 현황		추출률 현황		비례배분 결과	
	2세 아동	열%	기관수	열%	표본 아동수	표본 기관수
전국	278,142	100.0%	278,142	100.0%	436	290
서울	43,684	15.7%	43,684	15.7%	68	45
경기/인천권	99,240	35.7%	99,240	35.7%	156	104
충청/강원권	40,667	14.6%	40,667	14.6%	64	43
경북권	24,987	9.0%	24,987	9.0%	39	26
경남권	39,560	14.2%	39,560	14.2%	62	41
전라/제주권	30,004	10.8%	30,004	10.8%	47	31

(4) 표본 기관의 세부 층 배분

- 표본추출률 분석 결과: 권역 및 도시규모별 1세 아동 수

구분	도시규모			합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국	84,110	94,243	39,913	218,266
서울	34,089	0	0	34,089
경기/인천권	13,773	56,116	10,761	80,650
충청/강원권	6,643	15,033	10,548	32,224
경북권	8,006	5,560	5,360	18,926
경남권	14,899	8,145	6,076	29,120
전라/제주권	6,700	9,389	7,168	23,257

- 각 권역의 표본기관 수를 도시규모별 조사대상 아동수에 비례하여 배분함.

구분	도시규모			합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국	113	123	54	290
서울	45	0	0	45
경기/인천권	18	72	14	104
충청/강원권	9	20	14	43
경북권	11	8	7	26
경남권	21	11	9	41
전라/제주권	9	12	10	31

## 라. 표본추출 방안

### 1) 어린이집을 통한 표집

- 각 권역 구분 내에서 배분된 표본 기관 수를 조사대상 기관 내 아동 수 기준의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
- 기관 내 1세반을 대상으로 함.
- 다문화, 저소득 가구를 우선 표집할 수 있도록 안내함.

### 2) 조사업체 관리 패널을 통한 표집

- 각 권역 구분 내에서 배분된 표본 아동 수를 기준으로 조사업체가 관리 중인 전국의 패널에서 모집함.
- 어린이집을 통한 표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보완 방법으로 활용함.

## 부록 2. 타 패널 조사 표본유지율 현황

〈부표 2-1〉 한국아동패널조사 표본유지율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한국아동패널		
	전체	유지율	감소율
제1차년도 조사(2008)	2,078	100.00	
제2차년도 조사(2009)	1,904	91.63	-8.37
제3차년도 조사(2010)	1,802	86.72	-4.91
제4차년도 조사(2011)	1,754	84.41	-2.31
제5차년도 조사(2012)	1,703	81.95	-2.45
제6차년도 조사(2013)	1,662	79.98	-1.97
제7차년도 조사(2014)	1,620	77.96	-2.02
제8차년도 조사(2015)	1,598	76.90	-1.06
제9차년도 조사(2016)	1,525	73.39	-3.51
제10차년도 조사(2017)	1,484	71.41	-1.97
제11차년도 조사(2018)	1,434	69.01	-2.41
제12차년도 조사(2019)	1,412	67.95	-1.06
제13차년도 조사(2020)	1,397	67.23	-0.72
제14차년도 조사(2021)	1,348	64.87	-2.36
제15차년도 조사(2022)	1,308	62.95	-1.92
제16차년도 조사(2023)	1,288	61.98	-0.96
	평균 감소율		-2.53

주: 2008년 4~7월 출생 신생아 대상  
 자료: 조미라 외(2023).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38.

## 〈부표 2-2〉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유지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한국복지패널		
	전체	유지율	감소율
제1차년도 조사(2006)	7,072	100.00	-
제2차년도 조사(2007)	6,511	92.07	-7.93
제3차년도 조사(2008)	6,128	86.65	-5.42
제4차년도 조사(2009)	5,935	83.92	-2.73
제5차년도 조사(2010)	5,675	80.25	-3.68
제6차년도 조사(2011)	5,335	75.44	-4.81
제7차년도 조사(2012)	5,271	74.53	-0.90
제8차년도 조사(2013)	5,104	72.17	-2.36
제9차년도 조사(2014)	4,896	69.23	-2.94
제10차년도 조사(2015)	4,760	67.31	-1.92
제11차년도 조사(2016)	4,560	64.48	-2.83
제12차년도 조사(2017)	4,398	62.19	-2.29
제13차년도 조사(2018)	4,226	59.76	-2.43
제14차년도 조사(2019)	4,124	58.31	-1.44
제15차년도 조사(2020)	3,865	54.65	-3.66
제16차년도 조사(2021)	3,816	53.96	-0.69
제17차년도 조사(2022)	3,664	51.81	-2.15
	평균 감소율		-3.01

주: 1)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두 층으로부터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 표본 선정  
 2) 원표본 기준으로 함.  
 자료: 정은희 외(2022).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6.

〈부표 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표본유지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KCYPs 2010		
	전체	유지율	감소율
제1차년도 조사(2010)	7,071	100.00	-
제2차년도 조사(2011)	6,808	96.28	-3.72
제3차년도 조사(2012)	6,678	94.44	-1.84
제4차년도 조사(2013)	6,319	89.37	-5.08
제5차년도 조사(2014)	6,271	88.69	-0.68
제6차년도 조사(2015)	6,184	87.46	-1.23
제7차년도 조사(2016)	5,862	82.90	-4.55
	평균 감소율		-2.85

구분	KCYPs 2018		
	전체	유지율	감소율
제1차년도 조사(2018)	5,197	100.00	-
제2차년도 조사(2019)	4,875	93.80	-6.20
제3차년도 조사(2020)	4,795	92.26	-1.54
제4차년도 조사(2021)	4,540	87.36	-4.91
제5차년도 조사(2022)	4,563	87.80	0.44
	평균 감소율		-2.03

주: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은 2010년 기준 전국 초등1, 초등4, 중등1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한 패널조사이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년은 초등4, 중등1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한 패널조사  
 2) 집단별 평균 감소율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기준 초등1: -2.42%, 초등4: -2.80%, 중등1: -3.3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준 초등4: -2.8%, 중등1: -3.3%임  
 자료: 1) 2010: 하형석 외(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29.  
 2) 2018: 황진구 외(2023).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9.

## 〈부표 2-4〉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표본유지율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1기		
	전체	유지율	감소율
제1차년도 조사(2011)	1,625	100.00	-
제2차년도 조사(2012)	1,490	91.69	-8.31
제3차년도 조사(2013)	1,433	88.18	-3.51
제4차년도 조사(2014)	1,371	84.37	-3.82
제5차년도 조사(2015)	1,338	82.34	-2.03
제6차년도 조사(2016)	1,322	81.35	-0.98
제7차년도 조사(2017)	1,268	78.03	-3.32
제8차년도 조사(2018)	1,220	75.08	-2.95
제9차년도 조사(2019)	1,169	71.94	-3.14
제10차년도 조사(2020)	1,095	67.38	-4.55
제11차년도 조사(2021)	1,014	62.40	-4.98
제12차년도 조사(2022)	999	61.48	-0.92
제13차년도 조사(2023)	935	57.54	-3.94
평균 감소율			-3.54
구분	2기		
	전체	유지율	감소율
2019년 조사	2,223	100.00	-
2020년 조사	2,054	92.40	-7.60
2021년 조사	1,980	89.07	-3.33
2022년 조사	1,877	84.44	-4.63
2023년 조사	1,825	82.10	-2.34
평균 감소율			-4.48

주: 1) 다문화청소년 패널은 초등4 재학중인 다문화청소년 및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구축함.  
 2) 집단별 평균 감소율은 1기 기준 학생:-3.53%, 2기 기준 학생: -4.48%임.

자료: 1기(2022~2023), 2기(2022~2023): 한국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 부록 3.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어머니 대상 조사

	<b>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2차년도)</b> <b>어머니 대상 조사</b>		ID				
<p>안녕하십니까?</p> <p>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미래인구인 영유아의 국가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동의 장기적 발달과 연계된 요인과 그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태아기부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초기 성장발달 관련 횡단·종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p> <p>귀하께서는 패널 모집 시 산부인과에서 본 조사 참여에 대해 동의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조사를 거쳐 2023년 조사에서는 아동이 만1세 시점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 특성과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p> <p>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참여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장</p>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중구 소공로 70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팀 (02-398-7745)				조사 수행기관 : (주)한국갤럽 서울 종로구 사직로 70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팀 (02-3702-2640, 010-7487-9472)			



## J. 다음은 모유수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 [모유수유 여부 및 개월별 수유 방법]

J1.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수유 방법을 ✓표해주시시오.

※ 모유 또는 분유수유를 몇 개월까지 하셨습니까? \_\_\_\_\_

☞ 현재도 모유 또는 분유수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조사일 기준 아동의 개월 수를 기재해주세요.

※ 수유 방법은 **해당 월의 과반일 이상 행한 수유 방법**으로 응답해주세요.

예시1) 20일 동안은 모유 수유, 10일 동안은 모유+분유 수유한 경우, 모유수유로 응답

예시2) 생후 한 달 동안 모유수유, 그 후 20일 동안은 모유+분유 수유, 그 후에는 분유수유한 경우,

0개월: 모유, 1개월: 혼합, 2개월: 분유로 응답

※ 혼합수유는 하루 중 수유 시 모유와 분유를 모두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10일 동안은 모유 수유, 20일 동안은 분유를 먹인 경우에는 혼합이 아닌, 분유로 응답

※ 위에서 응답한 모유 또는 분유수유를 한 개월 수까지만 수유방법을 기재해주세요.

구분	모유	혼합(모유+분유)	분유
7개월	①	②	③
8개월	①	②	③
9개월	①	②	③
10개월	①	②	③
11개월	①	②	③
12개월	①	②	③
13개월	①	②	③
14개월	①	②	③
15개월	①	②	③
16개월	①	②	③
17개월	①	②	③
18개월	①	②	③
19개월	①	②	③
20개월	①	②	③
21개월	①	②	③
22개월	①	②	③

**[모유수유 중단 시기]**

J1-1. 귀하는 현재 모유수유 중이십니까?

※ 모유수유를 50일까지 하고 중단했다면 1개월 20일로, 100일까지 했다면 3개월 10일로 기입해주세요. (1개월은 30일로 환산)  
만약, 4개월 동안 했다면 4개월 0일로 기입해주세요.  
☞ 모유수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②아니오 응답 후 '0개월 0일'로 기입해주세요.

- ① 예 (→ A1로 이동)
- ② 아니오 → 생후 \_\_\_\_\_개월 \_\_\_\_\_일까지 모유수유 했음  
(→ 응답 후 J1-2로 이동)

**[모유수유 중단 이유]**

J1-2. (J1-1번 문항에서 ②선택 시) 귀하는 현재 모유수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주셨는데, 모유수유를 그만두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젖의 양이 적어서
- ②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해서
- ③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 시간 동안 수유가 어려워서
- ④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 ⑤ 질병, 약 복용 등으로
- ⑥ 모유를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해서
- ⑦ 기타 (\_\_\_\_\_)

**A. 다음은 다문화 어머니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 A1~5번은 다문화 어머니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외국 국적이나 귀화한 어머니만 응답해주시요.

**[귀화여부]**

A1. (지난 조사 이후) 귀하는 귀화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가정 내 사용 언어]**

A2. 다음은 귀하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A2-1. 평소 가정에서 귀하가 아이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어만 사용함
- ②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나의 모국어를 가끔씩 사용함
- ③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거의 반반씩 사용함
- ④ 주로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가끔씩 사용함
- ⑤ 나의 모국어만 사용함
- ⑥ 제 3의 언어(한국어와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함  
(적어주세요: \_\_\_\_\_ )

A2-2. 평소 가정에서 귀하가 배우자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어만 사용함
- ②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나의 모국어를 가끔씩 사용함
- ③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거의 반반씩 사용함
- ④ 주로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가끔씩 사용함
- ⑤ 나의 모국어만 사용함
- ⑥ 제 3의 언어(한국어와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함  
(적어주세요: \_\_\_\_\_ )

**[언어 구사 수준]**

A3. 언어 구사 수준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못함	거의 못함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함	유창한 편임	매우 유창함
1) 한국어 구사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가 귀하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 매우 유창함: 원어민에 근접한 수준으로 의사소통 및 토론이 가능함
- 유창한 편임: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구사하는 데 무리가 없음
- 기본적인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간단한 표현만 구사 가능함

**[의사소통 어려움]**

A4. 다음의 상황에서 귀하가 의사소통하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어려움이 없음	어려움이 없는 편임	어려움이 있는 편임	매우 어려움이 있음
1) 자녀와 소통할 때	①	②	③	④
2) 가족과 소통할 때	①	②	③	④
3) 이웃과 소통할 때(예: 은행, 병원, 가게에서, 다른 학부모와)	①	②	③	④
4) (아이가 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니는 경우) 선생님과 소통할 때	①	②	③	④

**[문화적응]**

A5-1.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에게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약하게	다소 약하게	다소 강하게	매우 강하게
1) 당신은 한국에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갖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2) 당신은 당신의 모국에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갖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가족의 문화수용성]**

A5-2.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내 모국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예: 가족이 아이에게 내 모국에 대해 이야기해줌)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내 모국을 존중해야한다고 이야기 나눈다. (예: 가족이 아이에게 내 모국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해줌)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내 모국의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집에서는 내 모국의 물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우리 가족은 내 모국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집에서 내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내 모국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나눈다(예: 가족이 아이에게 내 모국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줌).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내 모국의 명절을 챙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내 모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내 모국에 방문하거나 모국 식구들과 만나고 연락하며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내 모국과 관련된 행사와 축제 등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은 내 모국의 문화를 좋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B.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 [최종학력]

B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졸업기준. 대학원의 경우 학위 수여를 기준으로 작성

- |          |             |       |
|----------|-------------|-------|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 ④ 고등학교   | ⑤ 전문대(기능대학) | ⑥ 대학교 |
| ⑦ 대학원 석사 | ⑧ 대학원 박사    |       |

**C. 다음은 어머니 심리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릿]**

C1.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아존중감]**

C2.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우울]

C3. 다음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최근 2주 동안 아래의 증상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표시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①	②	③	④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①	②	③	④
3)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①	②	③	④
4) 피곤감, 기력이 저하됨	①	②	③	④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①	②	③	④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	①	②	③	④

### [평소 스트레스]

C4.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대단히 많이 느낀다.
- ② 많이 느끼는 편이다.
- ③ 조금 느끼는 편이다.
- ④ 거의 느끼지 않는다.

**D. 다음은 결혼 관련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혼인상태]**

D1. 귀하의 사실상 결혼 상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유배우 (→ D2로 이동)      ② 별거 (→ D2로 이동)
- ③ 이혼 (→ E1로 이동)
- ④ 사별 (→ E1로 이동)      ⑤ 미혼 (→ E1로 이동)

**[결혼 만족도]** (문 D1의 ①, ② 응답자만)

D2. 귀 부부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1~7점까지 해당 점수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	←	←	←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부 갈등]** (문 D1의 ①, ② 응답자만)

D3.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떻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 E. 다음은 귀하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항입니다.

#### [스마트폰 과의존]

E1.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F. 다음은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육 스트레스]**

F1. 다음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양육행동]**

F2. 다음은 아이에 대한 귀하의 양육 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용통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가 놀이 집단이나 모임(예: 종교모임, 산후조리원 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예: 눈을 마주치며 소리에 반응)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 [양육효능감]

F3. 다음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주된 관심은 자녀양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가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흥미나 관심이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양육 부담]**

F4. 아이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부담스럽지 않는 편임	부담스러운 편임	매우 부담스러움
1) 신체적 부담(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	①	②	③	④
2) 정서적 부담(양육 스트레스 등)	①	②	③	④
3) 사회적 고립(지인, 이웃과의 소통기회 부족 등)	①	②	③	④
4) 경제적 부담(교육비, 의료비 등)	①	②	③	④
5) 가족관계의 어려움(육아 관련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등)	①	②	③	④

**[공동양육 참여]**

F5. 현재 아이 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 한부모, 조손 가정인 경우 비해당

양육	가사
어머니 : 아버지 ( : )	어머니 : 아버지 ( : )

비해당

**G. 다음은 귀하의 근로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업/학업 상태]**

G1.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두 가지 보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함.
-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모두 취업 중에 해당함.

① 취업 중 (→ G1-1로 이동)	G1-1. ① 출산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 ② 새로운 직장에 취업 ③ 육아휴직 중 ④ 기타 휴직 중 ⑤ 작년조사 이후 변동 없음 (→ 응답 후 G2로 이동)
② 학업 중 (→ G1-2로 이동)	G1-2. ① 휴학 중 ② 학업 복귀 (→ 응답 후 H1로 이동)
③ 미취업/미취학 (→ H1로 이동)	

**[직종]**

G2.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직업 코드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골라 주십시오.

코드	직업명	직업예시
1	관리자	업무의 80%이상을 기획, 관리 분야에 투입하는 일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교수, 교사, IT 및 각종 기술 전문가, 학원강사, 예술인, 모델, 작가, 연예인, 매니저, 운동선수, 종교인,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부동산중개사, 프로그래머, 레크레이션 강사,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리 연구가 등
3	사무 종사자	- (중하위직)공무원, 문서/통계/영업지원/전산/회계/홍보 등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비서, 접수/발권/전화교환 등 안내직,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속기사, 대학 행정 조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여행(승무원, 여행안내원)/음식·조리(주방장, 조리사)/미용(코디네이터, 분장사)/가타(웨딩플래너 등) 등 각종 대인서비스 -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반력동물 훈련사, 문화 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등
5	판매 종사자	- 대금수납/매표/요금정산원, 보험설계사, 제품/광고 영업원, 매장판매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업 숙련 종사자, 임업 숙련 종사자, 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자동차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 운전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등
9	단순노무종사자	- 간이음식점 조리사, 건설단순노무, 건물관리/경비, 건물청소, 배달, 주유원, 단순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단순노무
10	군인	- 직업군인(장기 부사관 및 준위 등)

**[종사상 지위]**

G3.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비정규직/임시직(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비정규직/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고용원(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 ⑤ 고용원(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주)
- ⑥ 무급 가족 종사자(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근로시간]

G4. 귀하의 평소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의 출근 일자 및 하루 평균 근무시간,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말씀해주세요.

\* 현재 휴직 중이신 경우, 재직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근무시간	주 _____ 일 / 하루 평균 _____ 시간
출퇴근 소요 시간	하루 평균 _____ 시간

G4-1. (최근 3개월) 재택근무 일수

- ① 주당 평균 \_\_\_\_\_ 일
- ② 재택근무 하지 않음

### [근로(사업)소득]

G5. 귀하의 지난 1년 동안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실수령 \_\_\_\_\_ 만원

\* 현재 휴직 중이신 경우, 재직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G5-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하의 근로(사업)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100만원 이하
- ② 101만원~200만원
- ③ 201만원~300만원
- ④ 301만원~400만원
- ⑤ 401만원~500만원
- ⑥ 501만원~600만원
- ⑦ 601만원~700만원
- ⑧ 701만원~800만원
- ⑨ 801만원~900만원
- ⑩ 901만원~1000만원
- ⑪ 1001만원 이상





**[만성질환]**

H5. 귀하께서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다음의 만성질환을 현재 앓고 계십니까?

질환명	만성질환 여부
1) 고혈압	① 예    ② 아니오
2) 당뇨병	① 예    ② 아니오
3) 심·뇌혈관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출혈, 뇌경색 등)	① 예    ② 아니오
4) 간질환 (만성간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증 등)	① 예    ② 아니오
5) 만성하기도질환 (천식,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① 예    ② 아니오
6) 관절질환 (무릎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추간판 장애 등)	① 예    ② 아니오
7) 갑상성 기능저하	① 예(기능항진증/기능저하증) ② 아니오
8) 우울/조울증	① 예    ② 아니오
9) 만성신부전증	① 예    ② 아니오
10) 악성신생물(암, 림프종 등)	① 예 (암의 종류 _____) ② 아니오
11) 기타	① 예 (질환명 _____) ② 아니오

**[임신 중 예방 접종]**

H6. 다음은 임신 중 백신접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6-1. 임신 중 예방접종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H6-2로 이동)                      ② 아니오 (→ H7로 이동)

H6-2. 예방접종을 하였다면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풍진 ② 백일해 ③ B형 간염 ④ A형 간염 ⑤ 코로나(COVID-19)  
⑥ 독감 ⑦ 기타(        )

**[임신 중 감염여부]**

H7. 귀하는 임신 중 독감이나 코로나(COVID-19)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중복선택 가능)

- ① 독감 감염    ② 코로나(COVID-19) 감염    ③ 없음

**I.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육아지원정책 방향]**

11. 정부는 다양한 차원에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 방향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해주시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기관에서의 육아지원 기능 강화
- ② 영유아 가구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
- ③ 부모가 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중요도]**

12.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중 시간과 관련된 정책을 나열하였습니다. 각 정책별로 귀하의 인지여부, 이용 여부, 만족도, 중요도에 대해 차례로 주어진 보기에서 선택해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조사일 이후~ 현재까지)

구분	종류	인지여부	이용 여부	만족도	중요도
		① 알고 있음 ② 잘 모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없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시간	1) 육아휴직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③		
	4) 시간외 근로 금지*		③		
	5)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③		
	6) 가족돌봄휴가				
	7) 시차출퇴근제				
	8) 선택근무제				
	9) 재택근무제				

구분	종류	인지여부	이용 여부	만족도	중요도
		① 알고 있음 ② 잘 모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없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10) 원격근무제				

※ 중요도는 해당 정책이 자녀양육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표해주시시오. ✓

\*임신 및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 대상

- 1) **육아휴직:** 만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
- 3)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 4) **시간외 근로금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 5) **야간 및 휴일 근로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야간 시간대(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 6)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을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것
- 7) **사차출퇴근제:** 근로자가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
- 8) **선택근무제:** 근로자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
- 9) **재택근무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것
- 10) **원격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

13.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중 현금 및 현물/바우처와 관련된 정책을 나열하였습니다. 각 정책별로 귀하의 이용 여부와 만족도에 대해 차례로 주어진 보기에서 선택해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조사일 이후~ 현재까지)

※ 중요도는 해당 정책이 자녀양육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표해주시오.

구분	종류	인지 여부		중요도
		① 알고 있음	② 잘 모름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현금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양육수당			
	4) 자녀장려세제			
	5) 공공요금 할인			
	6) 출산급여			
	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현물/ 바우처	1) 보육료			
	2) 유아학비			
	3)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4) 방과후 과정			
	5) 아이돌봄지원사업			
	6) 다함께 돌봄, 늘봄학교			
	7) 첫만남 이용권			
	8)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현금〉**

- 1) **아동수당**: 만 8세(95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2)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에게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하는 제도  
 ※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2023년 기준)
- 3) **양육수당**: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2022년생은 24개월부터 지원 대상이므로, 올해는 해당하지 않음)


- 4) **자녀장려세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5) **공공요금 할인**: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에 전기료 30%(최대 16,000원 한도) 감면
- 6) **출산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 기간 중 휴가를 유급으로 90일까지 사용하는 제도
- 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 기간 중 휴가를 유급으로 10일까지 사용하는 제도

#### 〈현물 및 바우처〉

- 1)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 2) **유아학비**: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학비 지원
- 3)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지원(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당 금액 지원)
- 4) **방과후 과정**: 1일 교육과정 8시간 이상 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에게 이루어지는 보편적 정부지원(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 5) **아이돌봄지원사업**: 만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가정에 파견되는 아이돌보미의 이용 비용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게 연 840시간 이내에서 이용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시간제, 영아종일제)
- 6-1) **다함께 돌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
- 6-2) **늘봄 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원하는 학생에 한해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교육 프로그램
- 7) **첫만남 이용권**: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로 지급  
(유형·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 8)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신부는 14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원
- 1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구매를 위한 바우처(월 15만원)를 지급하는 것

◆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록 4.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아버지 대상 조사

	<b>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2차년도)</b> <b>아버지 대상 조사</b>				ID				
<p>안녕하십니까?</p> <p>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미래인구인 영유아의 국가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동의 장기적 발달과 연계된 요인과 그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태아기부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초기 성장발달 관련 횡단·종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p> <p>귀하의 가구께서는 패널 모집 시 산부인과에서 본 조사 참여에 대해 동의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조사를 거쳐 2023년 조사에서는 아동이 만1세 시점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 특성과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p> <p>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참여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장</p>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중구 소공로 70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팀 (02-398-7745)					조사 수행기관 : (주)한국갤럽 서울 종로구 사직로 70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팀 (02-3702-2640, 010-7487-9472)				

**A. 다음은 다문화 아버지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 A1~5번은 다문화 아버지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외국 국적이나 귀화한 아버지만 응답해주시시오.

**[귀화여부]**

A1. (지난 조사 이후) 귀하는 귀화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가정 내 사용 언어]**

A2. 다음은 귀하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A2-1. 평소 가정에서 귀하가 아이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어만 사용함  
 ②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나의 모국어를 가끔씩 사용함  
 ③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거의 반반씩 사용함  
 ④ 주로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가끔씩 사용함  
 ⑤ 나의 모국어만 사용함  
 ⑥ 제 3의 언어(한국어와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함  
 (적어주세요: \_\_\_\_\_ )

A2-2. 평소 가정에서 귀하가 배우자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어만 사용함  
 ②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나의 모국어를 가끔씩 사용함  
 ③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거의 반반씩 사용함  
 ④ 주로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가끔씩 사용함  
 ⑤ 나의 모국어만 사용함  
 ⑥ 제 3의 언어(한국어와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함  
 (적어주세요: \_\_\_\_\_ )

**[언어 구사 수준]**

A3. 언어 구사 수준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못함	거의 못함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함	유창한 편임	매우 유창함
1) 한국어 구사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가 귀하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 매우 유창함: 원어민에 근접한 수준으로 의사소통 및 토론이 가능함
- 유창한 편임: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구사하는 데 무리가 없음
- 기본적인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간단한 표현만 구사 가능함

**[의사소통 어려움]**

A4. 다음의 상황에서 귀하가 의사소통하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어려움이 없음	어려움이 없는 편임	어려움이 있는 편임	매우 어려움이 있음
1) 자녀와 소통할 때	①	②	③	④
2) 가족과 소통할 때	①	②	③	④
3) 이웃과 소통할 때(예: 은행, 병원, 가게에서, 다른 학부모와)	①	②	③	④
4) (아이가 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니는 경우) 선생님과 소통할 때	①	②	③	④

**[문화적응]**

A5-1.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에게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약하게	다소 약하게	다소 강하게	매우 강하게
1) 당신은 한국에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갖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2) 당신은 당신의 모국에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갖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문학수용성]**

A5-2.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내 모국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예: 가족이 아이에게 내 모국에 대해 이야기해줌)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내 모국을 존중해야한다고 이야기 나눈다. (예: 가족이 아이에게 내 모국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해줌)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내 모국의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집에서는 내 모국의 물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내 모국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집에서 내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내 모국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나눈다. (예: 가족이 아이에게 내 모국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줌)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내 모국의 명절을 챙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내 모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내 모국에 방문하거나 모국 식구들과 만나고 연락하며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내 모국과 관련된 행사와 축제 등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은 내 모국의 문화를 좋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B.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최종학력]**

B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졸업기준. 대학원의 경우 학위 수여를 기준으로 작성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기능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 석사                      ⑧ 대학원 박사

**C. 다음은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릿]**

C1.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아존중감]**

C2.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우울]**

C3. 다음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 최근 2주 동안 아래의 증상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표시해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①	②	③	④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①	②	③	④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①	②	③	④
4) 피곤감, 기력이 저하됨	①	②	③	④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①	②	③	④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	①	②	③	④

**[평소 스트레스]**

C4.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대단히 많이 느낀다.
- ② 많이 느끼는 편이다.
- ③ 조금 느끼는 편이다.
- ④ 거의 느끼지 않는다.

D. 다음은 결혼 관련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혼인상태]**

D1. 귀하의 사실상 결혼 상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유배우 (→ D2로 이동)      ② 별거 (→ D2로 이동)
- ③ 이혼 (→ E1로 이동)
- ④ 사별 (→ E1로 이동)      ⑤ 미혼 (→ E1로 이동)

**[결혼 만족도]** (문 D1의 ①, ② 응답자만)

D2. 귀 부부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7점까지 해당 점수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는 어머니로서의 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부 갈등]** (문 D1의 ①, ② 응답자만)

D3.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내는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내는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내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아내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떻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 E. 다음은 귀하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항입니다.

#### [스마트폰 과의존]

E1.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 F. 다음은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양육 스트레스]

F1. 다음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양육행동]**

F2. 다음은 아이에 대한 귀하의 양육 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가 놀이 집단이나 모임(예: 종교모임, 산후조리원 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예: 눈을 마주치며 소리에 반응)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양육효능감]**

F3. 다음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주된 관심은 자녀양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가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흥미나 관심이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양육 부담]**

F4. 아이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부담스럽지 않은 편임	부담스러운 편임	매우 부담스러움
1) 신체적 부담(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	①	②	③	④
2) 정서적 부담(양육 스트레스 등)	①	②	③	④
3) 사회적 고립(지인, 이웃과의 소통기회 부족 등)	①	②	③	④
4) 경제적 부담(교육비, 의료비 등)	①	②	③	④
5) 가족관계의 어려움(육아 관련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등)	①	②	③	④

**[공동양육 참여]**

F5. 현재 아이 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 한부모, 조손 가정인 경우 비해당

양육	가사
어머니 : 아버지 ( : )	어머니 : 아버지 ( : )

비해당



## G. 다음은 귀하의 근로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취업/학업 상태]

G1.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두 가지 보기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  
업 중에 해당함.
-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  
정한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모  
두 취업 중에 해당함.

- ① 취업 중 (→ G2로 이동)
- ② 학업 중 (→ H1로 이동)
  - ※ 휴학포함
- ③ 미취업/미취학(→ H1로 이동)

### [직종]

G2.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직업 코드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골  
라 주십시오.

코드	직업명	직업예시
1	관리자	업무의 80%이상을 기획, 관리 분야에 투입하는 일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교수, 교사, IT 및 각종 기술 전문가, 학원강사, 예술인, 모델, 작가, 연예인, 매니저, 운동선수, 종교인,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부동산중개사, 프로게이머, 레크레이션 강사,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리 연구가 등
3	사무 종사자	- (중하위직)공무원, 문서/통계/영업지원/전산/회계/홍보 등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비서, 접수/발권/전화교환 등 안내직,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속기사, 대학 행정 조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여행(승무원, 여행안내원)/음식·조리(주방장, 조리사)/미용(코디네이터, 분장사)/기타(웨딩플래너 등) 등 각종 대인서비스 -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코드	직업명	직업예시
		종사원, 반려동물 훈련사, 문화 관광 및 숲 자연환경 해설사 등
5	판매 종사자	- 대금수납/매표/요금정산원, 보험설계사, 제품/광고 영업원, 매장판매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업 숙련 종사자, 임업 숙련 종사자, 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자동차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등
8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장차·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 운전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등
9	단순노무종사자	- 간이음식점 조리사, 건설단순노무, 건물관리/경비, 건물청소, 배달, 주유원, 단순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단순노무
10	군인	- 직업군인(장기 부사관 및 준위 등)

### [종사상 지위]

G3.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비정규직/임시직(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비정규직/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고용원(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 ⑤ 고용원(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주)
- ⑥ 무급 가족 종사자(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기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근로시간]

G4. 귀하의 평소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의 출근 일자 및 하루 평균 근무시간,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말씀해주시요.

\* 현재 휴직 중이신 경우, 재직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요.

근무시간	주 _____ 일 / 하루 평균 _____ 시간
출퇴근 소요 시간	하루 평균 _____ 시간

G4-1. (최근 3개월) 재택근무 일수

- ① 주당 평균 \_\_\_\_\_ 일
- ② 재택근무 하지 않음

### [근로(사업)소득]

G5. 귀하의 지난 1년 동안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실수령 \_\_\_\_\_ 만원

\* 현재 휴직 중이신 경우, 재직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G5-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하의 근로(사업)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100만원 이하
- ② 101만원~200만원
- ③ 201만원~300만원
- ④ 301만원~400만원
- ⑤ 401만원~500만원
- ⑥ 501만원~600만원
- ⑦ 601만원~700만원
- ⑧ 701만원~800만원
- ⑨ 801만원~900만원
- ⑩ 901만원~1000만원
- ⑪ 1001만원 이상

## H. 다음은 귀하의 건강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장애 여부 및 정도]

H1. 귀하가 장애를 진단받으셨다면 귀하의 장애 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중증(→ H1-1 이동)
- ② 경증(→ H1-1 이동)
- ③ 해당 없음(장애 없음)(→ H2 이동)

### [장애 유형]

H1-1. 귀하가 장애를 진단받으셨다면 귀하의 장애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지체장애
- ② 뇌병변장애
- ③ 시각장애
- ④ 청각장애
- ⑤ 언어장애
- ⑥ 지적장애
- ⑦ 정신장애
- ⑧ 자폐성 장애
- ⑨ 신장장애
- ⑩ 심장장애
- ⑪ 호흡기장애
- ⑫ 간장애
- ⑬ 안면장애
- ⑭ 장루·요루장애
- ⑮ 뇌전증장애

**[흡연 여부]**

H2.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피우지 않음 (→ H3로 이동) ② 피움 (→ 하루\_\_\_번, 하루\_\_\_개비)

**[간접흡연]**

H3. 최근 7일 동안 가정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음주 습관]**

H4. 귀하는 평소에 술을 마십니까?

- ① 술을 마심 (→ H4-1로 이동) ② 술을 마시지 않음 (→ H5-1로 이동)

H4-1.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2회~4회 ④ 거의 매일

**[만성질환]**

H5-1. 귀하께서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다음의 만성질환을 현재 앓고 계십니까?

질환명	만성질환 여부
1) 고혈압	① 예 ② 아니오
2) 당뇨병	① 예 ② 아니오
3) 심·뇌혈관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출혈, 뇌경색 등)	① 예 ② 아니오
4) 간질환 (만성간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증 등)	① 예 ② 아니오
5) 만성하기도질환 (천식,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① 예 ② 아니오
6) 관절질환 (무릎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추간판 장애 등)	① 예 ② 아니오
7) 갑상성 기능저하	① 예(기능항진증/기능저하증) ② 아니오
8) 우울/조울증	① 예 ② 아니오

질환명	만성질환 여부
9) 만성신부전증	① 예    ② 아니오
10) 악성신생물(암, 림프종 등)	① 예 (암의 종류 _____) ② 아니오
11) 기타	① 예 (질환명 _____) ② 아니오

### [가족력]

H5-2. 귀하의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십니까?

질환명	질환 여부					
	귀하의 어머니(아이의 친할머니)			귀하의 아버지(아이의 친할아버지)		
정신지체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기형아 출산 (예, 언청이, 다운증후군 등)	① 예, 기형명 _____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기형명 _____ ② 아니오	③ 모름	
자폐증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유전질환	① 예, 질환명 _____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질환명 _____ ② 아니오                    ③ 모름		
기타	① 예, 질환명 _____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질환명 _____ ② 아니오                    ③ 모름		

1.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 [육아지원정책 방향]

11. 정부는 다양한 차원에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 방향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해주시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기관에서의 육아지원 기능 강화
- ② 영유아 가구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
- ③ 부모가 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중요도]**

12.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중 시간과 관련된 정책을 나열하였습니다. 각 정책별로 귀하의 인지여부, 이용 여부, 만족도, 중요도에 대해 차례로 주어진 보기에서 선택해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조사일 이후~ 현재까지)

※ 중요도는 해당 정책이 자녀양육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 표해주십시오.

구분	종류	인지여부	이용 여부	만족도	중요도
		① 알고 있음 ② 잘 모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없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시간	1) 육아휴직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③		
	4) 시간외 근로 금지*		③		
	5)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③		
	6) 가족돌봄휴가				
	7) 시차출퇴근제				
	8) 선택근무제				
	9) 재택근무제				
	10) 원격근무제				

\*임신 및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 대상

- 1) 육아휴직:** 만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
- 3)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 4) **시간외 근로금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 5) **야간 및 휴일 근로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야간 시간대(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 6)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을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것
- 7) **사차출퇴근제:** 근로자가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
- 8) **선택근무제:** 근로자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
- 9) **재택근무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것
- 10) **원격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

13.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중 현금 및 현물/바우처와 관련된 정책을 나열하였습니다. 각 정책별로 귀하의 이용 여부와 만족도에 대해 차례로 주어진 보기에서 선택해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조사일 이후~ 현재까지)

※ 중요도는 해당 정책이 자녀양육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표해주십시오.

구분	종류	인지 여부		중요도
		① 알고 있음	② 잘 모름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현금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양육수당			
	4) 자녀장려세제			
	5) 공공요금 할인			
	6) 출산급여			
	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구분	종류	인지 여부	중요도
		① 알고 있음 ② 잘 모름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현물/ 바우처	1) 보육료		
	2) 유아학비		
	3)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4) 방과후 과정		
	5) 아이돌봄지원사업		
	6) 다함께 돌봄, 늘봄학교		
	7) 첫만남 이용권		
	8)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현금>**

- 1) **아동수당**: 만 8세(95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2)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에게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하는 제도  
※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2023년 기준)
- 3) **양육수당**: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2022년생은 24개월부터 지원 대상이므로, 올해는 해당하지 않음)
- 4) **자녀장려세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5) **공공요금 할인**: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에 전기료 30%(최대 16,000원 한도) 감면
- 6) **출산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 기간 중 휴가를 유급으로 90일까지 사용하는 제도
- 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 기간 중 휴가를 유급으로 10일까지 사용하는 제도

**<현물 및 바우처>**


- 1)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 2) **유아학비**: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학비 지원
- 3)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지원(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당 금액 지원)



- 4) 방과후 과정:** 1일 교육과정 8시간 이상 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에게 이루어지는 보편적 정부지원(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 5) 아이돌봄지원사업:** 만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가정에 파견되는 아이돌보미의 이용 비용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게 연 840시간 이내에서 이용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시간제, 영아종일제)
- 6-1) 다함께 돌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
- 6-2) 늘봄 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원하는 학생에 한해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교육 프로그램
- 7) 첫만남 이용권:**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로 지급  
(유희·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 8)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신부는 14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원
- 1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구매를 위한 바우처(월 15만원)를 지급하는 것

◆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록 5.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주양육자 대상 조사

	<b>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2차년도)</b> <b>주양육자 대상 조사</b>				I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안녕하십니까?</p> <p>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미래인구인 영유아의 국가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동의 장기적 발달과 연계된 요인과 그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태아기부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초기 성장발달 관련 횡단·종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p> <p>귀하의 가구께서는 패널 모집 시 산부인과에서 본 조사 참여에 대해 동의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조사를 거쳐 2023년 조사에서는 아동이 만1세 시점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 특성과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p> <p>패널아동의 주양육자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참여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장</p>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중구 소공로 70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팀 (02-398-7745)		조사 수행기관 : (주)한국갤럽 서울 종로구 사직로 70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팀 (02-3702-2640, 010-7487-9472)			

## A.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 [아동과의 관계 및 주양육자 특성]

A1. 현재 이 조사에 응답하는 귀하와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A1-1. 아이의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① 어머니 (→ B1로 이동)    ② 아버지 (→ B1로 이동)  
 ③ 아기의 조부모            ④ 기타 친인척  
 ⑤ 공공 아이돌보미            ⑥ 민간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주양육자: 주 활동시간 (오전 7시~밤 11시 사이)동안 해당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가장 긴 대상자를 말함.**

- ① 주양육자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인 경우: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주양육자'로 응답함.  
 ② 아동이 기관 돌봄서비스(예-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주양육자'로 응답함.  
 ③ 아동이 개별 돌봄서비스(예-아동의 조부모나 기타 친인척,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만 이용하는 경우: 개별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응답함.  
 ④ 아동이 기관 돌봄서비스와 개별 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개별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응답함.

\* A2~4번 문항: 아동의 주양육자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닐 경우에만 응답

### [성별]

A2. 주양육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 [생년월일]

A3. 주양육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⑦ 80세 이상                ⑧ 모름

**[최종학력]**

A4. 주양육자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졸업기준. 대학원의 경우 학위 수여를 기준으로 작성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전문대(기능대학)
- ⑥ 대학교
- ⑦ 대학원 석사
- ⑧ 대학원 박사
- ⑨ 모름

**B. 다음은 귀하의 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구원 수]**

B1.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 가구원**

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 아이의 부모, 형제, 조부모, 기타 친척(삼촌, 고모/이모 등) 및 인척(고모부/이모부, 숙모 등)

나. 생계, 교육, 군복무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아이의 부모 및 형제·자매

다. 입주 도우미, 운전사 등의 비혈연 고용인은 제외함

**[가구 형태]**

B2. 가족 유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부모+자녀
- ② 어머니+자녀
- ③ 아버지+자녀
- ④ 조부모+부모+자녀
- ⑤ 조부모+어머니+자녀
- ⑥ 조부모+아버지+자녀
- ⑦ 한조부모+부모+자녀
- ⑧ 한조부모+어머니+자녀
- ⑨ 한조부모+아버지+자녀
- ⑩ 기타

**[동거 여부]**

B3. 부모님과 아이는 주 4일 이상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어머니	① 아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아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 B4-1로 이동)
2) 아버지	① 아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아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 B4-2로 이동)

**[비동거 이유]**

B4.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아이가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머니	① 어머니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 ② 어머니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학업 중 ③ 어머니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기타( )
2) 아버지	① 아버지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 ② 아버지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학업 중 ③ 아버지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군 복무 중 ⑤ 기타( )

C. 다음은 수면, 배변 등과 같은 아이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면 특성]**

C1. 다음은 아이의 생활 중 수면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밤새 10~12시간 잔다.	①	②	③	④	⑤
2) 낮잠을 자지 않은 날은 저녁을 먹다가 잠이 들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침은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잠잘 때 자주 인형, 책, 애착 담요를 달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면 시간]**

C2. 다음은 아이의 수면 시간에 관한 문항입니다. 평소 아이의 낮잠과 밤잠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문 항 내 용	횟수 또는 시간
밤잠	1) 아이는 평소 몇 시에 일어납니까(기상 시각)?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 평균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평균 ( )시 ( )분

구분	문항 내용	횟수 또는 시간
	2) 아이는 평소 몇 시에 잠이 듭니까(취침 시각)?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 평균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평균 ( )시 ( )분
	3) 아이는 평소 밤잠 중 얼마나 자주 깬니까? ※일정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 평균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평균 _____회
낮잠	1) 아이의 평소 하루 동안 낮잠 횟수는 몇 회입니까?  ※낮잠 횟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주일 평균으로 응답해 주시고, 30분 이상 수면이 이루어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평소 낮잠을 자긴 하지만, 30분 보다 짧게 잔다.
	2) 아이의 평소 하루 동안 낮잠 시간은 총 몇 분입니까? ※분 단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루 평균 총 _____분

**[배변/씻기 특성]**

C3. 다음은 배변-목욕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평소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보기에 ✓표하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비누나 수건을 가지고 놀면서 혼자 씻어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옷 입힐 때 팔을 끼우거나 양말을 신길 때 발을 드는 등 옷 입힐 때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완벽하지는 않지만(옷을 거꾸로 입거나 한쪽 가랑이에 두 다리를 넣는 등) 혼자 옷을 입고 벗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저귀나 바지에 대소변을 보면 어른들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는 못하나 (대소변 간격이 길어지면서 배변 실수가 줄어드는 등) 괄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식생활 특성]**

C4. 다음은 아이의 식생활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예전보다 식욕이 줄었지만 점심은 대체로 잘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2) 가끔 음식을 입에 물고 있거나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배가 고프거나 좋아하는 것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컵을 잘 사용한다(컵을 들어 물을 마시고, 다시 내려놓거나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혼자 음식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이유식/일반식 시작 시기]**

C5. 귀하는 몇 개월부터 아이에게 이유식/일반식을 주셨나요?

이유식: ① 생후 \_\_\_\_\_개월에 시작

일반식: ① 생후 \_\_\_\_\_개월에 시작, ② 아직 시작하지 않음

**[식습관]**

C6. 다음은 아이의 생활 중 식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의 식사시간은 규칙적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의 식사량은 일정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는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아이의 식사속도는 빠른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성인의 도움 없이) 아이는 스스로 식사를 잘 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D. 다음은 아이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중] 2023년도부터 직접 측정**

D1. 아이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입니까? \_\_\_\_\_ kg

**[신장] 2023년도부터 직접 측정**

D2. 아이의 현재 키는 몇 cm입니까? \_\_\_\_\_ cm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

D3. 귀하의 아이는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사고나 질환으로 의료기관  
이나 응급실을 이용 한 적이 있습니까?

질환명	D3-1. 의료기관 및 응급실 방문 여부	D3-2. 입원여부/입원 일 수
1) 호흡기 질환(폐렴, 독감, 코로나19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 ____일) ② 아니오
2) 신경계통 질환(뇌성마비, 운동장애, 경련질환)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 ____일) ② 아니오
3) 순환계통 질환(심장병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 ____일) ② 아니오
4) 소화계통 질환(위장관염, 장폐색, 탈장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 ____일) ② 아니오
5) 피부 질환(피부염, 두드러기, 아토피피부염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 ____일) ② 아니오
6) 비뇨생식계통 질환(요로감염, 선천 신요로기형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 ____일) ② 아니오
7) 사고로 인한 손상(골절, 화상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 ____일) ② 아니오
8) 약제나 유해 물질 중독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 ____일) ② 아니오
9) 기타 ( _____ )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 ____일) ② 아니오

**[평소 건강]**

D4. 아이의 평소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쁨                      ② 대체로 나쁨                      ③ 보통  
④ 대체로 좋음                      ⑤ 매우 좋음



**[질환 진단 여부]**

D5. 귀하의 아이는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환명	진단 여부
1) 모세기관지염	① 예 ② 아니오
2) 폐렴	① 예 ② 아니오
3) 아토피피부염	① 예 ② 아니오
4) 음식 알레르기	① 예 ② 아니오
5) 상기도 감염* (급성 비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후염, 급성 기관지염 등)	① 예 ② 아니오
6) 중이염(급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① 예 ② 아니오
7) 요로감염	① 예 ② 아니오
8) 탈장	① 예 ② 아니오
9) 심장 질환	① 예 ② 아니오
10) 기타 ( _____ )	① 예 ② 아니오

\* 일반적으로 상기도 감염에 중이염이 포함되나, 이 연구에서는 중이염을 별도의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음.

**[장애 판정 여부]**

D6. 귀하의 아이는 진단 받은 장애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D7로 이동)

**[장애 정도]**

D6-1. (D6번 문항에서 ① 선택 시) 귀하의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중증                  ② 경증

**[장애 유형]**

D6-2. (D6번 문항에서 ① 선택 시) 귀하의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지적장애 ⑦ 정신장애 ⑧ 자폐성 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뇌전증장애

**[예방접종 종류 및 접종 여부]**

D7. 귀하의 아이는 다음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까?

예방접종 종류	접종 회차			
	1차	2차	3차	4차
1) B형간염(HepB)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2) 결핵*	① 예 ② 아니오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4) 폴리오(IPV)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5)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6) 폐렴구균(PCV)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7) 로타바이러스(RV1)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8) 수막구균*	① 예 ② 아니오			
9)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① 예 ② 아니오			
10) 수두*(VAR)	① 예 ② 아니오			
11) A형간염(HepA)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12) 일본뇌염(IJEV/LJEV)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13) 인플루엔자(IV)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1차 접종만 해당함

**[건강검진 수검]**

D8. 귀하의 아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시기별 영유아 건강검진을 수검하였습니까?

구분	문항내용	수검 여부
영유아 건강검진	1차 검진(생후 14~35일)	① 예    ② 아니오
	2차 검진(생후 4~6개월)	① 예    ② 아니오
	3차 검진(생후 9~12개월)	① 예    ② 아니오
	4차 검진(생후 18~24개월)	① 예    ② 아니오
영유아 구강검진	1차 검진(생후 18~29개월)	① 예    ② 아니오

**[구강보건]**

D9. 귀하의 아이가 평소 잇솔질 하는 시기를 모두 ✓표해주세요. (해당 시간 모두 체크)

- ① 아침식사 전                      ② 아침식사 직후                      ③ 점심식사 전
- ④ 점심식사 직후                      ⑤ 저녁식사 전                      ⑥ 저녁식사 직후
- ⑦ 간식 후                      ⑧ 잠자기 전

## E. 다음은 주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시간대별 주양육자]

E1. 평일 오전 7시에서 밤 11시까지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기관을 응답해 주십시오.

(1시간 간격으로 기입합니다.)

※ 기준일은 방문 전날이며, 방문날이 일요일이나 월요일인 경우 전 주 금요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준일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중 평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아이가 잠자는 경우 해당시간에 돌봐주는 양육자 기입) 기준일: 2023년 월 일 (요일)			
<보기> 01) 아이의 어머니 02) 아이의 아버지 03) 조부모 04) 기타 친인척 05) 어린이집 06)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07) 비혈연 육아 인력(공공 육아 도우미-아이돌보미 등) 08) 비혈연 육아 인력(사설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등) 09) 문화센터 등 사설 기관 10) 기타			
시각	번호	시각	번호
07:00~08:00		15:00~16:00	
08:00~09:00		16:00~17:00	
09:00~10:00		17:00~18:00	
10:00~11:00		18:00~19:00	
11:00~12:00		19:00~20:00	
12:00~13:00		20:00~21:00	
13:00~14:00		21:00~22:00	
14:00~15:00		22:00~23:00	

### [교육·보육·육아지원서비스 비용]

E2. (E1번 문항에서 03 ~ 10 선택 시) 자녀돌봄(교육·보육)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래의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은 제외한 비용만 응답함.

구분	E2-1. 비용 발생 여부 자녀돌봄(교육·보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E2-2 월평균 비용*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1) 조부모	① 예( →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평균 ( ) 만원

구분	E2-1. 비용 발생 여부 자녀돌봄(교육·보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E2-2 월평균 비용*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2) 기타 친인척	① 예( →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평균 ( ) 만원
3) 어린이집	① 예( →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평균 ( ) 만원
4)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① 예( →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평균 ( ) 만원
5) 공공 육아 도우미-아이돌보미	① 예( →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평균 ( ) 만원
6) 사설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① 예( →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평균 ( ) 만원
7)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① 예( →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평균 ( ) 만원
8) 기타( )	① 예( →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평균 ( ) 만원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입력 가능 (예: 2만 8천원인 경우 → 2.8 입력)

**F. 다음은 양육지원에 대한 문항입니다.**

**[사회적 지원 인원]**

- F1. 귀하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아이를 잠깐 맡아주는 등 자녀양육을 직접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배우자 제외, 주기적으로 돌봄을 맡아 사례를 드리는 경우 제외)  
 ① 예 (→ F1-1로 이동)                          ② 아니오 (→ F2로 이동)

F1-1. 도와주는 사람의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사회적 지원 정도]**

F2. 다음 문항을 읽고,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가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G. 다음은 귀 댁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평균 가구소득]**

G1. 귀 댁의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지칭함.**  
 ☞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월평균 실수령 가구소득 \_\_\_\_\_ 만원

G1-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 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               |                |
|---------------|----------------|
| ① 100만원 이하    | ② 101만원~200만원  |
| ③ 201만원~300만원 | ④ 301만원~400만원  |
| ⑤ 401만원~500만원 | ⑥ 501만원~600만원  |
| ⑦ 601만원~700만원 | ⑧ 701만원~800만원  |
| ⑨ 801만원~900만원 | ⑩ 901만원~1000만원 |
| ⑪ 1001만원 이상   |                |

**[부채 여부 및 부채액], [부채 월 상환액]**

G2. 귀댁의 갚아야 할 부채(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임대보증금 등)와 월 상환금(원금 또는 이자)이 있다면, 얼마입니까?

구분	금액
1) 부채	총 ( ) 만원
2) 월 상환금	총 ( ) 만원

**[월평균 가구지출]**

G3. 귀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얼마입니까?

또한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자녀 교육·보육비 등은 얼마인지 아래 항목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1) 가구 전체의 총 지출*	월평균 ( ) 만원	
2) 항목별 지출	2-1) 식비(식료품, 음료, 외식 등)	월평균 ( ) 만원
	2-2) 주거비(집세, 수도, 광열 등)	월평균 ( ) 만원
	2-3) 보건·의료비(병원, 약구매비 등)	월평균 ( ) 만원
	2-4) 자녀 교육·보육비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문화센터 등)	월평균 ( ) 만원
	2-5) 그 외	월평균 ( ) 만원

\* 식비(식료품·음료, 주류·담배, 외식 등), 의류·신발 구입비, 주거비(집세, 수도, 광열 등), 가정용품·가사서비스(세탁 등) 비용,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오락·문화비(장난감, 서적 등), 교육비, 기타상품·서비스(이미용, 보험 등), 다른 가구에 지출하는 비용(부모님 용돈 등), 종교단체 기부금, 단체회비 등

G3-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댁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               |                |
|---------------|----------------|
| ① 100만원 이하    | ② 101만원~200만원  |
| ③ 201만원~300만원 | ④ 301만원~400만원  |
| ⑤ 401만원~500만원 | ⑥ 501만원~600만원  |
| ⑦ 601만원~700만원 | ⑧ 701만원~800만원  |
| ⑨ 801만원~900만원 | ⑩ 901만원~1000만원 |
| ⑪ 1001만원 이상   |                |



**[거주지역 특성]**

H3. 현재 살고 있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 ① 일반주택지역      ② 일반아파트지역      ③ 상가지역
- ④ 공장(단)지역
- ⑤ 농·어가지역      ⑥ 기타 ( \_\_\_\_\_ )

**[현거주지 거주 이유]**

H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정할 때 가장 고려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근무지와의 거리
- ② 돌봄 제공자(조부모, 친척 등)와의 접근성
- ③ 주거 비용
- ④ 교육·보육 등 양육 환경
- ⑤ 기타 ( \_\_\_\_\_ )

**[반려동물 여부]**

H5. 귀 댁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니까?

- ① 키움      ② 키우지 않음

**[주거 공간]**

H6. 아이는 개인 방이 있습니까?

☞ 개인 방: 혼자만 사용하는 침실 등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쓰는 방은 해당하지 않음.

- ① 예, 개인 방이 있음      ② 아니오, 개인 방이 없음

**[주거 면적]**

H6-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을 제외하고 건물의 연면적을 기입해 주십시오.

※ 공급면적을 평수와 m<sup>2</sup>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평 혹은 (            )m<sup>2</sup>



**[주거지 방 개수]**

H6-2.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 방의 수는 거실(대청마루), 부엌, 식당(부엌에 딸린 식당 포함)을 제외한 방의 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            )개

**I.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11.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하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치안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놀이터, 공원, 산책로, 도서관 등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인도와 도로주변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시장, 마트, 슈퍼마켓 같은 기본 쇼핑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은행, 병원 같은 기본시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

12.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좋지 않음            ② 대체로 좋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좋음            ⑤ 매우 좋음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기관]**

13.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아동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얼마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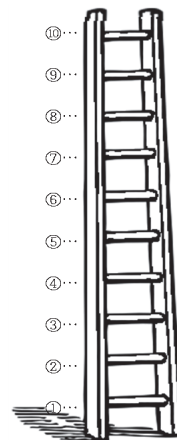
문항내용	전혀 충분하지 않음	대체로 충분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충분함	매우 충분함	잘모름
1)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⑥
2) 유치원(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3) 자녀를 보낼만한 기타 시설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 ※ 사교육기관이란 각종 학원, 영어학원, 놀이학교, 문화센터 등을 모두 포함함	①	②	③	④	⑤	⑥
4) 초등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5) 중·고등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6)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7)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4. 이 사다리가 귀하가 속해 있는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다음의 사다리가 우리사회의 구조를 대표한다고 했을 때, 이 사다리의 제일 위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최고로 선망 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재산이 가장 적으며, 교육도 가장 적게 받았고, 가장 선망 받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 J. 다음은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문항입니다.

### [미디어 사용 이용 시작 시기, 이용일, 이용시간, 디바이스, 이유/상황]

J1. 다음은 아이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문항입니다. 용도별 주어진 내용에 응답해 주세요.

용도		※ 응답칸			
		1. 동영상 시청 (애니메이션, 유튜브)	2. 게임, 놀이	3. 교육용 앱 활용	4. 기타 ( )
1) 이용(노출) 시작 월령	1. 이용 (생후 ___개월부터)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2. 이용하지 않음	□	□	□	□
2) 이용일	일주일에 총 ( )일	( )일	( )일	( )일	( )일
3) 이용시간	주중 1일 평균	( )분	( )분	( )분	( )분
	주말 1일 평균	( )분	( )분	( )분	( )분
4) 주 사용 디바이스	(중복응답)				
	① 스마트 폰	①	①	①	①
	② TV	②	②	②	②
	③ 태블릿 PC (갤럭시탭, 윈도우탭, 아이패드 등)	③	③	③	③
	④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등)	④	④	④	④
	⑤ 기타 ( )	⑤ ( )	⑤ ( )	⑤ ( )	⑤ ( )
5) 이유 /상황	(중복응답)				
	①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①	①	①	①
	② 어린이집 등 기관 등원 준비를 하기 위해	②	②	②	②
	③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게 하기 위해	③	③	③	③
	④ 보호자(부모)가 아이의 방해 없이 일하거나 휴식하기 위해 (예: 식사 준비, 청소, 업무 등)	④	④	④	④
	⑤ 아이의 놀이를 위해	⑤	⑤	⑤	⑤
	⑥ 아이의 교육을 위해	⑥	⑥	⑥	⑥
	⑦ 아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을 주기 위해	⑦	⑦	⑦	⑦
	⑧ 잠을 재우기 위해	⑧	⑧	⑧	⑧
	⑨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⑨	⑨	⑨	⑨
	⑩ 기타 ( )	⑩ ( )	⑩ ( )	⑩ ( )	⑩ ( )

**[미디어 이용 규칙]**

J2. 귀하께서는 아이의 미디어 이용에 있어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K1로 이동)

J2-1. (있다면) 아이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실제 상황에서 해당 규칙이 잘 지켜집니까?

- ① 항상 지켜지지 않는다.
- ②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
- ③ 상황에 따라 다르다.
- ④ 대체로 지켜진다.
- ⑤ 항상 지켜진다.

**K.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육아지원정책별 평가]

K1.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중 현금 및 현물/바우처와 관련된 정책을 나열하였습니다. 각 정책별로 귀하의 이용 여부와 만족도에 대해 차례로 주어진 보기에서 선택해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조사일 이후~ 현재까지)

※ 중요도는 해당 정책이 자녀양육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표해주십시오.

구분	종류	이용 여부	만족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없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현금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양육수당	③	
	4) 자녀장려세제		
	5) 공공요금 할인		
	6) 출산급여	③	
	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③	

구분	종류	이용 여부	만족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없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현물/ 바우처	1) 보육료		
	2) 유아학비	③	
	3)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4) 방과후 과정	③	
	5) 아이돌봄지원사업		
	6) 다함께 돌봄, 늘봄학교	③	
	7) 첫만남 이용권	③	
	8)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③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③	
	1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현금>**

- 1) **아동수당**: 만 8세(95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2)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에게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하는 제도  
※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2023년 기준)
- 3) **양육수당**: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2022년생은 24개월부터 지원 대상이므로, 올해는 해당하지 않음)
- 4) **자녀장려세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5) **공공요금 할인**: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전기료 30%(최대 16,000원 한도) 감면
- 6) **출산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 기간 중 휴가를 유급으로 90일까지 사용하는 제도
- 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 기간 중 휴가를 유급으로 10일까지 사용하는 제도

**<현물 및 바우처>**

- 1)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 2) **유아학비**: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학비 지원
- 3)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지원(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당 금액 지원)

- 4) **방과후 과정:** 1일 교육과정 8시간 이상 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에게 이루어지는 보편적 정부지원(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 5) **아이돌봄지원사업:** 만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가정에 파견되는 아이돌보미의 이용 비용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게 연 840시간 이내에서 이용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시간제, 영아종일제)
- 6-1) **다함께 돌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
- 6-2) **늘봄 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학생에 한해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교육 프로그램
- 7) **첫만남 이용권:**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로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 8)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신부는 14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원
- 1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구매를 위한 바우처(월 15만원)를 지급하는 것

**L. 다음은 아이가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이용 여부 및 유형]**

L1. 현재 아이가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어린이집을 다님      ①-1 시간제보육만 이용함(→ L1-1 응답후 O1로 이동)
- ③ 다른 기관을 이용하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음(→ 문 O1번으로 이동)

**[기관 이용 시작 시기]**

L1-1) 아이는 언제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까?

생후 \_\_\_\_\_개월부터

**[기관 주소]**

L2.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는 무엇입니까?

L2-1) 기관명 \_\_\_\_\_

L2-2)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

→ 응답해주신 어린이집 이름을 통해 어린이집의 정보공시(모든 국민에게 공개된 어린이집의 기본 정보)를 활용하고,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관 이용 만족도]**

L3. 현재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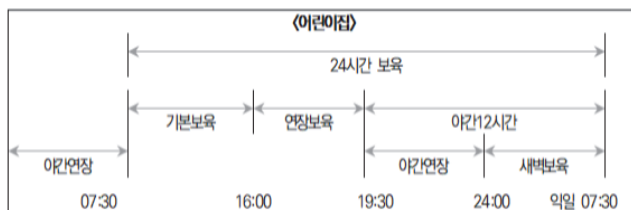
문 항 내 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어린이집 보육과정(놀이·활동, 프로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2)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시설·설비 등)	①	②	③	④	⑤
3) 어린이집과의 소통	①	②	③	④	⑤
4)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①	②	③	④	⑤
5) 어린이집의 자녀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와 지원 (식습관 지도, 개별 습관에 따른 낮잠 지원, 배변 훈련, 관심사나 발달정도에 따른 상호작용 등)	①	②	③	④	⑤

**M. 다음은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의 이용시간 및 보육과정에 관한 문항입니다.**

**[돌봄/연장보육 이용 여부]**

M1. 현재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해주시십시오. (중복응답)

※ 조사일이 속한 해당 월에 이용한 보육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예: 8월 25일에 조사한다면 8월 기준으로 응답



**N. 다음은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의 부모참여에 관한 문항입니다.**

**[부모-교사 소통]**

N1. 귀하는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아이에 관한 내용으로 얼마나 자주 소통하십니까?

※ 대면, 통화, 앱, 문자메시지, 알림장 등을 통한 모든 소통에 해당합니다.

- ① 전혀 소통하지 않는다.                      ② 소통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자주 소통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자주 소통한다.

**[기관 행사 인지도]**

N2. 귀하는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알고 있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안다.

**[기관 행사 참여도]**

N3. 귀하는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행사, 상담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참여하는 편이다.                                      ⑤ 항상 참여한다.

부모참여 프로그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 프로그램(강연회, 워크숍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운동회 등)</li> <li>• 기관 행사 지원(소풍, 견학, 발표회 등)</li> <li>• 자원봉사(1일 등·하원 및 급식 지원, 청소 등), 활동참여 및 참관(1일 교사, 재능기부, 보조교사 등)</li> <li>• 기관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부모회, 운영위원회 등), 의견 수렴(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등)</li> <li>• 재정적 기여(바자회 참여, 간식 제공 등)</li> <li>• 가정연계 활동</li> </ul>
--------------	---





- ② 아이의 인지·언어 발달을 위해
- ③ 아이의 또래관계 경험을 위해
- ④ 아이의 다양한 예체능적인 경험을 위해
- ⑤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
- ⑥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 ⑦ 기타 \_\_\_\_\_

**[기타 사교육 이용일]**

O2-2. 이용 중인 모든 기타 사교육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총 며칠 이용하십니까?  
주당 총 \_\_\_\_\_ 일

**[기타 사교육 이용 시간]**

O2-3. 이용 중인 모든 기타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1회(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1회(일) 총 \_\_\_\_\_ 시간  
\* 30분 단위로 입력 가능 (예: 4시간 30분인 경우 → 4.5 입력)

**[주당 기타 사교육 이용비용]**

O2-4. 이용 중인 모든 기타 사교육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만원단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평균 총 \_\_\_\_\_ 만원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입력 가능 (예: 2만 8천원인 경우 → 2.8 입력)

**문제행동[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CBCL)]**

다음은 유아의 여러 가지 행동을 묘사하는 항목들입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 가면서 현재나 지난 2개월 내에 여러분의 아이가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면 ②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편이면 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면 ③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이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 본부의 후원하에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영유아의 특성에 맞게 개발한 것입니다.

### ※ 패널아동 연령에 맞는 설문지 제시

16~17개월	18~19개월	20~21개월	22~23개월
---------	---------	---------	---------

각 질문 항목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표기해 주십시오.

잘 할 수 있다 ③	할 수 있는 편이다 ②	하지 못하는 편이다 ①	전혀 할 수 없다 ④
------------	--------------	--------------	-------------

아래 문항들은 ‘아이가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해당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잘 하지 않았던 경우들

예) 아이가 가위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손기능을 보이지만 평소 가위를 주지 않았다.  
블록 쌓기가 가능하지만 집에 해당 장난감 (블록)이 없거나 그 놀이를 즐겨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질문 내용 속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 직접 시켜보고 답해 주십시오,

\*\* 이 질문지는 **만 1세** 유아를 위한 질문지입니다.

◆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록 6. 2차년도 심층조사 설문지: 주양육자 대상 조사

	<b>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2차년도)</b> <b>주양육자 대상 조사(심층)</b>		ID				
<p>안녕하십니까?</p> <p>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미래인구인 영유아의 국가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동의 장기적 발달과 연계된 요인과 그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태아기부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초기 성장발달 관련 횡단·종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p> <p>귀하의 가구께서는 패널 모집 시 산부인과에서 본 조사 참여에 대해 동의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조사를 거쳐 2023년 조사에서는 아동이 만1세 시점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 특성과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p> <p>패널아동의 주양육자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참여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장</p>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중구 소공로 70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팀 (02-398-7745)				조사 수행기관 : (주)한국갤럽 서울 종로구 사직로 70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팀 (02-3702-2640, 010-7487-9472)			

## 언어 발달: 한국어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 생활시간조사

## 〈시간일지 작성 전 속지사항〉

※ 시간일지 작성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읽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일지 작성일 선정**

평소에 아이의 생활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평일과 주말 각각 하루씩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평소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0분 단위로 기록**

시간일지는 기록날짜 및 행동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확히 표시하고, 수면시간을 제외한 하루 동안의 아이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가 평소에 7시에 기상을 하여 22시에 취침을 한다면 7~22시 사이 아이의 생활시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행동'과 '동시행동' 기록 방법**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동시에 했다면, 주로 한 활동을 '주행동'란에 기입하고, 부차적인 활동을 '동시행동'란에 기입합니다.

**3. '함께한 사람'의 기록 방법**

아이와 함께 주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을 '함께한 사람'란에 표시합니다. 함께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 다 표시합니다. 예) 아이가 식사를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와 함께 했다면 '함께한 사람' 2, 3, 4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그러나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었으나 주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4. '주행동' 작성 시 주의사항

기록 방법	부족한 기록의 예(x)	올바른 기록의 예(O)
활동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	아빠와 놀이하기	아빠와 레고블럭 만들기
	EBS 시청하기	EBS 시청하기(타요, 폴리)
	외출하기	공원 산책하기
	등원 준비	세수하기. 옷 갈아입기 : 등원 준비 시 무엇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비행기 놀이	비행기 놀이(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한 놀이인지 장난감을 이용해서 한 놀이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였을 경우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나누어서 기록	고구마 먹기, 그림책 보기	주행동란에 고구마 먹기, 동시행동란에 그림책 보기 (두 가지 행동을 주행동란에 작성하면 안 됨)
	우유 먹으며 노래 부르기 TV 보며 춤추기	30분 동안 더 길게 한 행동을 주행동란에 적고 나머지 행동을 동시행동란에 적음.

**[생활시간\_주중]**

Q2-1. 아이의 생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주중에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시간대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의 하루 일과(주중)는 몇 \_\_\_\_\_시 \_\_\_\_\_분에 시작(기상) ~ \_\_\_\_\_시 \_\_\_\_\_분 종료(취침)  
 ✓ 주중 생활시간 기록일 2023년 \_\_\_\_\_월 \_\_\_\_\_일 (요일: \_\_\_\_\_)  
 ※ 참고사항 : 평소 아동의 수면시간을 제외한 위의 기상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의 시간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시 30분 기상 ~ 22시 취침을 한다고 작성해 주셨다면, 7시 30분 ~ 22시 사이의 행동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아이의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동시행동
	아이가 무엇을 했나요? *주로 한 활동을 3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아기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 (복수선택 가능)									
		1	2	3	4	5	6	7	8		
		혼자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구	선생님	기타	어디서 행동했나요?	아이가 주행동 외에 동시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침 7시	예: 수면	1	2	3	4	5	6	7	8	예: 집	
7:30		1	2	3	4	5	6	7	8		
8시		1	2	3	4	5	6	7	8		
8:30	예: 씻기	1	2	3	4	5	6	7	8		
9시		1	2	3	4	5	6	7	8		
9:30	예: 아침식사	1	2	3	4	5	6	7	8		
10시		1	2	3	4	5	6	7	8		
10:30	예: 집에서 어린이집 이동	1	2	3	4	5	6	7	8		
11시		1	2	3	4	5	6	7	8		
11:30	예: 어린이집 생활	1	2	3	4	5	6	7	8	예: 어린이집	
낮 12시		1	2	3	4	5	6	7	8		
12:30		1	2	3	4	5	6	7	8		
13시		1	2	3	4	5	6	7	8		
13:30		1	2	3	4	5	6	7	8		
14시		1	2	3	4	5	6	7	8		
14:30		1	2	3	4	5	6	7	8		
15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시간	아이의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동시행동
	아이가 무엇을 했나요? *주로 한 활동을 3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 (복수선택 가능)									
		1	2	3	4	5	6	7	8		
		혼자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구	선생님	기타	어디서 행동했나요?	아이가 주행동 외에 동시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15:30		1	2	3	4	5	6	7	8		
16시		1	2	3	4	5	6	7	8		
16:30		1	2	3	4	5	6	7	8		
17시		1	2	3	4	5	6	7	8		
17:30		1	2	3	4	5	6	7	8		
18시		1	2	3	4	5	6	7	8		
18:30		1	2	3	4	5	6	7	8		
19시		1	2	3	4	5	6	7	8		
19:30		1	2	3	4	5	6	7	8		
20시		1	2	3	4	5	6	7	8		
20:30		1	2	3	4	5	6	7	8		
21시		1	2	3	4	5	6	7	8		
21:30		1	2	3	4	5	6	7	8		
22시		1	2	3	4	5	6	7	8		
22:30		1	2	3	4	5	6	7	8		
23시	예: 취침	1	2	3	4	5	6	7	8		
23:30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생활시간\_주말]**

Q2-2. 아이의 생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주말에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시간대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의 하루 일과(주중)는 몇 \_\_\_\_\_시 \_\_\_\_\_분에 시작(기상) ~ \_\_\_\_\_시 \_\_\_\_\_분 종료(취침)  
 ✓ 주중 생활시간 기록일 2023년 \_\_\_\_\_월 \_\_\_\_\_일 (요일: \_\_\_\_\_)  
 ※ 참고사항 : 평소 아동의 수면시간을 제외한 위의 기상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의 시간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시 30분 기상 ~ 22시 취침을 한다고 작성해 주셨다면, 7시 30분 ~22시 사이의 행동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아이의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동시행동
	아이가 무엇을 했나요? *주로 한 활동을 3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아기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 (복수선택 가능)									
		1	2	3	4	5	6	7	8		
혼자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구	선생님	기타				
아침 7시	예: 수면	1	2	3	4	5	6	7	8	예: 집	
7:30		1	2	3	4	5	6	7	8		
8시		1	2	3	4	5	6	7	8		
8:30	예: 씻기	1	2	3	4	5	6	7	8		
9시		1	2	3	4	5	6	7	8		
9:30	예: 아침식사	1	2	3	4	5	6	7	8		
10시		1	2	3	4	5	6	7	8		
10:30	예: 집에서 어린이집 이동	1	2	3	4	5	6	7	8		
11시		1	2	3	4	5	6	7	8		
11:30	예: 어린이집 생활	1	2	3	4	5	6	7	8	예: 어린이집	
낮 12시		1	2	3	4	5	6	7	8		
12:30		1	2	3	4	5	6	7	8		
13시		1	2	3	4	5	6	7	8		
13:30		1	2	3	4	5	6	7	8		
14시		1	2	3	4	5	6	7	8		
14:30		1	2	3	4	5	6	7	8		
15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시간	아이의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동시행동
	아이가 무엇을 했나요? *주로 한 활동을 3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 (복수선택 가능)								어디서 행동 했나요?	아이가 주행동 외에 동시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1	2	3	4	5	6	7	8		
		혼자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구	선생님	기타		
15:30		1	2	3	4	5	6	7	8		
16시		1	2	3	4	5	6	7	8		
16:30		1	2	3	4	5	6	7	8		
17시		1	2	3	4	5	6	7	8		
17:30		1	2	3	4	5	6	7	8		
18시		1	2	3	4	5	6	7	8		
18:30		1	2	3	4	5	6	7	8		
19시		1	2	3	4	5	6	7	8		
19:30		1	2	3	4	5	6	7	8		
20시		1	2	3	4	5	6	7	8		
20:30		1	2	3	4	5	6	7	8		
21시		1	2	3	4	5	6	7	8		
21:30		1	2	3	4	5	6	7	8		
22시		1	2	3	4	5	6	7	8		
22:30		1	2	3	4	5	6	7	8		
23시	예: 취침	1	2	3	4	5	6	7	8		
23:30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부모아동 상호작용행동 검사(IBS)**

◆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록 7.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어린이집 담임교사 대상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b>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2차년도)</b> <b>어린이집 담임교사 대상 조사</b>					ID				
<p>안녕하십니까?</p> <p>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미래인구인 영유아의 국가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동의 장기적 발달과 연계된 요인과 그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태아기부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초기 성장발달 관련 횡단·종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p> <p>해당 아동의 가구에서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바 있으며, 이에 해당 아동의 2023년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귀하께 조사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조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온라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p> <p>패널아동의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참여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장</p>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중구 소공로 70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팀 (02-398-7745)					조사 수행기관 : (주)한국갤럽 서울 종로구 사직로 70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팀 (02-3702-2640, 010-7487-9472)					

**A.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사 성별]**

A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교사 연령]**

A2. 선생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년도를 입력해주세요.

출생년도 \_\_\_\_\_

**[현기관 근무기간]**

A3.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근무기간이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0개월로  
응답

총 \_\_\_\_\_년 \_\_\_\_\_개월

**[교사 근무 경력]**

A4. 선생님의 교사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근무기간이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0개월로  
응답

기관	A4-1. 재직 경험 유무		A4-2. 교사 경력
1) 어린이집	① 있다	② 없다	총 ( )년 ( )개월
2) 유치원	① 있다	② 없다	총 ( )년 ( )개월

**[교사 자격]**

A5. 선생님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사 자격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 ① 3급 보육교사
- ② 2급 보육교사
- ③ 1급 보육교사
- ④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 ⑤ 유치원 2급 정교사
- ⑥ 유치원 1급 정교사

- ⑦ 유치원 원감
- ⑧ 유치원 원장
- ⑨ 초등교사
- ⑩ 중등교사
- ⑪ 특수교사 정교사 2급 이상(유치원과정)
- ⑫ 특수교사 정교사 2급 이상(초·중등과정)
- 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교사의 최초 자격]**

A6.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취득한 교사 자격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 ① 3급 보육교사
- ② 2급 보육교사
- ③ 1급 보육교사
- ④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 ⑤ 유치원 2급 정교사
- ⑥ 유치원 1급 정교사
- ⑦ 유치원 원감
- ⑧ 유치원 원장
- ⑨ 초등교사
- ⑩ 중등교사
- ⑪ 특수교사 정교사 2급 이상(유치원과정)
- ⑫ 특수교사 정교사 2급 이상(초·중등과정)

**[교사 학력]**

A7.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 및 수료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① 고등학교 졸업 ⇨ B1 문항으로
- ② 전문대 (3년제 이하) 재학
- ③ 전문대 (3년제 이하) 졸업
- ④ 대학교 (4년제 이상) 재학
- ⑤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
- ⑥ 대학원 재학
- ⑦ 대학원 졸업

**[교사 전공]**

A8. 선생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최종학력 기준)

- ① 아동(복지)학
- ② 유아교육학
- ③ 보육학
- ④ 가정(관리)학
- ⑤ 사회복지학
- ⑥ 교육학
- ⑦ 특수교육학
- ⑧ 기타\_\_\_\_\_

**B. 다음은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반(학급) 연령 구성, 교사-영유아 비율]**

B1. 현재 담당하고 있는 반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혼합 연령반의 경우 해당 반에 있는 영아의 연령을 입력해주세요.

B1-1. 연령	① 단일 연령반(만 _____ 세) ② 혼합 연령반(만 _____ 세 부터 만 _____ 세 까지)
B1-2. 성별에 따른 수	총 남아 _____ 명, 총 여아 _____ 명
B1-3. 담당 반(교실) 내 교사 수	① 담임교사 _____ 명 ② 보조교사 _____ 명

**[특수요구 및 취약계층 영(유)아 현황]**

B2. 현재 담당하고 계신 반에 아래와 같은 영아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B2-1. 장애 영아	총 _____ 명
B2-2. 장애나 발달지연 관련 서비스나 지원을 받는 영아 ※ 장애 영아 제외	총 _____ 명
B2-3. 다문화 가정의 영아(난민, 탈북민 포함)	총 _____ 명
B2-4.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영아	총 _____ 명

**[기관적응 프로그램 유무]**

B3. 다음 내용 중에서 영아의 기관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서 담당 반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목에 모두 ✓표해주시시오. (중복응답)

문항내용	실시여부 (체크✓)
1) 학기가 시작되기 전 부모와 영아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	
2) 학기가 시작되기 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3) 학기 초에는 영아가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한다.	
4)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안내문을 보내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	

**[교실 환경]**

B4.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교실(반) 환경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실 내의 공간은 영아의 연령과 흥미,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실 내의 자료는 영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실 내에 영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가 골고루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실 내에 영아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자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영유아 디지털미디어 사용 빈도]**

B5. 선생님의 반에서는 보육과정 운영(놀이, 활동, 일상생활 모두 포함) 중 디지털미디어(예: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 ① 주 \_\_일 또는 월 \_\_일                      ② 전혀 사용하지 않음 ⇨ C1 문항으로

**[영유아 디지털미디어 사용 시간]**

B6. 보육과정 운영 중 디지털미디어(예: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실 때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평균 \_\_\_\_\_분

**[바깥놀이 빈도]**

B7. 선생님의 반에서는 보육과정 운영 중 일주일에 며칠 정도 바깥놀이를 나가고 있습니까? 실제 어느 정도 실행하셨는지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십시오.

평균 주 \_\_\_\_\_일

**[바깥놀이 시간]**

B8. 보육과정 운영 중 바깥놀이를 하루에 몇 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루 평균 \_\_\_\_\_분

**C. 다음은 패널아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 참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 질문부터 패널아동은 '아이'로 지칭합니다.

**[부모-교사 소통]**

C1. 아이의 보호자(부모)와 얼마나 자주 아이에 관한 내용으로 소통하십니까?

※ 대면, 통화, 앱, 문자메시지, 알림장 등을 통한 모든 소통에 해당합니다.

평균 주 \_\_\_\_\_ 일 또는 월 \_\_\_\_\_ 일

**[기관 생활 관심도]**

C2. 아이의 보호자(부모)는 기관(어린이집)에서의 아이 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관심 없음
- ② 별로 관심 없는 편임
- ③ 보통
- ④ 관심을 가지는 편
- ⑤ 매우 관심이 큼

**[기관 행사 참여도]**

C3. 올해 기관(어린이집)에서 몇 번의 부모참여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아이의 보호자(부모)는 몇 번을 참석하였습니까?

[부모참여 행사 실시 횟수] C3-1. 부모참여 프로그램 실시 횟수	[부모참여 행사 참석 횟수] C3-2. 부모참여 횟수
_____ 회	_____ 회

부모참여 프로그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 프로그램(강연회, 워크숍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운동회 등)</li> <li>• 기관 행사 지원(소풍, 견학, 발표회 등)</li> <li>• 자원봉사(1일 등·하원 및 급식 지원, 청소 등), 활동참여 및 참관(1일 교사, 재능기부, 보조교사 등)</li> <li>• 기관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부모회, 운영위원회 등), 의견 수렴(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등)</li> <li>• 재정적 기여(바자회 참여, 간식 제공 등)</li> <li>• 가정연계 활동</li> </ul>
--------------	---



## D. 다음은 담당하고 계신 패널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낮잠 여부]

D1. 아이는 기관에서 낮잠을 잡니까?

- ① 낮잠을 잡 (→ D1-1로 이동)      ② 낮잠을 안 잡 (→ D2로 이동)  
 ③ 불규칙적임 (→ D1-1로 이동)      ④ 낮잠 시간이 없음 (→ D2로 이동)

### [낮잠 시간]

D1-1. 낮잠 자는 시간은 1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_\_\_\_\_분

### [기관적응]

D2. 다음은 아이의 기관적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의 적응정도를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과 중 교사의 지시나 요구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2) 또래 아이들이 지키는 수준의 규칙을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3) 자기 순서를 기다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사의 말을 경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사의 지시나 언급이 없어도 늘 하는 일상생활 활동을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아이들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일과 중에 또래를 공격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일과 중에 놀잇감이나 물건, 만들기 한 것들을 던지거나 부순다.	①	②	③	④	⑤
9) 또래를 공격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이 한 번 발생하면, 그 행동을 점점 더 심하게 반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평상시에 소리를 잘 지른다.	①	②	③	④	⑤
11) 속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과도하게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2) 성인에게 눈을 맞추며 웃거나 예쁜 짓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웃거나 미소를 짓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또래나 교사에게 애정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등원하여 교사를 처음 만났을 때 반가움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중간에 잘 깨지 않고, 일정 시간 이상 자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개별적인 일상 활동의 리듬이 불규칙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잠드는 것이 힘들거나, 잠들기 전에 불안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정량의 식사(우유)를 편하게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익숙한 보육실 안에서 새로 바뀐 놀잇감, 책, 환경구성 등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21) 리드미컬하게 점핑을 하거나 몸을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22) 긍정적인 반응의 감탄사를 하거나 소리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23) 뭔가 성취하거나 완성했을 때 기쁨을 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놀이나 활동을 스스로 해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친숙한 또래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친숙한 또래의 놀이행동을 따라하거나 놀잇감을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주변 아이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해도 동하게 있거나, 동떨어진 정서 반응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주변 아이가 울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또래가 하는 놀이를 따라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E. 다음은 선생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무시간]**

E1. 선생님의 실 근무시간은 1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교사 근무시간(주중)] E1-1. 주중 근무시간	[교사 근무 일(주말)] E1-2. 주말 근무 일 수 ※ 1개월은 4주 기준(최대 8일)	[교사 근무시간(주말)] E1-3. 주말 근무시간
1일 평균 _____ 시간	1개월 평균 _____ 일	1일 평균 _____ 시간

**[소진]**

E2. 다음 문항을 읽고 선생님에게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평소 느끼는 바를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생활하고 나면 몸이 지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퇴근 후에도 업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직장의 비합리적인 업무 배정에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영유아교사로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영유아교사를 하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심리적으로 지쳐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영유아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퇴근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는 직장의 근무체계에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평소에 쉬어도 몸이 무겁고 나른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도 모르게 심호흡을 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의 직업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고충을 직장 상사가 이해해 주지 않아 의욕이 상실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직장에서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영유아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없을 만큼 지쳐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주말에 쉬지 않으면 월요일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영유아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효능감]**

E3. 다음 문항을 읽고 선생님에게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비추어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9)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잡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무슨 일든 정확하게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직무만족도]**

E4. 다음 문항을 읽고 선생님에게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어린이집 일에 만족하며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하루 일과를 끝마칠 때면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학부모와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할 때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의 업무량은 내 능력에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근무환경과 관계없이 나의 직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영유아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학습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우리 어린이집은 교수-학습 자료를 만족스럽게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어린이집은 교사와 영유아의 비율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어린이집은 교사를 위한 복지시설이 불편 없이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원장은 내 업무를 존중해 주고 내 생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부모들은 교사인 나를 신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원장선생님으로부터 충분한 신임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 직업에 대해 남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보육교사로서 내 업무에 소신껏 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본봉 이외의 각종 수당이 적당하게 지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교사들의 휴가 또는 병가 시 대체 인력이 적절하게 제공 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보수는 학력, 경력, 능력을 고려해 볼 때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하고 있는 업무량과 비교할 때 적절한 보수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어린이집은 교사들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기관장의 리더십]

E5.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현 기관장님(어린이집 원장님)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주십시오.

번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원장 선생님은...					
1	교사들의 애경사에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사들과 거리감 없이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사들과 동고동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사와 격의 없이 대화에 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사들 간의 상호친목에 힘쓴다.	①	②	③	④	⑤
6	교사 개개인의 신상에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정다감하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교사들의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교사들의 장점을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교사들의 업무수행을 확인·점검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기관의 경영방침을 분명하게 밝힌다.	①	②	③	④	⑤
13	교사들의 실수를 잡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일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계획된 일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새로운 수업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기관의 경영개선에 적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공사구분이 뚜렷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원리원칙을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지나치게 일의 성과를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교사들을 혹사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실보다 겉치레를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각종 매스컴을 통한 기관 홍보에 힘쓴다.	①	②	③	④	⑤
25	행사교육에 치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교사들을 부하처럼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27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행해지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계획된 일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자기 방식대로 교사들이 따라오기를 강요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록 8. 부록 표

〈부표 8-1〉 주양육자별 돌봄 시간(1)

단위: 시간(명)

구분	어머니 (수)	아버지 (수)	조부모 (수)	친인척 (수)
전체	9.15 (2537)	2.71 (1633)	4.42 (349)	2.17 (17)
아동 월령				
16~17개월	9.76 <sup>b</sup> ( 510)	2.88 ( 339)	5.06 ( 71)	2.30 ( 5)
18~19개월	9.08 <sup>a</sup> ( 864)	2.65 ( 574)	4.45 (113)	2.03 ( 6)
20~21개월	9.15 <sup>ab</sup> ( 678)	2.75 ( 410)	4.04 ( 97)	2.19 ( 7)
22~23개월	8.64 <sup>a</sup> ( 484)	2.58 ( 310)	4.29 ( 67)	- -
<i>F</i>	6.48***	2.29	1.58	0.06
출생순위				
첫째	8.99 <sup>a</sup> (1561)	2.85 <sup>b</sup> (1049)	4.62 (237)	2.44 (12)
둘째	9.24 <sup>a</sup> ( 791)	2.46 <sup>a</sup> ( 483)	3.89 ( 94)	1.86 ( 2)
셋째 이상	10.14 <sup>b</sup> ( 185)	2.46 <sup>a</sup> ( 101)	4.78 ( 18)	1.45 ( 4)
<i>F</i>	6.95**	11.08***	2.05	0.98
맞벌이 여부				
맞벌이	7.44 ( 718)	2.86 ( 489)	4.63 (167)	2.15 ( 9)
맞벌이 아님	10.58 ( 696)	2.61 ( 483)	4.14 ( 30)	1.51 ( 1)
<i>t</i>	-15.91***	2.35*	0.80	0.5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표 8-2〉 주양육자별 돌봄 시간(2)

단위: 시간(명)

구분	어린이집 (수)	시간제 보육 (수)	아이 돌보미 (수)	사설육아 도우미 (수)
전체	7.28 (1512)	5.20 (54)	3.87 (50)	5.29 (30)
아동 월령				
16~17개월	7.19 ( 243)	5.43 (12)	3.44 (11)	4.13 (11)
18~19개월	7.21 ( 528)	4.38 (19)	3.76 (19)	5.78 (11)
20~21개월	7.36 ( 419)	4.92 (14)	5.46 ( 8)	8.27 ( 3)
22~23개월	7.36 ( 322)	6.98 ( 9)	3.36 (12)	5.24 ( 6)
<i>F</i>	1.68	2.31	2.03	2.79
출생순위				
첫째	7.23 ( 929)	5.59 (37)	4.15 (20)	5.39 (14)
둘째	7.34 ( 490)	3.93 (16)	3.43 (23)	5.40 (15)
셋째 이상	7.44 ( 94)	9.00 ( 2)	4.52 ( 7)	2.00 ( 1)
<i>F</i>	1.82	4.33*	1.01	0.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7.50 ( 513)	4.96 (17)	3.60 (21)	4.90 (11)
맞벌이 아님	7.02 ( 315)	5.18 (19)	4.43 (13)	4.97 ( 6)
<i>t</i>	4.99***	-0.25	-1.10	-0.07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  $p < .001$ .

〈부표 8-3〉 모유수유 중단 시기

단위: %, 일, (명)

구분	모유수유 중단 시기										평균	계(수)
	처음 부터 하지 않음	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6개월 ~ 12개월 이상		
전체	8.9	22.1	20.9	11.6	10.6	3.5	4.6	11.5	6.3	110.58	100.0(1993)	
출생순위												
첫째	8.8	23.5	20.1	12.5	10.7	3.4	4.8	10.6	5.5	103.90 <sup>a</sup>	100.0(1278)	
둘째	9.2	20.3	23.7	9.7	10.6	3.4	4.6	12.8	5.9	113.14 <sup>a</sup>	100.0( 581)	
셋째 이상	8.9	16.9	15.6	10.7	10.4	3.9	3.1	14.4	16.1	163.42 <sup>b</sup>	100.0( 133)	
$\chi^2(df)/F$										13.83 <sup>***</sup>		
											13.47(2) <sup>**</sup>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1.1	28.0	30.0	3.5	0.0	9.1	0.0	24.0	4.3	135.69 <sup>a</sup>	100.0( 28)	
25~30세 미만	10.6	21.8	16.8	13.5	11.1	2.8	7.3	10.5	5.5	109.83 <sup>a</sup>	100.0( 199)	
30~35세 미만	9.6	24.0	20.0	11.3	12.1	3.7	4.6	9.6	5.0	99.54 <sup>a</sup>	100.0( 814)	
35~40세 미만	7.8	21.1	23.4	12.1	8.4	3.2	3.9	13.6	6.6	113.69 <sup>a</sup>	100.0( 728)	
40세 이상	9.2	18.1	18.1	10.3	13.8	3.1	5.2	10.8	11.3	138.24 <sup>a</sup>	100.0( 223)	
$\chi^2(df)/F$										4.69 <sup>***</sup>		
											n.a.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이하	16.6	18.6	25.9	9.0	7.9	3.8	3.9	10.1	4.1	94.69 <sup>a</sup>	100.0( 318)	
전문대(기능대학)	7.3	26.9	23.0	12.3	10.2	1.8	2.5	9.4	6.6	103.19 <sup>a</sup>	100.0( 355)	
대학교	7.8	21.5	18.7	12.5	11.6	3.8	5.3	12.2	6.8	115.96 <sup>a</sup>	100.0(1125)	
대학원 이상	5.5	23.0	21.3	9.3	10.4	4.3	5.9	13.4	7.0	118.92 <sup>a</sup>	100.0( 195)	
$\chi^2(df)/F$										3.07 <sup>*</sup>		
											0.59(3)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8.1	25.4	22.2	11.6	9.8	3.4	3.3	10.9	5.4	102.56 <sup>a</sup>	100.0(1018)	
학업 중	9.5	11.4	18.4	8.5	22.3	3.6	0.0	9.1	17.1	150.33 <sup>a</sup>	100.0( 20)	
미취업/미취학	9.7	18.9	19.4	11.7	11.3	3.5	6.1	12.2	7.1	118.20 <sup>a</sup>	100.0( 954)	
$\chi^2(df)/F$										4.89 <sup>**</sup>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부표 8-4〉 모유수유 중단 이유

단위: %(명)

구분	젖의 양이 적어서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해서	낮 시간동안 수유가 어려워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질병, 약 복용으로	모유를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해서	기타	무응답	계(수)
전체	35.8	12.1	4.9	16.4	9.3	13.5	6.3	1.7	100.0 (1993)
출생순위									
첫째	35.6	14.5	4.6	17.3	8.7	12.6	5.2	1.4	100.0 (1278)
둘째	36.2	8.8	5.8	15.0	10.1	13.8	8.5	1.7	100.0 ( 581)
셋째 이상	35.6	3.3	4.2	13.3	11.5	21.1	7.0	4.0	100.0 ( 133)
$\chi^2(df)$				38.13***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22.4	16.6	0.0	15.5	8.0	21.2	10.0	6.3	100.0 ( 28)
25~30세 미만	27.1	12.5	3.2	18.8	9.0	19.6	8.0	1.7	100.0 ( 199)
30~35세 미만	33.5	14.8	4.6	19.4	7.8	12.3	5.9	1.7	100.0 ( 814)
35~40세 미만	39.3	10.3	5.7	13.9	10.0	13.1	6.4	1.3	100.0 ( 728)
40세 이상	41.9	7.1	5.9	11.3	12.9	13.0	5.2	2.6	100.0 ( 223)
$\chi^2(df)$				55.81***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이하	36.7	16.8	3.4	15.7	6.4	11.6	7.5	2.0	100.0 ( 318)
전문대(기능대학)	35.7	11.6	2.9	17.6	10.6	12.1	8.2	1.3	100.0 ( 355)
대학교	35.6	11.3	4.8	16.3	9.5	15.0	5.5	2.0	100.0 (1125)
대학원 이상	35.6	10.0	11.8	15.7	10.6	10.8	5.1	0.4	100.0 ( 195)
$\chi^2(df)$				43.13***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36.2	11.8	8.4	16.2	10.0	10.1	5.9	1.4	100.0 (1018)
학업 중	30.0	12.8	0.0	20.5	11.6	11.2	13.9	0.0	100.0 ( 20)
미취업/미취학	35.5	12.4	1.3	16.5	8.5	17.3	6.5	2.0	100.0 ( 954)
$\chi^2(df)$				76.37***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01$ .

〈부표 8-5〉 주중 오전 행위 비율: 전체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5:00	5:30	6:00	6:30	7:00	7:30	8:00	8:30	9:00	9:30	10:00	10:30	11:00	11:30	12:00
① 개인유지	100.0	100.0	99.5	98.0	95.2	89.7	86.9	75.6	54.4	29.2	13.4	7.6	9.1	16.6	30.7
-수면	100.0	99.8	98.5	95.8	85.1	63.5	33.3	14.4	4.0	1.0	0.8	1.3	2.8	4.8	7.3
-식사 및 간식	-	0.3	0.5	1.8	6.3	15.6	21.7	28.5	26.7	14.4	6.6	3.3	4.5	6.6	21.9
-개인관리	-	-	-	0.3	3.0	10.1	31.2	32.0	23.2	13.6	5.8	2.5	1.5	4.5	1.0
-간강관리	-	-	-	-	-	-	-	0.3	0.3	0.3	0.3	0.3	-	-	-
-개인양육받기	-	-	-	-	-	-	-	-	-	-	-	-	-	0.3	-
-기타 일상활동	-	-	0.5	0.3	0.8	0.5	0.8	0.5	0.3	-	-	0.3	0.3	0.5	0.5
② 학습	-	-	0.3	0.3	0.5	0.8	1.8	1.0	2.0	3.0	3.3	2.5	3.8	2.8	2.0
-학습 활동	-	-	-	-	-	-	-	-	-	-	-	-	-	-	-
-학과 학습 외 활동	-	-	0.3	0.3	0.5	0.8	1.8	1.0	2.0	3.0	3.0	2.3	3.5	2.8	2.0
-놀이 학습	-	-	-	-	-	-	-	-	-	-	0.3	-	-	-	-
-기타	-	-	-	-	-	-	-	-	-	-	-	0.3	0.3	-	-
③ 대리 양육	-	-	-	-	-	-	1.0	5.8	17.4	35.8	53.7	59.7	59.7	58.7	57.9
-가정양육	-	-	-	-	-	-	1.0	5.8	17.4	35.8	53.7	59.7	59.7	58.7	57.9
-양육도우미	-	-	-	-	-	-	-	-	-	-	-	-	-	-	-
④ 가정관리 돕기	-	-	-	-	-	-	-	-	0.3	-	-	-	-	-	-
-음식 준비 및 정리	-	-	-	-	-	-	-	-	-	-	-	-	-	-	-
-의류관리 돕기	-	-	-	-	-	-	-	-	-	-	-	-	-	-	-
-청소 및 정리 돕기	-	-	-	-	-	-	-	-	0.3	-	-	-	-	-	-
-기타 가정관리 돕기	-	-	-	-	-	-	-	-	-	-	-	-	-	-	-
⑤ 교제 및 여가 활동	-	-	0.3	1.3	4.0	8.8	7.8	9.8	10.6	17.4	20.9	22.9	19.7	16.9	5.8
-교제 활동	-	-	-	0.3	0.3	1.0	0.3	0.5	0.5	0.3	1.0	0.3	-	0.8	0.5
-미디어 이용	-	-	-	0.3	1.3	1.3	1.5	1.5	3.0	3.5	3.0	2.8	2.8	4.8	1.3
-종교 관련 활동	-	-	-	-	-	-	-	-	-	-	-	-	-	-	-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	-	-	-	-	-	-	-	-	-	-	-	-	-	-
-실외놀이	-	-	0.3	-	0.5	0.3	0.5	1.0	1.0	3.0	4.5	5.3	4.5	2.3	1.0
-실내놀이	-	-	-	0.8	2.0	6.3	5.5	6.8	6.1	10.6	12.1	14.6	12.1	8.8	2.8
-따라 하기	-	-	-	-	-	0.5	-	-	-	-	-	-	0.3	0.3	0.3
-아무 것도 안하고 쉼	-	-	-	-	-	-	-	-	-	-	-	-	-	-	-
-기타 여가관련 활동	-	-	-	-	-	-	-	-	-	-	0.3	-	-	-	-
⑥ 이동하기	-	-	-	-	-	0.5	2.0	6.6	14.6	13.6	8.1	6.6	6.6	4.8	3.5
-개인유지관련 이동	-	-	-	-	-	-	-	-	-	-	0.3	-	-	-	0.5
-학습관련 이동	-	-	-	-	-	-	-	-	0.3	-	-	-	-	-	-
-대리양육이용 전후 이동	-	-	-	-	-	0.5	2.0	6.6	14.1	12.6	5.3	2.3	0.3	1.3	-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	-	-	-	-	-	-	-	-	-	2.3	0.5	4.5	0.3	1.5
-기타 이동하기	-	-	-	-	-	-	-	-	0.3	-	2.3	3.8	-	3.3	1.5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	-	-	-	-	-	-	-	-	1.0	-	-	-	-	-
⑦ 그 외 기타활동	-	-	-	0.5	0.3	0.3	0.5	1.3	0.8	1.0	0.8	0.8	1.3	0.3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부표 8-6〉 주중 오후 행위 비율: 전체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12:30	13:00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① 개인유지	33.5	31.0	32.5	30.8	27.5	21.4	19.1	16.1	24.7	35.0	39.6
-수면	8.3	20.7	26.7	22.7	15.6	8.1	6.6	3.5	2.5	1.0	1.8
-식사 및 간식	23.9	9.6	3.0	6.6	7.6	8.8	6.1	5.3	6.6	9.6	14.6
-개인관리	1.0	0.8	2.5	1.3	3.5	3.8	6.1	6.6	14.9	23.7	22.9
-건강관리	-	-	-	-	-	0.3	0.3	0.3	0.3	0.5	-
-개인양육받기	-	-	-	-	-	-	-	0.3	0.3	-	-
-기타 일상활동	0.3	-	0.3	0.3	0.8	0.5	0.3	0.3	0.3	0.3	0.3
② 학습	0.5	1.0	1.0	1.5	1.3	0.5	1.3	1.5	2.3	4.3	5.5
-학습 활동	-	-	-	-	-	-	-	-	-	-	-
-학과 학습 외 활동	0.5	1.0	1.0	1.3	1.3	0.5	1.3	1.5	2.3	3.8	5.5
-놀이 학습	-	-	-	0.3	-	-	-	-	-	-	-
-기타	-	-	-	-	-	-	-	-	-	0.5	-
③ 대리 양육	58.7	57.4	57.2	57.2	56.2	53.4	44.3	30.2	16.6	5.3	3.5
-기관이용	58.7	57.4	57.2	57.2	56.2	53.4	44.3	30.2	16.6	5.3	3.5
-양육도우미	-	-	-	-	-	-	-	-	-	-	-
④ 가정관리 돕기	-	-	0.3	0.3	0.3	0.3	0.3	0.3	0.3	0.3	-
-음식 준비 및 정리	-	-	-	-	-	-	-	-	-	0.3	-
-의류관리 돕기	-	-	-	-	-	-	-	-	-	-	-
-청소 및 정리 돕기	-	-	-	-	-	-	-	-	-	-	-
-기타 가정관리 돕기	-	-	0.3	0.3	0.3	0.3	0.3	0.3	0.3	-	-
⑤ 교제 및 여가 활동	4.0	6.3	5.5	7.1	9.6	18.4	23.4	33.5	41.1	42.3	44.8
-교제 활동	-	-	0.3	-	0.5	1.5	1.8	2.0	1.8	2.3	1.5
-미디어 이용	0.8	0.5	0.3	0.8	0.5	1.0	0.8	2.0	3.8	8.6	10.6
-종교 관련 활동	-	-	-	-	-	-	-	-	-	-	-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	-	-	-	-	-	-	-	-	-	-
-실외놀이	0.3	1.0	1.5	2.3	2.8	8.3	10.8	16.9	17.6	11.6	5.8
-실내놀이	2.5	4.8	3.5	3.3	5.3	7.3	9.1	10.6	16.4	17.9	25.2
-따라 하기	0.5	-	-	0.8	0.5	0.3	1.0	2.0	1.3	1.0	0.5
-아무 것도 안하고 쉼	-	-	-	-	-	-	-	-	-	0.5	0.8
-기타 여가관련 활동	-	-	-	-	-	-	-	-	0.3	0.5	0.5
⑥ 이동하기	3.3	4.3	3.5	2.3	4.3	5.5	10.3	17.4	14.6	11.8	5.3
-개인유지관련 이동	-	-	-	-	0.3	-	0.3	0.3	-	-	-
-학습관련 이동	-	-	-	-	-	-	-	-	-	-	-
-대리양육이용 전후 이동	1.5	2.0	1.8	1.5	2.3	3.8	8.1	10.3	7.1	5.0	1.8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	0.3	0.5	0.3	0.5	0.5	0.5	0.3	0.8	0.8	3.5
-기타 이동하기	-	-	-	0.5	1.3	1.3	1.5	6.3	6.6	6.1	-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1.8	2.0	1.3	-	-	-	-	0.3	0.3	-	-
⑦ 그 외 기타활동	-	-	-	1.0	1.0	0.5	1.3	1.0	0.5	1.0	1.3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표 8-7〉 주중 저녁 행위 비율: 전체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21:30	22:00	22:30	23:00	23:30
① 개인유지	64.5	71.5	45.1	50.4	65.2	79.4	92.2	95.5	99.3	99.5	100.0	100.0
-수면	0.5	0.8	1.8	3.3	41.6	66.3	85.9	92.7	97.5	99.0	99.5	99.8
-식사 및 간식	54.7	60.2	26.2	10.1	5.0	1.3	0.8	-	0.5	-	-	-
-개인관리	8.3	10.3	16.6	36.3	17.9	11.1	4.5	2.5	1.3	0.3	0.5	0.3
-건강관리	-	-	-	0.5	-	-	-	-	-	-	-	-
-개인양육받기	-	-	-	-	-	0.3	-	-	-	-	-	-
-기타 일상활동	1.0	0.3	0.5	0.3	0.8	0.5	1.0	0.3	-	0.3	-	-
② 학습	5.0	3.3	15.1	15.6	10.1	7.8	2.3	2.0	-	-	-	-
-학습 활동	0.3	-	0.3	-	-	-	-	-	-	-	-	-
-학과 학습 외 활동	4.8	3.3	14.9	15.6	9.8	7.3	2.3	2.0	-	-	-	-
-놀이 학습	-	-	-	-	0.3	0.5	-	-	-	-	-	-
-기타	-	-	-	-	-	-	-	-	-	-	-	-
③ 대리 양육	0.8	0.8	0.5	0.3	-	-	-	-	-	-	-	-
-기관이용	0.8	0.8	0.5	0.3	-	-	-	-	-	-	-	-
-양육도우미	-	-	-	-	-	-	-	-	-	-	-	-
④ 가정관리 돕기	-	0.3	-	0.3	0.3	-	0.3	0.3	-	-	-	-
-음식 준비 및 정리	-	0.3	-	-	-	-	-	-	-	-	-	-
-의류관리 돕기	-	-	-	-	-	-	-	-	-	-	-	-
-청소 및 정리 돕기	-	-	-	0.3	0.3	-	0.3	0.3	-	-	-	-
-기타 가정관리 돕기	-	-	-	-	-	-	-	-	-	-	-	-
⑤ 교제 및 여가 활동	23.9	23.4	38.0	33.0	23.9	12.6	4.8	2.0	0.8	0.5	-	-
-교제 활동	1.3	1.3	2.0	3.3	4.5	2.3	0.5	0.5	-	-	-	-
-미디어 이용	6.6	5.5	4.8	4.3	3.0	1.3	0.3	0.5	-	-	-	-
-종교 관련 활동	-	0.3	0.3	0.3	-	-	-	-	-	-	-	-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	-	-	-	-	-	-	-	-	-	-	-
-실외놀이	2.0	3.0	2.3	2.0	0.8	0.3	0.3	-	-	-	-	-
-실내놀이	13.6	13.4	28.7	23.2	15.6	8.8	3.8	1.0	0.8	0.5	-	-
-따라 하기	0.3	-	-	-	-	-	-	-	-	-	-	-
-아무 것도 안하고 쉬	0.3	-	-	-	-	-	-	-	-	-	-	-
-기타 여가관련 활동	-	-	-	-	-	-	-	-	-	-	-	-
⑥ 이동하기	5.5	0.8	1.0	-	0.5	-	0.3	0.3	-	-	-	-
-개인유지관련 이동	-	-	-	-	-	-	-	-	-	-	-	-
-학습관련 이동	-	-	-	-	-	-	-	-	-	-	-	-
-대리양육이용 전후 이동	3.0	0.3	0.3	-	0.3	-	-	-	-	-	-	-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	-	0.8	-	-	-	0.3	-	-	-	-	-
-기타 이동하기	2.5	0.5	-	-	0.3	-	-	0.3	-	-	-	-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	-	-	-	-	-	-	-	-	-	-	-
⑦ 그 외 기타활동	0.3	-	0.3	0.5	-	0.3	0.3	-	-	-	-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부표 8-8〉 주말 오전 행위 비율: 전체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5:00	5:30	6:00	6:30	7:00	7:30	8:00	8:30	9:00	9:30	10:00	10:30	11:00	11:30	12:00
① 개인유지	100.0	100.0	99.3	98.8	96.0	89.2	79.9	77.8	73.3	52.9	35.8	22.7	23.2	31.8	63.0
-수면	100.0	100.0	99.0	97.8	90.2	73.3	45.6	28.0	9.8	3.5	2.8	2.0	4.3	6.1	10.3
-식사 및 간식	-	-	0.3	0.8	4.3	8.8	14.1	32.5	41.8	34.0	22.4	10.6	9.8	16.1	46.1
-개인관리	-	-	-	0.3	1.0	5.0	16.9	14.9	20.4	13.1	9.1	8.3	7.8	7.6	5.0
-건강관리	-	-	-	-	-	-	-	-	-	0.8	0.3	0.5	0.5	0.3	-
-개인양육받기	-	-	-	-	-	-	-	-	-	-	-	-	-	-	-
-기타 일상활동	-	-	-	-	0.5	2.0	3.3	2.5	1.3	1.5	1.3	1.3	0.8	1.8	1.5
② 학습	-	-	-	0.5	-	0.8	2.0	2.8	3.0	4.3	7.1	7.1	4.0	3.5	2.0
-학습 활동	-	-	-	-	-	-	-	-	-	-	-	-	-	-	-
-학과 학습 외 활동	-	-	-	0.5	-	0.8	2.0	2.8	3.0	4.3	6.1	7.1	3.8	3.3	2.0
-놀이 학습	-	-	-	-	-	-	-	-	-	-	-	-	0.3	0.3	-
-기타	-	-	-	-	-	-	-	-	-	-	1.0	-	-	-	-
③ 대리 양육	-	-	-	-	-	-	-	-	0.3	0.3	0.3	0.3	0.3	0.3	0.3
-가면이용	-	-	-	-	-	-	-	-	0.3	0.3	0.3	0.3	0.3	0.3	0.3
-양육도우미	-	-	-	-	-	-	-	-	-	-	-	-	-	-	-
④ 가정관리 돕기	-	-	-	-	-	-	0.3	0.3	0.5	0.3	-	0.3	0.5	0.3	-
-음식 준비 및 정리	-	-	-	-	-	-	0.3	-	-	0.3	-	-	-	-	-
-의류관리 돕기	-	-	-	-	-	-	-	-	-	-	-	-	0.3	-	-
-청소 및 정리 돕기	-	-	-	-	-	-	-	0.3	0.5	-	-	0.3	0.3	0.3	-
-기타 가정관리 돕기	-	-	-	-	-	-	-	-	-	-	-	-	-	-	-
⑤ 교제 및 여가 활동	-	-	0.8	0.8	3.8	9.3	16.9	18.1	21.7	38.8	48.6	61.5	63.7	56.4	27.5
-교제 활동	-	-	-	0.5	0.8	1.3	1.0	1.8	1.0	2.5	3.0	3.3	4.0	3.0	2.0
-미디어 이용	-	-	-	0.3	0.8	0.8	4.5	4.3	3.8	6.8	6.8	8.6	12.1	16.4	7.3
-종교 관련 활동	-	-	-	-	-	-	0.3	0.3	0.8	1.0	0.5	0.5	0.8	1.3	1.3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	-	-	-	-	-	-	-	-	-	0.3	1.3	1.3	1.0	0.3
-실외놀이	-	-	-	-	-	0.3	0.5	0.8	3.8	6.1	9.3	9.8	9.3	8.8	3.8
-실내놀이	-	-	0.8	-	2.3	7.1	10.3	10.8	12.3	21.9	26.7	35.5	34.0	23.4	10.1
-따라 하기	-	-	-	-	-	-	0.3	-	-	0.5	1.3	1.5	2.0	2.0	2.0
-아무 것도 안하고 쉬	-	-	-	-	-	-	-	0.3	-	-	0.8	1.0	0.3	0.5	0.8
-기타 여가관련 활동	-	-	-	-	-	-	-	-	-	-	-	-	-	-	-
⑥ 이동하기	-	-	-	-	-	0.3	0.3	0.3	0.3	1.5	3.5	2.0	2.3	3.8	3.3
-개인유지관련 이동	-	-	-	-	-	-	-	-	-	-	0.3	-	-	0.5	0.5
-학습관련 이동	-	-	-	-	-	-	-	-	-	-	-	-	-	-	-
-대리양육이용 전후 이동	-	-	-	-	-	-	-	-	-	-	-	-	-	-	-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	-	-	-	-	-	0.3	0.3	-	0.5	1.5	1.0	0.8	0.5	0.5
-기타 이동하기	-	-	-	-	-	0.3	-	-	0.3	1.0	1.8	1.0	1.5	2.8	2.3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	-	-	-	-	-	-	-	-	-	-	-	-	-	-
⑦ 그 외 기타활동	-	-	-	-	0.3	0.5	0.8	0.8	1.0	2.0	4.8	6.3	6.1	4.0	4.0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표 8-9〉 주말 오후 행위 비율: 전체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12:30	13:00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① 개인유지	73.1	67.3	61.5	58.9	52.4	40.8	29.2	23.7	27.0	34.6	46.9
-수면	16.1	34.3	44.8	41.1	28.0	16.4	10.1	8.8	6.1	4.0	2.5
-식사 및 간식	51.9	27.7	11.3	11.6	13.6	13.9	11.3	7.3	6.1	8.8	17.9
-개인관리	3.8	4.0	4.5	5.8	9.3	9.6	7.1	6.8	13.9	20.7	25.4
-건강관리	-	0.3	-	-	0.3	-	-	-	-	-	-
-개인양육받기	-	-	-	-	-	-	-	-	-	-	-
-기타 일상활동	1.3	1.0	0.8	0.5	1.3	1.0	0.8	0.8	1.0	1.0	1.0
② 학습	1.3	1.8	1.5	2.3	1.8	1.5	2.0	3.0	1.8	3.8	7.6
-학습 활동	-	-	-	-	-	-	-	-	-	-	0.3
-학과 학습 외 활동	1.3	1.8	1.5	2.0	1.8	1.5	2.0	3.0	1.8	3.8	7.1
-놀이 학습	-	-	-	-	-	-	-	-	-	-	0.3
-기타	-	-	-	0.3	-	-	-	-	-	-	-
③ 대리 양육	0.3	0.3	0.3	0.3	0.3	0.3	0.3	0.3	0.3	-	-
-기관이용	0.3	0.3	0.3	0.3	0.3	0.3	0.3	0.3	0.3	-	-
-양육도우미	-	-	-	-	-	-	-	-	-	-	-
④ 가정관리 돕기	0.3	-	-	0.3	-	-	-	-	-	-	1.5
-음식 준비 및 정리	-	-	-	0.3	-	-	-	-	-	-	1.5
-의류관리 돕기	-	-	-	-	-	-	-	-	-	-	-
-청소 및 정리 돕기	0.3	-	-	-	-	-	-	-	-	-	-
-기타 가정관리 돕기	-	-	-	-	-	-	-	-	-	-	-
⑤ 교제 및 여가 활동	19.7	25.2	27.7	25.4	28.7	33.3	43.3	47.1	50.5	42.7	35.0
-교제 활동	2.3	2.3	1.8	2.0	2.8	2.0	3.0	3.5	3.5	3.5	3.0
-미디어 이용	2.8	5.0	4.3	2.0	1.5	1.0	1.3	2.3	4.8	7.3	7.3
-종교 관련 활동	0.5	0.3	0.3	-	-	-	-	-	-	-	-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	0.5	0.5	0.8	0.8	1.0	1.0	1.3	0.5	0.3	-
-실외놀이	4.3	5.5	6.8	9.3	10.6	13.4	18.9	19.7	14.9	8.1	3.0
-실내놀이	6.6	9.1	11.3	7.1	8.8	10.6	10.8	12.6	18.2	18.4	15.4
-따라 하기	3.3	2.3	2.5	4.3	4.3	4.8	8.1	7.8	8.1	4.6	5.0
-아무 것도 안하고 쉬	-	0.3	0.3	-	-	0.5	0.3	-	0.5	-	1.3
-기타 여가관련 활동	-	2.0	-	-	-	-	-	-	-	-	-
⑥ 이동하기	2.5	2.8	3.8	2.8	4.0	7.3	8.6	10.3	7.6	13.4	7.6
-개인유지관련 이동	0.8	-	-	0.5	-	0.5	-	0.3	-	0.3	0.5
-학습관련 이동	-	-	-	-	-	-	-	-	-	-	-
-대리양육이용 전후 이동	-	-	-	-	-	-	-	-	-	-	-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0.3	0.8	0.8	-	-	0.5	0.8	0.8	0.5	0.5	-
-기타 이동하기	1.5	2.0	3.0	2.3	4.0	6.3	7.8	9.3	7.1	12.6	7.1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	-	-	-	-	-	-	-	-	-	-
⑦ 그 외 기타활동	3.0	2.8	5.3	10.1	12.9	16.9	16.6	15.6	12.9	5.6	1.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부표 8-10〉 주말 저녁 행위 비율: 전체

단위: %, 시간:분

행동영역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21:30	22:00	22:30	23:00	23:30
① 개인유지	66.8	69.5	43.3	52.4	69.8	86.4	93.2	96.0	98.2	99.5	99.8	99.8
-수면	0.5	1.5	2.3	6.1	34.8	60.0	75.8	85.1	88.4	91.2	91.2	91.4
-식사 및 간식	51.4	58.9	27.0	9.1	3.8	3.3	0.5	0.3	-	-	-	-
-개인관리	13.9	8.1	12.6	36.5	30.0	21.7	15.4	10.3	9.6	8.1	8.3	8.1
-건강관리	-	-	-	-	0.3	-	-	-	-	-	-	-
-개인양육받기	-	-	-	-	-	-	-	-	-	-	-	-
-기타 일상활동	1.0	1.0	1.5	0.8	1.0	1.5	1.5	0.3	0.3	0.3	0.3	0.3
② 학습	4.5	3.0	13.4	12.9	9.1	4.8	1.5	1.3	0.5	0.3	-	-
-학습 활동	-	-	-	-	-	-	-	-	-	-	-	-
-학과 학습 외 활동	4.5	3.0	13.4	12.9	9.1	4.8	1.5	1.3	0.5	0.3	-	-
-놀이 학습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③ 대리 양육	-	-	-	-	-	-	-	-	-	-	-	-
-기관이용	-	-	-	-	-	-	-	-	-	-	-	-
-양육도우미	-	-	-	-	-	-	-	-	-	-	-	-
④ 가정관리 돕기	1.0	-	0.3	0.3	-	-	-	-	-	-	-	-
-음식 준비 및 정리	0.8	-	-	0.3	-	-	-	-	-	-	-	-
-의류관리 돕기	-	-	-	-	-	-	-	-	-	-	-	-
-청소 및 정리 돕기	0.3	-	0.3	-	-	-	-	-	-	-	-	-
-기타 가정관리 돕기	-	-	-	-	-	-	-	-	-	-	-	-
⑤ 교제 및 여가 활동	23.9	23.7	40.1	32.0	19.7	7.6	4.3	2.5	1.0	-	-	-
-교제 활동	3.3	3.0	5.3	3.8	2.0	1.5	1.3	0.3	-	-	-	-
-미디어 이용	4.8	5.0	6.6	4.8	2.3	1.3	0.5	0.3	-	-	-	-
-종교 관련 활동	-	-	-	-	-	-	-	-	-	-	-	-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	-	-	-	-	-	-	-	-	-	-	-
-실외놀이	2.3	1.5	2.3	2.0	1.3	0.3	-	-	-	-	-	-
-실내놀이	10.1	11.6	23.4	20.2	13.6	4.3	2.3	1.8	1.0	-	-	-
-따라 하기	3.0	2.0	2.3	0.8	0.3	-	0.3	0.3	-	-	-	-
-아무 것도 안하고 쉼	0.5	0.3	-	-	-	-	-	-	-	-	-	-
-기타 여가관련 활동	-	0.3	0.3	0.3	0.3	0.3	-	-	-	-	-	-
⑥ 이동하기	2.8	3.5	2.8	2.5	0.8	0.5	1.0	0.3	0.3	0.3	0.3	0.3
-개인유지관련 이동	0.3	-	-	-	-	-	-	-	-	-	-	-
-학습관련 이동	-	-	-	-	-	-	-	-	-	-	-	-
-대리양육이용 전후 이동	-	-	-	-	-	-	-	-	-	-	-	-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	-	-	0.3	-	-	-	-	-	-	-	-
-기타 이동하기	2.5	3.5	2.8	2.3	0.8	0.5	1.0	0.3	0.3	0.3	0.3	0.3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	-	-	-	-	-	-	-	-	-	-	-
⑦ 그 외 기타활동	1.0	0.3	0.3	-	0.8	0.8	-	-	-	-	-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2023)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4  
(Korean ECEC Panel Study)

